

고구려통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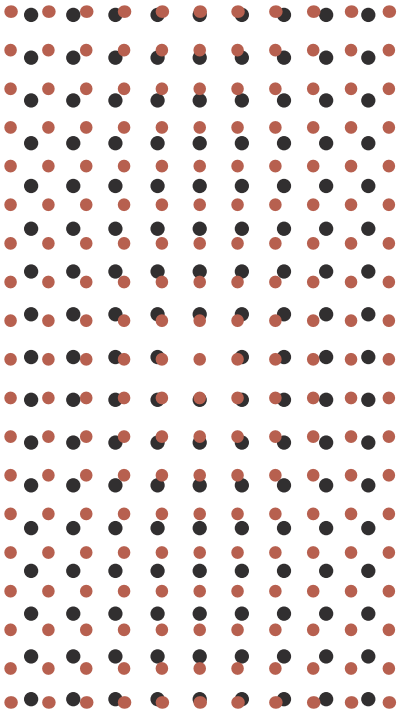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수·당 전쟁



고구려통사 ⑥

#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수·당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 『고구려통사』의 편찬 목적과 주안점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상을 보였던 분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의 초기 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사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이 새롭게 모색되었으며, 정치사와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주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고학에서는 북한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개설적인 정리를 시도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 고고자료가 소개되고 임진강 이남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면서 고분벽화·고분·토기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물이 나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집약하여 고구려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며, 새로운 연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첫째, 축적된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학계가 이용하고 있는 고구려사 개설서나 개인 연구자의 연구서들은 발간 당시의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과거

의 이해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더해졌지만, 학문적 성과를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정리물이 절실하다.

둘째,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할 필요성이다. 그동안 고구려사 연구가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재검토가 요청되는 선부른 결론도 보인다. 이 경우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하여 이제 막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학술적으로 타당한 이해를 토대로 고구려사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구려통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위원회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역사상에 충실하며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집필이 가능할 것인가였다. 기획위원으로는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기섭(경기도 박물관 관장), 정호섭(고려대학교 교수), 양시은(충북대학교 교수),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가 참여하였다. 『고구려통사』 총서는 시대별 특징과 고고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기사(전 2권), 중기사(전 2권), 후기사(전 3권), 고고자료(전 2권), 그리고 총론(1권)으로 구성하였다.

각 권은 주제와 시기를 달리하지만, 체계와 내용의 주안점에서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일관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책임지고 해당 장절을 집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편목별 내용구성안과 집필기준에 따라 원고를 작성토록 하였다.

한편, 고구려사 연구가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발전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식 연구가 추동한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구려사를 핵심과제로 다루었고, 자연스럽게 고구려사를 구성한 제 분야를 섭렵하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유민묘지(遺民墓誌)나 『한원(翰苑)』 등 1차사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점에서 『고구려통사』는 세 번째 주안점을 새로운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충실한 소개와 중국 측 논거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종합적 이해의 제시에 두었다.

『고구려통사』 발간은 이러한 고구려사의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정리 하여 학계와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막 입문한 이들에게는 고구려사의 주요 맥락과 과제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라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간 알지 못했던 고구려의 새로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획위원회를 대신하여

김현숙

## 차례

책머리에 / 5

# 1

## 고구려와 수의 전쟁

### 1장 수의 등장과 고구려의 대응 / 김현숙

1. 수 건국 이전 요서 지역의 상황 / 15
2. 수의 건국과 고구려의 상황 변화 / 21
3. 수의 중원 통일과 영주총관부의 설치 / 29

### 2장 고구려·수의 갈등 심화와 주변국의 동향 / 이정빈

1. 598년 영양왕의 요서 공격과 배경 / 45
2. 주변국의 동향과 갈등의 심화 / 55
3. 양국의 전쟁 결정과 국지전의 개시 / 64

### 3장 고구려의 수군 격퇴와 그 영향 / 정동민

1. 612년 수의 고구려 원정 준비 / 82
2. 612년 고구려-수 전쟁 / 94
3. 613~614년 고구려-수 전쟁 / 104

# 2

## 고구려와 당의 전쟁

### 4장 당의 등장과 국제정세의 변동 / 이성제

1. 수 말의 혼란과 당의 재통일 / 125
2. 당의 재통일을 전후한 시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 133
3. 고구려의 대당정책과 당의 대응 / 145

### 5장 연개소문 정변과 동아시아 국제정세 / 정호섭

1.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동향 / 162
2. 연개소문 가문과 정변 / 172
3. 연개소문 정권과 고당전쟁의 배경 / 182

### 6장 고구려-당 전쟁의 전개 / 임기환

1. 당의 고구려 원정 선포와 원정군의 규모 / 203
2. 고구려-당 전쟁의 개시와 전개 / 212
3. 당의 고구려 공격전략 변화와 재원정 준비 / 239

## 3

##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와 수·당과의 전쟁

### 7장 고구려 군사방어체계의 역사적 변천 / 여호규

1. 졸본·국내성기 도성의 구성과 군사방어체계 / 256
2. 1~4세기 전쟁 양상과 군사방어체계의 변천 / 262
3. 평양 천도와 군사방어체계의 재구축 / 270

### 8장 요동 지역의 군사방어체계와 천리장성 / 여호규

1. 성곽의 분포현황과 군사방어체계의 구성 / 301
2. 수·당과의 전쟁에 나타난 군사방어체계의 운용 양상 / 318
3.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조 배경 / 332

### 9장 한반도 서북한 지역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심광주

1. 압록강에서 평양까지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356
2. 임진강에서 평양까지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371
3. 임진강 이남 지역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386

찾아보기 / 396



# 고구려와 수의 전쟁

1장 수의 등장과 고구려의 대응

2장 고구려·수의 갈등 심화와 주변국의 동향

3장 고구려의 수군 격퇴와 그 영향



## 1장

# 수의 등장과 고구려의 대응

김현숙 |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고구려의 최전성기는 5세기 대였다. 영토와 주민 수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부가가치 상승, 이것을 견인한 국내의 정치적 안정이 전성기를 이끈 주요 요소였다. 외부 요인으로는 오랫동안 유지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들 수 있다. 남·북조로 나뉘어 있는 중원 지역, 유연(柔然)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세력, 그리고 독자적 천하관 아래 구축된 고구려 세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한쪽이 무력으로 깨뜨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노태돈, 1984).

그러나 6세기 중엽이 되면서 이러한 세력균형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균열은 먼저 유목세력에서 일어났다. 유연의 지배 아래 있던 돌궐(突厥)이 550년경 급성장하여 유연의 예하에서 벗어나 세력을 키움으로써 국제질서에 변동을 가져오는 변수가 되었다. 고구려 중심의

세력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고구려의 보호 아래 성장한 신라가 그늘에서 벗어나 백제와 우호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고구려 서변 일대에서 일어난 소요를 기회로 삼아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 중심의 천하가 흔들리게 되었다.

균열과 충돌은 중원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6세기 전반 북위(北魏)가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분열되었고, 6세기 중반에 동위를 이어 북제(北齊)가 들어서고, 서위를 이어 북주(北周)가 들어섰다. 두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575년 마침내 북주가 북제를 정복했다. 6년 뒤인 581년 양견(楊堅)이 한족(漢族) 관료들의 지지를 받아 북주 정권을 탈취하여 수(隋) 왕조를 개창했다. 그리고 589년 수가 50여 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남조의 진(陳)을 멸망시킴으로써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중원 지역을 통일했다.

수는 북주 대부터 진행해온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역량을 키웠는데, 북주 때와 달리 초창기부터 주변 세력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했다. 수는 중원을 통일한 기세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 질서를 수립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힘의 균형 속에 각자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해왔던 동아시아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전환을 두고 서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게 되었다.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은 수와 돌궐, 고구려였다. 이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기에 앞서 요서 일대에 있던 거란(契丹), 말갈(靺鞨), 해(奚), 습(霫), 실위(室韋) 등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였다. 따라서 이 시기 요서 지역은 강대 세력의 진출 노력이 숨가쁘게 추진되는 가운데 요서 제족(諸族)이 자구책을 도모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현상이 되었다. 당시 요서 서쪽 방면, 수와 서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되는 곳에 토옥혼(吐谷渾)이 있었다. 또 고구려 동남쪽 방면에는 수와 외교관계를 맺고자 애쓰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외곽에 고구려가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을 위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본 왜가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세력 간 충돌, 협력, 분열, 이탈, 구애 등 각종 활동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1. 수 건국 이전 요서 지역의 상황

6세기 중엽 돌궐이 초원 유목지역의 패자가 되었다. 돌궐은 알타이 산을 본거지로 대대로 야철업에 종사하던 부족으로 5세기 중반부터 유연에 복속되었다. 돌궐은 사서에 ‘흉노별종(匈奴別種)’, 혹은 ‘평량잡호(平涼雜胡)’라 되어 있다. 흉노 북쪽에 거주했던 정령(丁零)의 한 갈래로 고차(高車), 철륵(鐵勒)과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

돌궐이 유연을 대신해 북방의 강자로 부상하자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던 북제와 북주는 서로 먼저 돌궐과 화친을 맺으려 했다. 돌궐은 주위세력의 견제 없이 더욱 성장하여 몽골초원에서 지금의 카스피해에 이르는 곳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주변의 에프탈(嚙噠)과 사산조페르시아 등을 격파하고 동로마제국과 직접 교섭을 도모하는 한편, 소그드 상인을 이용하여 동서 교역을 주도했다(강선, 2006). 돌궐은 이때 교역에 필요한 물자, 특히 비단을 중국에서 약탈이나 공납 등의 방법으로 획득하였다.

타발가한(佗鉢可汗) 시기 돌궐이 중원을 침공하려 하자 북주는 매년

온갖 종류의 비단 10만 단(段)을 바치고 겨우 침략을 모면하였다. 당시 북주가 경사(京師)에 체류한 돌궐인을 극진히 예우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 상당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북제 역시 그들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많은 비단과 물자를 바쳤다. 『주서(周書)』에 “남방의 두 자식(북주, 북제)이 효성스럽고 순종하니 어찌 물자 부족을 근심하라” 했다는 타발가한의 의기양양한 언급은 당시 돌궐과 중원세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돌궐에 제공할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고”, “부고(府庫)의 재물을 모두 소진할” 정도였다고 『수서(隋書)』 북적전(北狄傳)에 나올 정도였다(정순모, 2012).

유목국가는 엄혹한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정착민들과 교역을 하거나 약탈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갈 수밖에 없었다. 중국으로서는 진한대 이래 유목세력의 침입과 약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해왔다. 6세기 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돌궐과 가까운 중국의 북방 지역은 유목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는 곳이었다. 중국 왕조들은 유목민들의 약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시(互市)를 개설하여 교역을 하거나 공물(貢物)을 주는 유화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 행동을 통해 침략을 저지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다. 당시 돌궐은 일상용품의 획득에 그치지 않고 동서 중계무역에 사용할 물건을 중원으로부터 조달하려 했으므로 더 많은 물자가 필요했다(정순모, 2012). 북주와 북제의 분열은 중국에서 물자를 획득해야 하는 돌궐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했다.

6세기 중후반경 요서 지역에는 강대세력인 돌궐과 그 영향력 아래 있던 거란, 해, 습, 말갈, 북제의 영주자사(營州刺史)인 고보녕(高保寧) 세력, 그리고 이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 들어와

있던 고구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중 고보녕 세력은 지금의 중국 요령성 조양(朝陽)에 있던 황룡성(和龍城)에 웅거하고 있었다.

고보녕은 『북제서(北齊書)』에 대인(代人)으로 그 내력을 알지 못한다고 나온다. 그는 북제 무평(武平, 570~576년) 말엽 영주자사가 되었는데, 이하(夷夏)가 그의 위엄과 신망을 귀중히 생각했다고 한다. 또 『수서』 음수전(陰壽傳)에는 고보녕이 북제 왕실의 먼 친척이었는데, 사람됨이 사납고 교활하며 속셈이 있어서 북제 때 황룡성을 오래도록 진수하고 있었고, 북제가 멸망하자 북주의 무제로부터 다시 영주자사직을 수여받았고, 화이의 마음을 깊이 얻었다고 나온다. 『북제서』에 이하가 고보녕의 위엄과 신망을 귀중히 생각했다고 한 것과 『수서』에 그가 화이의 마음을 깊이 얻었다는 것은 모두 고보녕이 북제와 북주의 영주자사로 있으면서 한인(漢人)뿐 아니라 거란 등 요서 제종족을 잘 다스려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보녕은 북제의 영주자사였지만 북제 멸망 후 북주로부터 영주자사직을 다시 받아 북주의 관인으로서 요서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578년 6월 노창기(盧昌期)가 북주 무제의 사망을 틈타 범양성(范陽城: 河北省涿州)을 점거하고 북제 부흥운동을 벌일 당시 그에 호응하여 이하의 기병 수만 명을 이끌고 갔다. 그러나 노창기의 봉기가 실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했다(이정빈, 2018). 고보녕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북제 부흥운동에 동참할 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고보녕은 581년에 돌궐의 사발략가한(沙鉢略可汗, 581~587년)과 연합하여 582년과 583년에 수를 침공했으나 실패했다.

요서 지역에 웅거했던 고보녕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를 두고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당시 돌궐, 고보녕 세력, 고구려가 연합하여 북주에

맞았다고 보는 설이다(김택민, 2014). 즉 570년대 후반에 돌궐, 고보녕 세력, 고구려가 반북주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고구려와 돌궐이 오랫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근거 사료는 온달이 평원왕(559~590년) 대에 후주(後周) 무제의 요동 정벌에 맞서 이산(隸山)의 들판에서 전투를 하였다고 나오는 『삼국사기』 온달전의 기사가 유일하다. 온달전에 나오는 후주를 북주라고 본 것이다(李基白, 1996; 김진한, 2020).

그런데 당시 고구려와 북주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양국이 직접 군사적 충돌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고구려가 말갈병과 거란병을 보내 고보녕 세력을 지원했다고 보는 설이 나왔다(韓昇, 1995;王小甫 주편, 2003; 金鎮漢, 2010; 趙娟, 2011; 鄭媛朱, 2013). 고보녕이 동원했다는 말갈병과 거란병이 원래 고구려 세력 아래 있던 병력이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시 국제적으로 돌궐·고보녕·고구려 연합세력과 북주가 대결구도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다른 하나는 온달전에 나오는 후주를 고보녕 세력으로 본 설이다(여효규, 2002; 이정빈, 2018; 정동민, 2021). 이 설의 경우, 북주의 무제(560~578년)가 고구려를 공격한 사실이 온달전에만 보인다는 점, 당시 두 나라가 영역을 마주한 적이 없다는 점, 이때 요서에 고보녕 세력이 웅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북주가 고보녕 세력을 배제한 채 직접 전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정빈, 2018) 등을 감안할 때, 온달전의 후주는 북주가 아니라고 보았다. 평원왕이 북주를 계승한 수로부터 높은 책봉호를 제수받았다는 점, 돌궐이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가 대립관계에 있었던 돌궐과 연합하여 북주와

싸울 이유가 없다는 점, 수 문제가 583년 돌궐 토벌에 나서면서 내린 조서에 돌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상으로 고구려가 언급된 점(정동민, 2019; 2021)도 근거로 삼았다. 이 설의 경우 돌궐·고보녕 세력과 고구려가 당시 요서 지역에서 서로 대결하고 있었다고 본다.

온달전에 나오는 후주를 북주라 보는 설과 고보녕 세력으로 본 설 모두 근거 사료가 다른 사서에 전혀 나오지 않고 『삼국사기』 온달전에만 나온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다. 온달전 자체가 설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국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달전의 내용이 사료로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한다.

수 건국 이전 시기에 요서 지역을 둘러싼 세력들의 역학구도가 어떠한지는 수 건국 이후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추후의 상황 전개를 통해 이전 시기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는 북주 정권을 탈취하여 세운 나라였지만 정치제도나 정책 등 제반 면에서 북주를 승계한 나라였다. 그런데 수 건국 이후 고구려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때,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물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으므로 이전 왕조 때 일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주와 싸웠다는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은 때이고 인적 구성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므로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하고 새롭게 관계를 체결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와 북주가 직접 군사적 충돌을 한 적은 없었다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보녕이 577년 10월까지의 북주와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북주의 영주자사였으므로,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 고보녕 세력이 북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 있다(이정빈, 2018). 고구려와 북주는 당시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요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세력은 돌궐과 고보녕 세력이었다. 돌궐은 양원왕 대에 고구려의 서변 요충지인 신성(新城)을 포위, 공격해 왔다. 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고구려 서변지역의 안정이 깨지게 되었다. 돌궐과 고보녕 세력은 서로 힘을 모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요서 지역에서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충돌한 세력은 북주보다는 돌궐과 고보녕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돌궐·고보녕 세력과 고구려는 왜 요서 지역에서 충돌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북제의 업성(業城)이 북주로부터 공격받자 고보녕이 한족으로 편성한 정예병과 거란·말갈 기병 만여 명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고자 했다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당시 고구려는 시라무렌강(Shira Müren) 유역에 거주하던 거란 부족 일부와 송화강(松花江) 일대에 거주하던 속말(粟末)말갈을 예하에 두고 있었고,嫩江(嫩江) 유역의 제제합이(齊齊哈爾)을 중심으로 흥안령(興安嶺)산맥 이동 이룩호(伊勒呼)산맥 이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실위(室韋)에 철을 수출했다(李龍範, 1966).

거란과 말갈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되지 않고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보녕이 이끈 거란·말갈과 고구려에 속해 있던 거란·말갈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거란과 말갈을 서로 자기 세력 아래 넣기 위해 고보녕 세력 및 그를 지원하는 돌궐이 고구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이 온달전에 나오는 이산전투였던 것이다. 이 정치세력들이 거란과 말갈을 두고 경쟁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 경제적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다.

## 2. 수의 건국과 고구려의 상황 변화

581년에 수가 건국하면서 요서 지역의 상황은 급변했다. 수의 연이은 공격으로 돌궐 세력이 약화되었고, 고보녕 세력도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요서 제종족이 새로운 강대세력인 수의 그늘에 들어가 생존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수는 예상과 달리 초기에는 본격적으로 요서 지역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력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힘의 공백기가 생겼고, 고구려는 이를 틈타 요서 지역 거란과 말갈 등에 대한 지배권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와 수는 요서 지역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수가 건국하자 고구려는 사신을 파견하여 축하했다. 581년 12월부터 584년까지 여덟 차례나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하는 등 외교 활동을 발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런 한편으로 수의 내부 정세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金善晷, 1984b; 여호규, 2002). 수는 고구려에 훈관과 작호로 구성된 책봉호를 내렸다. 이 책봉호에는 군사권의 위상과 범위를 나타내는 지절호(持節號), 장군호(將軍號), 도독제 군사호(都督諸軍事號) 등이 없고, 동이교위(東夷校尉)나 동이중랑장(東夷中郎將)도 없다. 이는 고구려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독자적인 세력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수의 입장을 보여준다(여호규,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수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585년에 갑자기 수에 대한 조공을 중지하고 진(陳)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를 두고 고구려, 돌궐, 진이 연대하여 수를 포위하려는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순모, 2012). 고구려는 무엇 때문

에 이렇게 대외정책의 방향을 급전환했을까?

건국 초기 수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돌궐이었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가 갈라져 있을 때 두 나라를 조정하면서 생존과 교역에 필요한 물품을 얻어냈다. 그러나 수가 건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는 북주와 달리 돌궐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수는 북주 때 돌궐에 바쳐왔던 세공(歲貢)을 중단하고, 장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을 보수하고 유주(幽州)와 병주(并州)에 군사를 주둔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때마침 자연재해까지 발생하여 돌궐의 생산기반은 더 약해지게 되었다(정재훈, 2016). 그러자 돌궐 지배 아래 있던 북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돌궐은 총체적으로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서 발생했다. 581년에 타발가한이 죽은 후 돌궐은 사발략가한과 그 동생인 처라후(處羅侯), 숙질형제인 아파가한(阿波可汗), 달두가한(達頭可汗), 돌리가한(突利可汗)이 서로 나뉘져 대립하고 있었다. 수는 이간책을 써 돌궐 세력을 분열시키면서 동시에 군사활동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사발략가한은 고보녕과 연계하여 임유진(臨渝鎮)을 공략했다. 이에 수는 장성을 수리하고 둔병을 두어 대비했다. 돌궐과 고보녕 세력은 582년 5월에 평주(平州)와 장성을 공격했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583년 4월 수 문제(재위 581~604년)는 돌궐에 대한 공격을 명하는 조서를 내리고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돌궐을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열시켰다. 수는 또 유주총관 음수(陰壽)를 파견하여 고보녕을 공격했다. 고보녕은 거란과 말갈을 동원하여 맞서 싸웠지만 황룡에서 대패했다. 고보녕은 거란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음수가 그 부하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이간책을 벌였다. 그 계책이 성공하여 고보녕은 결국 휘하 부하인

조수라(趙修羅)에게 살해되었고(김진한, 2020), 수는 영주(營州)를 차지하게 되었다.

584년 9월 동·서 돌궐 중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동돌궐의 사발락가한이 아파가한과 연합한 달두가한의 공격을 받자 수에 신하를 칭하며 항복했다. 585년 7월에는 사발락가한이 “대수 황제가 사해에서 유일한 황제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번부(藩附)하겠다”는 표문을 바쳤다. 그리고 다음 달 사발락가한의 아들 굴함진(屈含眞)이 입조했다. 그러자 수 문제는 양국이 군신관계를 맺었다는 조서를 내리고 굴함진을 주국·안국공(柱國·安國公)에 봉하였다. 수와 돌궐이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여호규, 2002). 돌궐의 내부 분열을 이용한 수의 이간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수는 사발락가한에 이어 즉위한 막하가한(莫何可汗)을 지원하여 아파가한을 사로잡게 하는 등(정동민, 2022) 이간술과 이제이책을 활용하여 돌궐을 계속 약화시켜 나갔다.

수는 그동안 요서 일대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던 돌궐과 고보녕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이곳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돌궐의 남은 세력도 경계해야 하고 서부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겨간 토욕혼과도 여러 차례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581~584년 경에는 아직 요서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할 여력이 없었다. 문제 시기에는 남조의 진을 공격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였으므로, 북방의 최대 적인 돌궐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서쪽의 토욕혼과 동쪽의 고구려와 최대한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려 했다(黃約瑟, 1994).

이런 수의 의중 및 상황과 달리 고구려는 돌궐과 고보녕 세력이 사라지고 수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 요서 지역으

로 세력 확대를 도모했다. 돌궐·고보녕 세력과 고구려가 충돌한 이유도 서로 이 지역에 있는 거란과 말갈 세력을 수하에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데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세력을 제거한 수가 요서 지역에 직접 지배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이곳에 세력을 부식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요서 지역 거주세력인 거란은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부족별로 나뉘어 있었다. 요서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하는 세력은 부족별로 나뉘어져 있는 이들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돌궐과 고보녕 세력, 고구려가 요서 지역에서 각축전을 벌일 때 거란은 하나의 방향으로 거취를 정하지 않았다. 어떤 부는 돌궐, 어떤 부는 고보녕 세력, 또 어떤 부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들어있었다. 이들을 지배하려는 외부의 강대세력도 그랬지만, 거란 자체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세력들과 유대관계를 맺거나 그 지배권 아래 들어가거나 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둘러싼 각축전이 더 오래,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사발략가한은 동돌궐을 통솔하기 시작한 572년 이후 토둔(吐屯) 반질(潘埴)을 파견하여 거란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돌궐의 토둔은 신속 집단에 파견되어 징세와 감찰을 담당했다(李在成, 1996;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따라서 돌궐이 반질을 파견했다는 것은 570년대에 돌궐이 거란의 주요 거주지인 요하 상류, 시라무렌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가 돌궐과 고보녕 세력을 공격했다. 돌궐이 수에 밀리고 고보녕 세력이 몰락하자, 그 예하에 있던 거란이 반질을 죽이고 달아났다. 이들은 새로운 세력인 수의 등장을 기회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돌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수 역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거란이 필요했다. 거란은 수가 돌궐을 공격할 때부터 수에 도움을 주었다. 581년 장손성(長孫晟)이 돌궐을 이간시키기 위해, 동쪽지역을 관장하던 처라후를 유인할 때, 거란이 해, 습과 함께 그를 인도했다. 이후 수가 돌궐과 고보녕 세력을 공격해 몰아내자 돌궐 지배하에 있던 거란주(契丹主) 막하불(莫賀弗)이 수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했다. 수는 막하불을 대장군에 임명하였다. 막하불은 585년 4월 수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친 거란주 다미(多彌)와 동일인으로서, 거란 제부(諸部)연맹의 대표자였다(李在成, 1996). 거란은 587년 수에 입조했다.

거란은 고구려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고자 했다. 돌궐이 약화된 후 요서 지역으로 진출해오는 고구려를 피해 수에 의지하는 길을 택했다. 586년 고구려 세력 아래 들어와 있던 거란인 출복(出伏) 일파가 수로 넘어갔다(여호규, 2002). 개황(開皇) 말에는 4,000여 가(家)가 수에 귀속했는데 부락이 점차 증가하여 동서 500리, 남북 300리에 걸쳐 10부로 나누어 거주하였다. 병(兵)이 많은 경우 3,000명, 적은 경우 1,000명으로 유목생활을 했다. 수는 병력이 필요할 때 거란 부족의 우두머리들과 상의하여 그들을 군대로 동원하였다(이성제, 2005b).

이런 일들은 요서 지역에서 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거란 전체가 안정적으로 수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도, 요서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것도 아니었다. 수에 귀부한 후 고지(故地)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거란 제부(諸部)의 상쟁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수에서 사신을 파견해 질책했고,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 사죄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거란 부들이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수가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

지 않아 거란 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요서 서북부에서 수의 세력이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이정빈, 2018). 583년 고보녕 세력을 몰아낸 다음에도 영주 지역에 총관부를 설치하지 못하고 유주총관에서 총괄토록 한 것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는 영주 지역 토착세력의 협력을 얻어 영향력을 확대했는데,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협력자는 영주 북방에 있던 거란이었다(이정빈, 2018).

수는 막하불이 사신을 파견해왔을 때 그에게 고구려왕에게 준 것과 같은 대장군을 제수해주었다. 이는 일부 거란 세력을 예하에 두고 있고 또 다른 거란 세력을 세력권 아래 넣고자 하는 고구려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였다. 즉 요서 지역에서 고구려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수도 이제 영주 회복과 거란의 내부(來附)를 계기로 요서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수가 요서 지역으로 본격 진출하려는 의지와 움직임이 보이자, 고구려는 사신 파견을 중단하고 외교를 단절했다(정동민, 2022).

이후 589년까지 요서 지역의 상황은 수 문제가 고구려에 보낸 새서(璽書)에 간략하게 나와 있다. 수는 새서에서 고구려가 말갈을 마구 부리고(驅逼), 거란을 억제(固禁)했다고 꾸짖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수에 사신 파견을 중단하고 남조의 진과 연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고구려는 거란에 대한 수의 태도를 보고 수와 외교를 통한 우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가 본격적으로 요서 지역을 장악하기 전에 이곳의 거란과 말갈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그래서 584년 5월 이후 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거란을 억제함으로써 수와의 연계를 차단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아직 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말갈 부족을 예하로 편입시켰다.

말갈은 6세기경 비로소 중국 사서에 이름이 나타나는 존재로 거란과 마찬가지로 통일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부족별로 나뉘어 있었다. 6~7세기경 가장 두드러진 세력이 속말(粟末), 백돌(伯咄), 안차골(安車骨), 불열(拂涅), 호실(號室), 백산(白山), 흑수(黑水)의 일곱 부족으로, 이를 말갈 7부라 불렀다. 이들 가운데 요서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던 부가 속말말갈이었다. 이들은 부여성이 있는 북류 송화강 일대에 거주했다. 고구려는 580년대 중반 돌궐이 쇠퇴하고 고보녕 세력이 몰락하는 가운데 요서 동북부 지역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 속말말갈을 세력권 아래 편입했다(李龍範, 1959; 日野開三郎, 1991; 노태돈, 1999; 임기환, 2006).

이 과정에서 북류 송화강 유역 서쪽에 있던 속말말갈 일파인 돌지계(突地稽) 세력이 고구려의 압력에 반발해 8부와 승병(乘兵) 수천 명을 이끌고 본거지에서 이탈해 수에 의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는 고보녕 세력의 중심지였던 유성(黃龍城)에 이들을 안치했다.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는 이들을 ‘영주의 경계’에 두었다고 나온다. 그리고 『신당서(新唐書)』 지리지에는 영주의 경계인 여라고성(汝羅故城)에 속말말갈의 항인(降人)을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여라고성은 요령성 의현(義縣) 왕민둔(王民屯)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정빈, 2018). 돌지계 집단을 이곳에 거주토록 한 것으로 보아 6세기 후반 수의 동쪽 경계는 의무려산(醫巫閭山)~대릉하(大凌河) 하류까지였다고 볼 수 있다.

속말말갈 역시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고구려의 지배를 거부

하고 이탈한 돌지계는 570년대 후반부터 580년대 전반까지 요서 말갈 중 고보녕 세력을 지원한 일파였다. 고보녕 세력이 돌궐과 연합했으므로 돌지계 역시 친돌궐파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가 우호적인 말갈 부들을 지원하는 한편, 돌지계 등 친돌궐 성향의 부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자, 이들이 결국 이탈해 수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이정빈, 2018).

고구려의 이 작전은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탈한 돌지계 일파를 제외하고 다른 속말말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구려 지배권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수가 건국했을 때 말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후 사신 파견을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하는 등 변화를 겪었다. 말갈의 경우 수에 사신을 보내고 중단하는 시점이 고구려와 거의 같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관할과 조정 아래 말갈의 사신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여호규, 2002). 이는 거란과 달리 속말말갈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구려가 남실위까지 무거운 철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요컨대 581년 수가 건국하자 고구려는 사신을 파견해 조공을 보내고 책봉을 받으며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수 역시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보다 남조의 진, 북방 초원지대의 돌궐, 서부지역의 토욕혼 등과의 문제가 더 우선이었으므로 고구려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했다. 돌궐을 공격하고 이간질로 분열시켜 세력을 약화시키고 고보녕 세력을 소멸시키면서도 요서 지역을 본격적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요서 지역에 잠시 힘의 공백이 생기자 고구려가 이를 틈타 이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했다.

고구려는 돌궐을 공격하고 고보녕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가

보여준 수 중심의 일원적 세계 구축의 의지를 확인하고 사신 파견을 중단한 뒤 진과의 교섭을 도모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요서 동북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한 결과, 거란 일부 세력과 속말말갈을 세력권 아래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수는 의무려산과 대릉하 하류를 기준으로 각각 동부와 서부를 세력범위로 두게 되었다(이정빈, 2018).

### 3. 수의 증원 통일과 영주총관부의 설치

589년 수가 진을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자 고구려도 기존의 대외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계속 세력 확장을 도모하면 강력한 통일제국과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와 직접 만나게 된 요서 지역이 문제였다.

수는 진을 무너뜨린 후 영주총관부를 새로 설치하고 유주총관부에서 관할하던 요서 지역을 따로 분리하여 통할토록 했다. 영주총관부의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580년대 후반설(이정빈, 2018)과 590년경설(여호규, 2002)로 나뉘져 있다. 영주총관부 설치의 수가 요서 지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서』 위예전(韋藝傳)에 의하면 위예는 초대 영주총관으로 부임하여 산업을 크게 일으켰다. 그는 북이(北夷)와의 교역을 통해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는 이유로 수 조정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기서 북이는 북방 이민족을 범칭한 것으로 요서의 거란과 말갈을 포함한 북방의 여

러 종족을 말한다. 즉 위에는 영주총관으로 부임한 후 요서 지역의 여러 북방 종족들과 조공을 통한 교역을 하고 호시를 개설해 화이(華夷) 교역을 허용함으로써(日野開三郎, 1991; 이성재, 2005a), 요서의 제종족을 포섭해나갔던 것이다. 위예가 부를 축적한 것은 개인적 욕심에 따른 치부라기보다는 화이교역의 부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주총관으로서 요서 지역 제종족을 회유하고 관할하기 위한 통치방식의 일환이었다. 화이교역은 물자가 부족한 유목·수렵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으므로 영주총관부의 이러한 요서정책은 요서 제종족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수가 요서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이정빈, 2018).

위예는 이적의 조알을 받을 때 반드시 의장(儀仗)과 시위(侍衛)를 정돈하고 옷을 잘 갖춰 입었으며, 홀로 곁상 하나(一榻)를 차지하고 앉았다고 한다. 수 영주총관으로서 권위를 과시하고자 한 것인데, 이 때문에 번인(番人) 즉 이적(夷狄)으로부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여러 종족에게 수의 위상을 보여주며 그들을 회유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영주총관을 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영주총관부가 북이 제종족을 관할한 방식은 직접 지배는 아니었다. 수는 돌지계나 출복처럼 내부한 말갈과 거란을 매개로 요서 제종족을 관할했다. 요서 지역 말갈과 거란에 대한 지배방식과 관련하여 당(唐) 전기 때 변경지역 번족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李錦繡, 1998;王永興, 2003; 鄭炳俊, 2005; 李永哲, 2010). 당은 귀부한 번족을 군진(軍鎮) 주변에 안치하고 부락조직을 보존하도록 했다. 번족은 형식적으로만 당의 지방통치체제에 편입되어 있었을 뿐 당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았고 조

세의 의무도 없었으며(程尼娜, 2002; 李永哲, 2011), 단지 전시에만 번병(蕃兵)으로 동원되었다. 영주총관부의 요서정책도 이와 유사했다(李錦繡, 1998; 이정빈, 2018). 고구려의 말갈과 거란 지배방식 역시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처럼 수가 영주총관부를 두고 화이교역을 통해 요서 제종족을 회유하고 관리하자, 자진해서 수로 들어오는 세력이 많아졌다. 593년 1월에 거란이 해, 습, 실위와 함께 수에 사신을 파견했다. 당시 거란은 서요하 남쪽의 노합하(老哈河) 지역, 습은 서요하 북쪽, 실위는 대흥안령산맥 동쪽과 눈강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이 수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은 수가 서요하와 대흥안령산맥 일대를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구려가 몽골 초원지역으로 나아갈 때 이용하는 교통로였다. 따라서 이 지역 세력이 고구려를 등지면 실위와의 철 교역에 차질이 생기고 그 아래 있는 말갈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권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여호규, 2002). 그런데 595년 위예를 이어 영주총관이 된 위충(韋沖)은 거란과 말갈을 위무하고 해와 습까지 조공을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수 문제는 이와 같이 요서 지역에 대한 지배 강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면서 고구려 평원왕에게 엄중 경고를 하는 새서를 보냈다. 이 새서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590년 설과 597년 설이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이를 평원왕 32년, 즉 590년으로 편년했고, 『수서』와 『자치통감』에는 597년에 새서가 전해진 것으로 나온다. 『삼국사기』에는 “『수서』와 『자치통감』에 고조가 조서를 개황 17년에 내려주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분주(分註)를 달아 놓았다. 기왕에는 중국 사

서에 따라 597년 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신채호, 1975; 김택민, 2014), 근래에는 590년설이 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日野開三郎, 1996; 여호규, 2002; 이정빈, 2018; 정동민, 2022). 새서를 받은 이후 고구려왕이 서거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새서는 590년에 평원왕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수 문제는 새서의 첫머리에 “(자신이) 천명을 받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고구려왕에게 바다 한 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각자 저마다 뜻을 이루게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다음에 “왕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매년 조공을 바치며 번부(藩附)라고 하지만,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구려가 수에 저지른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왕이 남의 신하가 되었으면 모름지기 짐과 덕을 같이 베풀어야 할 텐데, 오히려 말갈을 마구 부리고 거란을 억제했다”고 하면서 “여러 번국이 머리를 조아려 나에게 신첩 노릇을 하는데, 착한 사람이 의리를 사모하는 것을 분개하여 끝까지 방해하려 한다”고 질책했다.

이를 통해 새서를 보낼 당시 수 문제의 최대 관심이 말갈과 거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말갈을 마구 부렸다는 것은 속말 말갈을 세력권 아래 넣었고 그 과정에서 돌지게 집단처럼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도록 한 것을 말한다. 또 거란을 억제했다는 것은 수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거란 부들을 단속한 것을 가리킨다(李龍範, 1959; 日野開三郎, 1991; 노태돈, 1999; 임기환, 2006). 거란을 금고했다는 것은 거란 부들이 수와 자유롭게 화이교역을 하는 것을 막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이성제, 2005b). 화이교역을 허용할 경우, 수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를 가로막았을 것이다(이정빈, 2018). 즉 수

문제는 580년대 후반 고구려가 요서 지역의 거란과 말갈을 수하에 넣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새서에서는 또 고구려가 첩자를 수에 파견해 쇠뇌 기술자를 피어서 데려갔고, 고구려로 간 수나라 사신을 공관(空館)에 앉혀두고 활동을 통제했던 것을 지적했다. 종종 기마병을 보내 변경 사람을 살해하고, 여러 차례 간계를 부려 사설(邪說)을 지어냈으며, 불신감에 젖어 언제나 의심하여 사인(使人)을 보낼 때마다 소식을 밀탐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것은 진이 멸망한 후 고구려가 수의 공격에 대비하여 ‘수거지책(守拒之策)’을 세웠던 것을 가리킨다. 고구려는 진이 멸망하자 수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모으는 등 대책을 세웠다. 수 문제는 새서에 이 점을 거론하면서 고구려가 수에 대항하여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듯 경고를 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을 세우는 일은 인근에 통일된 초강대국이 들어섰을 때 어떤 나라라도 응당 강구했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새서를 보내 경고까지 한 것은 5세기 대처법 고구려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며, 수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할 것이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새서의 다음 부분에서는 고구려의 이런 여러 행위에 대해 “순수한 신하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소? 이는 모두 짐의 훈도(訓導)가 밝지 못한 연유이므로, 왕의 잘못을 모두 너그러이 용서하겠으니,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고치기 바라오. 번신(藩臣)의 예절을 지키고 조정의 정전(正典)을 받들어, 스스로 그대 나라를 교화시키고 남의 나라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길이 부귀를 누릴 것이며 진실로 짐의 마음에

드는 일ियो”라고 했다. 지금까지 고구려가 했던 일은 용서할 테니 이후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즉 580년대 중반 고구려가 돌궐의 약화를 틈타 요서 지역의 거란 일부와 말갈을 편입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후에는 남의 나라를 거스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사실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는 새서에 나오는 “왕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매년 조공을 바치며 번부라고 하지만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았다”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왕조는 진한 이래 자국의 어법과 자국 중심의 대외교류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왔다. 이에 대해 상대국들도 자국의 필요와 처한 상황 및 국력에 따라 중국 왕조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었다. 하지만 중국의 사정과 국제적 역학관계가 변화되면 그러한 관계는 의미가 없게 된다. 고구려의 경우 특히 그런 면이 두드러진다. 고구려에서는 중국 왕조의 요구에 따르면서도 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국의 필요와 정책에 따라 대외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상황을 지적해서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金鍾完, 2004; 김택민, 2014). 수와의 관계에서 고구려는 외교를 통한 우호관계를 추구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선공도 불사했다. 외교관계도 상황에 따라 끊기도 하고 필요하면 낮은 자세로 조공하고 책봉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구려는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영양왕은 즉위년(590년)에 수로부터 종전보다 한 단계 낮은 상개부의동삼사(上開府儀同三司) 요동군공(遼東郡公)이란 책봉호를 받았다. 이것은 584년 거란의 막하불이 받았던 대장군보다 낮고, 백제 위덕왕과 급이 같은 책봉호였다. 그러나 새서에서 고구려가 피책봉국의 의무를 범했지만 그것이 고구려만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혼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종전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고구려로서는 새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록 새서의 뒷부분에서 진과 고구려를 비교하며 협박을 하는 등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고구려로서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존 세력권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여호규, 2002; 李成制, 2005; 이정빈, 2018). 이에 따라 영양왕 2년(591년) 정월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표(表)를 올려 왕으로 봉해줄 것을 청했다. 이해 3월 수 문제는 영양왕을 고구려왕으로 봉하고 수레와 의복을 보냈다.

590년경부터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신을 보내고 작호를 내려 주고 한 것은 새서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로서, 수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고구려는 다른 나라를 범하지 않겠다는 상호 간 약속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와 수의 관계가 회복된 직후인 591년 12월부터 말갈은 건수사를 다시 파견했다. 이는 새서에 담긴 수 문제의 주문에 대한 고구려의 화답이었고(여호규, 2002), 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고구려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고구려와 수의 우호관계는 오래 가지 않았다. 수는 패권국으로서 자국 우위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고구려는 통일제국의 위협 아래 자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외교정책을 우선적으로 구사했지만, 교역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거나 세력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으면 군사활동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요서 지역 제종족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할 의사가 없었다. 고구려와 수, 두 나라는 결국 충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 김락기, 2013, 『高句麗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研究-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 一潮閣.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_\_\_\_\_,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태돈 외, 2019,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a,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8: 周書·隋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0b,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9: 北史 外國傳 譯註(上)』, 동북아역사재단.
-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 사마광 지음, 권중달 옮김, 2008, 『자치통감』 18·19, 삼화.
- 신체호, 단재신체호선생기념사업회 엮음, 1975, 『단재신체호전집』 상, 형설출판사.
- 여호규 외, 2006,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학회 편, 2006,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이기백,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성제, 2005a,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

- 으로』, 국학자료원.
- 李在成, 1996, 『古代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 이정빈, 2018, 『고구려-수 전쟁: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주류성.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_\_\_\_\_, 2022,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 임용한, 2001, 『전쟁과 역사-삼국 편』, 해안.
- \_\_\_\_\_, 2012, 『한국고대전쟁사 2-사상 최대의 전쟁』, 해안.
- 鄭求福 外, 1997,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정동민, 2022, 『고대 동아시아 최대의 충돌, 고구려-수 전쟁』, 신서원.
- 정재훈, 2016, 『돌궐유목제국사』, 사계절.
- 中華書局編輯部, 1976, 『標點校勘 隋書』, 景仁文化社.
- \_\_\_\_\_, 1977, 『標點校勘 北史』, 景仁文化社.
-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 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호리 도시카즈(堀敏一) 지음, 정병준·이원석·채지혜 옮김,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출판부.
- 강선, 2006, 「고구려와 突厥의 전쟁」, 『高句麗研究』 24.
- 金善昱, 1984,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26.
- 김수진, 2008, 「隋·唐의 高句麗 失地論과 그 배경」, 『韓國史論』 54.
- 金子修一, 2002, 「高句麗와 隋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 金鍾完, 2004, 「高句麗의 朝貢과 冊封의 성격」, 『高句麗의 正體性』, 학연문화사.
- 김지영, 2014,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한, 2007,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요해지역의 동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 \_\_\_\_\_, 2009, 「嬰陽王代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隋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3.
- 김창석, 2007,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東北亞歷史論叢』 15.
- 김택민, 2014, 「麗·隋 力學關係와 戰爭의 樣相」, 『東洋史學研究』 127.
- 김현숙, 2002, 「6~7세기 高句麗史에서의 靺鞨」, 『강좌 한국고대사』 10.

- 김호동, 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II - 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知識産業社.
- , 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동아시아의 왕권』, 한울.
- , 2010, 「실크로드와 유목제국」,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 ,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 , 198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 , 2015,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東洋學』 58.
- 朴京哲,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路」, 『白山學報』 71.
- 朴漢濟, 1993,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 經緯에 대한 一考 - 隋唐初 皇帝의 正統性問題와 關聯하여」, 『東洋史學研究』 43.
- 손영중, 2008, 「수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 『조선단대사』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辛聖坤, 1998, 「北周 武帝의 集權의 體制改革과 그 性格」, 『中國學報』 39.
- 여호규, 2002,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 대수관계(對隋關係)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46.
- , 2006, 「책봉호 수수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 李成市, 1990, 「高句麗와 日隋外交 - 이른바 國書문제에 관한 一試論 -」, 『碧史 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刊行委員會.
- 이성제, 2005b,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 對隋·對唐戰爭期 契丹의 同鄉과 그 意味」, 『북방사논총』 5.
- ,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涉과 그 意味 - 새로운 對外戰略의 추진배경과 內容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史探究』 2.
- , 2012,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東海交涉路 - 6세기 후반~7세기 초 고구려·왜·백제 3국의 상호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곁하여」, 『高句麗渤海研究』 43.
- , 2013, 「高句麗의 西方 國境線과 武厲邏」, 『大丘史學』 113.

- \_\_\_\_\_, 2015,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관계 - 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고구려발해연구』 52.
- \_\_\_\_\_, 2016, 「高句麗와 北朝의 경계 - 고구려의 遼西 동부지역 확보와 그 시기」, 『高句麗渤海研究』 54.
- \_\_\_\_\_, 2017, 「高句麗와 遼西橫斷路 - 遼河 沿邊 交通路와 관리기구」, 『韓國史研究』 178.
- 李永哲, 2011, 「唐代 邊境地域의 藩鎮과 對外關係」, 『中國史研究』 74.
-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 \_\_\_\_\_,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 이재성, 2005,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衝突」, 『북방사논총』 5.
- 이정빈, 2011,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 변경지대와 그 변화 - 요서 고구려의 邏와 수의 鎮·戍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2.
- \_\_\_\_\_, 2014,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요서지역의 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44.
- \_\_\_\_\_, 2019,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무엇을 바꾸었나?」, 『역사비평』 126.
- 李昊榮, 1996,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2, 한길사.
- \_\_\_\_\_,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역사학회 편), 일조각.
- 정동민, 2019, 「고대 동아시아의 接境, 遼西 - 중국왕조, 유목세력, 고구려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50.
- \_\_\_\_\_, 2021, 「조우와 충돌로 고구려 후기를 이해하다」, 『선사와 고대』 65.
- 정순모, 2012, 「隋唐시기 高句麗 遠征과 儀禮」, 『역사와 담론』 62.
- 정원주, 2011,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 \_\_\_\_\_, 2013, 「高句麗 滅亡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4, 「7세기 고구려의 西界 변화」, 『영도해양연구』 8, 동북아역사재단.
- 정재훈, 2001,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 西北民族에 대한 對應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13.
- \_\_\_\_\_, 2004, 「隋煬帝(604~617)의 對外政策과 天下 巡幸」, 『中國史研究』 30.

王小甫 主編, 2003,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呂淨植, 2012, 「北齊書·高保寧傳另釋」, 『古籍整理研究學刊』2012-6.

程尼娜, 2002, 「論唐代中央政權對契丹奚人地區的羈縻統治」,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02-6.

趙娟, 2011, 「從高寶寧事件看隋初與高句麗的關係」, 『陝西社會科學論叢』5.

趙曉剛·沈丹林, 2000, 「遼東郡及通定鎮考略」, 『東北地區三至十世紀古代文化學術討論會論文』.

馮永謙, 2012, 「武厲邏新考(上)」, 『東北史地』1.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唐代史研究會 編, 1979,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日野開三郎, 1991, 『東北アジア民族史(中)』(東洋史學論集 15), 三一書局.

菊池英夫, 1992, 「隋朝の對高句麗戰爭の發端について」,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16.

堀敏一, 1979, 「隋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濱口重國, 1966, 「隋の天下一統と君權の強化」, 『秦漢隋唐史の研究』下, 東京大學出版會.

井上直樹, 2003,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六世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178.

韓昇, 1995,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堀敏一先生古稀紀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 2장

# 고구려·수의 갈등 심화와 주변국의 동향

이정빈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5~6세기 후반 요서 지역은 동아시아 주요 강국의 변경이었다. 고구려의 서방 변경이었고, 북조 여러 나라의 동북방 변경이었으며, 유연·돌궐의 동남방 변경이었다. 주요 강국의 세력이 교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서 지역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축소판과 같았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요서 지역의 동부에 일정한 세력범위를 유지하며 서방의 여러 강국과 역관계(力關係)의 균형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589년 수가 중원 지역을 통일하고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부상하며 역관계의 균형이 동요하였다. 요서 지역에서 전개된 고구려와 수의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와 수의 갈등은 590년대 중반 이후 표면화하였다. 요서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점차 높아졌다. 수가 영주총관부를 통해 요서 지역의 제중족을 포섭하며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기 때문이다. 수의 동진이 지속된다면, 이제 요하 동쪽의 영역마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다. 고구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598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말갈의 군대 1만 명을 이끌고 수의 영주총관부를 공격하였다.

598년 고구려의 영주총관부 공격은 영주총관 위충이 격퇴하였다고 하는데, 수 문제는 그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을 지시했다. 수는 30만의 육군과 수군(水軍)을 동원하였다. 고구려 역시 수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국은 전면적인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598년 수의 고구려 공격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군수 보급과 교통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598~607년까지 고구려와 수는 우호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요서 지역에서 수의 동진은 계속되었고, 양국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605년 수에서는 양제가 즉위했다. 양제는 대외정책에 한층 적극적이었다.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도 구상하였다. 고구려는 백제, 왜 등과 교섭하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607년에 시도하였던 동돌궐 교섭도 그와 같은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수의 패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북방의 여러 세력마저 제압한 수 양제는 고구려 공격을 결정했다. 수는 609년부터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착수하였다. 군수 보급을 위한 교통로를 정비하였고, 전국 각지의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였다.

고구려의 영양왕과 지배층 역시 전쟁에 대비하였다. 요서 지역에 설치된 수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며 견제했다. 수 역시 요서 지역에 설치된 고구려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611년 요하의 서쪽에 있었던 고구려의 무려라(武厲邐)가 함락되었다. 양국의 변경이었던 요서 지역에서는 이미 612년의 전쟁이 개시되었던 것이다.

## 1. 598년 영양왕의 요서 공격과 배경

598년 봄이었다. 고구려의 영양왕(재위 590~618년)은 말갈의 기병 1만여 명을 이끌고 수의 요서(遼西)를 공격하였다. 수에서는 영주총관(營州總管) 위충(韋沖, 540~605년)이 대응하였다. 위충은 고구려의 군대를 공격해 패주시켰다고 한다. 영주총관이 대응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공격하였다고 한 요서는 구체적으로 수의 영주총관부였다고 파악된다. 영주총관부의 치소인 유성(柳城: 遼寧省 朝陽) 내지 그로부터 머지 않은 지점에 대한 공격이었던 것이다(이성제, 2005a).

수의 대응은 영양왕의 군대를 격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수 문제(文帝, 재위 581~604년)는 598년 2월 3일에 고구려의 공격을 보고받았는데, 크게 분노하였다고 한다. 즉각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며 전시 지휘관을 임명하였다. 598년 2월 4일에 한왕(漢王) 양량(楊諒)과 왕세적(王世積)을 행군원수(行軍元帥)로 삼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고경(高颺)을 한왕의 장사(長史)로 삼았으며, 주라후(周羅喉)를 수군총관(水軍總管)으로 삼았다. 이들이 고구려 공격을 위한 전시 지휘관의 수

표1 598년 고구려 공격을 위해 편성된 수의 주요 지휘관

성명	직위 및 주요 활동	출처
당직(唐直)	요동 행군총관사마(遼東行軍總管司馬)	〈당직묘지(唐直墓誌)〉
장연(張淵)	요동 행군총관(遼東行軍總管)	〈장초현묘지(張楚賢墓誌)〉, 〈장욱묘지(張璠墓誌)〉
원포(元褒)	행군총관(行軍總管) / 유성(柳城)에서 회군	『수서』 권50, 원포
한승수(韓僧壽)	행군총관	『수서』 권52, 한승수
두언(杜彥)	행군총관 / 총통오십영사(總統五十營事)	『수서』 권55, 두언
우문필(宇文弼)	원수한왕부사마(元帥漢王府司馬) / 행군총관	『수서』 권56, 우문필
장윤(張淵)	행군총관 / 유일한 부대 보존[獨全]	『수서』 권64, 장윤
이경(李景)	마군총관(馬軍總管)	『수서』 권65, 이경

너부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장수와 관인이 전시 지휘관으로 기용되었는데, 문헌사료와 묘지에 보이는 주요 지휘관과 활동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동민, 2022).

수의 주요 지휘관은 행군(行軍) 단위로 편성하였다. 북주(北周)에서 시작해 수·당대까지 전시 야전군의 부대와 편제를 행군이라고 하였는데, 최고 사령관이 원수(元帥)였고 각 단위부대의 지휘관이 총관(總管)이었다. 장사(長史)와 사마(司馬) 등은 지휘관의 참모였다. 『수서』 두언전(杜彥傳)에 보이듯 육군의 경우 모두 50개의 행영(行營)이 있었다고 하였다. 행영은 행군총관의 단위부대인 총관영(總管營)을 의미하였다(孫繼民, 1995). 598년 수의 육군은 대략 50개 내외의 부대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육군과 수군(水軍)을 합친 야전군은 30만 명이었다. 이와 같은 전시 야전군의 병졸은 상비군만 아니라 예비 병력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예비 병력은 임시적인 군역을 부과받아 출전했다. 전시를 맞아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군량 등 막대한 군수물자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인력과 물자의 징발·수송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수 문제가 반격을 지시한 것은 598년 2월 4일이었지만, 조서를 내려 고구려 영양왕의 관직을 삭탈한 것은 그해 6월 27일이었다. 이때 본격적인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략 4개월 동안 전쟁을 준비하였던 셈이다.

4개월 동안 추진된 수의 전쟁 준비 사실은 고구려에도 알려졌을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수의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되기에 앞서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군대를 동원하며 군사물자를 확보하는 등 전쟁에 대비하였다고 짐작된다. 양국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 것이다. 이 무렵 당시 양국의 변경이었던 요서 지역에서 이미 소규모의 국지전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아 598년 고구려와 수의 전면적인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수의 군대는 고구려의 영역 안으로 진군하지 못한 채 회군하였다. 장마와 전염병 그리고 태풍이 주된 이유였다.

수의 육군은 임유관(臨渝關)을 통해 영주총관부의 치소인 유성(柳城)에 집결하였고, 일부 부대는 요하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장마가 발생하였다. 당시 지금의 중국 허북성(河北省) 지역에서 요령성(遼寧省) 서부 지역까지의 육상교통로는 요서주랑(遼西走廊)이 유일하다시피 하였다(권오중, 2012). 해안가의 좁고 긴 도로를 통과해야만 대규모 군대와 물자를 요동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서주랑은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장마에 취약하였다. 예컨대 207년 후한(後漢)이 오환(烏桓)을 공격하였을 때에도 장마가 발생하였는데, 진창이 생겨 교통로가 두절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59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교통로가 차단되었고, 군량 수송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미 유성에 집결한 수의 육군은 고립된 처지였다. 군량이 수송되지

못하였기에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많은 수의 군사가 영양 부족 상태에 놓였고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더욱이 다수의 부대가 유성 일대에 밀집해 있었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실제 유성에서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높은 치사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정빈, 2021a). 수의 육군은 598년 9월 21일에 귀환하였는데, 오직 장윤의 부대만 온전하였다고 하였다. 열에 여덟아홉이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수의 육군은 병력의 대부분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의 수군은 내주(萊州)에서 집결하였다. 지금의 중국 산둥성(山東省) 연태(煙台) 지역이었다. 내주는 동북아시아 해상교통의 요지로, 묘도군도(廟島群島)를 경유해 요동반도-한반도 서해안으로 통할 수 있었다. 수군총관 주라후는 이러한 해상교통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하였다. 수의 수군은 육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한편, 고구려의 평양을 직접 위협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의 수군 역시 자연재해에 직면하였다. 태풍을 만나 표몰(漂沒)되었다고 한다.

후일 당에서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까지 올랐던 봉덕이(封德彝)도 젊은 시절에 수의 수군으로 참전하였는데 배가 대해(大海)에서 침몰되었다고 한다. 대부분 죽었지만 자신은 판자를 잡고 사력을 다해 버틴 끝에 간신히 구조되었다고 한다. 구사일생(九死一生)의 귀환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봉덕이의 사례를 통해 보건대 수의 수군 역시 본격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한 채 선박과 병력의 상당수를 잃은 채 회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의 육군과 수군이 모두 회군하자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에 사신을 파견해 사죄하고 표문을 보내 수에 신속(臣屬)할 뜻을 밝혔다. 사죄사(謝罪使)를 보냄으로써 수에 전쟁을 중단할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수 문제는 고구려의 제의를 수용하였다. 598년 백제의 위덕왕(재위 554~598년)은 장사(長史) 왕변나(王辯那)를 수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고구려 공격이 추진되자 다시 사신을 보내 군도(軍導) 즉 군대의 길잡이를 자청하였다. 고구려 공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백제의 길잡이 자청은 수의 군대가 회군한 이후로, 수 문제는 백제의 요청을 사양하였다. 이미 고구려를 사면하였다고 하였다. 공식적으로 수의 고구려 공격 계획은 전면 중단된 모습이였다.

이처럼 598년 전쟁은 장마와 전염병 그리고 태풍이란 예측 불가의 변수로 인해 수의 공격이 불발되며 종결되었다. 그런데 수의 고구려 공격 불발이 단지 장마와 전염병 그리고 태풍 등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구려와 수를 연결한 육상·해상 교통로가 미비하였고, 수의 영역 내지 세력범위에서조차 군수 보급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정빈, 2019).

애초부터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수의 고구려 공격은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미 고경(高潁)과 같은 수의 군사지휘관 중 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경은 수 조정의 고구려 공격 논의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8년 수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보다 먼저, 고구려는 어떠한 이유에서 수의 요서총관부를 공격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고구려가 공격한 수의 영주총관부는 580년대 후반~590년에 설치되었다. 583년 수는 한(漢)대 이후 지방관제의 전형이었던 주-군-현의 삼급제를 주·군-현의 이급제로 전환하였다(濱口重國, 1966). 그리고 변경지대에는 주·현의 상급 통치단위로 총관부를 두었다. 총관부

의 기원은 조위(曹魏)의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에서 찾을 수 있는데, 수대의 총관부는 북주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당대(唐代) 기미주(羈糜州)에 설치된 도호부·도독부의 전신이었다. 총관부는 일반 주·현의 행정적 통치기구가 아니라 이른바 변주(邊州)의 군사적 통치기구였는데, 변주에는 한인(漢人)과 이인(夷人)이 혼재되어 있었다(鄭勉, 2009). 영주도 마찬가지였다.

초대 영주총관은 위예(韋藝)였다. 그는 595년 사망할 때까지 영주총관으로 재직하였다. 위예는 거란·말갈 등 요서 지역의 제종족을 관할하였고, 화이교역을 통해 제종족을 포섭하였다. 북이(北夷)와 교역하여 가산(家産)을 축적해 치부(致富)하였다고 한다. 요서 지역의 제종족 중 일부는 이와 같은 수의 화이교역에 호응하였고, 수를 지지하였다. 590년대를 전후해서 거란 별부(別部)의 출복(出伏) 집단과 속말말갈(粟末靺鞨)의 돌지계(突地稽) 집단은 고구려의 세력범위에서 이탈해 수의 세력범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수는 요서 지역에서 세력범위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이성제, 2005a).

위예의 사후에 후임 영주총관으로 임명된 것은 그의 동생 위충이었다. 위충은 595년부터 603년까지 재직했다. 그는 북주(北周)대부터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였는데, 주로 변경의 지방관 내지 군사령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분주자사(汾州刺史)와 석주자사(石州刺史)를 역임하며 제호(諸胡)를 회유하고 환심을 얻었다고 한다. 장성(長城) 축조에 징발된 남분주호(南汾州胡)가 이탈하자 지방관의 신망(信望)과 회유책을 강조했다고 한다. 위충은 영주총관으로 재직하면서 역시 말갈·거란을 회유하고 위무하여 신임을 얻었다고 하였다. 요서 지역 북방에 거주하던 해(奚)·습(霫)의 조공도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위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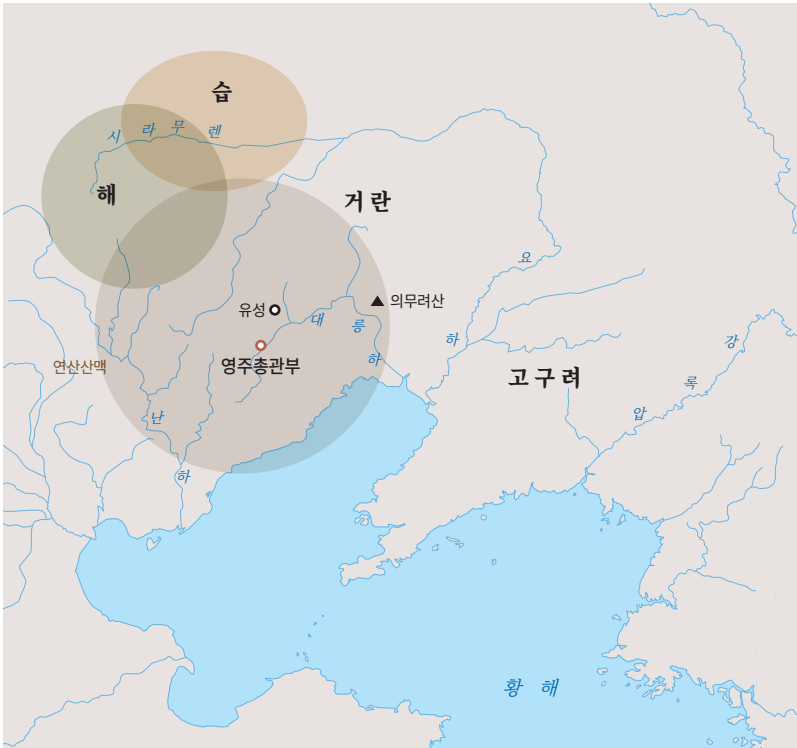


그림1 | 590년대 중·후반 영주총관부의 세력범위

의 활동으로 요서 일대에서 수의 세력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강력해진 것이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요하를 경계로 하여 그 동쪽은 대성(大城)과 제성(諸城)을 두고 영역을 지배하였고, 서부에는 라(濼)와 같은 군사기지를 두고 말갈·거란 등의 제종족을 관리하며 세력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580년대 후반~590년 이후 수가 영주총관부를 통해 요서 지역의 제종족을 포섭하며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온 것이다. 고구려 서방 변경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의 영주

총관부를 방치할 경우 요서 지역에서 유지해 오던 세력범위를 상실할 수 있었고, 자칫 요하의 동쪽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요서 지역의 세력범위를 완전히 상실하면 서북방의 돌궐 등 유목사회의 제세력과 교섭·교역이 차단되어 국제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성마저 있었다. 위기를 타개할 대책이 요청되었다(이성제, 2005a).

598년 수의 영주총관부 공격은 말갈병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 영양왕이 직접 지휘하였다. 말갈병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아직 분명한 설명은 없다. 다만 영주총관부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 영양왕이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는데(김진한, 2020), 6세기 후반 평원왕 대(559~590년)부터 마련된 정치적 안정 속에서 가능하였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평양왕·영양왕 대 고구려는 정치적 완정을 회복한 가운데 6세기 중반 이전의 세력범위를 회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임기환, 2004).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전쟁을 추진하였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온달(溫達)의 아단성(阿旦城) 출정이 바로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임기환, 1994; 2006; 정호섭, 2016).

일찍이 지적된 것처럼 온달은 유력한 귀족가문 출신이 아니었다(李基白, 1996). 그는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하였고 전공을 통해 승진하였다. 온달의 출세 과정으로 보아 그는 대외전쟁의 전공을 바탕으로 성장한 신진 귀족세력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임기환, 2004; 정호섭, 2016). 온달은 평원왕의 사위이자 영양왕의 매제였다. 온달과 같은 신진 귀족이 왕실의 인척이 된 사실은 평원왕·영양왕의 정치적 지향을 짐작케 한다. 즉 평원왕·영양왕은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전쟁을 추진하고자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신진 귀족세력과 결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598년 영주총관부 공격을 영양왕이 주도하였다고 한다

면, 이는 온달과 같은 신진 귀족세력의 지지에 기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김진한, 2020).

수 측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고구려의 영주총관부 공격에 수 문제는 즉각 대대적인 공격을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고경이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하지만, 수의 조정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가령 『수서』 유현전(劉炫傳)을 보면, 개황 연간의 말년에 수가 은성(殷盛)하였을 때 조야(朝野)에서는 모두 고구려 공격을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유현은 고구려 공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무이론(撫夷論)」을 지어 반대의 뜻을 풍간(諷諫)하였고 하지만, 당시에는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조야란 표현처럼 조정만 아니라 재야에서까지 지배층의 상당수가 598년 이전부터 고구려 공격을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수대의 지배층은 크게 관중·대북귀족(북주계)과 산동귀족(북제계) 그리고 강남귀족(남조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山崎宏, 1965; 柳元迪, 1989), 이 중에서 관중·대북귀족은 북위의 무천진(武川鎮: 內蒙古自治區 武川) 군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을 이른바 관룡집단(關隴集團)이라고도 한다(陳寅恪, 1966). 관룡집단은 호한(胡漢)융합의 지배집단으로, 주로 무관 계통에서 활동하였다. 수의 주국(柱國)·대장군(大將軍)을 비롯한 중앙군의 고위직은 물론이고, 문제 대 총관을 역임한 100명만 놓고 보아도 관룡집단에 속한 자만 86명이었다고 한다(山崎宏, 1958; 甘懷真, 1991). 관룡집단은 수의 군사권을 장악한 핵심적인 지배층이었던 것이다. 영주총관을 역임한 위예·위충 형제 역시 명망 높은 관우(關右)의 귀족이었다.

수의 지배층 상당수가 고구려 공격을 추구하였고, 지배층의 핵심이 관룡집단이었다고 보면, 598년 수의 고구려 공격은 관룡집단이 주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관룡집단은 호한융합의 지배집단이었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선비(鮮卑) 계통이었다. 그런 만큼 유목·수렵사회의 지배집단이 그러하였듯 관룡집단은 교역과 전쟁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교역과 전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유지·보장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605년 수의 임읍(林邑) 공격이 그러하였다. 임읍 공격은 기이한 보물 즉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역시 관룡집단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정빈, 2018).

위예는 영주총관으로 재직하며 북이와 교역하여 치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조정의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위예의 치부 사례는 수의 관룡집단이 요서 지역을 통한 교역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고구려에 눈길을 두게 하였다고 짐작된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적 국가로서 주변 제국(諸國)의 교역을 통제하고 있었다.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관룡집단은 비단 요서만 아니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동북아시아의 교역권까지 관심을 두었고, 위예가 영주총관으로 재직하던 590년대 전반부터 고구려 공격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므로 598년 수 문제가 고구려 공격을 지시하자 지지하며 호응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598년 고구려와 수의 전쟁 위기는 요서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 고구려에서는 영양왕과 신진 귀족세력이 수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수에서는 관룡집단이 고구려 공격을 구상하고 있던 가운데 전쟁에 호응하였다. 비록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의 주요 정치세력은 대립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 2. 주변국의 동향과 갈등의 심화

598년의 전쟁 위기가 해소되고 고구려와 수의 관계는 곧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일시적이거나 고구려의 서방 변경은 안정되었다. 결과적으로 598년 고구려의 영주총관부 공격은 요서 지역에서 수의 세력이 확대되는 데 제동을 걸었던 셈이다(李丙燾, 1976). 여력이 생긴 고구려의 눈길은 남방으로 향하였다. 예컨대 598년 전쟁 위기 속에서 백제가 수에 길잡이를 자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구려는 백제의 변경을 자주 공격하였다. 603년 8월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600년대 후반까지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남방정책을 추진했다. 6세기 중반 이후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남방정책이 재개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남방정책은 한강 유역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이해되는데 서방의 정세와 무관치 않았다(여호규, 2002).

이와 관련하여 수와 돌궐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돌궐은 581년 타발가한(佗鉢可汗, 재위 572~581년)이 사망한 이후 사발략가한(沙鉢略可汗, 재위 581~587년)의 동돌궐과 달두가한(達頭可汗, 재위 576~603년)의 서돌궐로 분열하였는데, 동돌궐은 다시 여러 가한 세력이 분립하며 경쟁하였다. 588년 사발략가한의 뒤를 이은 도람가한(都藍可汗, 재위 588~599년)이 동돌궐을 장악하였지만, 반대세력이 상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 재위 ?~609년)이 부상했다. 그는 수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597년 계민가한은 수와 혼인동맹을 맺고 한층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동돌궐의 도람가한

은 서돌궐의 달두가한과 연합하였다. 598년부터 603년까지 서돌궐의 달두가한은 동돌궐의 도람가한과 함께 수와 동돌궐의 계민가한을 공격하였다. 수는 동돌궐의 계민가한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동돌궐의 도람가한은 599년 12월 부하에게 피살되었는데, 이후 이 전쟁은 서돌궐의 달두가한이 주도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이를 수-서돌궐 전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수-서돌궐 전쟁은 598년 수가 고구려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의 하나였다(이성제, 2005a; 김진한, 2020). 만약 고구려마저 적으로 돌리면, 동북과 서북 방면에서 협공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하였듯 수는 사죄사 파견을 명분으로 삼아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여호규, 2002).

예컨대 605년 거란은 수의 세력범위인 유성 주변에서 고구려와 동돌궐이 교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거란인의 상황 판단은 605년을 전후해서 고구려와 동돌궐에 비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여겼기에 가능했을 것이다(노태돈, 1999). 동돌궐과 수가 동맹을 맺고 있었고, 고구려와 동돌궐이 유성 주변에서 교역하였다고 보면, 당시 고구려와 수 역시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와 수의 전쟁 위기가 벌어졌던 598년 이후부터 그랬을 것이다. 고구려와 수의 우호관계는 적어도 607년까지 유지되었다고 파악된다(菊池英夫, 1992; 李昊榮, 2001; 여호규, 2002). 그러면 수-서돌궐 전쟁에서 고구려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을까.

현전 사료에서 수-서돌궐 전쟁에 대한 고구려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598년의 전쟁 위기를 경험하였던 고구려가 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580년대 후반부터 고구려와 돌궐의 일부 세력과 연대하였다고 본 견해(노태돈, 1999)가 주목된다. 고구려와 돌궐이 주변 제국(諸國) 즉 백제·토욕혼·왜와 함께 수에 대한 봉쇄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본 견해도 있었다. 이른바 주변국동맹론이었다(鬼頭清明, 1976; 李基白·李基東, 1982; 菊池英夫, 1992). 고구려와 돌궐이 반수(反隋) 연대를 결성하였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동맹론에 대한 비판도 꾸준하였다(堀敏一, 1979; 이정빈, 2018).

실제 598~607년 무렵의 국제관계를 보면 수-서돌궐 전쟁에서 고구려와 돌궐이 연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고구려와 돌궐이 수를 견제하기 위해 연대하였다면, 그 대상으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동돌궐의 계민가한이다. 그러나 이 무렵 동돌궐의 계민가한은 수의 동맹이었다. 적어도 수-서돌궐 전쟁에서 반수 연대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와 동돌궐의 반대세력인 서돌궐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그러나 고구려가 수·동돌궐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돌궐의 영역 내지 세력범위를 통과해 비밀리에 서돌궐과 교섭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고구려와 돌궐의 연대는 상정하기 어렵다.

6세기 중·후반 동서로 분열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최강국은 돌궐이었다. 가령 돌궐의 타발가한은 북주(北周)와 북제(北齊)를 두고 “단지 내가 남쪽에 있는 두 명의 아이를 효순(孝順)하게끔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북주와 북제를 두 아이에 비유하며 신속국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를 분열·조정하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하였다. 고구려 또한 돌궐의 흥기에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570~580년대 중반 동돌궐의 사발락가한은 거란에 토둔(吐屯)이란 징세·감찰관을 파견해 통제했다. 거란의 여러 부락이 거주하였던 요서 지역 서북부의 시라무렌강 유역까지 세력범위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돌궐은 580년대 후반 수가 동진해 오기 전까지 고구려 서방변경을 위협하였던 주요 세력의 하나였다(노태돈, 1999).

이와 같이 보면 고구려는 수-서돌궐 전쟁에서 향후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든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 있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두 세력이 지속적인 대립구도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고구려는 수와 서돌궐 중 어느 한쪽을 지원하기보다 양자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전쟁을 관망하지 않았을까 한다. 고구려가 수-돌궐 전쟁에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은 것은 실제로 그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보건대, 600년대 중·후반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방정책은 서방의 국제정세가 교착된 사정 속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서방의 국제정세가 교착되며 남방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여호규, 2002). 그렇다고 해서 서방의 안정이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598~607년 고구려와 수는 우호관계였다고 하였는데 고구려의 견수사 파견은 600년 1월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록 양국이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호관계가 진전되어 갈등의 여지가 축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598~607년 우호관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598년 수의 고구려 공격이 실패한 이후, 요서 지역에 회원진(懷遠鎮), 노하진(瀘河鎮) 등과 같은 진(鎭)·수(戍)가 설치된 사실이 주목된다. 수의 진·수는 중소 규모의 군사기지였다. 진의 경

우 300~500명 정도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수의 경우 30~50명 내외가 배치되었다. 다만 진·수가 단순히 군사기지만은 아니었다. 수의 진·수는 총관부 예하의 군정기구로, 변경지대의 이종족을 관할한 통치단위의 하나였다. 진·수는 진장(鎭將)과 수주(城主)가 관할하였는데, 진장은 종4품~정6품으로 군태수와 대등하였고, 수주는 정7품~정9품으로 현령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관품으로 보면 대략 군·현의 위상에 상응하였다.

회원진과 노하진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요서 지역의 동부에 소재하였다고 파악된다. 두 진은 612~614년 수의 고구려 공격에서 대표적인 군수보급기지로 운용되었다. 낙양(洛陽)에서 탁군(涿郡)으로 집적된 군수물자는 회원진과 노하진으로 보내져 축적되었고, 이로부터 수의 공격·보급로가 구축되었다. 요서 지역의 진·수는 주로 603~604년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이정빈, 2018). 그러므로 진·수의 설치는 598년 이후 수의 요서 정책이 한층 치밀해진 면모를 보여준다. 수는 요서 지역의 동부에 진·수를 설치함으로써 동쪽으로 고구려를 압박해 간 것이다.

이처럼 598~607년 고구려와 수는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공식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수의 동진은 고구려의 세력범위를 잠식해 갔고, 고구려의 위기의식은 한층 고조되었고, 이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깊어져 갔다. 더욱이 605년 수 양제(楊帝, 재위 604~618년)가 즉위하면서 표면적으로나마 유지되던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 양제는 즉위 직후부터 사이(四夷) 경략을 구상하였다고 하듯 대외정책과 전쟁에 적극적이었다. 607년을 전후해서 수의 대외정책은

배구(裴矩)가 총괄하였는데, 그는 『고려풍속(高麗風俗)』을 저술하였다. 606~607년 배구는 서역과의 교역을 관장하며 『서역도기(西域圖記)』를 저술하였는데, 풍속뿐만 아니라 산천의 험이(險易)를 담았다. 아울러 별도로 지도를 제작하고 요해(要害)를 연구하였다. 군사활동을 위한 지리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쟁을 위한 기초 자료였던 셈이다. 실제 608년 수의 토욕혼(吐谷渾) 공격에서 『서역도기』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풍속』도 『서역도기』처럼 고구려의 풍속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위한 지리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짐작되며, 607~612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에서 고구려 공격을 앞두고 진대덕(陳大德)을 사신으로 파견해서 군사활동을 위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를 저술하게 하였듯(吉田光男·전상우 譯, 2019; 武田幸男·김효진 譯, 2019), 수에서는 배구가 『고려풍속』을 저술해 고구려 공격을 예비하였던 것이다(한원연구회 편, 2022). 고구려에서도 이와 같은 수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수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607년 고구려와 동돌궐의 교섭이 주목된다.

607년 4~9월 수 양제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북방 변경지대를 순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8월 6일에는 유림군(榆林郡: 內蒙古自治區 托克托縣)에서부터 금하(金河: 南黑河)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동돌궐 계민가한의 영접을 받았다. 계민가한은 매우 순종적인 태도로 양제를 접대했다. 고구려의 사신은 이때 계민가한을 방문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돌궐과의 교섭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607년 고구려의 동돌궐 교섭은 수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수의 고구려 공격에 대비해 동돌궐의 지원

내지 협조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계민가한은 고구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구려의 사신이 방문해 있다는 사실을 양제에게 알렸다.

계민가한은 고구려의 사신을 양제에게 데려가 대면하도록 했다. 『수서』 돌궐전에서는 고구려와 동돌궐의 교섭을 ‘사통(私通)’ 및 ‘경외(境外)의 교(交)’로 표현하였다. 즉, 수 중심의 국제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적었는데, 이는 수 측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이었다. 실제 이 자리에서 배구는 고구려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원 왕조의 영역으로 국왕의 입조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제는 고구려의 사신에게 내년에는 탁군에 가겠으니, 영양왕은 그때 와서 조현(朝見)하라고 했다. 친조(親朝)를 요구한 것이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돌궐을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하였다. 배구의 주장처럼 철저한 복속을 강압한 것이다.

『수서』 배구전의 찬자는 영양왕이 양제의 요구를 거절하자 비로소 정요(征遼)의 계책, 즉 고구려 공격을 구상하였다고 적었다. 다수의 연구자 역시 고구려의 동돌궐 교섭이 수를 자극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598~607년 요서 지역에서 수의 동진이 지속되었고, 양제의 즉위 이후 더욱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과 함께 수의 고구려 공격은 이미 구상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시 말해 607년 고구려의 동돌궐 교섭은 양제의 구상을 공표하게 한 구실에 불과하였다고 생각된다(이정빈, 2018).

결과적으로 607년 고구려의 동돌궐 교섭은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섭 노력은 607년을 전후해 고구려가 수의 동맹이었던 동돌궐과 교섭을 시도할 만큼 위기의식이 높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교섭을 시도하였던 사정을 말해

준다. 실제 고구려의 외교적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가 주목된다. 607년 백제의 무왕(재위 600~641년)은 사신 왕효린(王孝隣)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고, 611년 고구려 공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사신 국지모(國知牟)를 보내 자국 군대의 파병 시기를 문의했다. 수의 고구려 공격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한 것이다. 수에서는 백제에 사신을 보내 파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600년대 중·후반 고구려는 적극적인 남방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신라는 한강 유역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관계였으므로 수에서는 백제의 약속을 신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백제는 군대를 국경에 배치하였을 뿐 실제 움직이지 않았다. 수에서는 백제가 612년 고구려-수 전쟁 중에 양단책(兩端策)을 구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안으로 고구려와 통정하면서 수를 엿보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수의 평가는 백제와 수의 동맹이 공고하지 못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백제가 고구려와 통정하였다고 하듯 배후에서는 고구려의 외교공작이 펼쳐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제가 고구려의 동맹으로서 반수 연대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는 국제정세의 추이 속에서 자국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신라의 경우 결사표(乞師表)를 보내는 등 수의 편에 가담한 모습이었지만, 백제의 견제를 받고 있었기에 고구려의 남방을 위협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삼국 상호 간의 경쟁 속에서 고구려의 외교적 노력이 펼쳐졌고, 남방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왜의 관계가 주목된다. 고구려는 570년대부터

왜와 본격적으로 교섭하였는데, 영양왕이 재위하던 시기에는 주로 불교를 매개로 삼아 교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95~615년에는 고구려의 승려 혜자(惠慈)가 왜에 체재하며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스승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스이코천황(推古天皇, 재위 592~628년)이 불상을 조성하자 황금을 보내기도 하였다.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김진한, 2020). 불교 교류는 외교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왜와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고구려의 외교가 수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李成市, 1990).

예컨대 607년 왜는 수에 외교문서를 보내 자국을 “해 뜨는 곳의 천자(天子)”로 수를 “해 지는 곳의 천자”로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리감각은 고구려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혜자와 같은 승려가 외교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수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즉 고구려의 우방으로 왜를 염두에 두어야 했을 것으로, 고구려와 왜의 관계는 수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기능하였던 것이다(李成市, 1990).

이처럼 607~612년 백제-수 관계와 수-왜 관계의 배후에는 고구려의 다각적인 외교가 발휘되고 있었다. 수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고구려의 필사적인 노력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607~608년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수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이제 수의 공격은 노골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시 고구려와 수 양국은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 3. 양국의 전쟁 결정과 국지전의 개시

이미 607년부터 고구려에 대한 수의 공격이 예고되었다고 하지만, 곧바로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다. 607~609년까지 수는 서방과 북방에 자리한 여러 유목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607년에는 철록(鐵勒)을 공격해 복속시켰고, 608년에는 철록을 동원해서 토욕혼을 공격하였으며, 서돌궐로 하여금 양제의 조서를 받도록 해 우위를 확인하였고, 이오(伊吾: 新疆維吾爾自治區 哈密市)를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609년부터 토욕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 마침내 제압하였고 서역 제국(諸國)의 복속을 받았으며, 서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였다. 배구의 제안으로 추진된 서역 경략이 완수된 것이다.

이제 수의 눈길은 고구려로 향하였다. 다만 서방과 북방의 제세력과 전쟁하며 수의 군대가 입은 손실도 적지 않았다. 610년 고구려 공격을 위한 군마를 확보하였고 병장기를 검열하였다. 그리하여 611년 2월 마침내 고구려 공격 조서를 반포하였다.

수 양제는 즉위 직후부터 사이 경략을 구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교역권의 장악과 밀접하였다(김창석, 2013). 그런데 수에서 교역과 전쟁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양제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598년 고구려에 대한 반격 시도나 605년 임읍 공격은 관룡집단이 주도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양제의 즉위 이후 대외정책과 전쟁은 대부분 그가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양제는 관룡집단을 비롯한 주요 정치세력을 통제하고 집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김선민, 2003; 丁載勳, 2004).

더욱이 양제는 제위 계승분쟁을 통해 즉위하였기에 정통성에 한계

표2 수의 전쟁 준비 과정(610~611년)

연월	내용	징발 지역	이동·공급 지역
610년	군마 양육	산둥(山東)	
610년	양곡 비축		노하진·회원진
611년 4월 이전	병사 징발	천하(天下)	탁군
611년 4월 이전	수수(水手)·노수(弩手) 징발	강·회(江·淮) 이남	탁군
611년 4월 이전	배찬수(排鑿手) 징발	영남(嶺南)	탁군
611년 5월	용거(戎車) 제작	하남(河南)·회남(淮南)·강남(江南)	고양(高陽)
611년 5월	의갑만막(衣甲幔幕) 수송	하남·회남·강남	고양
611년 5월	민부(民夫) 징발	하남·하북(河北)	
611년 7월	민부 징발	강남·회남	여양창(黎陽倉)·낙구창(洛口倉) → 탁군
611년 7월	선박(船舶) 징발	강남·회남	여양창·낙구창 → 탁군
611년 7월	미곡(米穀) 운송	강남·회남	여양창·낙구창 → 탁군

를 안고 있었다. 유목사회 계통의 군주는 이러한 불안정한 제위 계승의 한계를 대외적인 성과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양제의 고구려 공격 역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분석된다(朴漢濟, 1988; 1993). 수의 고구려 공격 계획은 관룡집단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양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변모하였다.

이처럼 수 양제의 고구려 공격은 황제권 강화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양제는 612~614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실패하고 신료 대부분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치 못하고 지속적인 공격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고구려 내부의 사정은 어떠하였을까.

607~612년 고구려는 수의 위협에 대비해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

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수의 공세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607년 양제의 입조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응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물론 수의 요구가 무리하였고, 무엇보다 공격이 양제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에 고구려의 선택지는 적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후술 하듯이 고구려의 대응은 강경한 편이었다. 607~612년 고구려의 대외 정책은 수와의 대립을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600년에 『신집(新集)』이 편찬된 사실이 주목된다(趙仁成, 1985; 朴成熙, 1999). 『신집』은 영양왕의 명으로 태학박사(太學博士) 이문진(李文眞)이 편찬하였다. 태학은 국립(國立) 유교교육기관으로 태학박사는 그 교수였다. 『신집』 편찬은 국왕이 주도한 국책사업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태학이 유교교육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신집』은 충(忠)과 같은 유교정치사상을 통해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다고 짐작된다(李基白, 2011).

당시 고구려는 598년 수와의 전쟁 위기를 넘긴 직후였다. 비록 수와 우호관계를 맺었다고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잠재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 무렵의 고구려는 남방의 백제·신라에 공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방의 긴장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남방의 정세마저 불안정했다. 이와 같이 보면 『신집』 편찬을 통해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고자 한 것은 왕권 강화의 결과였다기보다 오히려 그 필요성이 요청되었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왕권의 강화가 요청된 사정과 관련하여 고구려-수 전쟁의 주요 지휘관으로 왕제 건무와 대신 을지문덕이 활약한 사실이 참고된다. 건무는 평양성 공방전에서 내호아(來護兒)의 공격에 맞서 결사대를 이

끝었고, 마침내 이 전투의 승리를 주도하였다. 그는 영양왕의 이모제(異母弟)로, 618년 영양왕의 사후 왕위를 계승한 후일의 영류왕(재위 618~642년)이다. 그런데 영양왕은 565년에 태자가 되었고 590년에 즉위하였다. 이로 보아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영양왕은 노년기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건무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보면, 이 무렵 건무는 왕위계승 후계자 내지 유력한 후보자가 아니었을까 한다. 즉 건무는 왕실의 일원이자 대표자였다고 생각된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우문술이 지휘한 30만 군의 평양성 직공을 방어하였고, 그를 추격해 살수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을지문덕은 대신이었다고 하는데, 수에서 그를 국왕에 버금가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전(通典)』에서 을지문덕을 국상(國相)으로 표현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해를 보여준다. 이로 보아 을지문덕은 대대로(大對廬)로서 영양왕대 귀족회의의 수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을지문덕은 세계(世系)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그는 전통적인 귀족과 거리가 있는 신진 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임기환, 2004).

이처럼 건무와 을지문덕을 통해 볼 때 고구려-수 전쟁은 왕실과 신진 귀족세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원왕·영양왕과 신진 귀족세력은 대외정책과 전쟁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고, 598년 영주총관부 공격 역시 그들이 주도하였다. 그렇다고 보면 『신집』을 편찬해 왕권 강화를 추구하였던 것은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전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국왕과 신진 귀족세력은 수와의 관계에서도 대립을 마다하지 않은 강경노선을 추구하였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정치체제는 이른바 귀족연립

체제로 설명된다(노태돈, 1999; 임기환, 2004). 주요 귀족의 합의를 통해 국정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평원왕·영양왕 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국왕과 신진 귀족세력이 강경노선을 추구했다고 해도, 그에는 전통적인 귀족세력을 포함한 지배층 전반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곤란했다. 따라서 국왕과 신진 귀족세력이 강경노선을 주도하였지만, 여기에는 지배층 전반의 동의가 뒷받침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지배층은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을까 궁금하다.

6세기 고구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체제의 변화가 고려된다. 4~5세기 고구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인 영역 확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6세기 중반까지 태왕(太王)으로 상징되는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정치체제의 변동은 3세기 이후 철기가 보급되고 농업생산력이 증대되며, 토지와 인민의 확보가 중시된 결과였다. 토지와 인민의 확보가 중시되면서 국왕과 귀족을 비롯한 지배층은 대외적인 정복전쟁을 추진하였고(여호규, 1995), 정복전쟁에서 획득한 토지와 인민에 대한 분배권을 국왕이 행사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6세기 이후 고구려의 정복전쟁과 영역 확장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6세기 중반에는 백제·신라의 연합군으로부터 한강 유역을 상실했다. 농기구나 농법의 개량을 통한 농업생산력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 주요 귀족을 위시한 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요구는 축소·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한정된 사회경제적 분배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컸다. 6세기 중반 왕위계승을 둘러싼 귀족세력 간의 분쟁이

그와 같은 갈등의 결과였다고 해석된다(임기환, 1996b).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의 정치체제가 급속히 동요하지는 않았다. 귀족연립체제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치체제를 유지해 나갔다(노태돈, 1999). 주요 귀족세력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한편으로 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요구가 일정하게 해소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5세기 이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역권이 주목된다. 교역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소하였던 통로의 하나였음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체제 운영을 보면, 6세기 후반 이후 수의 세력 확대와 교역권 위협은 지배층 전반에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지배층 다수는 국왕과 신진 귀족세력이 주도한 강경노선에 동의하고, 수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612년 고구려-수 전쟁은 기본적으로 수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비롯되었지만, 한편으로 고구려 지배층의 정치적 선택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정빈, 2018).

607~611년 수에 대한 고구려의 강경노선과 관련하여 612년 수 양제가 반포한 고구려 공격 조서가 주목된다. 이를 보면 망반자(亡叛者)라는 존재가 보인다. 수에서 이탈해 고구려로 넘어간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수 내부의 반란세력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요서 지역의 일부가 수의 세력범위에 있었고, 6~7세기 거란·말갈의 제종족이 시세(時勢)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떠올려 보면, 망

반자란 비단 수 내부의 반란세력뿐만 아니라 거란·말갈을 비롯한 요서 지역의 제종족 중에서 이탈한 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가 수 내부의 반란세력 내지 요서 지역의 제종족을 포섭한 것은 동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조서 내용 중에서 고구려가 “변방에 가득하여 봉후(烽候)를 매우 수고롭게 하였으니, 변방의 경계가 이로 인하여 조용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실도 주목된다. 물론 수 양제의 고구려 공격 조서는 전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수 측의 과장을 감안해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요서 지역에서 고구려의 군사활동이 있었고, 그러한 활동이 일회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서에서는 고구려가 598년 수의 공격이 실패한 이후 거란과 말갈을 통해 해수(海戍)를 죽이고 요서(遼西)를 침범하였다고 하였다. ‘해수’라고 하면 요서의 해안지역에 설치된 수의 진·수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서’란 비교적 넓은 지역을 의미하지만, 이 무렵 요서 지역의 주요 교통로에 회원진과 같은 진·수가 설치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요서란 바로 그러한 군사기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고구려가 요서에 있는 수의 진·수를 공격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612년 수 양제의 고구려 공격 조서는 598년 이후 요서 지역에서 전개된 고구려의 대외정책과 군사활동, 구체적으로 수의 진·수를 공격한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607년까지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고구려가 수의 진·수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한 것은, 수의 고구려 공격 계획이 구상된 607년 이후였다고 생각된다. 598년의 전쟁 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림 수의 군사적 약점이 군수 보급에 있었고, 요서 지역의 진·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그와 같은 수의 약점을 공략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607~611년 고구려는 요서 지역에 위치한 수의 진·수를 공격하며 전쟁에 대비하였던 셈이다. 수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한 사례였다.

607~611년 고구려의 진·수 공격에 수가 방관하지만은 않았다. 예컨대 수의 세력범위로 들어간 속말말갈의 돌지계 집단은 양제 재위 초년에 고구려와 자주 전투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고구려의 요서 공략에 돌지계가 대응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611년 수는 고구려의 무려성(武厲城)을 함락시켰다고 한다. 무려성은 무열성(武列城)·무려라(武厲邏)라고도 하는데, 『자치통감』 호삼성(胡三省)의 주(注)에서 무려라는 요하 서쪽에 소재한 것으로 나온다. 고구려는 요하 서쪽의 요서 지역에 무려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사기지를 운용하였는데(노태돈, 1999), 무려라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점의 하나였다고 이해된다. 611년 무려라의 함락에서 보듯 양국의 변경이었던 요서 지역에서는 이미 612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문, 2005, 『韓國 軍事史의 再照明』, 황금알.
- 고마츠 하사오 외 씀, 이평래 옮김,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 宮崎市定 著, 林仲赫·朴善姬 譯, 1996, 『中國中世史』, 신서원.
- 권오중, 2012,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창석,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외 지음, 임대희 옮김, 2001,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해안.
- 니시지마 사다오 저, 이성시 엮음, 송원범 역,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18, 『역주 한원』, 동북아역사재단.
- 르네 그루셰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출판사.
- 리성준, 1962, 『수나라침략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조선로동당출판사.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전해선 옮김, 2015, 『수양제 - 전쟁과 대운하에 미친 중국 최악의 폭군 -』, 역사비평사.
-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 백종오, 2006,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 임진강에서 금강까지 -』, 서경.
- 徐仁漢, 1991, 『高句麗 對隋·對唐戰爭史』,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신승하, 1996,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1999a, 『高句麗 城』 2, 國防軍史研究所.
- ,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王綿厚·李健才 지음,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옮김, 2020, 『고대 동북아시아 교통사』, 주류성.
- 王小甫 主編, 김호 역, 2003, 『성당시대와 동북아정국』, 동북아역사재단.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
- 윤병모, 2011, 『고구려의 요서진출 연구』, 경인문화사.
- 李基白, 199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 , 2011, 『韓國史學史論』, 一潮閣.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1(古代篇), 一潮閣.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丙燾·金載元 著, 震檀學會 編, 1959,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 이성제, 2005a,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 이재성, 1996, 『古代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 , 2018, 『고구려와 유목 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 이정빈, 2018, 『고구려-수 전쟁-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주류성.
- 李龍範, 1975, 『古代의 滿洲關係』, 한국일보사.
- 李昊榮, 1997, 『新羅三國統合과 麗·濟 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 전준현, 1988,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동민, 2022, 『고구려-수 전쟁-고대 동아시아 최대의 충돌-』, 신서원.
- 정수일, 2001, 『썰코로드학』, 창작과비평사.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재훈, 2016, 『돌궐 유목제국사(552~745)』, 사계절출판사.

- 정진술, 2009,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研究所.
- 정호섭, 2016,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새문사.
- 조의 지음, 박한제 옮김, 2009, 『이십이사차기』 3, 소명출판.
-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 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 동북아역사재단.
-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2005, 『비단길과 주옥같은 정치 - 의례와 상징으로 본 唐代 정치사』, 고즈윈.
- 하자노프 著, 김호동 譯, 1990, 『遊牧社會의 構造』, 知識産業社.
- 한원연구회 편, 2022, 『한원 번이부의 세계』, 학연문화사.
- 호리 도시카즈(堀敏一) 지음, 정병준·이원석·채지혜 옮김,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 동국대학교출판부.
- 홍승현, 2002, 『사대부와 중국 고대 사회』, 해안.
- 吉田光男·전상우 譯, 2019, 『『한원』에 인용된 『高麗記』』, 『중원문화연구』 27.
- 김복순, 1986, 「고구려의 대수·당 항쟁전략 고찰」, 『軍史』 12.
- 김선민, 2003, 「隋 煬帝의 軍制改革과 高句麗遠征」, 『東方學志』 119.
- 金善昱, 1984a, 「高句麗의 隋唐關係 研究 - 朝貢記事의 檢討를 中心으로 -」, 『論文集』 11-2, 忠南大 人文科學研究所.
- , 1984b,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 靺鞨을 中心으로 -」, 『百濟研究』 26.
- , 1987, 「隋代 ‘遼東之役’의 廷議에 關한 檢討」, 『論文集』 14-1, 忠南大學 校 人文科學研究所.
- 김수진, 2008, 「隋·唐의 高句麗 失地論과 그 배경 - 對高句麗戰 명분의 한 측면 -」, 『韓國史論』.
- 김지영, 2014,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昌錫, 2004, 「高句麗 초·중기의 對中 교섭과 교역」, 『新羅文化』 24.
- , 2007,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東亞歷史論叢』 15.
- 김택민, 2009, 「唐代 前期의 盛世와 비단[絹帛](Pax Serica)」, 『中國學報』 60.
- 金賢淑, 1997,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的 地方統治體制的 發展過程」, 『韓國

- 古代史研究』11.
- \_\_\_\_\_, 2002, 「6~7세기 高句麗史에서의 鞞鞫」,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 金浩東, 1987, 「突厥·回鶻史 연구의 제문제」, 『東洋史學研究』 25.
- \_\_\_\_\_, 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동양사학회 저, 『동아시아상의 왕권』, 한울.
-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 \_\_\_\_\_, 1985, 「高句麗對外關係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 \_\_\_\_\_,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 \_\_\_\_\_, 2015,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東洋學』 58.
- 武田幸男 著, 김효진 譯, 2019, 「『高麗記』와 高句麗 情勢」, 『중원문화연구』 27.
-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 平壤遷都 以後 高句麗 軍事戰略의 指向點을 中心으로 -」, 『史學研究』 40.
- \_\_\_\_\_,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 \_\_\_\_\_, 2006,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전쟁」, 김정배 편저,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 朴成熙, 1999,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 8.
- 朴漢濟, 1993,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 經緯에 대한 一考 - 隋唐初 皇帝의 正統性問題와 關聯하여 -」, 『東洋史學研究』 43.
- \_\_\_\_\_, 1998,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 胡漢葛藤과 二重構造」, 『分裂과 統合 - 中國中世의 諸相 -』, 知識産業社.
- 方香淑, 2008, 「7세기 중엽 唐 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과정」, 『中國古中世史研究』 19.
- 拜根興, 2002, 「激動의 50年 - 高句麗와 唐의 關係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14.
- 서영교, 2012,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 손영중, 2008, 「수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 『조선단대사』 4,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松井等 著, 심호섭·이남일·이정빈 譯, 2013, 「수·당 두 왕조의 고구려 원정의 지리」, 『韓國古代史探究』 14.
- 쉬웨이웨이(許偉偉), 정병준·조재우 옮김, 2013, 「당 전기의 변주 문제」, 연민수의 지음,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와 변경기구』,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1999b,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體系와 軍事作戰」, 『韓國軍事史研究』 3.
- \_\_\_\_\_,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 \_\_\_\_\_, 2006, 「책봉호 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 柳元迪, 1989, 「唐 前期의 支配層」, 서울대학교 東洋史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 II - 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 지식산업사.
- 尹成龍, 1997,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11.
- 윤용구, 2005,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 『북방사논총』 5.
- \_\_\_\_\_, 2021,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白山學報』 120.
- 이강래, 1998, 「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 통일기 신라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14.
- 李公範, 1979, 「南朝貴族의 性格」, 『東洋史學研究』 14.
- 李基東, 2005, 「高句麗의 勢力圈 遼東에 對한 地政學的 考察」, 『高句麗研究』 21.
- 이동준, 2009, 「隋煬帝의 高句麗 원정과 군사전략」, 『學林』 30.
- 이문기, 2007,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高句麗研究』 27.
- 李成珪, 1992, 「中國諸國의 分裂과 統一 - 後漢解體 이후 隋·唐의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閔賢九 外, 『歷史上의 分裂과 再統一(上)』, 一潮閣.
- 李成市, 1990, 「高句麗와 日隋外交 - 이른바 國書문제에 관한 一試論 -」, 『碧史 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刊行委員會.
- \_\_\_\_\_, 2009,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의 문명사적 위상」, 『사림』 34.
- 이성제, 2003, 「靺鞨問題」를 통해 본 6世紀末 遼西 정세의 변화」, 『학예지』 10,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_\_\_\_\_, 2005b,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 對隋·對唐戰爭期 契丹의 同鄉과 그 意味 -」, 『북방사논총』 5.
- \_\_\_\_\_, 2012,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東海交涉路 - 6세기 후반~7세기 초 고구려·왜·백제 3국의 상호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 『高句麗渤海研究』 43.
- \_\_\_\_\_, 2013, 「高句麗의 西方 國境線과 武厲邇」, 『大丘史學』 113.
- \_\_\_\_\_, 2015,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關係 - 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 『고구려발해연구』 52.
- \_\_\_\_\_, 2016, 「高句麗와 北朝의 境界 - 고구려의 遼西 동부지역 확보와 그 시기」, 『高句麗渤海研究』 54.
- \_\_\_\_\_, 2017, 「高句麗와 遼西橫斷路 - 遼河 沿岸 交通路와 관리 기구 -」, 『韓國史研究』 178.
-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 이재성, 2000, 「5~6世紀 '勿于集團'의 成立·發展과 解體」, 『中國學報』 42.
- \_\_\_\_\_, 2005,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衝突」, 『북방사논총』 5.
- 이정빈, 2019,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무엇을 바꾸었나?」, 『역사비평』 126.
- \_\_\_\_\_, 2021a, 「고구려-수 전쟁과 전염병」, 『韓國古代史研究』 102.
- \_\_\_\_\_, 2021b, 「『고려풍속』과 『고려기』 - 수·당의 고구려 탐방과 7세기 동아시아 -」, 『先史와 古代』 67.
- 李昊榮, 1996, 「수·당과의 전쟁」, 노태돈 외, 『한국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강만길 외, 『한국사 4 -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2 -』, 한길사.
- \_\_\_\_\_, 1996a, 「지방·군사제도」, 노태돈 외,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6b, 「후기의 정세변동」, 노태돈 외,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_\_\_\_\_, 2007, 「국제관계」,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상)』, 지식산업사.
- \_\_\_\_\_, 2011, 「고구려의 군사제도와 방어체계」, 육군군사연구소 기획·주간, 『한

- 국군사사-고대 I -, 육군본부.
- \_\_\_\_\_, 2012a,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육군군사연구소 기획·주간, 『한국군사사-고대 II -, 육군본부.
- \_\_\_\_\_, 2012b,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삼국의 대외정책」, 육군군사연구소 기획·주간, 『한국군사사 II』, 육군본부.
- \_\_\_\_\_, 2014,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 -」, 『역사문화논총』 8.
- 鄭勉, 2009, 「6세기 中國 王朝의 雲南지역 지배와 ‘西爨’-爨瓊·爨雲 부자의 ‘竊據’와 남북조시기 ‘邊州’의 성격 -」, 『歷史學報』 202.
- 정원주, 2013, 「高句麗 滅亡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4, 「7세기 고구려의 西界 변화」, 『영토해양연구』 8, 동북아역사재단.
- 정재훈, 2001,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 西北民族에 대한 對應을 중심으로 -」, 『中國史研究』 13.
- \_\_\_\_\_, 2004, 「隋煬帝(604~617)의 對外政策과 天下 巡幸」, 『中國史研究』 30.
- 丁仲煥, 1968, 「古代史上的 大陸關係 - 高句麗를 중심으로 -」, 『白山學報』 4.
- 趙仁成, 1985, 「三國 및 統一新羅의 歷史敍述」,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 甘懷眞, 1991, 『唐代文化研究討論文集』, 文史哲出版社.
- 高福順·姜維公·戚暢, 2003, 『高麗記研究』, 吉林文士出版社(조복현 외 번역, 동북아역사재단 내부자료 번역-15).
-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 楊秀祖, 2010, 『高句麗軍隊與戰爭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沈陽出版社.
- 劉健明, 1999, 『隋代政治與對外政策』, 文津出版社.
- 中國軍事史編寫組, 1983, 『中國軍事史』 1(兵器), 解放軍出版社.
- 陳寅恪, 1996, 『唐代政治史術論稿』, 臺灣商務印書館.
- 宮崎市定, 1987, 『隋の煬帝』, 中央公論社.

- 鬼頭清明, 1976,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 濱口重國, 1966, 『秦漢隋唐史の研究』下, 東京大學出版會.
- 西嶋定生, 1983,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 小尾孟夫, 2001, 『六朝都督制研究』, 溪水社.
- 日野開三郎, 1991, 『東洋史學論集 15 - 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
- 護雅夫, 1967,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 山川出版社.
- 菊池英夫, 1992, 「隋朝の對高句麗戰爭の發端について」,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16.
- 堀敏一, 1979, 「隋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 唐代史研究會 編,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 特に筆者と作成年次 - 」, 『朝鮮學報』85.
- 童嶺, 2017, 「貞觀年間唐帝國的東亞情報・知識與逸籍」, 『東方學報』92.
- 武田幸男, 1994, 「『高麗記』と高句麗情勢」, 『于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民族文化의 諸問題』, 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 山崎宏, 1958, 「隋代總管考」, 『史潮』64・65.
- , 1965, 「隋朝官僚性格」, 『東京教育大學教育部紀要』6.
- 松井等, 1913, 「隋唐二朝の高句麗遠征の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滿洲歴史地理』上, 丸善株式會社.
- 淺見直一郎, 1985, 「煬帝の第一次高句麗遠征軍 - その規模と兵種 - 」, 『東洋史研究』44-1.
- 韓昇, 1995,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編輯委員會 編, 『堀敏一先生古稀記念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 興膳宏・川合康三, 1995, 『隋書經籍志詳攷』, 汲古書院.



# 고구려의 수군 격퇴와 그 영향

정동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주지하듯이 양제(揚帝)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마친 후 612년, 613년, 614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612~614년 고구려-수 전쟁은 대규모의 인력과 물자가 총동원되었던 동아시아 최강국 간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인 고구려와 수는 물론 주변 제세력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뒤흔들었던 사건이기도 하였다. 이에 학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방면에 걸쳐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글에서는 고구려-수 전쟁에 대해 군사사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즉, 군대 편성, 진군 노선, 전략과 전술 등을 검토하면서 고구려-수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절에서는 612년 고구려 원정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군의 군

단 편성, 조직체계, 병종(兵種) 구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군단 편성의 경우 사료마다 상충되는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 사이에 벌어진 성곽전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수군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성곽전의 고전 속에서 편성된 수의 별동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전술을 규명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613년과 614년 고구려-수 전쟁에 보이는 수군의 군단 편성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면서 수군의 전략 변화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고구려-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양국과 국제정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1. 612년 수의 고구려 원정 준비

고구려 원정을 결정한 수는 608년부터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운하를 건설하고 군마(軍馬)와 병장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大本營(大本營)으로 임삭궁(臨朔宮)을 건설하는 등 일찌감치 전쟁 준비에 나섰고, 611년 2월 양제가 탁군(涿郡: 북경(北京) 남서쪽 일대)에서 고구려 토벌을 선언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보다 본격화하였다. 수는 2월에 동래(東萊: 산둥성(山東省) 내주(萊州) 혹은 등주(登州))에서 배 300척을 건조하였다. 4월에는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이남에서 수수(水手) 1만 명과 노수(弩手) 3만 명, 영남(嶺南)에서 배찬수(排鑕手) 3만 명을 징발하였다. 5월에는 용거(戎車) 5만 승을 제작하여 고양(高陽)으로 보낸 후 군사들로 하

여금 갑옷이나 천막 등의 군수품을 신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여창(黎倉)과 낙구(洛口)의 창고에 있던 미곡을 탁군으로 보냈고, 다시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인 노하진[瀘河鎮: 요령성(遼寧省) 금주(錦州) 일대]과 회원진[懷遠鎮: 요령성 북진(北鎮) 일대]에 보내 비축하였다.

한편, 수는 고구려 원정 준비를 하는 와중에 611년 고구려의 무려성(武厲城)을 공격하였다(『수서』 이경전). 고구려 또한 요서(遼西)에 위치한 수의 진(鎭)·수(戍)를 공격한 바 있었는데(이정빈, 2018), 즉 양국은 612년 이전에 접경공간인 요서에서 국지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양국의 국지전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 요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전쟁 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수가 의무려산(醫巫閭山)·대릉하(大凌河) 하류 동쪽 인근을 세력 안에 두고 노하진과 회원진을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군량 보급을 꾀할 수 있었다.

## 1) 군단 편성과 병력

수는 위와 같은 고구려 원정을 위한 제반 준비뿐만 아니라 군단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수의 군단 편성에 대해서는 ‘113만 3,800명’이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꽤 자세한 기록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의 관심 속에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배출되었다.

총래 수군의 군단 편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주목했던 기사는 612년 1월 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나서면서 반포한 조서, 그리고 수군의 행군 모습과 편제 양상이 담겨 있는 『수서』 예의지였다. 두 기사를

종합하면 육군은 24군과 더불어 양제와 문무백관을 호위하던 군대로 추정되는(寧志新·喬鳳岐, 2004) 천자[天子: 어영(御營)] 6군으로 편성되었다고 나온다(표1 참고). 이를 바탕으로 수 육군은 ‘24군+천자 6군’ 등 모두 30개 군으로 편성되었다고 별 의심 없이 이해해 왔다.

하지만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 참전한 인물의 열전이나 묘지명 등 사료의 폭을 넓혀 보면 24군 이외의 군명이 추가로 확인된다. 요동성 공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군이 평양성으로 곧장 진군시킬 목적으로 편성한 별동대를 보면 참전한 군대로 수성도군(遂城道軍)과 증지도군(增地道軍)이 나온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6월).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범안귀(范安貴)와 유원(遊元)이 각각 험독도군(險瀆道軍)과 개모도군(蓋牟道軍)을 이끌었다고 나온다(〈범안귀묘지명〉; 『수서』 유원전).

한편, 612년 고구려-수 전쟁 때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군명도 확인된다. 이민(李敏)이 이끌었던 신성도군(新城道軍)은 612년 혹은 613년 고구려-수 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서』 이민전), 군명에 보이는 신성[新城: 요령성 무순(撫順) 고이산성]이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612년 전쟁 때 편성되었다고 여겨진다. 613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편성된 노룡도군(盧龍道軍)의 경우(『수서』 양언광전) 612년 전쟁 때 편성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613년 전쟁 당시 편성되었던 군명을 살펴보면 노룡도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612년 전쟁에서도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613년 전쟁의 병력 수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13년 고구려-수 전쟁 때 새로운 군명으로 군대를 편성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노룡도군 또한 612년 고구려-수 전쟁 때 편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612년 고구려-수 전쟁 때 편성된 수 육군의 군명으로 기

표1 『수서』 본기와 예의지에 보이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수 육군 편제 양상

군명	군명 유래	주요 지휘관	관직	관등	전거	
좌1군	누방도 (鏐方道)	낙랑군 속현				
좌2군	장잠도 (長岑道)	낙랑군 속현	번자개(樊子蓋)	대장 (大將)	섭좌무위장군 (攝左武衛將軍)	『수서(隋書)』 번자개
좌3군	해명도 (海冥道)	낙랑군 속현	두로실(豆盧實)	부장 (副將)	호분랑장 (虎賁郎將)	〈두로실묘지명〉
좌4군	개마도 (蓋馬道)	현도군 속현	토만서(吐萬緒)	대장	좌둔위대장군 (左屯衛大將軍)	『수서』 토만서
좌5군	건안도 (建安道)	고구려 지명				
좌6군	남소도 (南蘇道)	고구려 지명	단문진(段文振)	대장	좌후위대장군 (左候衛大將軍), 병부상서 (兵部尚書)	『수서』 단문진
좌7군	요동도 (遼東道)	고구려 지명	형원항(荊元恒)	대장	좌효위대장군 (左驍衛大將軍)	『자치통감(資治通鑑)』 대업(大業) 8년
			관덕왕웅(觀德王雄)	대장	검교좌익위대장군(檢校左翊衛大將軍)	『수서』 관덕왕웅
좌8군	현도도 (玄菟道)	현도군	신세웅(辛世雄)	대장	우둔위장군 (右屯衛將軍)	『자치통감』 대업 8년
좌9군	부여도 (扶餘道)	고구려 지명	우문술(宇文述)	대장	좌익위대장군 (左翊衛大將軍)	『수서』 우문술
좌10군	조선도 (朝鮮道)	낙랑군 속현				
좌11군	옥저도 (沃沮道)	옛 족속명	설세웅(薛世雄)	대장	우익위장군 (右翊衛將軍)	『수서』 설세웅
좌12군	낙랑도 (樂浪道)	낙랑군	우중문(于仲文)	대장	우익위대장군 (右翊衛大將軍)	『수서』 우중문
			류사룡(劉士龍)	위 무사 (慰撫使)	상서우승 (尚書右丞)	『수서』 우중문
우1군	점제도 (黏蟬道)	낙랑군 속현				
우2군	함자도 (含資道)	낙랑군 속현				

군명		군명 유래	주요 지휘관	관직	관등	전거
우3군	혼미도 (渾彌道)	낙랑군 속현	이경(李景)			『수서』 이경
우4군	임둔도 (臨屯道)	현도군 속현				
우5군	후성도 (候城道)	요동군 속현				
우6군	제해도 (提奚道)	낙랑군 속현				
우7군	답돈도 (踏頓道)	요서(遼西) 지명	사상(史祥)	대장	좌효위장군 (左驍衛將軍)	『수서』 사상
우8군	숙신도 (肅慎道)	옛 족속명	양의신(楊義臣)		태복경(太僕卿)	『수서』 양의신
우9군	갈석도 (碣石道)	요서 지명	조(孝)재 [趙(孝)才]			『수서』 조재
우10군	동이도 (東曠道)	낙랑군 속현	육지명(陸知命)	수항사 자(受降 使者)	치서시어사 (治書侍御史)	『수서』 육지명
우11군	대방도 (帶方道)	낙랑군 속현				
우12군	양평도 (襄平道)	요동군 속현	장근(張瑾)	대장	우어위장군 (右御衛將軍)	『자치통감』 대업 8년
천자6군	내군 (內軍)					『수서』 예의(禮儀)
천자6군	외군 (外軍)					『수서』 예의
천자6군	전군 (前軍)					『수서』 예의
천자6군	후군 (後軍)					『수서』 예의
천자6군	좌군 (左軍)					『수서』 예의
천자6군	우군 (右軍)					『수서』 예의

존의 ‘24군+천자 6군’ 외에 추가로 4개 또는 최대 6개를 포함한다면 모두 34~36개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수군의 진군과 관련하여 탁군에서 “매일 한 군이 출발하여 40일이 되어서야 출발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는데(『수서』 제기 양제 대업 8년 춘정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 육군이 ‘34군+천자 6군’ 등 모두 40개 군으로 편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수 육군이 ‘24군+천자 6군’ 등 30개 군으로 편성되었다고 이해하여 왔던 것은 612년 1월에 반포된 양제의 조서 내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서는 612년 1월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612년 1월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612년 1월 조서가 반포된 다음 탁군에서 노하진이나 회원진으로 진군하는 사이 혹은 이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간에 군단 편성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전쟁 내내 수 육군이 ‘24군+천자 6군’ 등 30개 군으로 이루어졌다는 통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수군(水軍)의 편제 양상과 관련하여 양제의 조서에 보이는 24군 가운데 낙랑군(樂浪郡)과 현도군(玄菟郡) 속현의 군명을 가진 군들을 수군(水軍)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서인한, 1991; 임용한, 2012). 이 견해는 군명이 실제 진군 목표지점을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한반도에 위치한 지역은 해로, 즉 수군(水軍)을 통해 건너갔다고 보는 것인데, 별동대로 편성된 군대의 진군 방향을 보면 군명이 꼭 실제 진군 목표지점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양제의 조서를 보면 24군이 언급된 다음에 ‘창해도군(滄海道軍)’이 나오는데, ‘창해(滄海)’라는 군명과 더불어 연이어 나오는 “주로(舟艫)가 1,000리이고 높은 돛은 번개가 내달린 듯하며 거대한 전함은 구름

처럼 날아가 패강(溟江)을 가로질러 곧장 평양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기록을 감안하면, 창해도군이 수군(水軍)의 군명이었다고 추정된다. 수군(水軍), 즉 창해도군은 전투 수행과 더불어 평양성에서 육군과 만나 군량을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다(『수서』 식화지 대업 7년).

이와 같이 수군은 육군과 수군(水軍)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육군과 수군(水軍) 각각의 병력 수, 나아가 육군 각 군의 병력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611년 4월에 수는 장강과 회수 이남 그리고 영남에서 수수 1만 명과 노수 3만 명, 배찬수 3만 명을 징발한 바 있다. 수수는 노를 짓는 인력이었으므로 분명 수군(水軍)으로 참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배찬수가 지니고 있었던 배찬(排鑣), 즉 짧은 창은(『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7년 호삼성 주) 육군보다는 수군(水軍)에 유리한 무기이다. 이를 감안하면 611년 4월에 징발된 수수, 노수, 배찬수 등 총 7만 명은 수군(水軍)으로 동원된 병력이었다고 추정된다(楊秀祖, 1996). 그렇다면 육군은 총병력 113만 3,800명에서 수군(水軍) 7만 명을 뺀 106만 3,800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

1 『수서』 제기 양제 대업 8년 춘정월조에는 육군과 수군(水軍)이 모두 언급된 다음에 113만 3,800명이라는 병력 수가 나오는 반면, 『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춘정월조에는 육군만 언급된 후 113만 3,800명이라는 병력 수가 나온다. 『수서』에는 육군과 수군(水軍)을 합해서 113만 3,800명, 『자치통감』에는 육군만 113만 3,800명이었다고 나오는 것이다. 『자치통감』은 『수서』를 인용·참고한 2차 사료이다. 그리고 『자치통감』에서 113만 3,800명을 육군의 병력 수로 기록한 것이라면 수군(水軍)의 병력 수도 따로 언급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113만 3,800명은 육군과 수군(水軍)을 합한 병력 수로 추정된다.

## 2) 병종 구성

수 육군 각 군의 병종 구성에 대해서는 『수서』 예의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의지의 기록을 토대로 각 군의 병종에 대해 살펴보면 육군 각 군은 기병과 보병 그리고 치중용거산병(輜重戎車散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기병은 4단(團)이 있었고, 1단은 10대(隊)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마다 100기(騎)가 있었다. 1단과 3단에 속한 기사는 명광갑(明光甲)을 입었고 철구장(鐵具裝)을 착용한 말을 탔다. 반면 2단과 4단에 속한 기사는 서갑(犀甲)을 입었고, 수문구장(獸文具裝)을 착용한 말을 탔다. 612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수군 기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사뿐만 아니라 말에게까지 갑옷을 착용시킨 중장기병(重裝騎兵)이 주력이었다는 점이다. 중장기병은 북방 종족이 북중국 대륙으로 대거 진출하였던 5호16국시기에 급속도로 보급되어 각 국가의 주요 병종으로 자리잡았다. 수는 북주의 군제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중장기병 또한 그대로 활용하여 기병의 주력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병을 살펴보면, 기병과 마찬가지로 4단이 있었다. 1단은 20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대마다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병은 기본적으로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였고 방패를 소지하였다. 기병과 달리 보병이 입은 갑옷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기사가 입은 갑옷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보병 또한 명광갑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치중용거산병 또한 보·기병과 마찬가지로 4단이 있었다. 치중용거산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보병이 끼고

행군하였으며(『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정월), 보·기병과 교대로 번(番)을 섰다는 점에서(『수서』 예의지 대업 7년) 보·기병과는 구별되는 병종이었다고 여겨지는데, 부병(府兵)으로 이루어진 보·기병과 달리 모인(募人)들로 이루어진 병종으로서 숫자만 채우는 예비군(韓昇, 1996), 용거를 이용해 군수물자를 옮기는 보급병, 공성기계를 만드는 공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군 내 기병, 보병, 치중용거산병의 수에 대해서는 『수서』 예의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보병 한 대의 군사 수, 치중용거산병의 실체, 육군 한 군의 병력 수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기병 4,000기, 보병 8,000명, 치중용거산병 8,000명 등 총 2만 명으로 보는 견해(서인한, 1991; 김성남, 2005), 기병 4,000기, 보병 1만 6,000명, 기타 5,000명 등 총 2만 5,000명으로 보는 견해(淺見直一郎, 1985), 기병 4,000기, 보병 8,000명, 치중(輜重)·용거(戎車)·산병(散兵) 1만 3,000명 등 총 2만 5,000명으로 보는 견해(이동준, 2009), 기병 4,000기, 보병 8,000명, 치중병 2만여 명 등 총 3만 2,000여 명으로 보는 견해(온창일, 2001), 기병 4,700기, 보병 1만 6,000명, 중장비 운송 및 예비병력 1만 6,000명, 기타 인원 300여 명 등 총 3만 7,000여 명으로 보는 견해(김창석, 2007) 등이 있다. 그리고 일반군과 천자군의 병력 수를 다르게 파악하면서 일반군은 기병 4,000기, 보병 8,000명, 치중용거산병 1만 3,000명 등 총 2만 5,000명, 천자군은 기병 5,000기, 보병 1만 명, 치중용거산병 2만 명 등 총 3만 5,000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동민, 2016).

한편, 수군(水軍)의 병종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병력 7만 명 가운데 수수 1만 명을 뺀 6만 명이 전투병력이었고, 노수와 배찬수가 각각 3만

명이었다는 것 이외에 자료 부족으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 3) 지휘체계

문제(文帝) 시기에는 중앙과 지방에 표기부(驃騎府)와 거기부(車騎府) 등 군부(軍府)를 설치하여 부병을 관리하였고, 군부의 부병은 중앙 12위(衛)에 분속하였다. 그리고 양제 시기에는 중앙 12위에 각각 정3품 대장군(大將軍) 1명, 종3품 장군(將軍) 2명, 정4품 무분랑장(武賁郎將) 4명, 종4품 무아랑장(武牙郎將) 6명, 그리고 정5품 장사(長史) 1명 등을 배속하였다.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 참전한 주요 지휘관의 관명을 보면 대장군, 장군, 무분랑장, 장사 등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중앙 12위 소속 인물들이 대거 지휘관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장군 혹은 장군은 각 군의 최고 지휘관인 대장을 맡았다. 무분랑장은 대장 바로 아래인 아장(亞將), 아장을 맡지 못한 무분랑장과 무아랑장은 단을 이끄는 편장(偏將)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사는 개모도군으로 참전한 유원의 사례로 볼 때 감군(監軍)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수서』 유원전). 북주나 수 초기의 감군은 군사결정권을 가지면서 제군(諸軍)을 통솔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군의 전업화가 이루어져 주로 위법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다(孫繼民, 1995).

한편, 각 군에는 대장, 아장, 편장, 감군 외에 특수 보직으로 수항사자(受降使者) 1명이 있었다. 수항사자는 그 관명을 감안하면 정식으로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는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 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위무하는 역할도 맡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대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수서』 예의지 대업 7년), 이는 수항사자가 대장을 보조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관직이 아니라 대장과 더불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항사자로 참전한 인물로는 육지명(陸知命)이 확인된다(『수서』 육지명전). 동이도군(東暉道軍)의 수항사자로 참전한 그는 당시 3대(臺) 가운데 하나인 어사대(御史臺) 소속으로 백관을 감찰·탄핵하고 옥안과 송사를 추국하는 일을 관장했던 정5품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였다. 한편, 낙랑도군(樂浪道軍) 소속으로 참전한 류사룡(劉士龍)은 군 내에서 위무사(慰撫使)를 맡고 있었는데(『수서』 우중문전), 위무사는 수항사자와 마찬가지로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처음 확인되고(寧志新, 2005), 관명에 보이는 ‘위무(慰撫)’는 수항사자의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류사룡은 군 내 동정을 살피러 온 을지문덕의 생포 여부를 두고 대장인 우중문(于仲文)과 대립한 바 있는데, 우중문과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모습은 대장의 통제를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무사는 수항사자였다고 여겨지는데, 위무사를 맡고 있던 류사룡은 당시 5성(省) 가운데 하나인 상서성의 6조(曹) 소속으로 관료들의 위반사항을 감찰하고 법제를 바로잡았던 정4품 상서우승(尙書右丞)이었다.

육지명과 류사룡의 사례로 볼 때 양제는 5성과 3대 소속 인물을 수항사자로 임명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앙 12위 소속인 대장이 수항사자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대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12위 소속이 아니면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 임명되었다는 점, 대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장과 더불어 권한이 막강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

면, 수항사자는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고 황제의 조서를 받드는 공식적인 역할 이외에 대장을 감찰·통제하는 역할 또한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고구려의 무리는 우리 한 군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백만여 명의 군을 이끌고 가면 당연히 승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전쟁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정월). 이렇듯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전투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는 황제의 일원적 명령체계하에 명문 출신의 장수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확인시키고 위엄을 과시하는 한편(김선민, 2003), 누구와도 전쟁 승리의 영광을 나누지 않고 공을 오로지 자신에게 돌려 승리를 거둘 줄 아는 군주임을 표출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양제의 수항사자 파견 또한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군의 항복을 군의 최고 지휘관인 대장이 아니라 자신을 대변하는 수항사자를 통해 받도록 함으로써 대장의 전공이 부각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자신의 지휘와 의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대장을 견제·통제하여 군 내에 자신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으로 일원화한 지휘체계를 갖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양제는 612년 1월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 2. 612년 고구려-수 전쟁

### 1) 성곽전의 전개와 수의 고전

양제는 612년 1월 신사일(1일)에 고구려 원정에 나서는 모든 군사를 탁군에 집결시켰다. 그런 다음 고구려를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면서 전쟁은 시작되었다. 수군은 한꺼번이 아닌 하루에 한 군씩 출발하였다. 그리고 북과 호각 소리를 크게 내며 요란하게 진군하였다(『수서』 예의지 대업 7년). 대군의 위용을 드러냄으로써 고구려군의 항복을 이끌어 내거나 전쟁 수행 의지를 꺾고자 한 것이다(韓昇, 1996; 張豔, 2015).

수군은 1월에 탁군을 출발한 후 임유관[臨渝關: 하북성(河北省) 진황도(秦皇島) 산해관(山海關) 일대]과 유성[柳城: 요령성 조양(朝陽)]을 지나 노하진 혹은 회원진에서 군수물자를 보급받고 3월 갑오일(15일)에 요수[遼水: 요하(遼河)]에 이르렀는데, 도하가 녹록치 않았다. 고구려가 요수 동쪽에 군사를 배치하면서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수 도하로 가운데 하나인 대안(臺安) 손성자(孫城子)-안산(鞍山)의 중로(中路)를 통해 요동성으로 진군하고자 했던 양제는 공부상서 우문개(宇文愷)에게 명하여 부교(浮橋) 3개를 제작토록 하였다. 그리고 부교의 한쪽 끝을 요수 동쪽에 대고자 하였으나, 부교의 길이가 짧아 댈 수 없었다. 이때 고구려군이 나타나자 수군은 강물로 뛰어들어 교전을 펼쳤는데, 고구려군이 높은 언덕에 올라 수군을 공격함으로써 도하를 저지하였다. 도하에 실패한 양제는 부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소부감 하조(何稠)에게 이전보다 긴 부교를 제작토록 명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부교를 요수 동쪽 기슭에 대는 데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도하할 수 있었고 요수 동쪽에서 고구려군 만여 명을 전사시켰다.

한편, 『수서』 제기를 보면 수군이 3월 갑자일에 요수를 건넜다고 나온다(『수서』 제기 양제 대업 8년 3월). 그런데 612년 3월에는 갑자일이 없다. 일간지의 오류가 보이는 것이다. 『자치통감』을 보면 양제의 요수 도착, 수군의 요수 도하, 그리고 요동성 포위 모두 612년 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2월). 기본적으로 『수서』를 인용하였지만 3월의 일간지가 역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간지를 적지 않고 생략해버린 것이다.

갑자일은 612년 3월에는 없지만 4월에는 있다. 그리고 『수서』 제기의 기사를 보면 3월 다음에 4월 없이 5월로 넘어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서』 제기에 보이는 양제와 수군이 요수를 건넜다는 갑자일은 3월이 아닌 4월에 있는 일간지로 여겨진다. 『책부원구』를 보면 양제가 요수 도하 후에 행한 조서 반포가 4월에 있었다고 나오는데(『책부원구』 제왕부 사유 대업 8년 4월), 이 또한 수군의 요수 도하가 4월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만약 수군의 요수 도하가 4월 갑자일(15일)에 이루어졌다면 수군은 요수를 건너는 데 한 달여가 걸린 셈이다. 요수를 지키던 고구려군은 비록 수군의 도하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도하를 한 달 가까이 지연시킴으로써 후방에 있는 아군에게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월 중순에 수군이 요수를 건넌 이후에는 양국 간 성곽전이 전개되었다. 고구려군은 요수를 사이에 두고 수군과 전투를 벌이기는 하였지만, 성곽을 중심으로 한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수군과 비교했을 때 병력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대한 군사들을 노출시키지 않

은 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어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료상으로는 양국의 성곽전이 요동성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성곽전이 요동성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수군이 단일 경로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진군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이동준, 2009). 하지만 고구려가 “각 성(城)을 잘 지키고 있어 수가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수서』 제기4 양제 대업 8년 5월), 양제가 장수들에게 “세 길로 나누어 공격한다면 반드시 서로 알리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며, 군대가 움직인다면 반드시 상주문을 올리고 회보를 기다리라”고 명했다는 기록(『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5월), 수의 장수 왕인공(王仁恭)이 한 군을 이끌고 가서 고구려군을 격파하였다는 기록(『수서』 왕인공전), 수가 고구려의 성곽인 무려라(武厲邐)를 차지하였다는 기록(『수서』 고려전) 등은 수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진군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수의 고구려 성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고구려가 성곽전 위주의 전략·전술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성곽 중심의 방어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도성에 평지성과 산성을 동시에 두는 이원적 도성체계, 국경지대에서 도성에 이르는 교통로에 성을 촘촘히 배치하는 축선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성곽을 축조하면서 호형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이와 같은 여러 계통의 성곽 방어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고구려 영역 전체에 걸친 입체적 군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여호규, 1999). 고구려는 바로 이러한 성곽 방어체계를 바탕으로 성곽전 수행은 물론, 청야전이나 유인전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

양국의 대표적인 성곽전은 4월부터 벌어진 요동성전투이다. 요동성이 위치한 요령성 요양(遼陽)은 고대부터 동북 지방의 중심지로 요동평원과 천산산맥(千山山脈)의 접이지대에 자리잡고 있는데, 예로부터 요동평원을 따라 요동반도와 혼하(渾河) 방면뿐만 아니라 천산산맥을 넘어 압록강 일대로 나아가는 육상로가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여호규, 1999). 이와 같이 요양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수군은 요동성을 함락하고자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함락하지 못하였다.

수군이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서』에는 전투에 대한 모든 상황을 양제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수군 지휘부가 양제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사이에 고구려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수서』 고려전). 양제는 4월에 군사들과 함께 요수를 건너기는 하였지만 요동성까지 동행하지는 않았다. 임해돈(臨海頓)으로 이동해서 전장을 지휘하였던 것이다(『수서』 우작전·고려전).

양제가 머물렀던 임해돈은 망해돈(望海頓)이라고도 부르며(『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7월 호삼성 주) 유성현(柳城縣)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대체로 대릉하 하류의 요령성 금주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譚其驤, 1982; 이정빈, 2011). 양제는 수군이 요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였을 때 이미 승리를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동성 주변이 아니라 후방인 임해돈에 머물면서 전쟁을 지휘하였다고 추정되는데, 이로 인해 양제와 전장에 있던 지휘관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형성되어 지휘관과 양제 간 보고·지시의 신속성이 크게 떨어졌고, 전선에 있던 부대는 장기간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지휘관들이 양제에게 전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사이에 전투 양상은 시시각각 변했지만, 수군은 그 변화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결국 고구려군은 수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고 수군의 계속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6월에 이르러서는 양제가 요동성에 직접 행차하여 전투를 지휘하였지만 수군은 끝내 요동성 함락에 실패하였다.

고구려의 뛰어난 방어술 또한 수군이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한 이유로 빼놓을 수 없다. 590년 문제가 고구려에 보낸 새서(璽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6세기 후반 고구려는 수와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수한 쇠뇌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우수한 쇠뇌 제작에 성공하면서 수군과의 성곽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수서』 염비전), 관통 상처를 크게 낼 수 있는 넓고 두꺼운 촉두를 갖춘 화살촉을 대거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의 중장기병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내부 지휘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쇠뇌로 대표되는 우수한 원사무기를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성곽 방어전술이 맞물리면서 수군은 요동성 등 고구려 성들을 함락시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2) 수의 별동대 편성과 고구려의 대응전술

성곽전에서의 고전으로 인해 전체적인 원정 일정에 차질을 빚은 수군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고 이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계획은 바로 함락하지 못한 고구려의 성들을 우회한 평양성 직공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별동대를 편성하였다.

『자치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별동대는 부여도군(扶餘道軍), 낙랑도군, 요동도군(遼東道軍), 옥저도군(沃沮道軍), 현도도군(玄菟道軍), 양평도군(襄平道軍), 갈석도군(碣石道軍), 수성도군, 증지도군 등 9개의 군으로 편성되었고 총 병력은 30만 5,000명이었다고 한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6월). 별동대로 편성된 군에 대해서는 요하나 대릉하 하류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별동대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후 노하진 혹은 회원진으로 이동하여 군수물자를 보급받고 다 함께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복순, 1986; 서인한, 1991; 이종학, 2010; 임용한, 2012).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 석연치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양제가 별동대 편성을 지시한 시기와 군량 부족에 직면한 시기의 문제이다. 양제가 별동대 편성을 지시한 시기는 성곽전에서 고전하고 있던 6월이었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별동대가 고구려로 진군하던 도중 군량 부족에 직면하였던 시기 또한 6월이었다. 『자치통감』의 기록처럼 군사 각 개인이 굶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무거워 군량을 몰래 버렸다 하더라도 별동대 임무를 부여받아 군량을 보급받은 6월에 군량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별동대 임무를 부여받은 낙랑도군의 전투 대비에 대한 배치 문제이다. 낙랑도군은 압록강으로 진군하던 도중 오골성(烏骨城: 요령성 봉성(鳳城) 봉황산성)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 군을 이끌었던 우중문은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약한 마려(馬驢) 수천 마리를 골라군의 행렬 뒤쪽에 두고 이동했다고 한다(『수서』 우중문전). 만약 9개 군 30만 5,000명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면, 병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

중문이 굳이 이와 같은 변칙적인 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세 번째는 별동대로 편성된 군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낙랑도군은 결국 고구려군에게 습격을 받았는데, 마려 수천 마리가 끌고 있던 치중(輜重)이 공격대상이 되었다고 한다(『수서』 우중문전). 그리고 옥저도군은 살수(薩水: 청천강) 전투 패배 후 백석산(白石山)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를 당하였고 ‘파리한 군대(羸師)’로 방진(方陣)을 이루면서 기병 200기로 맞서 싸워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데(『수서』 설세웅전), 파리한 군대는 치중용거산병 소속의 예비군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별동대로 편성된 낙랑도군과 옥저도군 모두 보병, 기병, 치중용거산병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 만약에 별동대가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인 노하진이나 회원진에서 편성되었다면 별동대의 편성 목적에 맞게 군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예컨대 함락하지 못한 성을 우회해서 가는 만큼 기동 속도를 염두에 두면서 정예 군사로만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노하진이나 회원진을 떠나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고구려로 진군하던 도중에 별동대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 별동대의 병력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수 별동대는 9개 군으로 구성되었고 병력은 30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기록대로 계산하면 별동대 한 군은 약 3만 3,900명인 셈이다. 612년 1월에 양제가 반포한 조서와 『수서』 예의지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수 육군은 24군과 천자 6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 병력은 113만 3,800명이었다고 하므로, 수 육군의 한 군은 약 3만 7,800명인 셈이다. 한편, 일부 연구자는 수의 장수 이민의

처인 우문씨(宇文氏)가 이민과 이혼(李渾)을 반역자로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어낸 “이혼이 이민에게 ‘만약 다시 요(요수)를 건너면 너(이민)와 나(이혼)는 반드시 대장이 되는데, 각각 [거느린] 군은 2만여 병으로 5만 명이다’라는 말을 건넸다”(『수서』 이목자혼)는 증언을 토대로 한 군의 병력을 약 2만 5,000명이라고 보기도 한다(淺見直一郎, 1985; 정동민, 2016). 이와 같이 육군 한 군의 병력 수에 대해 사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별동대로 편성되었던 각 군의 병력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병 등 기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병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기도 하나(熊義民, 2002),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수의 장수인 양의신(楊義臣)은 612년 고구려-수 전쟁 때 숙신도군(肅愼道軍)을 지휘하였는데, 압록수에 이르러 을지문덕과 싸웠고 다른 장수들과 함께 패배하면서 면직되었다고 한다(『수서』 양의신전). 그의 행보는 별동대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별동대로 참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소속되어 있던 숙신도군은 별동대로 편성되었다는 9개 군명에서 볼 수 없다. 즉, 9개 군 이외에 다른 군이 별동대로 추가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한 군이 약 2만 5,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별동대는 9개가 아닌 12개 군으로 편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점령하지 못한 성들을 우회하면서 평양성을 직공하는 별동대 파견 계획은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도 고구려군을 맞이하여 협공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제는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발생한 군수물자 부족, 군사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야만 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장마와 말갈의 고구려 원병 또한 경계해야만 했다(『수서』 단문진전). 아마도 이

러한 요인 때문에 별동대 편성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동대로 편성된 군은 압록강 서쪽에서 만나 평양성으로 함께 진군하고자 했다. 그런데 압록강 서쪽에 주둔하고 있을 때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했다. 노하진이나 회원진에서 군수물자를 보급받은 군사들이 압록강으로 진군하던 중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땅에 묻거나 버려 군량이 거의 다 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문술(宇文述)은 철군을 주장하였지만, 양제로부터 별동대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우중문은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을지문덕은 직접 수 별동대의 군영으로 가서 동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수군 병사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과 장거리 진군에 따른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한 을지문덕은 청야전술을 펼치는 한편, 싸울 때마다 거짓으로 패배하고 도망치는 유인작전을 구사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군의 전력을 소모·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고구려의 유인작전에 걸려든 수 별동대는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지문덕이 항복 요청을 하자 우문술은 군사들이 피곤함에 지쳐 있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평양성이 험준하고 견고하여 함락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퇴각을 결정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이 수 별동대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였고, 결국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살수전투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구려군이 살수 상류에 임시 제방을 축조하여 강물을 저수한 후 수군이 강을 통과할 때 그 제방을 무너뜨려 강물에 휩쓸리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신증동국여지승람』 안주목 칠불사), 일부 연구자는 이 기록을

신빙하기도 한다(서인한, 1991). 하지만 이 기록은 후대 전승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대규모 제방 축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여겨진다는 점에서(임용한, 2001; 김성남, 2005)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보다는 당시 압록강-평양 사이에 성곽 방어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수 북쪽에 있는 성들이 연계하여 군사를 파견함으로써 살수를 건너고 있던 수군에 대한 전·후방 공격이 이루어져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살수전투에서 승리한 고구려군은 백석산에 주둔하고 있던 옥저도군을 공격하다가 패하기도 했지만, 수 별동대의 잔여 군사에 대한 추격을 계속하였다. 이에 수 별동대는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양둔(楊屯)과 왕인공 등이 후군을 맡아 고구려군을 막아내면서 가까스로 요동성에 이를 수 있었는데(『책부원구』 장수부 용감 양둔; 『수서』 왕인공전), 요동성에 이른 군사는 단지 2,700명뿐이었다고 한다.<sup>2</sup>

한편, 평양성 인근에서는 고구려군과 수의 수군(水軍)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수의 수군(水軍)은 동래에서 출발해 발해만(渤海灣)의 묘도열도(廟島列島), 요동반도 남단,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대동강 하구에 이른 후 강을 거슬러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진 지점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때 평양성에서 나온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고무된 수군(水軍) 최고 지휘관 내호

2 살수(薩水)전투에서 패배한 후 요동성으로 돌아온 수군 병력에 대해 『수서』 우문술전, 『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7월, 『책부원구』 제왕부 호변공 대업 8년 7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 7월 등에는 2,700명이라고 나온다. 반면 『수서』 제기 양제 대업 8년 7월, 『책부원구』 제왕부 친정에는 기병 2,000여 기, 『북사』 수본기 양제 대업 8년 7월조에는 기병 1,000여 기, 『태평환우기』 고구려국에는 1,000명이라고 나온다.

아(來護兒)는 정예군사 4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 공략에 나섰다. 평양성 나곽(羅郭) 안으로 진입한 후 약탈을 감행하면서 대오가 흐트러졌을 때 고건무(高建武)가 이끄는 고구려 결사대가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결사대와 합세한 고구려군이 퇴각하는 내호아의 군대를 쫓아 그들의 본진까지 이르렀으나, 주법상(周法尙)이 진영을 정돈하고 고구려군을 맞이하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군에게 패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수의 수군(水軍)은 7월에 별동대가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퇴각하였다.

성곽전에서의 고전, 그리고 평양성을 직공하고자 했던 별동대 및 수군(水軍)의 대패라는 결과를 맞이한 수군은 결국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양제는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장수들에게 돌리면서 면직 혹은 서민 강등 등의 처벌을 내렸다. 612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요수 서쪽에서 요수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하고 요서 일부 및 제종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노태돈, 1999; 이성제, 2005; 이정빈, 2018) 무려라[요령성 신민(新民) 일대]를 차지하고 요동군(遼東郡)과 통정진(通定鎭)을 설치했을 뿐이었다.

### 3. 613~614년 고구려-수 전쟁

#### 1) 수의 군단 편성과 전략 수정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정벌의 꿈을 버리지 못한 양제는 613년과 614년에 계속해서 고구려 원

정을 나눴다. 613년 수군의 군단 편성 양상을 보면, 왕인공과 방언겸(房彦謙)이 이끄는 부여도군(『수서』 왕인공전·방언겸전), 어구라(魚俱羅)와 조재(趙才)<sup>3</sup>가 이끄는 갈석도군(『수서』 어구라전·조재전), 양언광(梁彥光)이 이끄는 노룡도군(『수서』 양언광전), 설세웅(薛世雄)이 이끄는 답돈도군(蹋頓道軍)(『수서』 설세웅전), 내호아와 이자웅(李子雄)이 이끄는 창해도군(『수서』 내호아전·이자웅전), 주법상이 이끄는 조선도군(朝鮮道軍)(『수서』 주법상전) 등 6개 군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창해도군과 조선도군은 지휘관인 내호아와 주법상이 ‘주사(舟師)’로서 참전했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수군(水軍)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룡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명은 612년 전쟁 당시 군명에서도 확인된다. 이로 볼 때 612년 전쟁 때의 군명을 그대로 연용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수서』 기록을 보면 심광(沈光)이라는 인물이 양제를 따라 요동성 공격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의 소속 군명은 나오지 않는다(『수서』 심광전). 또한 요동성전투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위의 6개 군명이나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6개 군 외에 요동성을 공격한 군대가 따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양의신과 우문술이 군대를 이끌고 압록수를 거쳐 평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들 또한 소속 군명이 나오지 않는다(『수서』 양의신전·우문술전). 우문술의 경우 612년 전쟁 때 별동대의 지휘관이었다. 이들이 이끌었던 군의 진군로(압록수-평양성)는 별동대의 진군로와 일치한다. 이로 볼 때 이

3 조재는 여러 차례 갈석도군 소속으로 고구려-수 전쟁에 참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서』 조재전), 정확히 언제 참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612년과 613년 전쟁 당시 수군에 편성된 군대명으로 도명(道名)이 확인되지만, 614년 전쟁 때에는 도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612년과 613년 전쟁에 참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들이 이끌었던 군대 또한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군하고자 했던 별동대로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해본다면 613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수군은 육군으로 부여도군, 갈석도군, 노룡도군, 답돈도군, 요동성을 공략한 군대, 별동대 그리고 수군(水軍)으로 창해도군과 조선도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반면 614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수군의 군단 편성에 대해서는 사료가 소략하여 자세한 면모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육군으로 양제, 곽영(郭榮)(『수서』 곽영전), 설세웅(『수서』 설세웅전) 등이 참전하였고 내호가 수군(水軍)을 지휘하였는데(『수서』 내호아전), 이를 통해 당시 수군이 육군과 수군(水軍)으로 편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13·614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수군의 병력 규모와 관련해서 우선 수군(水軍)은 관련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육군은 앞에서 언급한 우문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군 병력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우문씨는 이민과 이혼을 반역자로 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바 있다. 증언 중에 ‘다시 요를 건넌다’는 것은 614년 고구려-수 전쟁 종결 이후 재개될 수 있는 ‘수의 고구려 원정(양제의 4차 고구려 원정)’을 의미한다. 만약 고구려 원정이 재개되어 이혼과 이민이 참전한다면 각각 2만 5,000명의 병력을 이끌 수 있다는 예상하에 이와 같은 증언을 꾸며낸 것이다.

2만 5,000명이라는 병력 수는 분명 614년 고구려-수 전쟁의 상황을 토대로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614년 전쟁 당시 육군 한 군의 병력 수는 2만 5,000명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612년 전쟁 때에도 2만 5,000명 정도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13년 고구려-수 전쟁 또한 2만 5,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613·614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수 육군의 한 군 병력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수군이 동원한 전체 병력 수는 관련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612년 고구려-수 전쟁 때 많은 인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612년 전쟁 때보다 군명이 적게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농민 봉기의 확산으로 병력 동원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612년 전쟁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양제는 612년 전쟁의 패배를 거울삼아 몇 가지 전략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로 효과(驍果)를 선발하여 전쟁에 투입시켰다(『수서』 제기 양제 대업 9년 춘정월). 효과는 모병을 통해 선발한 군인이다. 즉, 의무적으로 참전한 부병과 달리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는데, 나이 제한 없이 무예가 뛰어나고 출세를 꿈꾼 사람들이 지원하였다.

효과의 선발은 양제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발 배경은 612년 요동성 전투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양제는 요동성 함락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행차하여 장수들에게 분발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요동성 공략에 힘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8년 6월).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하는 이유를 장수들의 소극적인 전투 수행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양제의 책언은 비단 장수들에게만 해당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시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군사에게 전하는 책언인 것이다. 요동성에서의 책언을 감안한다면 양제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패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적극적인 전투 수행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사’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제는 전쟁 수행에 대한 의욕이 앞서는 사람을 효과로 선발하여 전쟁에 투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수군(水軍)을 2개 군으로 편성하고 전투보다는 육군에게 군량을 수송·보급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었다. 612년 전쟁과 비교하여 613년 전쟁에 동원된 병력 수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군(水軍) 병력 수 또한 612년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수군(水軍)의 병력 수는 줄어든 채 군의 수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은 612년 전쟁 당시 수군(水軍)이 수행한 평양성전투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당시 수군(水軍)의 대장이었던 내호아는 육군 각 군의 대장이 거느린 병력 수보다 훨씬 많은 7만 명을 거느렸다. 내호아는 육군 대장에 비해 보다 막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호아는 당시 부총관이었던 주법상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가 패배를 당하였다. 자신의 막강한 군권을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였다가 수군(水軍)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것이다.

양제 입장에서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패배를 자초한 내호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별도대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수들에게 돌리려 했고, 또한 내호아를 유독 아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면서 613년 전쟁에서도 군장(軍將)<sup>4</sup>으로 임명하여 수군(水軍)을 이끌도록 하였다(『수서』 내호아전). 하지만 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평양성전투에서 패배

---

4 613년 고구려-수 전쟁 때 각 군 최고 지휘관의 관명이 '군장(軍將)'으로 개칭된 것으로 추정된다(孫繼民, 1995). 한편, 『수서』 열전을 보면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 참전한 인물에게도 '군장'이란 관명이 붙었는데, 이는 『수서』 열전의 찬자가 613년 고구려-수 전쟁 때 개칭된 '군장'이란 관명을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도 소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수군(水軍)에 대한 전권을 맡기는 대신 수군(水軍)을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의 지휘를 주법상에게 맡겼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전술하였듯이 수군(水軍)은 육군에게 군량을 수송·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수군(水軍)은 612년 전쟁에서도 육군에게 군량을 수송·보급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평양성전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전 및 육상 전투 수행도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군은 해전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군(水軍)은 육군의 지원 없이 자체 병력으로만 평양성으로 진입하여 전투를 수행하다가 대패한 바 있다. 아마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수군(水軍)의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았나 싶다.

한편, 육군이 2월에 탁군을 출발하여 4월 말부터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데 반해, 수군(水軍)은 6월까지도 고구려로 출발하지 않고 수군(水軍) 기지인 동래에 머물고 있었다.<sup>5</sup> 이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수 육군이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수군(水軍)은 이미 평양성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군량을 수송·보급하는 역할에 비중을 둬에 따라 육군의 진군 상황에 맞추어 일정을 계획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늦은 행보를 보였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로 각 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에게 전투 상황에 따라 편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즉 편의종사권(便宜從事權)을 부여하였다. 612년

---

5 613년 6월 예부상서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호아(來護兒)가 이끄는 창해도군(滄海道軍)은 동래(東萊)에 머물고 있었다(『수서』 내호아전·양현감전).

전쟁 당시 양제는 임해돈에 머물면서 전장의 지휘관에게 전투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게 한 후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양제와 지휘관 사이의 공간적 거리로 인하여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전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각 군 지휘관들이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양제가 각 군 지휘관에게 편의종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로 고구려 강역에 근접해 있던 ‘요동의 옛 성(遼東古城)’을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로 삼았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9년 정월). 612년 전쟁 때 양제는 회원진과 노하진에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를 두고 군사들에게 고구려 강역으로 진입하기 전 최종적으로 군수물자를 보급하였다. 하지만 두 진은 고구려의 서쪽 강역, 즉 요하를 기준으로 보면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군 병사들은 긴 진군로만큼 많은 군수물자를 짊어져야 했고,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군량을 버림으로써 진군 도중에 군량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양제는 새로 수리한 ‘요동의 옛 성’을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로 삼고 군사들에게 고구려 강역으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군수물자를 보급하였다.

613년 전쟁 당시 수군의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였던 ‘요동의 옛 성’ 위치에 대해서 일찍이 호삼성(胡三省)은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비정하였다(『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9년 정월). 하지만 당시 수는 요동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정빈, 2018). 북연·북위시기 요서에 설치되었던 ‘요동군’으로 보고 고동하(顧洞河)와 대릉하 합류지점인 조양 동북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는데(劉向東, 2015), 고구려 강역과의 거리

를 볼 때 기존의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인 노하진이나 회원진보다 더 멀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동의 옛 성’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동(遼東)’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 612년 수가 고구려의 무려라를 차지하고 설치하였다는 ‘요동군’을 들 수 있다. 만약에 요동이 요동군을 의미한다면 옛 성은 요동군 관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요동군은 의무려산·대릉하 하류 이동부터 요하 이서까지 관할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일대는 예전부터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던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요동군에 수가 축조한 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옛 성’은 고구려가 축조한 성이었다고 추정된다. 즉, 수가 요동군을 설치하면서 그 관할범위에 있었던 기존의 고구려 성을 ‘옛 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 요동군 관할범위에서 고구려의 성인 ‘라(遼)’가 확인되는데, 사료에는 요령성 신민 경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려라만 전해지고 있다. 수는 무려라를 차지한 후 통정진을 설치하였다. 그렇다면 통정진은 고구려의 강역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수의 군사기지로서 수군의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제는 612년 전쟁 때 차지한 무려라에 통정진을 설치하고 최전방 군수물자 보급기지로 삼으면서 군사들에게 고구려 강역으로 진입하기 전 최종적으로 군수물자를 보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전쟁의 전개와 종결 후 정세

양제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군단 편성, 수군(水軍)의 편제 및 역할, 지휘체계, 군수물자 보급 등에 변화를 주면서<sup>6</sup> 613년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613년 1월 정축일(2일)에 탁군에 집결한 수군은 2월에 임유관과 유성을 거쳐 고구려로 진군하였다. 양제는 이번에도 친정을 결정하였는데, 3월 무인일(4일)에 고구려로 출발하여 4월 경오일(27일)에 요수를 건넜다.

고구려군과 수군 간의 전투는 4월부터 시작되었다. 수군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구려로 진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구려의 성들을 공격하였다. 먼저 양제가 이끄는 군대는 요동성을 공격하였는데, 공성도구를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함락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왕인공이 이끄는 부여도군은 신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신성은 고구려 군사 수만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일부 고구려 군사는 밖으로 나와 성을 등지며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왕인공이 기병 1,000기로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고구려군을 격파하였는데, 이에 고구려군이 성 안에서 응거하고 왕인공의 군대가 신성을 포위하면서 양군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수서』 왕인공전).

---

6 전반적으로 양제는 613·614년 고구려 원정에 나서면서 612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장수나 군사에게 패배 책임을 돌렸던 전략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채택한 반면, 본인이 주도한 전략은 그대로 채택하였다.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자신이 세운 전략을 수정하여 원정에 나선다면 612년 전쟁에서의 전략적 착오를 인정하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즉, 613·614년 고구려-수 전쟁에서 수군이 구사한 전략의 이면에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 패배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황제권의 약화를 막으려고 했던 양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병부시랑 곡사정(斛斯政)이 고구려로 망명하여 백암성[요령성 등탑(燈塔) 백암성]에 머무르자 염비(閔毗)가 기병 2,000기를 이끌고 백암성을 공격하였고(『수서』 염비전), 설세웅이 이끄는 답돈도군은 오골성에 이르렀다(『수서』 설세웅전). 한편, 양국이 성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우문술과 양의신이 이끄는 별동대는 고구려의 성들을 우회하면서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이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수 내부에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에 예부상서 양현감(楊玄感)이 10만 명의 백성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수도인 낙양(洛陽)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에 양제는 경오일(28일) 밤 비밀리에 장수들을 소집하고 요동성에서 철군할 것을 명하였는데, 고구려군이 철군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군수물자, 기계, 공격용 도구 등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와 같은 수군의 계략에 말려든 고구려군은 이틀이 지나서야 수천 명의 군사를 보내 수군을 추격하였는데, 이경(李景)이 이끄는 후군이 고구려군을 격퇴함으로써 안전하게 철군할 수 있었다(『수서』 이경전).

오골성 근처까지 진군하였던 설세웅의 답돈도군, 압록수에 이르렀던 우문술·양의신의 별동대 또한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동래에서 대기하면서 고구려로의 진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내호아의 창해도군과 주법상의 조선도군 등 수군(水軍)은 고구려 정벌이 아닌 양현감의 반란 진압을 위해 출병해야만 했다. 이렇게 613년 고구려-수 전쟁은 종결되었다.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한 양제는 614년 2월 신미일(3일)에 조서를 내려 다시 고구려 원정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이 원정 선언에 대해 조정 신료들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정 신료 대부분이

양제의 잦은 고구려 원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정 신료 대부분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정을 강행한 양제는 3월 입자일(14일)에 탁군으로 행차하였다. 하지만 7월 계축일(17일)에 이르러서야 회원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제가 국내 사정을 무시한 채 고구려 원정에만 집중할 수 없었고, 적지 않은 군사가 원정에 반발해 대열에서 이탈하여 정상적인 행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제가 회원진에 도착한 7월 이후 수군은 내호아가 이끄는 수군(水軍)이 비사성[요령성 대련(大連) 대흑산산성]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수서』 내호아전). 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농민 봉기가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군량 운송 차질에 따른 군대 내 기아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많은 군사들이 죽으면서(『수서』 고려전; 『태평환우기』 고구려국)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고구려 또한 장기간 수군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고, 피로도 극에 달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수서』 고려전). 이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였는데, 613년 양현감의 반란 때 고구려로 망명했던 곡사정을 수로 송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고구려가 곡사정을 송환하면서 항복 요청을 해오자, 양제는 이를 받아들여 8월 기사일(4일)에 회원진에서 군사를 돌려다. 고구려의 항복을 명분으로 철군하였지만, 농민 봉기로 인한 전쟁 수행의 어려움과 봉기 진압이라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후 양제는 농민 봉기를 진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농민 봉기는

612년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웠던 산둥(山東)과 하남(河南)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이때의 농민 봉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苗威, 2000). 그러나 계속된 전쟁 준비 및 수행으로 인하여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많게는 십수 만의 백성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농민 봉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제는 615년에 또 다시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양제는 북쪽 변방을 순시하였는데, 돌궐의 시필가한(始畢可汗)이 자신의 어가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문(雁門)으로 피신하였다가 돌궐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부상서 번자개(樊子蓋)와 내사시랑 소우(蕭瑀)는 양제에게 “고구려 정벌 중단을 선포하면 군사들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주청하였다. 결국 양제는 이를 받아들여 고구려 원정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구원하러 오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수서』 제기 양제 대업 11년 8월; 『자치통감』 수기 양제 대업 11년 8월).

양제는 안문에서 고구려 정벌 중단을 선언하였지만, 이를 깨고 다시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면서 민심을 배반하였다. 결국 양제는 617년 11월에 외가의 일족이었던 이연(李淵)에 의해 폐위되어 태상황으로 옹립되었다가 618년 강도(江都) 순행 중에 우문화급(宇文化及)에게 시해되었다. 이후 이연이 공제(恭帝)로부터 양위 형식을 빌어 황제로 즉위하고 당을 세움으로써 수는 40년도 넘기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수 전쟁은 고구려와 중원 왕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군사 충돌로 양국의 인력과 물자가 총동원된 사건이었다. 그런 만큼 양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고구려는 수를 막아냄으로써 일원적인 천하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수로부터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6세기 중반부터 흔들렸던 국제적 위상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이은 전쟁 수행으로 많은 군사가 죽고 피로에 시달리면서 군사력에 타격을 받았다. 또한 고구려 강역의 상당 부분이 전쟁터가 되어 황무지로 변모하면서 재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백성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군사·경제적 쇠퇴는 이후 고구려가 당에 의해 멸망하는 데 한 요인이 되었다.

수 또한 연이은 전쟁 수행으로 많은 군사가 죽는 등 군사력에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전쟁 이전 수는 조세물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가득 차서 한시적으로 조세 징수를 그만둘 만큼 경제력이 풍부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결정된 후 많은 백성과 가축이 전투 수행 혹은 병참 보급품 운송을 위해 징발됨으로써 안정적인 농경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백성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과 가축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많은 백성이 봉기를 일으키고 참여함에 따라 국내적 혼란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는 곧 수가 멸망하는 데 한 요인이 되었다.

수가 멸망한 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새로운 왕조로 당이 들어서고 돌궐이 흥기하면서 다원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주도권을 둘러싼 삼국의 다툼이 보다 치열해졌다.

고구려-수 전쟁은 군사적으로 새로운 전술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전쟁에서 수는 5호16국시기부터 유행하였던 중장기병 활용 전술을 구사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고구려가 쇠뇌를 이용한 전술로 적극 방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수 전쟁

에서 쇠뇌가 대거 활용되고 부각됨에 따라 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중장기병보다 쇠뇌를 활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기병 및 중장기병을 활용한 전술의 쇠퇴와 맞물려 보병을 활용하는 전술이 대거 구사되었다. 즉, 고구려-수 전쟁은 기병 및 중장기병 중심 전술에서 쇠뇌와 보병 중심 전술로의 변화를 주도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곽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역주,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성남, 2005,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수막새.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서인한, 1991,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여호규, 1999, 『고구려성(2)』, 국방군사연구소.

은창일, 2001,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이정빈, 2018, 『고구려-수 전쟁: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주류성.

이종학, 2010, 『한국군사사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임용한, 2001, 『전쟁과 역사-삼국 편』, 혜안.

———, 2012, 『한국고대전쟁사(2)』, 혜안.

김복순, 1986, 「고구려 대수·당 항쟁전략 고찰」, 『軍史』 12.

김전민, 2003, 「隋 煬帝의 軍制改革과 高句麗遠征」, 『東方學志』 119.

김창석, 2007,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15.

이동준, 2009, 「隋煬帝의 高句麗 원정과 군사전략」, 『學林』 30.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 5.

이정빈, 2011,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 변경지대와 그 변화-요서 지역 고구려의 邏와 수의 鎭·戍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2.

정동민, 2016, 「고구려 원정 隋軍의 편성과 兵種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82.

『北史』, 『隋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太平寰宇記』.

譚其驥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5)』, 地圖出版社.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寧志新, 2005, 『隋唐使職制度研究』, 中華書局.

苗威, 2000, 「試論隋與高句麗戰爭」, 『延邊大學學報』 2000-3.

楊秀祖, 1996, 「隋煬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 『通化師範學院學報』 1996-1.

寧志新·喬鳳岐, 2004, 「隋煬帝首征高句麗軍隊人數考」, 『河北師範大學學報』  
2004-1.

熊義民, 2002, 「隋煬帝第一次東征高句麗兵力新探」, 『暨南學報』 2002-4.

張豔, 2015, 「朝貢關係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 『周口師範學院學』  
2015-6.

韓昇, 1996, 「隋煬帝伐高麗之謎」, 『滾川師院學報』 1996-1.

淺見直一郎, 1985, 「煬帝の第一次高句麗遠征軍 - その規模と兵種」, 『東洋史研究』 44-1.



# 고구려와 당의 전쟁

4장 당의 등장과 국제정세의 변동

5장 연개소문 정변과 동아시아 국제정세

6장 고구려-당 전쟁의 전개



## 당의 등장과 국제정세의 변동

이성제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618년은 수 양제의 침공이 있던 지 4년째 되던 해로, 이해 9월 영양왕이 사망하고 왕제(王弟) 건무(建武)가 왕위에 올랐다. 이 무렵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617년 훗날 고조(高祖)가 되는 이연(李淵)이 태원(太原)에서 수에 반기를 들었고, 1년 뒤 장안(長安)에 들어가 당을 건국하였다. 당은 처음에는 수 말의 혼란에 등장한 군웅의 하나에 불과했지만, 관중(關中)을 장악한 뒤 각지의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하였고, 이윽고 중원을 재통일하였다. 630년에는 당이 북방 유목세계의 동돌궐마저 무너뜨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또다시 급변하였다. 당의 침공 위협이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하였고, 위기감이 정점에 이르고 있던 642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이 시해되고 말았다.

영류왕이 즉위했을 때는 수의 붕괴로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가 한창 뒤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다. 수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대외적 상황은 결코 안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관심은 수를 대신 하여 중국에 어떤 나라가 들어설 것인지, 그로 인해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에 모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이 시기 고구려는 당이 등장한 뒤 중국을 재통일하고 고구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내기까지 각 국면마다 영류왕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수의 멸망으로 그 위협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수 말의 동란은 각지에 군웅이 난립하는 가운데 북방의 동돌궐이 여기에 적극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향배를 짐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영류왕이 즉위 이듬해에 당에 사절을 보내 조공했다는 사실은 고구려와 당의 관계뿐 아니라 이 시기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은 건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장안이 있는 관중 지역조차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실은 고구려가 수 말의 동란을 예의주시하며 그 추이를 살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이 시기 고구려사 연구에는 수 말의 혼란 상황과 함께 당의 건국,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630년 동돌궐의 패망으로 당이 북방 유목세계를 아우르게 되기까지 양자 관계에서 우위에 선 쪽은 돌궐이었는데, 당 태종이 집권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당은 중원을 재통일하기 위해 군웅세력을 제압해가는 한편, 동돌궐과의 세력관계를 과거로 되돌려야 하였다. 이 두 세력 간의 관계 변화는 곧바로 고구려가 이들과 경계를 접한 요서(遼西) 일대의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시

기 수의 침병이었던 돌지계(突地稽)의 말갈과 거란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은 이 시기 고구려의 대당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백제와 신라가 당에 사절을 보낸 것은 624년이였다. 이들과 당의 관계는 당의 대고구려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입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바다 건너 왜(倭)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6세기 후반부터 왜는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주요 상대국의 하나이며 대외전략의 한 축이기도 하였다.

## 1. 수 말의 혼란과 당의 재통일

### 1) 수 말의 여러 반란과 수의 멸망

수의 멸망에서 당이 중원을 재통일하기까지 10여 년간 중국 전역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알려진 것만 헤아려도 200개가 넘는 반란 집단들이 봉기하였는데, 그 규모에 대해 『수서(隋書)』는 “천하의 인구 10분의 9가 군도(群盜)가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들 반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수 양제의 폭정에 있었다.

주요 폭정으로는 동도(東都)인 낙양성(洛陽城)의 조영, 이궁(離宮) 현인궁(顯仁宮)의 조영, 대운하 통제거(通濟渠)·한구(邢溝)·영제거(永濟渠)의 공사, 장성(長城)의 축조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있었으며, 동돌궐·강도(江都: 현재의 揚州)·토욕혼(吐谷渾)·하서(河西) 방면으로 연이어 행차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제는 수많은 백성을 동

원하여 흡사시켰다. 여기에 더해 6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행한 고구려 전쟁은 백성들이 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아갔던 것이다(다니가와 미치오 등, 1996).

양제의 ‘양(揚)’이란 ‘예를 버리고 민심을 멀리한다’, ‘하늘에 거역하고 백성을 확대한다’라는 뜻의 시호로 악한 군주라는 의미다. 그는 수도였던 장안을 서경으로 삼고 낙양에 동도를 조영하였다. 이를 위해 동원된 인원은 매월 200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부유한 상인 수만 가를 이곳으로 이주시켰으며, 도읍 조영을 위해 목재를 멀리 강남에서 운반하였는데, 동원된 인원의 반수가 죽어 나갔다고 한다. 또한 현인궁이라는 별궁을 짓고 각지의 진기한 동물과 나무를 모아 대규모 ‘동식물원’을 만들었는데, 그 둘레가 수백 리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각지에 별궁을 세워두었다.

대운하는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오늘날의 북경(北京) 부근에서 남쪽으로 양자강(揚子江)을 지나 항주(杭州)에 이르는데 양제 때 완성되었다. 통제거는 회수(淮水)와 황하(黃河)를 연결하는 운하로, 문제 때 만든 산양독(山陽瀆: 회수~양자강)과 연결되어 양자강과 장안에 이르는 물길을 완성하였다(605년). 한구는 산양에서 양주까지의 운하였다. 또한 608년에는 황하와 탁군(涿郡)을 연결하는 영제거를 건설하였다. 특히 영제거는 곧 있을 고구려 전쟁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수로와 운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졌다. 이 대운하의 건설은 남북조의 분립을 끝낸 수 왕조가 남북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강남의 물산을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 필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부역의 대상자는 물론 면제 대상인 부녀자까지 강압적이고 과도한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다.

이러한 폭정과 과도한 부역에 더하여 양제는 고구려 침공을 추진하였다. 611년 2월 양제는 대운하를 이용하여 탁군까지 와서 고구려 침공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고구려 토벌의 명령을 내리고 전국에서 병사와 식량, 무기를 징발하였는데, 이를 운반하는 배가 1천여 리를 메웠으며 도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만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게다가 이해에는 황하의 범람으로 산둥과 하남에 홍수가 발생하여 30여 개 군이 수몰되기도 하였으나, 전쟁 준비는 계속되었다(『자치통감(資治通鑑)』 권181).

이에 폭정에 지친 백성들은 군역을 피해 무리를 지어 반란을 일으켰다. 산둥의 농민 왕박(王薄)은 ‘요동에서 억울하게 죽지 말자’는 노래〈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를 지어 무리를 포섭하였고, 이 같은 농민반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듬해 정월 양제는 113만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 대군의 보급을 위해 그 배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300만 이상의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종군하였던 것이다. 대군을 동원했음에도 1차 침공은 대실패로 끝났다. 뒤이어 강행한 두 차례의 침공도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났다.

특히 두 번째 침공은 후방에서 일어난 양현감(楊玄感)의 난으로 철군했는데, 이때 양현감은 양제의 고구려 침공을 비난하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의 부친 양소(楊素)는 수의 창업 공신으로 양제가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이였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이면서 후방 수송기지의 하나인 여양(黎陽: 河南省 濬縣)에서 보급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이조차 반란을 꾀했다는 사실은 위기에 직면하여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양제는 급히 침공군을 되돌려 양현감 토벌에 나서 2개월 만에 이들을 진압하였지

만, 이 반란을 계기로 지방관들이 다투어 반란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양제는 국내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구려 침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군하고 만다. 이로써 수는 완전히 피폐해졌고, 수습할 수 없는 동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615년 무렵까지의 반란은 가혹한 징발에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일으킨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617년에 이르르면 그때까지의 소규모 반란집단들이 점차 통합되어 10여 개의 세력이 균용할거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다니가와 미치오 등, 1996; 누노메 조후 등, 2001). 중원에는 낙구(洛口: 河南省 鞏縣)를 중심으로 이밀(李密)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으며,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한 왕세충(王世充)은 오히려 낙양에서 반기를 들었다. 한편, 남방에서는 역양(歷陽: 安徽省)의 두복위(杜伏威), 예장(豫章: 江蘇省)의 임사홍(林士弘)이 각각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고, 동방에서는 임성(任城: 山東省)의 서원랑(徐圓朗), 낙주(樂州: 河北省)의 두건덕(竇建德)이 반란 농민을 이끌고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또한 북방에서는 마읍(馬邑: 山西省)의 유무주(劉武周), 삭방(朔方: 陝西省)의 양사도(梁師都)가, 서방에서는 무위(武威: 甘肅省)의 이궤(李軌), 금성(金城: 甘肅省)의 설거(薛舉)가 각각 반란군을 이끌고 있었다(丸山松幸, 2002).

수 말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무렵, 훗날 당 고조가 되는 이연도 태원에서 난을 일으켰다. 태원은 북으로는 동돌궐에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장안과 낙양에 연결되는 군사상의 요충지로, 이연은 태원유수(太原留守)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은밀히 세력을 규합하던 이연은 617년 7월 행동에 나서, 장안을 향해 남하하였다. 양제가 즉위한 이래 낙양이 실질적 도움이 되어 반란세력들의 각축도 이

일대에 집중되었고, 장안 부근은 상대적으로 큰 세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3만의 병력으로 태원을 출발한 이연은 가로막는 수군을 격파하고 황하를 건너 관중으로 들어가 10월에는 장안을 포위, 11월에 함락하였다. 이어 양제를 태상황으로 올리고, 장안에 있던 대왕 양유(楊侑)를 황제(恭帝)로 추대하고 스스로 대도독·상서령·대승상의 자리에 올라 군사,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였다(丸山松幸, 2002; 氣賀澤保規, 2005).

한편, 군웅할거의 초기에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은 이밀의 집단으로, 이들은 수가 대운하 근처에 세운 대형 곡물창고의 하나인 낙구창(洛口倉)을 차지하여 수십만 군대를 이끌었다. 이들이 낙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자, 617년 7월 난을 피해 강도(江都)에 머물고 있던 양제는 왕세충을 보내 대적하게 했고, 낙양을 둘러싸고 양군의 격전이 이어졌다.

이 무렵 양제는 사태를 외면한 채 강도에 머물며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이연이 장안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중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던 그의 친위군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618년 3월 양제는 우문술(宇文述)의 아들 우문화급(宇文化及)에게 살해되었다. 양제의 살해 소식이 알려지자, 후량(後梁)의 후예인 소선(蕭銑)이 강릉에서 황제를 칭하였고, 낙양에서는 왕세충이 월왕(越王) 동(侗)을 황제로 추대하였다(누노메 조후 등, 2001; 辻正博, 2022).

## 2) 당의 건국과 국내 통일

양제의 시해 소식이 장안에 전해진 것은 4월이었고, 5월 20일 이연은 공제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제위에 올랐다. 연호는 무덕(武德)으로 정하였고, 이달 28일에는 율령의 편찬을 명하였다. 이로써 당 왕조

가 창업되었으나 전체로 보아서는 여전히 균웅할거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건국 초기 이연의 당 정권은 근거지였던 태원을 유무주(劉武周)에게 빼앗긴 채 관중 지역만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남성 동부지역을 차지했던 이밀은 북상해온 우문화급에게 패하여 많은 병력을 잃었고, 618년에는 다시 왕세충에게 패하였다. 이연이 당을 건국하자, 투항했다가 얼마 뒤 배반하여 처형되었다. 한때 최대 세력이었던 이밀을 제거했지만, 당은 건국 직후부터 9년 동안 다른 균웅과 대결해야 하였다.

이연은 장안에 입성한 뒤, 우선 서북으로부터 압박해오는 설거와 그 아들 인고(仁果)의 군대에 맞섰고, 이어서 태원을 빼앗고 남하해 오는 유무주 등의 군대에 반격, 산서(山西) 일대를 회복하였다. 620년에는 최대의 강적이었던 낙양의 왕세충을 공격하였으나, 왕세충이 하북 최대의 농민군을 이끌고 있던 두건덕에게 원조를 청하였고, 두건덕은 10만의 병력으로 구원에 나섰다. 당은 이세민의 활약에 힘입어 왕세충·두건덕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두건덕은 황하를 건너는 호뢰관(虎牢關) 부근에서 당군을 막아섰으나 이 전투에서 패해 포로가 되었다. 불리해진 왕세충은 항복하였다(621년 5월). 이로써 당은 최대의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의 패권이 대세가 되었다(최희준, 2021).

당에게 최대 적수였던 두 세력이 무너진 뒤에도 두건덕의 부하였던 유흑달(劉黑闥)이 하북에서 돌궐과 연결되어 한때 당을 위협하는 등의 위기가 이어지다가 624년에 이르러 수습되었다(624년 4월, 천하 평정 선포). 628년에는 최후까지 남았던 균웅 양사도를 멸함으로써 국내 통일이 일단락되었다. 이로부터 당은 내정의 정비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현무문(玄武門)의 정변으로 이세민이 집권한 뒤였다(누노메 조후 등,

2001; 氣賀澤保規, 2005).

고조 이연은 장남 건성(建成)을 황태자로, 차남 세민(世民)을 진왕(秦王)으로, 4남 원길(元吉)을 제왕(齊王)으로 삼았다. 이세민은 당의 건국 과정에서 유능한 무장으로 활약하였다. 여기에 왕세충과 두건덕을 한번에 평정하자, 그 활약에 자극받은 황태자 건성이 자원하여 유혹달의 토벌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식들의 움직임에 대해 고조는 건성을 황태자로 삼은 뒤에도, 세민의 지위를 ‘천책상장(天策上將) 섬동도대행대상서령(陝東道大行臺尚書令)’으로 올려주었다. 섬동도대행대상서령이란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에 대해 낙양 이동 동방지역의 민정·군사를 통할하는 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황태자 측은 불안감을 품게 되었고,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정변이 일어났다(626년 6월 4일).

정변 전날, 이세민은 황태자와 원길이 후궁들과 음란한 일을 벌였다고 고조에게 고발하였고, 고조는 다음 날 이를 밝히기 위한 심문의 자리를 열도록 하였다. 이날 아침 이세민은 수하를 거느리고 현무문을 장악하였고, 이건성과 원길이 고조를 알현하러 궁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을 주살하였다. 그 뒤 황태자·원길 측 잔존세력의 반격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심복 위지경덕(尉遲敬德)을 보내 무력으로 황제를 구속하였다. 이로써 이세민은 전권을 장악, 며칠 뒤 황태자에 오르고 2개월 뒤인 8월에 황제에 즉위하였다(氣賀澤保規, 2005).

한편, 태종 이세민이 즉위한 그달에 동돌궐의 힐리가한(頡利可汗)이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침공하여 장안 근처 70리까지 진격해왔다. 현무문의 변에 따른 당의 동요를 틈탄 행동이었다. 이때 당은 많은 재물을 돌궐에게 주고 화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위수(渭水)에 걸린 편교(便橋)

부근에서 태종과 힐리가 맹약을 맺고 돌궐은 철군하였다. 위기를 모면한 태종은 국내 안정에 힘을 쏟는 한편, 돌궐에의 반격을 꾀하였다.

이후 태종은 전란과 가혹한 부역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이른바 정관(貞觀)의 치(治)였다. 태종은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경제·재정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제도의 정비에 힘썼다. 이들 정책은 ‘정관율령(貞觀律令)’으로 명문화되어 전국에 널리 시행되어 실질적인 통일을 가져왔다. 요역을 가볍게 하고 적은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계속하면서 국가 재정을 긴축한 결과 피폐했던 민생도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 결과 정관의 통치기간 20여 년 동안에 “행상인들이 벌판에서 잠을 자더라도 도적질당할 염려가 없고 감옥은 늘 비어있으며 마소는 들에 놓아 기르고 대문은 잠그지 않고 지내기 일쑤이며 자주 풍년이 들어 쌀은 한 되에 3, 4전”이라는 시대가 도래하여 가구 수도 380만 호까지 증가하였다(丸山松幸, 2002). 다만 정관 연간이 태평스러운 시대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윤색이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 632년 백관이 태종에게 봉선(封禪)을 청했을 때, 위징(魏徵)은 “수 말 대란의 뒤를 이어 호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곡물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 지금 낙양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밥 짓는 연기는 드물고 잡초만 무성합니다”라고 반대하였다(누노메 조후 등, 2001).

이세민이 현무문의 변을 일으켰던 원인과 관련하여, 제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심각해지고 있던 돌궐 문제가 정변을 촉발시켰다는 견해도 있다(石見清裕, 1998). 이 점에서 수 말의 혼란 시기부터 당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까지 중국의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돌궐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당의 재통일을 전후한 시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 1) 돌궐 제1제국과 대당 관계

동돌궐은 수 문제(文帝) 시기 후반 계민가한(啓民可汗) 때부터 수에 복속된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그 아들 시필가한(始畢可汗) 대에 이르러 수 말의 동란을 틈타 관계가 역전된다. 615년 양제가 돌궐을 압박하려고 북방 순행에 나섰다가 도리어 돌궐의 공격을 받고 안문(雁門)에서 포위되었다가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던 사건이 이를 보여준다. 이로써 동돌궐의 시필가한은 고구려 전쟁의 실패로 약화된 수에 치명타를 날렸다. 돌궐은 이를 계기로 수의 붕괴를 가져오게 했을 뿐 아니라 계민가한 이래 수에 종속되어 있던 관계를 반전시켜 오히려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정재훈, 2016).

수 말에 난리가 일어나자 중국인으로 돌궐에 귀부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드디어 돌궐이 크게 강성해져 그 위세가 중하(中夏)를 능가하였고, 소황후(蕭皇后: 양제의 비)를 맞이하여 정양(定襄)에 두었다. 설거·두건덕·왕세충·유무주·양사도·이궤·고개도(高開道)의 무리는 존호(尊號)를 참칭하면서도 모두 돌궐에 북면(北面)하여 칭신하였고 그 가한의 호령(號令)을 받았다. 사자의 왕래가 이어져 서로 길에서 만났다. 『수서』 권84

수 말 화북 각지에서 두각을 나타낸 군웅 대부분은 돌궐과 우호하거나 신속하는 형태로 돌궐에 연결되어 있었다. 두건덕과 그 수하였던 유

흑달, 고개도와 유무주, 설거와 이궤 등이 다 그러하였다. 돌궐은 북쪽에서 이들을 원격 조종, 서로 다투게 하거나 견제하여 그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었다.

각지의 군웅은 돌궐로부터 군마를 공급받고 때로는 병력도 지원받았다. 이에 돌궐의 위세는 더욱 강력하여 “그 족속이 힘 있게 성장함에 따라 동으로는 거란, 실위(室韋)로부터 서로는 토욕혼, 고창(高昌) 등 여러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되었다, 기마공사가 100여 만이라고 하니 북적(北狄)의 융성함이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구당서』 권194)라고 평가될 정도였다.

태원에서 거병했을 때 이연은 돌궐에 칭신하고, 노획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돌궐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군마 1,000필을 지원받은 이연은 장안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도 돌궐군의 지원을 얻을 수 방어군의 저항을 무너뜨렸다. 이연이 황제로 올라 자립했을 때, 마침 농우(隴右)의 설거도 대진(大秦) 황제를 칭하며 돌궐과 연계해 관중으로 진출하려 했기에 이연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설거의 위협에 대해 이연은 이세민을 보내 방어케 하는 한편, 돌궐 시필가한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 무렵 돌궐의 지원이 필요했던 당은 돌궐에 번례(藩禮)를 취하는 낮은 자세를 보였다.

그러던 당은 관동의 이말이 618년에, 하서의 이궤가 619년에 투항해옴에 따라 관중 지역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당은 낙양의 왕세충과 하서의 두건덕 같은 강력한 세력들과 대항할 정도로 성장했던 것이다(정재훈, 2016). 이런 당의 성장에 대해 돌궐은 강하게 대응하였다. 고조가 즉위한 이듬해부터 626년까지 돌궐의 침입 빈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영토 깊숙한

곳까지 침입해 왔다는 점에서 당의 긴장도는 해마다 높아졌다(石見清裕, 1998).

619년 6월 시필가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돌궐의 공세가 잠시 멈추자, 당 고조는 조문 사절을 보내면서 비단 3만 필을 주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 보였다. 중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궐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또한 통일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투입하려면 돌궐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필가한의 죽음은 당이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정재훈, 2016).

시필가한이 사망하자, 계민가한의 둘째 아들 사리불설(俟利弗設)이 처라가한(處羅可汗)으로 계승하였다. 처라가한은 양제의 비였던 소황후와 손자 양정도(楊正道)를 맞아들여 그를 황제로 옹립하여 수의 망명정권을 세워주었다. 이들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다(石見清裕, 1998; 정재훈, 2016). 또한 남은 군웅세력과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던 당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620년 낙양의 왕세충에게 말을 보내주고 혼인관계를 맺으며 호시를 열었던 것이다. 또한 네방면에서 장안을 공략하는 대규모 공격을 추진하였다. 자신은 태원에서, 아우 막하돌(莫賀咄: 나중의 힐리가한)은 원주(原州: 寧夏回族自治區 固原)에서, 양사도 등은 연주(延州: 山西省 延安)에서, 아들 돌리(突利)는 해(奚)와 거란·말갈 등을 이끌고 유주(幽州)에서 진격하여 두건덕군과 함께 장안을 포위하는 전략이었다(石見清裕, 1998; 정재훈, 2016).

당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었을 이 공세는 처라가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처라가한의 동생이 새로운 가한에 올라, 힐리가한이라 하였다. 힐리가한은 당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하였고, 당

은 돌궐이 요구하는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위협을 경감하려 하였다(『구당서』 권194상). 한편, 화북에 남은 군웅은 돌궐과 연합하여 당의 국내 통일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620년 서돌궐의 통엽호가한(統葉護可汗)이 당에 사신을 보내 우호하기를 바라자, 고조는 동돌궐을 견제하기 위해 이를 적극 받아들였다. 고조는 힐리가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적 대응도 적극 추진하였다. 힐리가한은 당과 서돌궐이 교섭한 사실을 알고 협공을 우려, 당에 화의를 청하였다. 그 뒤 양국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화해하였는데, 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621년 왕세충과 두건덕을 제압하였다. 622년 당은 유혹달 등 돌궐과 연계한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북벌에 나섰으나 실패하였고 돌궐의 공세가 이어졌다. 화북에서의 공방전 끝에 623년 당은 유혹달을 사로잡았고, 화북을 통일하였다. 이로써 당의 현안은 돌궐과 돌궐의 위세 속에서 생겨난 양사도 같은 세력을 상대하는 단계로 나아갔다(石見清裕, 1998).

결국 군웅을 지원하여 당을 견제한다는 돌궐의 전략은 실패하였다. 이후 북변에서 당에 투항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돌궐의 군사행동이 이어졌다. 624년 유주(幽州)에 있던 고개도의 부하가 그를 축출하고 당에 투항하자, 힐리가한은 군대를 보냈다. 5월에는 고개도의 잔여세력과 함께 삭주(朔州)를 공격하였고, 병주(并州) 경내까지 침입하였다. 8월에는 돌리가한과 함께 남하하여 관중까지 압박하였다.

이 공세는 당에 위기감을 불러와 조정에서는 천도 논의가 벌어졌고, 이세민만이 반대하여 장안을 고수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신당서』 권79). 이때 돌궐을 막기 위해 출전한 이세민은 돌리가한과 형제가 되

기를 약속하여 힐리가한과의 사이를 이간하려 하였다. 돌궐 내부의 권력투쟁을 야기하려는 책략이었다(『구당서』 권194상). 돌리가한이 이를 받아들여 철군하자 힐리가한도 회군하였다. 힐리가한의 공세는 당의 이간책으로 내부의 갈등을 노출시키며 실패로 끝났다. 626년 현무문의 정변이 일어나자, 힐리가한은 또다시 당을 공격하였다. 직접 10여만 기를 이끌고 장안 인근까지 위협했으나, 결국 화의를 맺고 철군하였다. 힐리가한은 당의 권력교체기를 틈타 공격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정재훈, 2016).

위세를 떨치던 돌궐은 이듬해부터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철륵(鐵勒) 여러 부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를 진압하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당시 돌궐은 힐리가한과 돌리가한이라는 두 지도자 간의 미묘한 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힐리가한은 폭정으로 인심을 잃고 있었으며 시필가한의 아들인 돌리가한이 그 대항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당시 북방 초원지대는 “몇 해째 많은 눈이 와서 양과 말이 모두 죽고 사람들은 크게 굶주린”(『구당서』 권194상) 상황에 몰려 있었으나, 힐리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반발한 많은 부족들이 이반을 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金浩東, 1993).

이 틈을 노려 태종은 629년 이정(李靖)과 이세적(李世勣)을 장수로 한 10만 군대를 보내 돌리가한을 항복시켰고, 이듬해 힐리가한을 격파하여 사로잡고 돌궐인 10만여 명과 가축 수십만 마리를 노획하였다.<sup>1</sup>

<sup>1</sup> 나라를 잃은 돌궐인 일부는 북방의 설연타나 서쪽의 서돌궐로 도주하였지만, 다수는 당에 항복하여 그 수가 돌궐 이외의 족속과 망명 한인을 합해 120만 명이었다고 전한다(『구당서』 권2).

이로써 북방세계에서 군림했던 돌궐제국은 멸망하였다. 돌궐제국의 멸망은 그 지배 아래 있던 여러 세력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의 위세에 놀란 여러 세력은 천가한(天可汗)의 칭호를 바치며 복종을 서약했다(丸山松幸, 2002; 氣賀澤保規, 2005).

돌궐 항호(降戶)를 지배 아래 두게 된 당은 수령층에게 당의 무관직을 주어 번장(蕃將)으로 삼고, 그 부락민을 번병(蕃兵)으로 조직하여 당의 주요 군사력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번장과 번병은 이후 당이 전개했던 각종 대외전쟁에서 활약하였는데, 고구려와의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山下將司, 2011; 李孝宰, 2013).

돌궐이 무너지자 그 예하에 있던 철륵의 설연타(薛延陀)가 북방 유목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설연타의 대두에 대해 당은 639년 돌궐 항호를 막남에 두는 조치로써 대비하였다. 나아가 태종은 645년 고구려 침공을 앞두고 번장이자 측근인 집실사력(執失思力)을 오르도스 남부의 하주(夏州)에 두어 고구려와의 전쟁을 틈타 설연타가 침입해 올 것을 대비하였다(李孝宰, 2013; 李成制, 2015).

돌궐을 무너뜨린 당은 서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635년 청해(靑海)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토욕혼을 격파하고, 638년에는 토번을 복속시켰다. 그리고 640년에는 실크로드의 요충인 투루판 지역의 고창국을 굴복시키고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설치, 이 지역을 당의 지배 아래 두었다.

## 2) 백제와 신라 그리고 왜의 대당정책

그러면 당의 건국과 돌궐 제1제국의 붕괴, 당 제국의 본격적인 세력 확장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인접 국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특히 백제·신라 그리고 왜가 보인 반응은 이 시기 고구려와 당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국가들은 고구려와 함께 당이 전개했던 동방정책의 상대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백제가 당에 처음으로 사절을 보낸 것은 621년으로 당이 건국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무왕 22년 10월의 일로(『삼국사기』 권27), 이후 백제는 645년까지 23회에 걸쳐 당에 사절을 보냈다. 이러한 사행의 횟수는 630년대 대당외교를 중단했던 고구려나 19회에 머물렀던 신라에 비해 백제가 더 자주 당에 사절을 보냈음을 알려준다.

626년 무왕이 당에 명광개(明光鑑)를 바치면서 고구려가 길을 막고 당에 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태종은 주자사(朱子奢)를 사자로 보내 두 나라가 원한을 풀라고 하였다. 또한 이듬해 8월에도 복신(福信)을 당에 보냈는데, 이때 태종은 백제의 신라 공격을 문제로 삼고 함께 우호하라고 하였다. 한편, 637·638·639년에는 금갑(金甲)과 조부(彫斧)를 바치기도 하였다. 의자왕 대에 들어서도 백제의 대당외교는 계속되었다. 의자왕은 태자 신분이었을 때 사절로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641년에는 당의 책봉(冊封)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절을 보냈으며, 644년에는 태종이 상리현장(相里玄獎)을 보내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니 따르겠다고 하였다(『신당서』 권222; 『삼국사기』 권27·28).

백제는 정례적이었다고 할 만큼 빈번히 사절을 보냈으며 왕족은 물

론이고 심지어 태자까지도 대당외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시기 백제가 대당외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백제의 대당외교와 관련하여, 621년 백제가 당에 사절을 보낸 것은 고구려를 견제할 목적(盧重國, 1981; 金壽泰, 1991), 당이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건국을 축하하는 사행(정동준, 2002)으로 보기도 한다. 이 무렵이면 당은 왕세충·두견덕의 연합군을 격파함으로써 군사적 위기에서 이제 막 벗어난 참이었다. 하북에서는 유혹달이 돌궐과 연결되어 당에 맞서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당이 고구려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왕조 창건 축하하는 사절 파견의 명목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무렵이 되면 당 왕조는 더 이상 여러 군웅의 하나가 아니었다. 아직 중원을 통일하지는 못하였지만, 조만간 수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해에 벌어졌던 왕세충·두견덕 연합군과의 대결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백제가 이때 당에 사절을 보냈던 것은 군웅할거 속에서 당이 독주하고 있던 중원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었고, 당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수 말의 동란과 당의 등장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백제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은 백제에게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고구려에게도 이 같은 요구를 거듭하였다. 삼국 간의 관계에 대해 당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당이 묵인하거나 협조해주기를 바랐거나(金壽泰, 1991),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백제가 대당외교를 계속 추진했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준, 2002). 대당외교를 통해 당의 간섭을 줄여 신라 공략에 집중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원 왕조가 삼국 간의 분쟁에 간섭했던 것은 이때만의 일이 아니었다. 바로 얼마 전 수가 삼국에 대해 그러하였다. 또한 무구인 금갑(金甲)과 함께 현상된 조부(凋斧)는 장수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월이라 여겨지는데, 군사적 의미가 농후한 이러한 물품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은 과거 백제가 수의 고구려 침공에서 향도가 되겠다며 출정 일자를 알려달라고 했던 일을 연상시키는 행동이다.

한편, 수와 고구려의 대결에서 백제가 양면외교를 전개했던 것과 달리 적어도 의자왕 초기까지 백제는 고구려와 당 사이에서 양단책을 구사하지 않았다는 해석(金壽泰, 1991)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645년 사절로 간 태자 부여의자(扶餘義慈)가 백제는 고구려와 아당(阿黨)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당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는 것(《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은 백제가 양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624년 당은 삼국의 국왕을 함께 책봉함으로써 삼국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점에서 상황이 호전되면 당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삼국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의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에 대한 정책이 백제·신라의 대당·대고구려 정책을 좌우했다는 시각(丁善溶, 2008)이 유력해 보인다. 또한 당이 언젠가 대외정책을 수정하여 침공하리라는 예견은 수의 집요한 침략을 겪은 고구려만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백제는 당과의 군사적 연결을 염두에 두면서 대당외교에 나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고구려 관계도 모색했던 것이다. 다만 주자사를 파견하여 삼국을 순회케 했던 당의 행동과 관련하여, 태종이 조공을 방해한 고구려에게 백제·신라와의 화친을 중용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삼국의

세력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다. 책봉호 수여에서 드러난 입장대로 삼국의 세력관계에 대해 개입한 사실로 보인다(여호규, 2006). 삼국의 국왕 모두를 책봉했다는 것은 고구려 우위의 세력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삼국 간의 화해를 중용했다는 것은 그 분쟁에 개입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와 고구려의 전쟁에서 양단책을 구사했던 백제와 달리, 신라는 수의 고구려 침공에 호응하여 500리의 고구려 영토를 탈취했었다(『삼국사기』 권21). 이처럼 수에 협력했던 신라의 대외정책은 침공 실패와 수의 멸망으로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丁善溶, 2008).

신라가 당에 사절을 보낸 것은 621년으로 백제의 대당외교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진평왕은 625년 고구려의 조공 방해와 침략을 호소하였고(『삼국사기』 권4), 이후 645년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사절을 당에 보내었다. 특히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가 642년 고구려에 가서 청병하였다가 실패한 뒤, 신라 선덕여왕은 당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645년에는 당이 고구려 침공 계획을 신라에 알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으며(〈貞觀年中撫慰新羅王詔〉), 당 태종이 고구려 침공에 나서자, 신라는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당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의 대당외교는 결국 나당동맹으로 이어졌다. 이 점에서 당을 둘러싼 삼국의 외교전에서 초기부터 신라가 우위에 서 있었고 이러한 양국의 관계가 나당동맹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거나(徐榮洙, 1987b), 고구려 청병외교가 실패한 뒤 신라는 당에 적극적으로 원병을 요청하는 외교를 전개하게 되었다고 이해(朱甫敦, 1993)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라는 634~637년까지 4년 동안 당에 사절을 보내지 않았으며, 대야성

(大耶城) 등 40여 성이 백제에게 함락당한 위기 국면에서 당이 아닌 고구려에 청병하였다. 이로 보아 양국이 시종일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최현화, 2004).

또한 신라가 당에 처음 사절을 보낸 해가 621년이라는 것은 중원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최희준, 2021). 백제처럼 신라 역시 수 말의 동란과 당의 등장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신라와 당의 관계가 처음부터 긴밀하였다고 보거나, 신라의 적극적인 외교가 나당 동맹의 결성을 가능케 했다는 견해에는 수궁하기 어렵다. 삼국의 대당 외교에 대해 당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621년에 들어서면 당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해 5월 왕세충과 두건덕 세력을 격파함으로써 당의 대세를 내외에 알렸던 것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응한 나라는 신라·백제만이 아니었다. 고구려를 비롯하여 모두 25개국 이 당에 사절을 보냈던 것이다. 인접국들이 다투어 사절을 보내온 상황에서 당 고조는 유독 신라 사절에게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특례를 베풀었고, 답방사도 신라에만 보냈다(최희준, 2021). 당의 행동은 이제부터 신라에게 과거의 수를 대신해줄 존재가 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성제, 2023).

신라가 당에 고구려의 조공 방해와 침략을 호소했다는 것은, 과거 수가 그랬던 것처럼 신라가 삼국 간의 세력관계에 당이 개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주자사를 보내 삼국 간의 화친을 종용했던 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642년에는 대야성 등 40여 성을 백제에게 잃어 위기 상황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대야성 상실 직후 신라가 당이 아닌 고구려에

청병했다는 사실은 백제와는 또 다른 배경에서 신라의 대당외교를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당의 간섭이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신라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까지 시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의 동방정책에서 백제와 신라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 시야를 바다 건너 일본 열도로 옮겨보자. 618년 당이 건국했지만 왜국이 보인 반응은 622년에 처음 나타난다. 신라 사절과 함께 귀국한 유학생 혜일(惠日) 등이 “대당국은 법령과 의례가 정비된 훌륭한 나라이니 늘 왕래해야 합니다”(『일본서기』 권22)라고 상주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왜 조정이 당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630년으로, 동아시아 제국 중에서는 가장 늦은 대응이었다.

왜국이 사절을 보내 방물을 바치자, 태종은 왜국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려, 조공을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표인(高表仁)을 왜국에 보내 위무케 하였다(『구당서』 권199상). 이때 고표인은 “멀리 떨어진 오랑캐를 어루만질 재주가 없어, 왕과 예를 다투어 끝내 조정의 명을 선양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양국의 교류는 이어지지 못하고 648년까지 단절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에 대해, 일본사 연구자는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국내 사정 때문에 왜의 대당외교가 뒤늦게 추진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618년에 선박을 건조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건당사를 보낸다는 계획은 일찍부터 세워졌었다. 그러나 고표인을 보낸 당에 대해 왜국이 책봉을 거부함으로써 양국의 교류는 이어지지 못했다. 당이 아직 동방정책에 전념할 수 없었던 사정도 이러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

었다(森公章, 2010).

이러한 견해는 이 시기 왜국이 수·당에 대해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전개했다는 일본사 특유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왜국의 외교에 대해 당이 보인 반응은 과거 608년 수 양제가 왜의 사절 파견에 대해 배세청(裴世清)을 보냈던 일(『수서』 권81)을 연상시킨다. 양제가 왜에 배세청을 보낸 것은 국서에 “왜국을 일출처(日出處)로 일컬고, 수를 일몰처(日沒處)로 지칭”한 왜국의 자존망대(自存妄大)한 자세에서 배후에 고구려가 있음을 의식했던 조치였다.

630년은 당이 돌궐 공격에 나선 해였고, 이듬해 힐리가한을 사로잡음으로써 동북아의 세력관계는 급격히 당 중심으로 기울고 있었다. 왜의 대당외교는 아마도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봐야 맞을 듯하다. 고표인이 한껏 오르고 있던 당의 위세를 내세워 왜를 상대했기에 왜왕과 예를 다투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631년 고구려에 파견된 당의 사절이 전승기념물인 경관(京觀)을 파괴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의 동방정책은 이 무렵부터 본격화하였고 그 대상에는 왜국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 3. 고구려의 대당정책과 당의 대응

이연이 당을 건국했던 그해 9월, 고구려에서는 왕제 건무가 영류왕으로 즉위하였다(『삼국사기』 권20). 그가 즉위하기 직전 고구려는 수 양제가 이끈 세 차례의 침공을 상대한 바 있었다. 612년의 전쟁에서 수의 100만 대군에 맞서 고구려가 거둔 승리는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않았다. 614년의 침공 경과를 설명하며 “고구려 역시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는 수 측의 기록(『수서』 권81)은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다. 고구려도 전쟁을 지속할 힘이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李成制,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위한 영류왕은 이듬해 사절을 보내기 시작하여 629년 9월까지 620·627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당에 사절을 보냈다. 624년에는 두 차례나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당에 대해 밀도 높은 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6건의 사행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전하고 있어,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대당외교에 나섰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622년 영류왕은 당 고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와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 1만여 명을 당에 보냈으며, 624년에는 당에 역서(曆書)를 요청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사절을 보내 불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영류왕이 당에 요청했다는 역서는 매해의 달력인 책력이라기보다는 고조 초기에 왕조 창건에 따라 정삭(正朔)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그 역법인 ‘무인력(戊寅曆)’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영류왕은 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왕조의 정삭을 받들겠다는 저 자세까지 보였던 것이다(이성제, 2023).

고구려가 대당외교에 나선 것은 619년으로 백제·신라에 비해 2년 정도 앞선다. 이에 대해서는 수를 계승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김진한, 2009), 요서 지역으로 진출해 오는 돌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정원주, 2011), 고구려가 수·당 교체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윤성환, 2011), 당과의 관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김강훈, 2020)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고구려가 당에 처음으로 사절을 보낸 619년은 당이 나라를 세운 지 2년째 되던 해로 당시 중원의 정세로 보면 주요 균용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세력이었다. 특히 고구려가 당에 조공했던 619년 2월 무렵이라면 금성(金城: 甘肅省 蘭州)에 근거를 두고 장안을 위협해 왔던 설거·설인고 세력을 당이 이제 막 격멸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의 사행이 당이라는 새로운 세력과의 관계 수립이나 개선을 의도했다거나, 혹은 돌궐에 대한 대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수의 붕괴가 몰고 온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해 고구려가 경계심을 갖고 그 변화상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李成制, 2021).

수의 침공은 유례없는 병력의 규모와 전례 없는 양제의 집요함에서 고구려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이강래, 2016). 그런 만큼 그와 같이 나라의 존망을 가를 위기의 재발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619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고구려가 당에 사절을 보낸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고 보인다. 당의 우세가 확실해진 621년에야 비로소 대당외교에 나선 백제·신라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이다(이성제, 2023).

이러한 고구려의 대당외교에 대해 당은 어떠한 입장을 보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당의 초기 동방정책은 수 양제의 적극적인 대외정책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당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했고, 중원을 통일하고 돌궐을 격파한 뒤 비로소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여호규, 2006; 丁善溶, 2008; 방용철, 2011). 622년 당 고조가 양국 포로의 교환을 제의하면서 “화목을 언급하고 서로의 강역을 유지하면 좋을 것”(『구당서』 권199상)이라고 했던 것이나, 624년 삼국 국왕을 동시에 책봉한 것은

당의 현상유지정책을 보여주는 실례로 제시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화해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건(임기환, 1996)으로, 고구려는 당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고구려의 대당외교에 대해 곧바로 당의 책봉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책봉조공관계를 맺은 것은 624년이었고, 그 내용도 이전 시대 고구려와 중원 왕조 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이때의 책봉 수수는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에 대한 책봉과 짝한 것으로, 당은 삼국을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여호규, 2006). 양국 관계에서 보인 고구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은 고구려와의 관계를 여는 것보다는 삼국의 세력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러한 당의 입장은 이미 621년 신라에만 특례를 베풀고 답방사를 보낸 일에서 보인 바 있었다.

과거 신라는 수의 고구려 침공에 호응하여 고구려 남변을 공격, 500여 리의 영토를 차지한 바 있었다. 그런 신라에 대해 당이 후대했다는 것은 당의 동방정책이 신라를 끌어들이는 수의 전략을 부정한다거나 그로 인해 생겨난 현재의 정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당의 행동에 대해 고구려는 얼마 전까지 상대한 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629년까지 고구려가 당을 상대로 밀도 높은 외교를 전개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 있었다고 보인다(이성제, 2023).

이렇게 당의 입장이 드러나자 625년에는 신라가, 이듬해에는 백제가 각각 당에 사절을 보내 “고구려가 조공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호소”(『삼국사기』 권4, 권27)하였다. 과거 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당에게 요청하였다. 고구려로서 보아서는 수가 무너진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과거의 위

기 상황이 재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이성제, 2023).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구려와 당이 보인 반응은 626년 태종이 주자사를 보내 삼국 간의 화의를 중용했던 일에서 살필 수 있다.

조서를 내려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 주자사를 보내 화해하도록 하니, [고구려왕] 건무가 표문을 올려 사죄하면서 신라와 더불어 [당] 사신과 대면하여 회맹(會盟)할 것을 청하였다. 『구당서』 권199상

당은 삼국의 세력관계에 개입하려 행동에 나섰고, 이에 대해 영류왕은 사죄의 표를 올렸다. 이를 형식적 조치로 보는 견해(여호규, 2006)도 있지만, 화해의 방법으로 회맹이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간단히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sup>2</sup>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당이 반발할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회맹의 동의는 고구려가 신라 방면에 대한 공세를 중단한다는 것과 당이 주도하는 삼국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구려는 신라에게 빼앗긴 실지의 회복을 포기해서라도 당과의 갈등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가 대외 전략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성제, 2023).

이후 국제정세는 당 중심으로 가파르게 변화였고, 고구려는 628, 629년에 연이어 사절을 당에 보냈다. 특히 628년의 사절에 대해 『삼국사기』는 당이 돌궐을 격파한 것을 축하하고 봉역도를 바쳤다고 사행의

---

2 회맹을 수용한 의도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거나(김강훈, 2020), 현상 유지의 전략이라는 견해(이준성, 2021)도 있으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목적은 밝히고 있어 관심이 간다. 물론 당이 힐리가한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은 것은 630년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기록 내용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다만 봉역도를 바쳤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도 좋다고 본다.

이 봉역도에 대해서는 당이 요청한 것으로 지리정보를 담은 고구려 지도(임기환, 1996)라고 보거나, 실효성 없는 소략한 지도(윤성환, 2013),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지리정보를 담은 지도(선봉조, 2009) 등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편, 봉역도를 제공한 것은 양국의 우호를 위한 유화책의 하나(徐榮洙, 1987a; 방용철, 2011)로 보거나, 고구려 세력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영토를 보장받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기환, 2006; 정원주, 2011), 돌궐이 약화된 상황이었음에 주목하여 요서 지역 경략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윤성환, 2013), 한층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정빈, 2017)이라고 본다.

봉역도 현상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돌궐 패망에 대해 그 휘하에 있던 유목세계의 여러 세력이 보인 반응을 참고할 수 있다. 돌궐을 격파한 당의 위세에 놀란 세력들은 천가한의 칭호를 태종에게 바치며 복종을 서약하였다(『구당서』 권3). 이들의 대응은 당의 돌궐 격파라는 정세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고구려의 봉역도 현상 역시 그러했다. 이 점에서 봉역도는 자구 그대로 ‘분봉된 강역의 도첩’으로, 고구려는 이를 바침으로써 당에 신속해 있는 나라임을 애써 강조했다고 여겨진다(이성재, 2023). 최대 강적인 돌궐마저 무너뜨린 당의 위세에 대해 고구려는 일단 저자세를 보임으로써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19년의 첫 번째 사절 파견부터 봉역도 현상까지 고구려의 대당외교는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례로 영류

왕이 당의 회맹 개최 요구를 수용했던 것은 644년 연개소문이 신라 공격을 중단하라는 당의 요구를 거부했던 일(『삼국사기』 권21)과 비교하면 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전쟁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 아래 고구려는 당에 대해 저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던 고구려는 629년 9월의 사절 파견을 끝으로 한동안 대당외교에 나서지 않았다. 기록상 고구려 사자가 다시 당에 이르게 된 것은 639년의 일이다. 한편, 대당외교의 중단과 함께 고구려는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기 시작하였다.

[정관] 5년 조서를 내려 광주도독부(廣州都督府) 사마(司馬) 장손사(長孫師)를 보내 수군 전사자들의 해골을 거두어 묻고,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도록 하였다. [고구려왕] 건무는 [당이] 그 나라를 정벌할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장성을 쌓았으니 동북쪽 부여성(扶餘城)부터 서남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러 천 리가 넘었다. 『구당서』 권199상

장성의 축조는 사료상 고구려가 대당 관계에서 보인 거의 유일한 군사적 조치였다. 그동안 고구려가 대당 관계에서 보인 저자세와 달리, 장성의 축조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었다. 장성 축조는 당이 경관을 철거한 데 따른 대응 조치였다.<sup>3</sup> 영류왕이 “당이 그 나라를 정벌할까

---

3 『삼국사기』에는 영류왕이 장성 축조를 명한 시기를 2월로 전한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경관 파괴는 8월(『구당서』 권3)이라는 점에서, 경관 파괴가 장성 축조의 직접적 배경이라기보다는 경관 파괴로 상징되는 당의 군사적 위협으로 고구려가 장성을 축조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余昊奎, 2000). 하지만 『구당서』 권199상 기록은 그 서술구조가 직접적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적어도 찬자가 경관 파괴라는 당의 행위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두려워했다”는 언급에서 장성 축조가 전쟁 발발의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가 세웠다는 경관이란 수군(隋軍) 전사자의 해골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수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고 국민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만든 승전기념물이다(千寬宇, 1982). 언뜻 보아서는 영류왕이 어느 대목에서 경관 철거를 당의 침공 징후라고 여겼던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책부원구(冊府元龜)』(권42)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관 철거와는 별도로 당의 사자가 고구려에 와서 수군 전사자 해골을 수습하고 제사와 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였다. 이해 2월에 태종이 전국에 명을 내려 각지의 모든 경관을 철거하도록 한 수예(收瘞)정책의 일환이었다(이정빈, 2017).

당이 고구려의 전승기념물을 파괴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수를 상대로 거둔 승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또한 고구려에게 수군 전사자들의 제사와 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이었다. 더욱이 그것이 당 내지(內地)에 대한 수예정책과 짝하여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를 당혹케 했다고 보인다. 태종은 고구려를 속국으로 대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구려는 대당외교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구려의 입장 변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개전의 빌미로 이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당의 경관 철거로부터 고구려가 전쟁 발발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 과정은 대체로 이러했다고 여겨진다(이성제, 2023).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동북방 부여성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바다

에 이르는 방어선이었다. 기록대로라면 장성은 그 길이가 거의 500km에 이르는 방어물이다. 이런 규모라면 천여 년의 시간이 흘렀더라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 아래 어디의 무엇이 장성 유적인가를 두고 세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양국의 자연 경계선인 요하 동안(東岸)에 장벽을 세웠다는 평원토벽설(平原土壁說)(李健才, 1987; 申澁植, 1997; 余昊奎, 2000; 田中俊明, 1995;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 국경지대의 산성들을 연결하여 장벽을 만들었다는 산성연결방어선설(山城連結防禦線說)(陳大爲, 1987; 梁振晶, 1994), 기존의 산성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했다는 산성방어강화설(山城防禦強化說)(李成制, 2014)이 그것이다.

이들 견해에서 특징적인 것은 평원토벽설과 산성연결방어선설 모두 긴 장벽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장성은 산성방어선의 보조시설이었기에 당 태종이 침공해온 645년 전쟁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점도 동일하다. 결국 장성은 고구려가 전쟁에 대비하여 세운 방어물이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셈이다.

그런데 『삼국사기』(권21)에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는 기록이 있어 장성의 완공 시점을 알 수 있다. 즉 전쟁이 일어났던 645년까지 장성의 대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64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만일 실전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고구려는 공사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전후 고구려가 공사를 재개하여 이를 마쳤다는 것은 장성이 당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전란의 피해 복구가 우선되어야 할 시기에 서둘러 장성 완공에 힘을 쏟았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 따라서 장성은 645년 전쟁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고, 기대한 역할을 다했다는 관점에서 그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성제, 2023).

또한 당 태종이 출전에 앞서 수 양제의 고구려 침공전에 종군했던 정 원숙(鄭元壽)에게 그 경험담을 묻자 그는 “동이(고구려)는 수성(守城)을 잘하여 이를 공격하더라도 바로 함락할 수 없다”(『자치통감』 권197)고 한 것은 대군을 동원한 수의 맹공이 성곽에 의지한 고구려군의 방어전술에 가로막혔던 상황을 알려준다. 사정이 이러했다면 고구려는 당을 상대로 해서도 성곽에 의지한 방어전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는 647년 고구려 재침을 놓고 당 조정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구려가 산에 의거하여 성을 쌓아 (공격해도) 바로 함락할 수 없다”(『자치통감』 권198)고 평가한 사실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645년 전쟁을 치른 당은 고구려의 방어전술을 수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645년 전쟁에서 당군은 요동성을 함락하는 등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개전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요동 서북부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0월 퇴각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16년간의 대역사를 통해 방어력을 정비했던 요동 지역의 성곽들이 당군의 침입을 가로막았던 것이다(이성제, 2023).

한편, 639년 고구려는 대당외교를 재개하였다(『구당서』 권3). 기록상 1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보이는 대당외교가 이때 재개된 연유에 대해서는 북방 유목세계에서 설연타가 부상하게 된 정세 변화(김진한, 2009), 이듬해 태자 환권(桓權)의 파견을 위한 사전 조율(방용철, 2011), 귀족 자제의 국학 입학과 태자 파견을 통한 왕권 강화(윤성환, 2018) 때

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영류왕 대 대외정책을 국내 정치세력 간의 대결구도라는 시각 아래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설연타의 등장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태자가 당에 파견되었다는 것도 이상해 보인다. 태자 환권이 당에 나아가야 했던 사안이 639년 대당외교를 재개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태종의 태산(泰山) 봉선(封禪) 추진과 대당외교의 재개를 연관 지워 본 견해(김강훈, 2021)가 주목된다. 640년 11년 태종의 태산 봉선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이 봉선 참여를 요청하였고 영류왕이 이에 호응하면서 대당외교가 재개되었다는 것이다. 666년의 고종 봉선에 연개소문이 호응하여 봉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태자 복남(福男)이 파견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연상하면(李成制, 2019)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만 봉선 참여를 조건으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당에게 약속 받으려 했거나 태자 파견에 대해 연개소문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견해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봉선이 무산되고 난 뒤의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당의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이 641년 고구려에 왔을 때 “이르는 성읍마다 성주들이 인도해주어 두루 살필 수 있었고, 남녀가 길에 늘어서서 그를 바라보았다”(『삼국사기』 권20)는 일화는 봉선 참여로 양국 관계의 변화를 기대했던 고구려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진대덕의 사행은 그동안 당이 사행을 통해 고구려의 허실을 탐지했음을 보여주는 일로 주목되어 왔다. 『삼국사기』 찬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여 고구려가 그 진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해석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과연 그랬을까. 진대덕의 본직인 직방낭중은 병부 소속으로 내외의 지리·풍속 관계 정보를 다루는 직방의 장관이었다. 고구려는 본직으로 보아 그가 사신의 역할을 빌어 군사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얻으려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진대덕이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측에서 그러한 여지를 주었기에 가능했다.

고구려의 의도는 진대덕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영류왕이 군대의 위세를 성대히 펼쳐 놓고 접견했다는 대목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군대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놓고 사자를 맞이한 모습은 사절에 대한 일반적인 접대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영류왕은 군사적 대비상황을 과시함으로써 고구려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을 당에게 주지시키려 했던 것이다(이성제, 2023). 물론 고구려의 바람과 달리, 양국 관계는 우호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당은 고구려 공략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고, 연개소문의 정변은 그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 참고문헌

- 다니가와 미치오·모리 마사오 편, 송정수 옮김, 1996, 『중국 민중 반란사』, 혜안.
- 정재훈, 2016,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 천관우, 1982, 『인물로 본 韓國古代史』, 正音文化社.
- 김강훈, 2020, 「618~629년 영류왕의 대외정책과 고구려-당·신라 관계의 변화」, 『高句麗渤海研究』 66.
- , 2021,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歷史學報』 249.
- 金壽泰, 1991, 「百濟의 滅亡과 唐」, 『百濟研究』 22.
-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 노태돈, 1999, 「귀족연립정권과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박윤선, 2007,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 방용철, 2011, 「고구려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關係」, 『大丘史學』 102.
- 徐榮洙, 1987a, 「三國時代 韓中外交의 展開와 性格」,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 1987b,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그 性格」,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선봉조, 2009, 「영류왕대 정국주도권의 변화양상과 연씨세력」, 『高句麗渤海研

- 究』33.
- 申滢植, 1997, 「高句麗 千里長城의 研究」, 『白山學報』49.
- 梁振晶, 1994, 「高句麗千里長城考」, 『遼海文物學刊』1994-2.
- 여호규,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91.
- , 2006, 「책봉호 수수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61.
- ,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大丘史學』133.
- 윤성환, 2011, 「영류왕, 대당운건파로 꺾맞춰진 오류」, 『내일을 여는 역사』44.
- , 2013, 「고구려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미」, 『東北亞 歷史論叢』39.
- , 2018,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 외교와 정국동향」, 『東北亞歷史論叢』59.
- 이강래, 2016, 「경험과 역사-고구려 멸망에 관한 고대적 사유를 단서로-」, 『韓國 史研究』59.
- 李健才, 1987, 「東北地區中部的邊崗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1987-1.
- 李成制, 2014,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嶺南學』25.
- , 2015,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52.
- , 2019, 「唐 高宗의 泰山 封禪과 高句麗의 對應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高句麗渤海研究』64.
- , 2021, 「榮留王의 王權 강화와 淵蓋蘇文 政變-高乙德 일가의 官歷을 통해 본 영류왕대 政局-」, 『韓國古代史研究』104.
- , 2023, 「고구려의 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韓國古代史研究』109.
- 이정빈, 2016, 「고구려-당 관계의 성립과 변경지대(618~624)」, 『高句麗渤海研究』54; 2017, 『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 이준성, 2021, 「7세기 초·중반 당-삼국 사이의 ‘會盟’ 추진과 그 함의」, 『歷史學報』249.
- 李孝宰, 2013,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羅唐戰爭 시기 활동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125.

- 임기환, 1996, 「당과의 전쟁」,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 ,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정동준, 2002,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 丁善溶, 2008, 「隋·唐 초기 中國의 世界秩序의 변화과정과 삼국의 대응」, 『新羅史學報』 12.
- 정원주, 2011, 「榮留王의 대외정책과 정국운영」, 『高句麗渤海研究』 40.
- 朱甫敦,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 20.
- 최현화, 2004, 「7세기 중엽 羅唐關係에 관한 考察」, 『史學研究』 73.
- 최희준, 2021, 「621년 나당 수교와 그 전개양상」, 『신라사학보』 52.
- 丸山松幸, 2002, 「당 태종」, 『제국의 아침』, 솔.
-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
- 陳大爲, 1992, 「遼寧省境內高句麗遺跡」, 『遼海文物學刊』 1989-1.
- 氣賀澤保規, 2005, 『中國の歴史 6: 絢爛たる世界帝國 隋唐時代』, 講談社.
- 森公章, 2010, 『遣唐使の光芒 - 東アジアの歴史の使者』, 角川學術出版.
-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關係』, 汲古書院.
-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山下將司, 2011, 「唐のテュルク人蕃兵」, 『歴史學研究』 881.
- 辻正博, 2022, 「隋唐國制の特質」, 荒川正晴 外 編, 『岩波講座 世界歴史 6 - 中華世界の再編とユーラシア東部 四~八世紀』, 岩波書店.



## 연개소문 정변과 동아시아 국제정세

정호섭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7세기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에서는 수와 당이 중원을 통일한 후 주변세력을 복속시켜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왜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고구려를 이끌어 갔던 대표적인 귀족이 연씨 가문이다. 연개소문의 가문은 그의 증조부 때부터 유력한 귀족으로 등장하여 귀족연립체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 후기에는 귀족세력 간의 분열과 대립 결과 왕권이 상당히 약화되자, 귀족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귀족연립체제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각 귀족집단을 대표하는 유력가문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막리지(莫離支)직을 설치하고 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로 정국 운영을 해나

갔던 것이다. 이러한 귀족연립체제는 연개소문 정변 이전까지 80여 년 동안 이어졌다. 이 시기 귀족연립체제상의 두 축을 국내계 구귀족세력과 평양계 신귀족세력의 대립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개소문 정변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기존의 귀족연립체제가 붕괴되고 연개소문의 독재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당 태종이 직접 친정하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영류왕 말 보장왕 초인 640~645년은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당 중심으로 개편되는 시기였고, 주변국을 복속한 당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는 당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전부터 진행하였던 천리장성 축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전쟁 준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와 연동하여 백제, 신라, 왜 등도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이 시기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동향, 연씨 가문의 성장과 연개소문 정변, 그리고 정변 이후 연개소문 정권의 정치 운영과 당시의 국제관계 추이를 통해 고구려와 당 사이에 벌어질 전쟁의 배경과 동인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 1.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동향

고구려의 27대 왕인 영류왕(618~642년)은 수와의 전쟁 당시 평양성에서 내호아(來護兒)를 격퇴시킨 인물로 이복형인 영양왕의 뒤를 이

어 왕위에 올랐다. 영류왕이 즉위할 당시 수에서는 국내 정국의 혼란으로 인해 주변 이민족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각지에서 군웅들이 봉기하여 왕을 자처함으로써 중국 대륙은 다시 분열되었다. 그중 수의 북방 변경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이연(李淵)은 반란을 일으켜 618년 5월 수의 공제(恭帝)로부터 선양을 받아 당을 건국하였다. 영류왕은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으며, 이후 629년까지 당과의 교류를 이어나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영류왕 7년(624년)에 당에서 보낸 도사가 고구려에 와서 노자를 강의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고구려가 당에 불교와 도교의 교법을 배우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고구려가 당시 일개 군웅에 지나지 않던 당과 교류를 맺은 가장 큰 이유는 대륙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고구려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왕조와 북방 유목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양측을 이용해 견제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국제정세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중국 왕조와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였는데, 당시에 당과 화친을 맺은 이유는 요해(遼海)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돌궐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관심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확보한 이래로 계속되었는데, 북위 시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수와의 대립도 요해 지역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박경철, 2005; 정원주, 2011).

당도 국초에는 돌궐에 칭신(稱臣)하고 있었지만 수도인 장안이 돌궐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돌궐을 평정하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당은 중원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돌

궤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당의 입장에서도 고구려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돌궐에 대한 견제라는 이해관계에 의해 서로 사신을 교환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당은 619년경 돌궐과 연계된 지역의 군웅을 진압하는 데 힘을 기울여 관내도(關內道), 하서도(河西道) 등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점차 관중 지방을 포함하는 산서(山西)·섬서(陝西)의 중남부 지역과 사천(四川)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 군웅을 차례로 제압하였으며, 628년에는 마침내 반란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김진한, 2009; 김진한, 2020; 정원주, 2011).

중국을 재통일한 당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하였다. 이 당시 동돌궐에서 힐리가한과 계미가한 간의 내분이 지속되자, 동돌궐에 예속되어 있던 철륵(鐵勒)·설연타(薛延陀) 등은 동돌궐에 반기를 들었다. 당은 이 기회를 틈타 설연타와 동맹하였고 630년에는 동돌궐을 멸망시켰다. 이에 서북 제번(諸蕃)에서는 당 태종에게 돌궐의 최고 군주를 의미하는 ‘천가한(天可汗)’의 칭호를 올렸으나, 당 태종은 한 발 더 나아가 ‘황제천가한’을 칭하며 중원과 막북의 최고 군주임을 자처하였다. 아울러 북방 민족들을 도독부와 자사부로 편입시켜 기미체제(羈縻體制)를 설립하였다(김호동, 1989; 임기환,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와 당의 관계에도 위기감이 점차 고조된다. 일찍이 628년에 고구려는 당이 돌궐의 힐리가한을 생포한 것을 축하하며 당에 봉역도(封域圖)를 바친 바 있었다. 봉역은 사전적 의미로 ‘흙을 쌓아서 만든 경계’를 뜻하므로 봉역도는 그 나라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라고 할 수 있으며, 고구려의 강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대체로 당에 대한 고구려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이

해하고 있는데(리지린·강인숙, 1976; 이호영, 1996; 노태돈, 2009), 세력 범위를 보장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이용범, 1987; 임기환, 2006; 정원주, 2011).

당은 동돌궐을 격파한 후, 예속되어 있던 요해 제족(諸族)의 향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3년(629년) 영주(營州)에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재설치하였다. 동이교위는 요해 지역과 시라무렌강 방면의 유목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565년 신라 진흥왕의 동이교위 제수를 마지막으로 끊어졌다. 629년에 당이 이것을 재설치한 것은 요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고구려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윤용구, 2005).

아울러 631년에는 장손사(長孫師)를 파견하여 고구려와 수의 전쟁 당시 사망한 유골을 묻어주고, 또 고구려가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경관(京觀)을 헐어버렸다. 당에서는 경관을 파괴한 이유에 대해 수를 이은 국가로서의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결국 고구려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 당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그 장소가 타국의 영내라면 적절한 외교적 절차를 밟아서 행해져야 했다. 더욱이 경관은 고구려인들에게는 수의 대군을 맞아 싸워 절체절명의 국난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당의 이러한 행동은 고구려를 독립적인 국가가 아닌 당의 패권하에 있는 국가임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정원주, 2011). 이에 영류왕은 당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천리장성을 쌓았으며, 고구려의 대당외교는 단절되었다.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말갈에 대한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말갈은 돌궐, 당, 고구려에 각각 예속되어 있었는데, 돌궐이 멸망한 이후 돌궐에 예속되어 있던 말갈의 귀속 문제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또한 서쪽 방면의 강력한 위협이 제거된 요해 제족의 고구려 침략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했다.

고구려가 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천리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먼저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리장성의 실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천리장성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차원에서 근래 토축으로 된 ‘노변강’을 고구려 천리장성 유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를 부정하기도 한다. 노변강은 자연적인 흙더미에 불과하거나 인공적으로 쌓은 것이라 해도 성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요동의 산성들을 연결하는 토루와 같은 성벽을 추가로 쌓아 장성을 만들었다는 산성연계방어선으로 보는 설도 현재 그 유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이성제, 2014). 한편,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기존의 산성을 단순히 연결한 산성연방선(山城聯防線)이 아니라 평원상에 구축된 군사방어선(軍事防禦線)일 것으로 보기도 한다(여호규, 2000).

그러나 천리장성은 이후 당과의 전쟁에서 방어선으로서 당의 군대를 저지하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리장성은 당이 고구려를 공격한 과정에서 어느 기록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하지만 천리장성이 축조된 이후에는 고구려 예하의 말갈이 당에 조공하거나 이탈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천리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참고할 여지는 있다(日野開三郎, 1991; 정원주, 2011).

영류왕 대의 대외관계는 대당 관계 이외에 대신라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영류왕 12년(629년)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동쪽 변경으로 쳐들어와 낭비성(娘臂城)을 깨트렸다고 하며, 영류왕 21년(638년)에는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七重城)을 침략하였으나 신라 장군 알천이 막아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영류왕 대에 고구려의 대신라 전선이 고착상태에 빠진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영류왕 9년(626년)에 신라와 백제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길을 막아 입조할 수 없으며, 자주 침략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당 고조는 산기시랑(散騎侍郎) 주자사(朱子奢)를 고구려에 보내 신라·백제와 화친하도록 하였고, 고구려는 표문을 올려 사죄하고 화평할 것을 청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626년 이전에 영류왕은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낭비성전투와 칠중성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동·남방면으로의 안정화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하겠다(정원주, 2011).

한편으로 영류왕 대에 고구려는 말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할 때 말갈병을 활용한다거나, 당의 1차 침략에 말갈병을 대거 이용하는 점은 고구려의 말갈 지배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고구려 말갈의 영역에 대해 『수서』에는 “동서가 2,000리, 남북이 1,000여 리”라고 되어 있으나, 『구당서』에는 “동서가 3,100리, 남북이 2,000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류왕에서 보장왕에 이르는 시기에 고구려의 영역은 『수서』에 기록된 것에 비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남북으로 2배가량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남쪽 방면으로만의 확장이 아니라 북쪽 말갈 방면으로도 상당히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小川裕人, 1937; 이인철,

2004).

동돌궐이 멸망하자 고구려는 돌궐에 예속되어 있었던 말갈의 귀속 문제를 두고 당과 신경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앞서 영양왕 대에도 수의 침략을 감수하고 속말말갈 지역으로 진출한 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당과의 대립을 감수하더라도 말갈에 대한 당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당과 관계를 단절했던 시기에 말갈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구려가 멸망할 때 말갈 역시 고구려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좀 더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류왕 시기의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이후 전개될 당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정원주, 2011).

639년에 이르러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한 기록이 『구당서』에 보인다. 또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640년에 태자 환권(桓權)을 보내 조공하는 한편, 귀족의 자제들을 당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주기를 청하였다. 당시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고창, 토번 등 여러 나라의 추장(酋長)도 자제를 보내 입학을 요청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중요한 외교적 행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가 중단되었던 당과의 교류를 재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의 고창 정벌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당은 북방의 돌궐을 멸망시킨 뒤 서역으로 눈을 돌렸고, 640년 8월에는 고창을 주현으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당에 저항하는 세력은 당의 북방과 서북방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서역 경략도 일단락되고 서북방의 주요 세력을 모두 제압한 상

황에서 당이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위협세력인 고구려에게도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고구려는 당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대당 관계에 있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李成市, 1993; 정선용, 2008, 방용철, 2011; 정원주, 2011; 여호규, 2018).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동돌궐 멸망 이후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설연타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대당 외교가 재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지영, 2008; 김진한, 2009; 김진한, 2020).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구려 내부의 정치 변동에 주목하기도 한다. 『일본서기』에 보장왕의 아버지인 대양왕(大陽王)과 연개소문의 정변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언급한 점에 주목하여, 보장왕과 대양왕계의 결합을 귀족연립체제를 지향하는 귀족들에 의해 밀려난 세력 간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개소문과 대양왕계의 결합은 영류왕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조공 재개와 환권 파견 등을 통해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반대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또 여러 대신들과 함께 연개소문의 제거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전미희, 1994).

고구려의 대신라 관계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629년의 낭비성 전투, 638년의 칠중성전투와 같은 요충지에서의 패배로 인해 고구려의 대신라 공세는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대당외교 재개는 이러한 정국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선봉조, 2009; 최호원 2013). 칠중성 전투의 패배가 고구려의 대당외교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당 내부의 사정에 주목하기도 한다. 당 태종은 봉선을 거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변국이 모두 당에 복속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

내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고구려에게 태자 입조와 지배층 자체의 국학 입학을 요구했다는 것이다(김강훈, 2021).

한편, 당 태종은 641년 태자 환권의 입조에 대한 답사로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허실을 염탐하게 하였다. 직방낭중의 직무는 국내외의 군사 등 정보를 얻어 지도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진대덕이 고구려의 지방관리들에게 비단을 바치며 고구려의 경치를 살피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지방 관리들이 인도하였으며, 진대덕이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기록대로라면 고구려에서는 진대덕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미 수와의 전쟁을 겪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당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신으로 파견된 진대덕에게 의도적으로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줌으로써 당의 침공 의지를 꺾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당서』의 “영류왕이 사자에게 열병을 성대히 보였다”라는 기록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진대덕이 고구려에 고창국 멸망 소식을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노태돈, 2009).

어쨌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대덕은 『고려기』를 지었다(吉田光男, 1977). 『구당서』와 『신당서』에 보이는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가 진대덕의 저술로, 고구려 사행의 결과를 보고한 것이었다. 현전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가 그 일문(逸文)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吉田光男, 1977; 武田幸男, 1994; 高福順·姜維公·戚暢, 2003; 노태돈, 2009; 윤용구, 2018). 『봉사고려기』와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가 모두 진대덕 한 사람의 저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武田幸男, 1994; 童嶺, 2017), 그의 사행이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 책은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한원』에 『고려기』에서 인용한 기사가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내용은 대체로 고구려의 지리와 특산물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진대덕이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기록을 볼 때 고구려 내부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당으로 귀국한 진대덕은 고구려의 정세를 태종에게 보고하였고, 고구려가 고창이 망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접대를 후하게 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들은 태종은 기뻐하면서도 산동의 주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고구려 정벌을 유보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를 “본래 사군의 땅(本四郡地耳)”으로 인식한 점을 볼 때 언제든지 고구려를 정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李成市, 1993; 김진한, 2009). 고구려에서는 642년 정월에 조공사를 재차 파견하는데, 이는 당의 침략의도를 달래기 위한 영류왕의 후속조치로 이해된다(김기홍, 1992; 방용철, 2015).

이렇게 당의 고구려 침공의지, 설연타의 부상, 신라와의 충돌 등으로 대외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구려에서는 큰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다. 642년에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것이다. <천남산묘지명>에 의하면 연개소문의 증조는 중리(中裏)의 지위에 있었다. 그는 안원왕 말기에 일어난 세군(細群)과 추군(麤群)과의 왕위 다툼에서 추군 측에 가담하여 양원왕을 옹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홍직, 1974; 노태돈, 1999; 정호섭, 2018). 남생(男生)의 행적 등을 근거로 국내성시기부터 유력한 귀족가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해도 있긴 하지만(최일례, 2011; 정원주, 2013), 사료로만 한정시켜 보면 연개소문 가문은 고구려 후기에 실질적으로 성장한 평양계 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개소문 가문의 중

양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평양 천도를 전후한 시기까지 소급해 보는 견해도 있지만(임기환, 1992), 현재까지 양원왕 대 이전의 기록에서 어떠한 연씨 세력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이 시기부터 연개소문의 가문이 유력한 귀족가문으로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씨 집안이 644년 정란에서 추군 측에 속하였다고 보고, 그것이 연씨 가문이 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이홍직, 1974; 노태돈, 1999).

## 2. 연개소문 가문과 정변

연개소문 가문의 성씨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 기록으로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과 <천남생묘지명> 및 <천헌성묘지명> 등 금석문에 천씨(泉氏)로 나오며, 『삼국사기』에도 천씨(泉氏)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중국 측 기록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일 것이다. 한편, 『구당서』 권199 고려조에는 전씨(錢氏)라는 기록도 보이며, 『신당서』 권220 고려전에 연개소문의 동생으로 연정토(淵淨土),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6년조 등에도 연정토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기록으로는 연(淵), 천(泉), 전(錢)이 있는 셈이다. 본래의 성은 연(淵)이지만, 당 고조인 이연(李淵)의 휘를 피하여 천(泉)으로 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려고기(高麗古記)』에서는 자칭하여 성을 개(蓋), 이름을 금(金)이라 한 것이나 같은 책의 『신지비사(神誌秘詞)』 서문을 인용하면서 소문(蘇文)은 직명(職名)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인식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홍직, 1971). 최근에는 『구당서』에 성이 ‘전(錢)’으로 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전(錢)’과 ‘천(泉)’은 모두 고대 화폐의 이름으로 ‘천(泉)’을 ‘전(錢)’으로도 썼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도 한다. 즉 ‘錢’과 ‘泉’이 서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글자가 고대에 같은 음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구당서』 고려전에는 연개소문의 성씨가 “물속에서 나왔다(生水中)”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승은 보이지 않아, 연개소문 가문의 성씨를 단순히 ‘生水中’에서 비롯된 ‘泉’ 또는 ‘淵’으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구당서』의 연개소문 성씨 기록은 고구려 측에서 전해진 정보를 수용한 것으로 오히려 고구려에서는 ‘錢’을 연개소문의 성씨로 표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박승범, 2016). 한편, 『일본서기』의 이리가(伊梨柯)와 연개(淵蓋)가 통한다고 보아 이를 성씨로 보기도 하였다(李丙燾, 1955; 이병도, 1996).

하지만 연개소문의 동생으로 연정토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나 당 고조 이연의 휘를 피하여 성을 ‘泉’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본래 연(淵)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서기』에 연개소문과 관련한 기록에서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의 ‘이리(伊梨)’가 ‘淵’의 음독(音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고구려 당시의 성씨는 연(淵)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홍직, 1971; 정호섭, 2018).

한편, 일연은 『삼국유사』 흥법(興法)편 보장봉로보덕이암(寶藏奉老普德移庵)조에서 『당서(唐書)』와 『고려고기』를 인용하여 성은 개(蓋)이고 이름은 금(金)이었다고 하였고, 또한 『신지비사』를 인용하여 개금은 성명(姓名)이고, 소문(蘇文)은 직명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보인다.

연개소문 가문은 물과 관련된 출자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샘이나 천(川) 또는 호수의 정령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자신들의 시조와 연결시키는 것은 고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설화와 신화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천남생묘지명> 등에서 동일한 출자의식을 공유하고 묘지명을 쓸 때도 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일단 주목된다. 연개소문 가문이 물과 관련한 출자 전승을 가지고 그것을 성씨로 삼은 것을 보면 고구려 후기 유력한 귀족가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출자 전승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귀족연립체제하에서 유력한 귀족들이 독자적인 출자 전승을 통해 가문별로 상당한 유대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하겠다. 애초에는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문이 세력화되고 점차 분지화되면서 정치적 입장도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정호섭, 2018).

한편, <천남생묘지명>에 의하면 남생은 679년 4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기에 634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 간 격차를 20~30년 정도로 가정할 경우 연개소문의 증조는 대략 6세기 초반, 조부인 자유는 6세기 중반경, 아버지인 태조는 6세기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연개소문의 증조는 안원왕(531~545년)~양원왕(545~559년) 대에, 조부인 자유는 평원왕(559~590년)~영양왕(590~618년) 대에, 부친인 태조는 영양왕(590~618년)~영류왕(618~642년) 대에 걸쳐 주로 활동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연개소문 역시 남생의 출생 시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610년경 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정호섭, 2018).

<천남생묘지명>에 의하면 연개소문의 조부인 자유와 태조는 막리지를 역임하였는데, 연태조는 영류왕의 즉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

표1 문헌과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연개소문 가문의 인물(정호섭, 2018, 일부 수정 보완)

세대	성명	생몰년	가계	혼인	비고
1	?(失名)	6세기 초반경 출생	연개소문 증조		안원왕~양원왕 대
2	子遊	6세기 중반경 출생	연개소문 조부		평원왕~영양왕 대
3	太祚	6세기 후반경 출생	연개소문 부친		영양왕~영류왕 대
4	蓋蘇文	?~665			610년대 출생
	부인(失名)	?~682	연개소문 부인		682년 사망
	淨土	610년대 출생	연개소문 동생	보장왕의 딸(?)	신라에서 당으로 사행 후 정착 667년까지는 생존
5	男生	634~679	연개소문 첫째 아들		안동도호부에서 사망
	男建	635~638 출생	연개소문 둘째 아들		검주로 유배 후 사망
	男山	639~702	연개소문 셋째 아들		702년 장안에서 사망
	安勝	650년대 출생	연정토의 아들		보장왕의 외손 보장왕의 서자
6	獻誠	650~692	남생의 첫째 아들		모함으로 사망 701년 장례
	獻忠	?~665 650년대 출생	남생의 둘째 아들		665년 남건, 남산 등에 의해 사망
	光富	685~?	남산의 아들 혹은 손자		남산과 46세의 나이 차이
	大文	?~684	안승의 조카(族子)		신문왕 4년 반란 후 주살
7	玄隱(隱)	680년대 출생	현성의 첫째 아들		729년 천비묘지撰
	玄逸	680년대 출생	현성의 둘째 아들		
	玄靜	680년대 출생	현성의 셋째 아들		
	同濟	?~?	현은과 동일 세대(?)		천씨부인묘지 大父同濟
8	咨	708~729	현은의 아들	왕위의 딸과 혼인	왕위의 사위
	泉氏夫人	726~807	현은의 딸	馬府君과 혼인	曾祖獻誠, 大父同濟, 烈考玄隱
	景仙	?~754	현일 혹은 현정의 아들 가능성		
9	孺弘	?~?	천씨부인의 종질(조카)		천씨부인묘지撰
一族	伊犁渠世斯	?~642	연개소문 정변 때 주살		반연개소문 세력
	都須流金流	?~?	연개소문 정변 후 大臣		친연개소문 세력
	伊犁之	?~?	656년 왜에 사신으로 파견		친연개소문 세력으로 추정
	高提昔	649~674	증조부가 水境城 道使와 遼東城 大首領 역임	674년 천씨 가문과 혼인	국내성 출신 26세에 사망

으로 보인다. 영류왕은 영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영양왕이 죽은 뒤에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고구려와 수의 전쟁 때 많은 공을 세운 그의 활약을 감안하면 영양왕 사후에 연개소문 가문을 포함한 다수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개소문의 증조부터 세군과 추군의 왕위쟁탈전에서 추군 세력의 편을 들어 양원왕을 즉위시키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고, 부친인 태조 대에도 영류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선봉조,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개소문 가문은 적어도 연개소문의 증조 때부터는 중요한 귀족가문으로 성장하였고, 조부와 부친 때에 이르러서는 막리지를 역임할 만큼 실질적인 최고의 가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정호섭, 2018).

그런데 연태조가 사망한 후 그 아들인 연개소문이 지위를 계승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태조는 630년 말~64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선봉조, 2009; 최호원, 2013), 『삼국사기』에 의하면 국인(國人)들은 동부대인·대대로의 아들인 연개소문이 당연히 그 지위를 이으려 했으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하여 그 지위를 계승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연개소문은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섭직(攝職)을 청하여 간신히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후에 부친의 지위를 간신히 계승하기는 하였으나, 그 승계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계승한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대인(大人)을 계승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講田正幸, 1979; 전미희, 1994), 막리지를 포함한 부직 전체를 계승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武田幸男, 1989; 임기환, 1992; 임기환, 2004), 대대로(大對盧)까지 상정하기

도 하였다(이내옥, 1983; 전경옥, 1996; 이도학, 2006). 연개소문 가문이 국인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 일정한 지위를 계승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대대로의 위상을 고려해본다면, 일단 부친인 태조가 가졌던 대대로의 지위를 계승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사료에 보이는 동부대인(東部大人) 혹은 서부대인(西部大人)을 수도의 행정구역인 5부(部)의 장(長)인 육살로 보고, 이때의 관직 계승은 당시 세력관계와 연고 등에 의해 귀족세력의 동의를 얻는다면 특정 관직에 장기 재임하거나 한 집안에서 이어서 직을 맡는 경우는 가능했다고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

한편, ‘섭직’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가 부직을 온전히 승계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선봉조, 2009). 섭직이란 연개소문이 ‘불가함이 생긴다면 폐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임시’·‘대리’의 직위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당서』에서는 왕과 대신들이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모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섭직으로 범을 어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정변 직전까지 섭직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연개소문은 연태조가 가졌던 권력 일체를 계승하지 못하고 제한된 권력만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이성제, 2021).

당시 연개소문이 당연하게 여겼던 부직 승계를 하지 못하고 섭직했다는 것은, 고구려 후기 정치사에서 나름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영류왕은 연개소문 일가의 권력 계승을 막음으로써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기록상으로는 연개소문 일가의 권력 계승을 가로막은 것은 국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무렵의 정국 운영에는 영류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개소문이 부직의 승계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아, 연태조는 죽기 전에 아들의 권

력 승계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그가 대대로에 재직하다가 죽었다는 것 역시 연개소문 일가의 세력이 다른 귀족들에 대해 우위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연개소문의 부직 승계를 반대하여 일시적으로 연개소문의 승계가 좌절되었던 것은 연태조의 사전 조치가 무력화되고 세력관계가 뒤집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존재감을 되찾고 있던 왕권이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귀족연립정권하에서 대대로의 선임에 관여하지 못했던 이전 국왕들과 달리 영류왕은 그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유력 귀족이 대대로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이성제, 2021).

이후 영류왕 25년(642년) 정월, 영류왕은 연개소문에게 천리장성의 역사를 감독하게 한다. 대인 연개소문에게 명하여 장성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영류왕과 귀족세력이 연개소문을 중앙정계에서 좌천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장성 축조를 감독하게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전미희, 1994; 노태돈, 1999; 김강훈, 2021). 연개소문이 발령 이후 머지않은 시점에 정변을 일으켰다는 데 주목하며, 정변 때는 동부대인이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부임하지는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연개소문 내지 그의 가문이 천리장성 축조를 주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李成市, 1998; 임기환, 2004; 정호섭, 2018). 『삼국유사』 흥법(興法) 편에 인용된 『고려고기』를 보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지에 상주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연개소문의 성장은 천리장성 축조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를 건의했다는 기록

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천리장성은 631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연개소문은 610년대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천리장성 축조는 그의 부친 연태조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642년이 되어서야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태조가 장성 축조에 큰 역할을 했고 연개소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그 직무를 계승하여 장성 축조를 감독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영류왕과 연씨 가문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다가 연태조의 죽음 이후 결합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정호섭, 2018).

영류왕과 연개소문이 대립한 원인은 사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고구려의 대외정책을 ‘북진남수(北進南守)’의 연개소문과 ‘북수남진(北守南進)’의 영류왕이 다룬 것으로 평가하였는데(신채호, 1948), 대체로 이러한 틀에 따라 대당온건파 영류왕과 대당강경파 연개소문이 대립한 결과 정변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노태돈, 1999; 김영하, 2000; 임기환, 2004). 하지만 연개소문이 집권 직후에 당에 사신을 보냈고 도교를 요청하거나 보장왕이 책봉을 받은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시종일관 대당강경책만을 구사한 것은 아니었다. 영류왕 또한 수와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수 군대를 격파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당과의 관계를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며, 무작정 대결 국면을 지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외적 원인보다는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던 왕의 의도에 연개소문이 장애가 되었다고 보거나(김기홍, 1992;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이 정변 직후에 김춘추에게 영토 반환을 요구했으며, 직접 신라 공격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대신라강경책을 명분으로 삼아 정변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한다

(최호원, 2013; 김강훈, 2021).

이러한 대외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부직 계승 이후 연개소문의 행보에 주목하기도 한다. <유인원기공비(劉仁願紀功碑)>에는 “연개소문이 홀로 판마음을 먹고 망명한 자들을 한데 모으고 간사한 이들을 불러들여, 그 군장을 가두고 병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섭직 후 연개소문의 행보는 가문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었고 볼 수 있다(전미희, 1994). 이러한 행동이 처음부터 정변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섭직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왕과 대신들의 우려를 사기에는 충분했다고 여겨진다. 영류왕과 대신들이 연개소문의 권력 승계를 제한하려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개소문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연개소문의 군사적 움직임이 양측의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다(이성제, 2021).

연개소문 정변은 642년에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자치통감』,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일본서기』에 보인다. 다만 중국과 일본 측 사료는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는데, 먼저 정변의 시점이 다르다. 『일본서기』는 641년 6월이었다고 하고, 『자치통감』은 642년 11월 정사조에 전한다. 또한 정변에서 피살된 자의 수도 다르다.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에는 100여 명을 죽였다고 한 반면에 『일본서기』에서는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죽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료를 통해 정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642년 10월 영류왕과 여러 대인이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으나 일이 사전에 새어나갔다. 이에 연개소문은 부병(郚兵)을 모두 모아 마치 군대를 사

열할 것처럼 꾸민 후 술과 음식이 성대히 차려놓고 귀족들을 초대하였다. 화려한 식이 거행되던 중 연개소문의 신호를 받은 부하들은 순식간에 참석한 귀족들을 처단했다. 그리고 그 길로 궁으로 달려가 고구려 영류왕을 시해하고는 시신을 몇 토막으로 잘라 시궁창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영류왕의 조카를 새로운 왕으로 삼아 보장왕이라 하고, 자신은 인사권과 군사권을 총괄하는 막리지에 올랐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연개소문의 성명이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로 나오는데, 그는 정변을 통해 영류왕과 이리거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고, 같은 성씨인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를 대신(大臣)으로 삼았다고 한다. 연개소문이 같은 일족인 이리거세사도 죽인 것을 보면, 가문 내에서도 정치적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리거세사는 영류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연개소문과 반대 입장에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보인다. 『일본서기』 기록에서 왕과 함께 유일하게 성명이 거명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일족이지만 왕과 모의하여 연개소문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사전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리거세사가 연개소문의 일가라는 점에서 당시 연개소문 가문의 세력이 컸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노태돈, 1999), 취임이 당연시되었던 연개소문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리거세사가 연태조의 후임으로 대대로에 오른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다(이성제, 2021).

연개소문이 정변 후에 대신으로 삼았다는 도수류금류는 ‘이리도수류’, ‘이리금류’라는 두 사람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리거세사와 도수류

금류가 뒤바뀐 채 서술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으나, 사료를 뒤바꿀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원래 기록대로 이해한다면 도수류금류는 연개소문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측근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서기』의 ‘같은 성씨’라는 표현은 혈연적 성씨를 뜻한 것이 아니라 같은 부(部)에 속한다는 의미로 보고 같은 부 출신의 인사를 대대로 삼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이리저세사와 도수류금류 등은 연개소문보다 한 세대 위거나 동일 세대라고 볼 수 있다(정호섭, 2018).

### 3. 연개소문 정권과 고당전쟁의 배경

고구려사에서 있어서 대체로 왕권의 약화와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을 보이는 6세기 이후의 양상을 대체로 귀족연립정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노태돈, 1976). 통일신라 후기사에 적용되는 귀족연립정권의 개념을 고구려에 적용한 이해방식은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귀족연립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 정치양상에 대한 검토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귀족연립정권의 안정적인 정치운영체제로 대대로-막리지체제를 보기도 하지만(임기환, 1992), 귀족세력과 왕권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귀족연립정권 자체의 준부나 권력기반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연개소문의 정변과 그 정권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이전 귀족연립정권의 성격을 역으로 추적하는 면도 있다(임기환, 2003). 특히 고구려 후기 정치권력의 핵심 관직인 대대로 혹은 연개소

문이 역임하였다는 막리지의 성격이 주목되어 왔다.

막리지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크게 막리지와 대대로가 동일하다는 입장과 막리지는 태대형(太代兄)과 동일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막리지가 곧 ‘대(大)’의 뜻을 가지는 ‘마카리(マカリ)’로서 대대로와 동일하다는 언어학적 이해를 보이거나(末松保和, 1954; 이흥직, 1971), 연개소문이 막리지로서 국사를 전제하여 정치적 위상이 대대로를 방불한 점, 연개소문 가계의 관직 기록에서 대대로와 막리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본다(講田正幸, 1979).

후자의 견해에서는 언어학적인 접근을 비판하며 연개소문 집권기에 이전까지 최고위직이었던 대대로를 공동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집중의 중심체로 태대형을 개칭한 막리지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거나(武田幸男, 1978), 막리지를 국왕의 근시직으로서 중리제(中裏制)의 최고위직인 중리태대형으로 보고, 평원왕 이후 귀족연립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국왕의 권력을 뒷받침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이문기, 2000). 약간의 견해 차는 있지만, 이렇듯 막리지가 태대형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인 이해이다(임기환, 1992; 李成市, 1993; 노태돈, 1999).

막리지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고구려 후기의 정치운영방식이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는 연개소문 정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해석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입장 차가 보다 분명한 지점은 연개소문 정권의 성격인데, 연개소문이 이전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인 대대로-막리지체제를 붕괴시키고 사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이 시기 내분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임기환, 1992). 이와 비슷하게 연개소문은 정변 이후 귀족연립체제를 부정하였고, 보

장왕 역시 연개소문과 이해를 달리하면서 정권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전미희, 1994). 연개소문은 정변 전에는 대대로, 정변 후에는 막리지로 지위가 변화하였고 족제적 성격의 구세력을 타도하고 집권화를 지향하여 국가체제를 재편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한다(李成市, 1993).

이와 다르게 보장왕 대의 권력구조를, 기본적으로는 귀족연립정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인 집권자인 연개소문과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보장왕이라는 이원집정제로 파악하기도 한다(김기흥, 1992). 연개소문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변 이전에는 동부육살, 정변 후에는 막리지였다가 대대로에 취임하여 귀족회의 중심 귀족연립정권의 정상적인 운영방식을 따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노태돈, 1999).

그러나 연개소문 정권이 당대에 대내외적으로 돌발적인 인상을 주었던 점이나, 이때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임기환, 2003)는 점에서, 그 이전의 귀족연립적 권력구조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정변을 통한 정권 장악과 이후 사적 권력의 강화를 통한 무단적이고 세습적인 집권 형태는 고구려 전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특히 연개소문은 사적인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남생, 남산 등을 대형(大兄)이나 위두대형(位頭大兄) 등으로 임명하고 권력 세습 기반을 다져 나갔다. 아울러 태대대로(太對廬), 태막리지(太莫離支), 태대막리지(太莫離支) 등의 새로운 관명을 통해 명실상부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족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어쩌면 정변을 통해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모든 귀족세력을 완전하게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인물로 안시성주를 들 수

있다. 이는 반대세력이었던 안시성주가 연개소문 정변에도 복종하지 않았고, 연개소문이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하였다는 『구당서』 고려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연개소문은 안시성주를 계속 성주로 인정하였고, 안시성주도 연개소문을 새로운 집권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642년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서도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제왕자(弟王子)의 아들 교기(翹岐)를 비롯하여 모매여자(母妹女子) 4명과 내좌평 기미(岐昧) 등 자신을 반대하는 왕족과 귀족들을 섬으로 추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 직접 신라를 침공하여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으며, 장군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대야성의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이었는데, 윤충이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맹세하자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복하였다. 하지만 윤충은 약속을 어기고 먼저 나간 병사들을 죽였고, 뒤늦게 윤충의 계략을 알게 된 품석은 처자식을 죽이고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

경남 합천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야성은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를 잃은 신라는 낙동강 서안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대야성전투에서 김춘추의 친족이 죽은 것에 대해 백제에게 설욕하기 위해 주변국과 동맹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동맹을 통해 전쟁의 양상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야성전투를 삼국통일전쟁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노태돈, 2009). 김춘추는 대야성전투에서 자신의 딸인 고타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박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춘추는 백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직접 고구려에 가서 청병하였다. 이와 함께 신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중단하고 양국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겠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떠나기 이전에 김유신과 만나 60일 이전에 돌아올 것을 기약하였고, 김유신은 60일 이내에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고구려를 침공할 것이라고 피로 맹세하였다고 한다. 평양에 도착한 김춘추는 보장왕을 만나 백제를 칠군사를 요청하였지만, 보장왕은 그 대가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죽령 서북의 땅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보장왕의 요청에 김춘추는 국가의 토지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하였고, 노한 보장왕은 김춘추를 가두었다.

이때 김춘추의 요청을 거절한 인물은 표면적으로는 보장왕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연개소문이 김춘추와 만나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며, 결정 과정에서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연개소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덕원, 2007; 김덕원, 2016). 연개소문은 유혈정변을 통해 집권하였기에 대외적 긴장 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집권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삼국 관계에서 고구려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노태돈, 2009).

별관에 갇힌 김춘추는 보장왕의 총애를 받는 선도해(先道解)에게 청포(靑布) 300보를 몰래 주었다. 그러자 선도해는 김춘추에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며 거북이를 속여 도망칠 수 있었던 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에 김춘추는 깨달은 바가 있어 보장왕에게 신라에 귀국하면

땅을 돌려주라고 왕에게 청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였고, 마침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고구려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장왕은 김춘추를 신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김춘추는 국경에 이르자 바래다준 사람에게 이전의 약속은 죽음을 면하기 위한 거짓 약속이었음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회담은 결렬되었다.

김춘추와의 만남은 연개소문으로서도 집권한 후에 맞이한 최초의 대외적인 문제였다. 연개소문은 정변을 통해서 집권하였기 때문에 대내적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5~6세기의 국제적 위치를 재확립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노태돈, 1989; 노태돈 1998; 노태돈, 2002).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당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지역에 위치한 남쪽의 신라를 적으로 돌린 것은 고구려의 국익에 타격을 입힌 것이었다(노태돈, 1989; 노태돈 1998; 김덕원, 2016).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고구려와의 외교가 실패하자 이듬해 9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가 40여 성을 빼앗고 고구려와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끊으려 한다”라며 구원을 청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의자왕이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 당에 조공하는 길을 막고자 하였으나 신라 선덕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으므로 군대를 철수하였다고 한다.

대체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여제연화(麗濟連和)’는 역사적 사실로 이해되고 있다(이병도, 1959; 이만열, 1978; 노중국, 1981; 김은숙, 2007). 하지만 신라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부정론 내지는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은 신라에 한정되

는 것으로 신라 견제가 주요한 내용이라는 제한적 연화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호영, 1982; 이호영, 1997; 정동준, 2006; 박윤선, 2007; 윤성환, 2011; 정원주, 2013; 최호원, 2014; 김지영, 2016; 방용철, 2016; 김덕원, 2016). 하지만 당이 신라의 주장만을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사료상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연화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의 연화에 관한 기록 자체가 2회에 걸쳐 신라를 공격하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고,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였을 경우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하였을 경우 고구려와 백제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연화일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정호섭, 2023).

한편, 연개소문의 정변 소식을 들은 당 태종은 바로 고구려 정벌을 논의했지만 장손무기(長孫無忌)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또 『자치통감』에 따르면 영류왕이 시해되었을 당시 박주자사(亳州刺史) 배행장(裴行莊)이 당 태종에게 주문을 올려서 고구려를 정벌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상사(喪事)를 이용하고 혼란한 것을 틈타서 남을 정벌할 수는 없으며, 아직 산동이 피폐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하였다. 643년 6월에는 태상승(太常丞) 등소(鄧素)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국해서는 회원진(懷遠鎭)에 수자리 서는 병사를 늘려 고구려를 압박할 것을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종은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文德)을 닦아서 그들이 오게 해야 하며, 100~200명의 수자리 서는 병사가 위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당 태종은 643년까지는 적극적인 고구려 정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당 태종이 후계자 책봉이라는 대내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도 참고된다. 하지만 당이 641년에 진대덕을 파견한 이후 전쟁 직전인 644년까지 다섯 차례나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당 초기부터 640년까지 18년 동안 사신 파견이 네 차례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빈도가 높은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영류왕에 대한 조문을 목적으로 파견한 사신과 보장왕을 책봉하는 사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진대덕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내부 정세에 대해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역시 연개소문의 집권과 함께 대당강경책만을 구사한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643년 정월에는 당에 조공사를 보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3교 중 도교만 흥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에 표문을 올려 도교를 요청하였다. 이에 태종은 도사(道士) 숙달(叔達) 등 8명을 보내고 『도덕경』을 하사하였다.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도교는 전제 내지 독재를 위한 이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독재정치를 위해 도교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내욱, 1983). 『삼국유사』에 의하면 영류왕 때 고구려에 오두미교(五斗米教)가 크게 유행하였고, 당에서 이를 먼저 알고 도사를 파견할 만큼 고구려와 당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 고조(高祖)가 도사와 천존상(天尊像)을 보내, 그가 와서 『도덕경』을 강의하니 왕이 직접 들었고, 이후 당에 사신을 보내어 불교와 도교 배우기를 청하였다는 것이다. 보장왕이 즉위년에 연개소문의 요청으로 3교를 함께 진흥시키고자 도교를 수용하였다는 것인데, 특히 연개소문은 도교를 통해 불교 교단을 통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대하였던 보덕은 고구려의 적극적인 도교 진흥책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평양성으로부터 대보산의 영탑사와 반룡사 등을 전전하였고, 반룡사에 주석하고 있으면서 보장왕에게 도교를 진흥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불교정책이 변화되지 않자 650년 그는 고구려를 떠나 열반사상이 유행하던 백제로 이주하게 되었고, 완산 고대산에 경복사를 창건하였다. 이는 도교 진흥책에 대한 고구려 불교계의 반발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선여, 2007; 정호섭, 2018). 고구려는 644년 정월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는데, 이러한 사신 파견은 당의 내부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왜와도 외교를 재개하였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43년 6월에 대재부에서 역마를 달려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내조하였다고 알렸는데, 고구려가 기해년(639년)부터 조공하지 않다가 금년에야 조공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는 백제와 더불어 그 동맹국에 가까운 왜를 통해 신라를 압박하여 남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의 일전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백제·왜의 연합과 당·신라의 연합이라는 대결구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643년 9월과 11월에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에 대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에서 보낸 사신은 대략 644년 정월경에 당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당 태종은 신라 사신의 요청에 대해 선덕왕 대신 자신의 종친을 신라의 왕으로 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 가지 계책을 내놓았다. 이는 신라 입장에서 굴욕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사신이 대답하지 못하자 당 태종은 그가 군

사를 청할 만한 인재가 아니라며 탄식하였다고 한다.

이어 644년 당 태종은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相里玄獎)을 고구려와 백제에 사신으로 보내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병력을 출동시켜 공격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의자왕은 표문을 올려 사죄하였다. 그런데 상리현장이 고구려의 국경에 들어왔을 때 연개소문은 신라를 공격하여 두 성을 격파한 상태였다. 보장왕의 명에 따라 고구려로 돌아온 연개소문은 수와의 전쟁 당시 신라가 빼앗은 고구려의 땅 500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상리현장은 요동의 여러 성이 본래 중국의 군현이나 중국은 이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연개소문은 끝내 듣지 않았다.

상리현장이 돌아가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니, 당 태종은 연개소문이 영류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쟁의 명분을 천명하였다. 당 태종은 고구려 정벌 의지를 어느 정도 굳힌 상태에서 다시 사신 장엄(蔣儼)을 보내 조서를 내렸으나 연개소문은 끝내 조서를 받지 않고 장엄을 위협하였으며, 장엄이 태도를 굽히지 않자 굴실에 가두었다.

당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개시하기 전, 여러 방면에서 고구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 644년 7월에는 영주도독 장검(張儉)으로 하여금 유주(幽州)·영주(營州) 도독의 병력과 거란·해(奚)·말갈을 거느리고 먼저 요동을 공격하여 그 형세를 보게 하였다. 장검에게서 보고가 없자 강하군왕 이도종(李道宗)이 자청해 별도로 요동 정세를 정탐하기도 했다. 당시 장검은 요서에 이르러 하천이 범람하여 오래도록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당 태종은 장검이 두려워한다고 여겨 불러서 돌아오게

하였다. 장검은 태종을 만나 수초의 좋고 나쁨, 산천의 험하고 쉬움, 그리고 오래도록 나아가지 못한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러자 태종은 기뻐하여 행군총관에 임명하고 제번의 기병을 거느리게 하여 6군의 선봉으로 삼았다고 한다.

장검이 도독으로 있었던 영주도독부는 고구려와 접경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서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였다는 소식을 당 태종에게 보고한 것도 장검이었다. 645년 전쟁 개시 직전에는 당에서 고구려의 척후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장차 요동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당 태종은 장검에게 조서를 내려 신성으로 가서 요격하라고 하였으나, 연개소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장검은 건안성으로 목표를 바꾸기도 했다.

당 태종은 수의 고구려 원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관료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당의 645년 고구려 원정에서 당군의 군량 수송 책임을 맡은 위정(韋挺)은 수 때 영주총관을 지낸 위충(韋冲)의 아들로 아버지가 고구려 원정의 경험을 기록한 글을 보고해 태종이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644년 7월 태종은 위정을 궤수사(饋輸使)로 삼아, 하북의 여러 주가 모두 위정의 명령을 받게 하고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위정은 후에 조거(漕渠)를 살피지 않아서 쌀을 운반하는 600여 척이 노사대(盧思臺) 옆에 이르러 나아갈 수 없었던 일에 연좌되어, 낙양으로 압송되어 제명된다. 11월에는 이미 치사한 전 의주자사 정천숙(鄭天壽)을 행재소로 불러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가 일찍이 수 양제를 따라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천숙은 요동으로 가는 길은 멀어서 군량의 운반이 어려우며, 고구려는

성을 잘 지켜서 공격해도 빨리 함락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당 태종은 지금은 수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고구려 침공을 계획하였다.

연개소문은 당을 달래기 위해 644년 9월에 백금을 바쳤다. 저수량(褚遂良)은 태종에게 신하 노릇 하지 못한 자의 뇌물을 받고 허물하지 않는다면 그를 정벌할 수 없다며 백금을 받지 말라고 하였고, 태종은 저수량의 말에 따랐다. 고구려 사신이 또 관리 50명을 들여보내 숙위할 것을 청하자, 태종은 영류왕을 섬겨 관작을 얻은 관리들이 연개소문에게 복수하지 않는 죄가 막대하다며 사신을 감옥에 가두었다.

644년에 마침내 당 태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태종 정관 18년 12월에 조서를 내렸다. 조서의 내용은 대체로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한 것과 신라를 침입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자는 데 명분을 두고 있다. 태종은 낙양으로 떠나기 전에 장안의 노인들을 불러 “요동은 예전에 중국 땅이었고 연개소문이 그 임금을 죽였으므로, 몸소 가서 다스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과 약속하니 아들이나 손자로서 나를 따라가는 자는 내가 잘 위무할 테니 근심할 것 없다”라며 안심시켰다. 바로 전 왕조인 수가 고구려와의 전쟁 후에 멸망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전쟁은 당의 백성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었을 것이므로 노인들을 불러 위로한 것은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태종은 낙양으로 옮겨 전쟁 준비를 독려했다. 그는 당의 군사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신라, 백제, 해, 거란의 군사를 불러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요구했다. 645년 정월에는 백제의 태자 부여강신(扶餘康信)이 당에 와서 조공하였다. 이때 태종이 백제에 내린 조서를 살

펴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늘 군사를 일으켜 당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 신라를 침입한다는 내용이 있어 고구려와 백제의 연화를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의자왕의 표문과 부여강신의 말을 듣고 백제에 대한 의심을 풀겠다는 내용이 있다. 또 부여강신이 군사를 일으켜 당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겠다는 의자왕의 뜻을 전하자 태종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백제가 당을 돕겠다는 표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가 수와의 전쟁에서와 같이 실제로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양단책으로 일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구당서』에 따르면 태종은 신라에게도 군사와 말을 모집하여 당 군대에 응접하라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대신을 파견하여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남쪽으로 들어가 수구성을 쳐서 항복받았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해에 신라가 군사 3만으로 당을 도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백제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신라 서쪽의 일곱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당 태종은 645년 2월에 낙양 궁궐을 떠나서 고구려로 직접 친정하였다. 태종은 고구려로 떠나며 황태자에게 정주(定州)에 남아 감국(監國)하도록 하였으며, 6군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향하였다. 11월에는 형부상서 장량을 평양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여 남부지역에서 징발한 병사 4만 명, 수도 장안과 낙양에서 모병한 3,000명, 전함 500여 척을 동원해 해로로 평양으로 진군하게 하였다. 그리고 병부상서 이세적(李世勣)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보·기병 6만 명과 난주·하주의 유목민 향호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진군하게 하였다. 마침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 김덕원, 2007,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노태돈, 1998,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_\_\_\_\_,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_\_\_\_\_,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리지린·강인숙, 1976, 『고구려역사』, 북한사회과학출판사.  
李丙燾, 1955, 『新修國史大觀』, 普文閣.  
\_\_\_\_\_, 1959,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_\_\_\_\_, 1996, 『(개정판)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이호영, 1997,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정선여,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강훈, 2021,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역사학보』 249.  
김기흥, 1992,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亞細亞文化社.  
김덕원, 2016,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김영하,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 唐의 단계적 戰略變化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10.

-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 김지영, 2008,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630년 이후 북방세력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만주연구』 8.
- \_\_\_\_\_, 2016,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2.
-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32-4.
- \_\_\_\_\_, 2016, 「高句麗 滅亡과 淵蓋蘇文의 아들들」, 『한국고대사탐구』 22.
- 김호동, 1989, 「고대유목국가의 구조」,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 나동욱, 2009, 「640년대 후반 고구려, 당 전쟁에 대한 검토」, 『군사』 72.
- 노중국, 1981,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 노태돈, 1976,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 \_\_\_\_\_, 1989, 「연개소문과 김춘추」,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 \_\_\_\_\_, 2002, 「연개소문-무모한 대외강경론자, 포악한 권력자-」, 『한국사시민강좌』 31, 일조각.
- 박경철,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백산학보』 71.
- 박승범, 2016, 「淵蓋蘇文 가문의 家系 기록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2.
- 박윤선, 2007, 「7세기 전반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 방용철, 2011,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대구사학』 102.
- \_\_\_\_\_,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 \_\_\_\_\_, 2016, 「麗·濟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 \_\_\_\_\_, 2017, 「연개소문 집권기 고구려의 정치 운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향숙, 2008,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과정」, 『中國古中世史研究』 19.
- 선봉조, 2009, 「榮留王代政局主導權의 變化樣相과 淵氏勢力」, 『고구려발해연구』 33.
- 신채호, 1948, 「高句麗의 對唐戰役」,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 여호규,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
- ,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대구사학』 133.
- 윤성환, 2011,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 79.
-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 - 東夷校尉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55.
- , 2018,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역주 한원』, 동북아역사재단.
- 이내옥, 1983,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 『역사학보』 99·100.
- 이도학, 2006,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발해연구』 24.
- 이만열, 1978, 「삼국의 항쟁」,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이문기, 2000, 「고구려 마리지의 관계적 성격과 기능」, 『백산학보』 55.
- 이성제, 2014,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기초적 검토」, 『영남학』 25.
- , 2021, 「榮留王의 王權 강화와 淵蓋蘇文 政變」, 『한국고대사연구』 104.
- 이용범, 1987,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한국사연구회 편,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이인철, 2004, 「7세기 高句麗 軍事活動의 주요 變數」, 『신라문화』 24.
- 이호영, 1982, 「여·제연화설의 검토」, 『경희사학』 9·10.
- , 1996,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이흥직, 1971,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 임기환, 1992,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 , 2003,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 ,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전경옥, 1996, 「연개소문 집권기의 莫離支體制 연구」, 『백산학보』 46.
- 전미희, 1994,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 정동준, 2006, 「7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61.
- 정선용, 2008, 「隋·唐 초기 中國의 世界秩序의 변화과정과 삼국의 대응」, 『신라사학보』 12.

정원주, 2011,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 2013, 「高句麗 滅亡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정호섭, 2018, 「고구려 淵蓋蘇文 家門의 軌跡과 복원」, 『동방학지』 185.  
 ———, 2018,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사학연구』 130.  
 ———, 2023,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 『선사와 고대』 72.  
 최일례, 2011, 「연개소문의 출자에 관한 몇 가지 의문」, 『한국사상과 문화』 57.  
 최호원, 2013, 「연개소문의 정변과 高句麗·新羅 關係」, 『사충』 80.  
 ———, 2014, 「고구려 보장왕대 대신라관계와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50.  
 ———, 2020, 「고구려 후기 국내정세와 신라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舊唐書』, 『文館詞林』,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高福順·董維公·戚暢, 2003, 『高麗記研究』, 吉林文史出版社.

童嶺, 2017, 「貞觀年間唐帝國的東亞情報·知識與佚籍－舊鈔本『翰苑』注引「高麗記」研究」, 『東方學報』 92.

『日本書紀』.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特に筆者と作成年次－」, 『朝鮮學報』 85.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紀要』 78.

—————, 1989,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説－』, 岩波書店.

—————, 1994, 「『高麗記』と高句麗情勢」, 『民族文化의 諸問題－于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世宗文化社.

小川裕人, 1937, 「靺鞨史研究に關する諸問題」, 『東洋史研究』 22-5.

礪波護·武田幸男, 1997, 「大唐世界帝國」, 『隋唐帝國と古代朝鮮』, 中央公論社.

- 李成市, 1993, 「高句麗泉蓋蘇文の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 日野開三郎, 1991, 「粟末靺鞨の對外關係」,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 三一書房.
- 請田正幸, 1979, 「高句麗莫離支考」, 『旗田巍先生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上)』.



# 고구려-당 전쟁의 전개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일반적으로 전쟁사에 대한 연구 대상과 주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전쟁의 배경이나 원인, 둘째, 전쟁의 경과 및 결과, 셋째, 전쟁을 구성하는 전략과 전술, 무기체계, 방어체계 등 군사 관련 등이다. 고구려-당 전쟁 연구에서는 전쟁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향은 4장과 5장을 참고하고, 이 글에서는 둘째와 셋째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동향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박경철, 2006; 노태돈, 2011; 임기환, 2014).

어느 전쟁이든지 그 전쟁 자체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전쟁사 서술의 기본 줄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645년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7세기 동북아의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전쟁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대체로 개설서나 관련 단행본에서 전쟁의 전개 과정을 개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李丙燾, 1959; 李萬烈, 1984; 이호영, 1998; 임기환, 1994; 전사편찬위원회, 1991; 임용한, 2001, 임기환, 2022).

이런 연구동향은 관련 자료의 한계성과도 연관이 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한 주요 사료는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자치통감(資治通鑑)』, 『책부원구(冊府元龜)』 등 중국 측 자료가 대부분이다. 사실 『삼국사기』 등에 국내 전승자료가 일부 전하고 있지만, 중국 측 자료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이강래, 2007). 따라서 현존하는 자료가 보여주는 전쟁의 역사상은 중국 측 자료에 의거하여 평면적으로 구성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주제는 전쟁 당사국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중국 측 자료에 의거해서는 당시 당의 입장이나 당군의 형세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고구려의 내부 사정 및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전략, 전술, 군사력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국 측 자료도 전쟁 과정이나 구체적인 전투의 전개 양상을 추적하기에는 소략하다. 그나마 당 태종의 주필산전투 및 안시성 전투의 경우 전황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도 주로 태종과 당군의 입장이 깊이 투영된 자료라는 점에서 전투의 전체 양상을 밝히기는 어렵다.

이러한 자료 조건으로 인해, 개설적 차원에서 고구려와 당 전쟁의 전개 과정이 서술되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민족사 관점에서 안시성 전투 등 승리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 7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뒤바꾸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단지 침략과 방어, 승리라는 한정된 이미지에 그치게 된 점도 사실은 전쟁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임기환, 2014). 향후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645년 전쟁의 전투 상황 등에 대한 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의 전개 과정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 1. 당의 고구려 원정 선포와 원정군의 규모

### 1) 전쟁 준비와 원정 선포

당은 640년 5월에 서역의 고창(高昌)국을 정복하고, 641년에는 새 강자로 흥기하던 설연타(薛延陀)마저 대파하여 서역 일대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서방에서 후환을 없앤 이후에 당은 동방의 고구려로 눈길을 돌렸다. 640년 2월에 고구려 태자 환권(桓權)이 외교사절로 온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641년 7월에 병부 소속인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을 고구려에 사절로 보냈다. 직방낭중의 직무는 국내외의 군사 등 정보를 얻어 지도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이런 직무를 갖는 인물을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것은 향후 고구려를 원정할 때 필요한 여러 지리정보 등을 얻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그 후에도 전쟁 직전인 644년까지 4년 동안 당은 네 차례 더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 당 초기인 622~640년까지 18년 동안 사신 파견이

네 차례에 불과하였음과 비교하면 빈도가 매우 높다. 더욱이 양국 사이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의 사신 파견이 양국의 교섭보다는 고구려 내부 정세를 파악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 태종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고구려를 원정할 의지를 굳히고 있었지만, 이런 태종의 뜻이 당시 당의 조정 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구려 원정 자체를 반대하는 중신들이 적지 않았으며, 원정에 찬성하더라도 태종의 친정(親征)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자치통감』 권197 태종 정관(貞觀) 18년 2월 을사(乙巳)조에 의하면, 고구려 원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644년 2월에 사신 상리현장(相里玄獎)이 고구려를 다녀와서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당의 요구를 연개소문이 거절하였다고 보고한 뒤부터였다. 상리현장의 보고 직후 어전회의에서 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는 데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이에 간의대부 저수량(褚遂良)은 신중론을 폈고, 병부상서 이적(李勣)은 태종의 전쟁 의지를 적극 지지했다.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으로 마음을 굳히자, 이를 바꾸기 힘들다고 판단한 신하들은 친정만큼은 만류했지만, 태종은 듣지 않았다. 심지어 태종은 조정의 결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 위해 대신들의 구성을 바꾸기도 했다. 즉 태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모색하였던 정관 17년 이후 재상과 같은 자격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료를 확대하여 자신의 심복들을 참여시키고 장하어전회의(杖下御前會議)에서 고구려 원정을 결정했다고 추정된다(방향숙, 2008).

원정 반대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당 태종은 전쟁 준비에 주력했다. 먼저 전쟁 실행을 위한 정보 수집에 관심을 기울였다. 644년 7월

에 영주도독 장검(張儉)으로 하여금 번병들을 이끌고 요동으로 먼저 진격하여 교통로 등 여러 형세를 정탐하도록 했다. 영주도독부는 고구려와 접경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서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입수한 곳도 영주도독부였다(방향숙, 2008). 645년 전쟁 개시 전에는 연개소문이 요동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장검이 연개소문과 맞서기 위해 신성(新城)으로 출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연개소문이 나타나지 않자 목표를 건안성(建安城)으로 바꾸기도 했다.

한편, 당 태종은 수의 고구려 원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관료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645년 원정에서 당군의 군량 수송 책임을 맡은 위정(韋挺)은 수 왕조 때에 영주총관을 지낸 위충(韋沖)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고구려 원정의 경험을 기록한 글을 보고하여 태종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또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에 참여했던 정천숙(鄭天壽, 鄭元壽)은 644년 11월에 당 태종에게 고구려 정벌이 어려운 이유로 거리가 멀어서 군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구려가 성곽을 잘 지켜 공격하기 어려움을 직언하기도 했다.

644년 7월에는 홍주(洪州)·요주(饒州)·강주(江州) 세 주에 명령을 내려 배 400척을 만들어 군량을 싣게 하고, 대리경(大理卿) 위정을 궤수사(饋輸使)로 삼아 하북의 여러 주에게 모두 위정의 명령을 받게 하고, 또 소경(少卿) 소예(蕭銳)에게 하남 여러 주의 식량을 싣고 바다로 가게 하였다. 그런데 8월 8일에 소예가 상주하기를 “바다 가운데에 옛 대인성(大人城)이 있는데, 서쪽으로 황현(黃縣)과 22리, 북으로 고구려와 470리에 다다르니, 이곳에 군량을 쌓아두면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제안하여, 하남도에서 군량을 옮겨 이곳에 모두 쌓아두게 하였다.

664년 10월, 마침내 당 태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미 7월에 홍주·요주·강주 세 주에 배 400척을 만들어 군량을 싣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영주도독 장검에게 요동을 공략하여 형세를 살펴보게 명령하였으니, 사실상 전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그러면 『자치통감』, 『책부원구』에 의거하여 당 태종이 고구려로 출정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자.

태종은 국정을 태자에게 맡기고 낙양(洛陽)으로 옮겨 전쟁 준비를 독려하고자 했다. 태종은 장안(長安)에서 낙양으로 떠나기 전 10월 계묘일(3일)에 장안의 노인들을 불러 “요동은 예전에 중국 땅이었고 막리지 가 그 임금을 죽였으므로, 짐이 몸소 가서 다스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과 약속하니 아들이나 손자로서 나를 따라가는 자는 내가 잘 위무할 테니 근심할 것 없다”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수 양제가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하여 결국 왕조마저 무너져 버린 것을 지켜본 어두운 기억은 당의 조정 신료와 일반 백성을 두렵게 했다. 태종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했다. 그리고 방현령(房玄齡)에게 수도 장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10월 갑인일(14일)에 낙양을 향해 출발하여, 11월 임신일(2일)에 낙양에 도착하였다. 그 달 갑오일(24일)에 군대 편제 등을 담은 출정 조서를 내렸다.

645년 정월에는 백제와 신라의 사신을 통해 각각 고구려 원정에 대해 지원군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냈다. 이미 당 태종은 644년에 귀국하는 신라 사신 김다수(金多遂) 편으로 선덕여왕에게 국서를 보내어 신라군이 고구려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의 요청에 대해 신라 조정에서 논란이 계속되었는지 별다른 소식이 없자, 태종은 645년 2월에 다시 신라에 국서를 보내어 당군이 4월 상순에 고구려

경내에 진공할 것인데, 신라군도 당의 수군대총관 장량(張亮)의 지휘를 받을 것이며, 장량의 주둔처에 신라의 군관을 파견하여 군사 기일을 합의하라고 요구하였다(노태돈, 2008). 당시 신라는 642년 김춘추의 평양 방문에서 고구려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백제가 신라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과의 동맹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 참전하기 위해서는 백제의 공격에 대한 군사적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선불리 참전을 결정하기 어려웠다(최희준, 2022). 결국 신라는 참전을 결정하고 고구려 남쪽 국경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태종은 고구려 남쪽에서 신라군을 동원함으로써 고구려 군사력의 분산을 꾀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 태종이 백제왕에게 보내는 국서에는 신라에 보내는 국서와 달리 파병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을 보면, 당시 당이 백제의 입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신라군을 포함하여 거란(契丹), 해(奚)와 같은 주변 유목민족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동원전략도 수 양제 때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점이다.

2월 경술일(12일)에 당 태종은 낙양을 떠나서 3월 9일 정주(定州)에 이르렀고, 황태자로 하여금 정주에서 국사를 통괄하게 하고, 자신은 그달 24일에 정주를 출발하여 요동으로 향했다.

## 2) 당 원정군의 규모

64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하기 위한 군대의 편성이나 군사력의 규모에 대한 중국 역사서의 기록은 불분명하고,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당 원정군의 규모를 추정하는 견해도 다양하다. 따라서 645년 당군의 규모와 관련된 중국 측 역사기록은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단 역사서에 나와 있는 몇몇 기록을 종합하여 추정해보자. 『신당서』, 『자치통감』 등에 의하면 645년 1월, 당 태종은 육군 총사령관 이적으로 하여금 보·기병 6만 및 난주(蘭州)와 하주(河州)의 항복한 호족(胡族) 군사들을 거느리고 유주(幽州)에서 요동으로 진격하도록 하고, 수군 총사령관 장량으로 하여금 500여 척의 전함과 4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둥반도 동래(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을 향하게 명령하였고, 3월에는 태종 자신도 정주를 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 태종이 직접 거느린 본대의 병력 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 한 가지 유추가 가능한 단서는 태종의 본대에서 장손무기가 26명의 총관을 통령하였다는 기록이다. 『신당서』 태종본기에 의하면 이적 휘하에 행군총관(行軍總管)이 16명(혹은 14명)에 군사가 6만 명이었다고 하였다. 행군총관은 일종의 단위부대 지휘관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총관 1명이 4,000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렸다고 볼 수 있다. 또 4만여 명 군사를 거느린 수군 사령관 장량의 휘하에는 10명의 총관이 있었는데, 이 역시 총관 1명당 4,000명의 병력 규모가 된다. 따라서 이들 사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당 태종의 본대는 26명의 총관이니 대략 10만 명이 넘는 병력 수가 된다(노태돈, 2008). 여기에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태종의 친위군을 따로 상정하면 10만이 넘는 규모의 군사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당서』 고려전에 장손무기가 태종의 시종이 10명에 불과한 점에 대해 천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간언하자, 태종이 “군사들이 10만 명이나 집을 떠나 요하를 건너왔는데” 운운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10만 병력이 곧 태종이 거느린 본대를 가리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량이 거느린 수군의 경우 병력 수가 4만 명이라는 기록이 다수이고 신빙성이 높지만, 『당회요(唐會要)』 정관 19년 12월조, 『책부원구』 제왕부 친정조, 『신당서』 고려전 등에서는 7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644년 편성에서는 4만 명이었다가 645년 편성에서 7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이민수, 2018). 애초에 수군에게 부과된 임무는 육군이 요동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평양으로 직공하는 전략이었고, 처음에는 이도종(李道宗)을 수군 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런데 막상 당 태종이 원정길에 나서면서 부대를 개편하여 이도종을 부대총관으로 삼아 행군대총관인 이적과 더불어 육군을 통솔케 하고, 수군의 행군대총관으로 장량을 임명한 것이다. 이러한 지휘관의 교체는 수군의 공격 목표를 달리하는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4만 혹은 7만이라는 수군 병력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은 이와 같은 수군의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4만 명이든 7만 명이든 이 정도의 병력으로 평양 공격이 가능하다고 태종이나 당군의 수뇌부가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평양을 직공하는 수군의 목적은 고구려 중앙군 병력이 요동 지역으로 지원을 나올 수 없게끔 압록강 이남이나 평양 일대에 묶어두려는 전략이었

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수군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정에서는 육군과 같은 전선에서 수군을 운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 결과 장량의 수군은 고구려 비사성(卑沙城) 공격을 1차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적의 육군 선발대가 6만 명, 장량의 수군이 4만 명, 당 태종이 거느린 본대가 10여만 명 등 도합 20여만 명의 병력이 된다. 그리고 영주도독 장검이 영주도독부 소속의 군사와 거란, 해 등 유목민의 군대를 별도로 거느렸다. 이 장검의 군대를 이적의 선발대 6만 병력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645년 전쟁 이전부터 장검의 동태를 보면, 상당수의 병력을 따로 거느린 양상을 볼 수 있다.

장검은 644년에 영주(營州: 조양 일대)와 유주의 군사와 거란, 해, 말갈 군사를 이끌고 먼저 요하 방면으로 진군하였다가 요하가 범람하면서 멈춘 적이 있다. 또 645년 전쟁 직전에도 연개소문이 요동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연개소문과 겨루기 위해 신성 쪽으로 진군하려다가, 연개소문이 나타나지 않자 경로를 바꾸어 건안성으로 공격로를 바꾸었던 것이다. 이처럼 장검이 거란이나 해의 군사를 포함한 독자적인 군대를 통솔하여 이적의 군대와는 별도의 진공작전을 수행하고 있음이 유의된다. 다만 장검이 대총관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이적의 군대 6만 명, 장량의 군대 4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독자적으로 고구려 건안성 공격이 가능한 병력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뒤 안시성전투를 벌이기 전에 당군의 수뇌부가 작전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성과 건안성의 군사가 10만 명”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안성의 군사 규모 역시 그리 적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요동성의 군사가 2만 명 이상이었음을 고

려하면 건안성 역시 최소한 2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렇다면 2만 명이 지키는 건안성을 공격하려는 장검의 군대 역시 그 이상을 훨씬 넘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임기환, 2022).

이렇게 보면 645년 전쟁에서 당 태종이 동원한 병력은 대략 25만 명 전후의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수 양제가 2차 원정에서 요동성을 공격할 때 동원한 병력이 30만 명 정도라는 점과 비교하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수 양제의 2차 원정 때에는 평양 공격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고 요동성 공격 자체가 목표였던 듯하다. 그런데 645년에 당 태종은 최종적으로는 평양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동원된 당군의 25만 명 내외의 군사는 양제가 동원한 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종을 비롯한 당군의 지휘부는 수 왕조 멸망 이후 할거하던 중국 대륙의 군웅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주역들이며, 중국 통일 이후에는 주변의 돌궐이나 설연타, 고창 등을 모두 굴복시키며 승승장구한 지휘관들이다. 이들의 전투 경험이나 능력은 수 양제의 군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물론 앞서의 추정과 다른 연구도 있다. 우선 앞서 총관의 수에 따른 병력 수 추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645년 고구려 원정군의 행군총관 구성은 종1품부터 정4품하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관품의 차이에 따라 행군총관 1명당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병력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644년 원정군 편성 때보다 실제 645년 출정 시에 병력 규모가 증가하여 이적이 거느린 군사가 10만 명, 장량의 수군이 7만 명, 태종의 본대가 40만 명, 도합 57만 명의 병력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이민수, 2018). 이러한 주장은 당 원정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사서마다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 비판의 방식이 달라지면

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중국 사서에 보이는 당군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 사서마다 다르고 불완전한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전쟁 기간 동안 당군의 군량 소비량으로 군사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당군이 개모성과 요동성 등으로부터 획득한 군량의 수를 통해 대략 개모성 함락 때부터 요동성에서 퇴각할 때까지 141일 동안 당의 군사들이 소비한 군량의 양을 가정하여 전체 군사의 규모를 추산하였다. 물론 당군이 고구려로부터 얻은 군량의 양은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안시성 일대의 당군이 33만 3,334명(『신당서』 기록에 의거) 혹은 35만 2,000명(『책부원구』 기록에 의거)이고, 여기에 장량이 지휘한 수군 7만 명을 포함하여 40만 3,000명 혹은 42만 2,000명으로 추정하였다(최진열, 2022). 이러한 연구는 방법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군이 후퇴할 때에 요주, 개주, 압주 세 주에서 이주시킨 호구가 7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식량 소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의문이 남는다.

## 2. 고구려-당 전쟁의 개시와 전개

### 1) 당군의 첫 공격

당 태종은 645년 1월, 육군 총사령관 이적과 수군 총사령관 장량에게 출정을 명하고, 3월에는 자신도 정주를 출발하였다. 2월에 유주에서 결집하여 요동으로 향한 당군은 요하선에 배치된 고구려의 방어망

을 뚫기 위해 공격선을 여러 갈래로 나누었다.

당시 요서에서 요하를 건너 요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체로 세 길이 있었는데, 그중 요서 회원진(懷遠鎭)에서 요하를 건너 고구려 요동성으로 이어지는 길이 주된 교통로였다. 이 길은 수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이용한 교통로로서 요하 중로(中路)이다. 이보다 북쪽으로는 통정진(通定鎭)에서 요하를 건너 고구려 신성(新城)으로 향하는 요하 북로(北路)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요하 하구를 건너 고구려 건안성으로 향하는 요하 남로(南路)가 있다. 당시 당군은 이 세 교통로를 모두 이용하였다. 당군의 진격 및 고구려군과의 전투 양상에 대해서는 주로『자치통감』 및『책부원구』의 관련 기사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당 육군의 선발대를 지휘하는 대총관 이적과 부총관 이도종은 고구려의 요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하여 일부 군대를 통상 사용하는 교통로인 회원진에서 요하를 건너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주력 군대를 북으로 돌려 통정진에서 요하를 건넜다. 이때가 4월 1일이었다. 그리고 신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현도성(玄菟城)을 공격하였다.

한편, 영주도독 장검은 남로를 이용하여 요하를 건너 건안성을 공격하였다. 이적군의 이동로와 달리 장검군의 이동로는 다소 불분명한데, 요택(遼澤)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하하여 현재 반금시(盤錦市) 서우고성촌(西牛古城村)에서 요하를 건너고 다시 남하하여 대석교시(大石橋市) 기구진(旗口鎭), 고감진(高坎鎭)을 거쳐 어니하(淤泥河)를 건너 남진하여 건안성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崔豔茹, 2012).

그리고 장량이 거느린 수군도 평양을 직공하지 않고, 요동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비사성을 공격하였다. 정작 주 교통로인 요하 중로는 비워놓았는데, 나중에 당 태종이 본군을 이끌고 이 길을 이용하여 요동성의

로 진군하였다.

이렇게 당군은 공격로부터 수 양제의 침공 때와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였다. 사실 양제는 오직 요동성을 직공하는 길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요하를 건너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고 병력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주력을 요동성 공략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신성 등 다른 요충성들이 외곽에서 요동성을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요동성 공격에 실패하였던 것이다.<sup>1</sup>

이에 당군은 수 양제와는 달리 요하 중로는 비워 놓고 북로를 이용하여 신성을 제압하고 남로를 이용하여 건안성을 제압함으로써 일단 주변 성들이 지원할 수 있는 후환을 없앤 후에 요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수 양제 때 정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도면밀하게 짚는 것이다. 사실 이런 당의 전략에 의해 첫 전투에서 신성과 건안성이 제압된다면 고구려의 방어망이 매우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군의 공세 과정에서 고구려가 당군의 침공 가능성을 의식하고 631년부터 16년에 걸쳐 주요한 방어시설로 축조한 천리장성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천리장성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세 견해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서부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던 산성들을 연결하는 방어벽을 세웠다는 ‘산성연결방어선

---

1 645년 전쟁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주요 성 위치는, 신성은 요령성(遼寧省) 무순(撫順)시 고이산성(高爾山城), 현도성은 요령성 무순시 노동공원산성(勞動公園山城), 건안성은 요령성 개주(蓋州)시 고려성산산성(高麗城山山城), 요동성은 요령성 요양(遼陽)시, 비사성은 요령성 금현(金縣)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 개모성은 요령성 심양(瀋陽)시 탑산산성(塔山山城), 백암성은 요령성 등탑(燈塔)현 연주성(燕州城), 안시성은 요령성 해성(海城)시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 오골성은 요령성 봉성(鳳城)시 봉황산산성(鳳凰山山城)으로 비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설’, 국경지대 산성들의 전면에 위치한 요하 동안의 평원지대에 장벽을 세웠다는 ‘평원토벽설’, 장벽을 별도로 쌓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성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마치 선상의 방어선과 같은 방어체제를 구축했다는 ‘산성방어강화설’ 등이다(이성제, 202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장 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그중 이적군이 요하를 건너 현도성을 공격한 기사에 주목하여 산성방어강화설을 주장한 견해를 살펴보자. 이 주장은 『책부원구』 권117 제왕부(帝王部) 친정(親征) 2 정관 19년 4월 무술삭(戊戌朔)조에 “이적이 군대를 이끌고 통정진으로부터 요하를 건너 현도성에 이르는 경로상의 봉수(烽燧)와 성보(城堡)를 모두 함락시켰다”라는 기사에 주목하고 있다. 즉 천리장성의 축조는 기존의 산성방어체제를 강화하면서 봉수나 성보 등의 축조 등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이성제, 2023). 어쨌든 이적군이 요하를 도하하고 고구려 방어망의 최전선 중 하나인 현도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천리장성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4월 1일 요하를 건넌 이적과 이도종의 군대는 현도성을 공략한 뒤, 4월 5일에 먼저 부총관인 이도종이 병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신성에 이르렀는데, 신성의 고구려군은 나가 싸우지 않고 굳건하게 성을 지키기만 하였다. 신성은 고구려 서북의 요충지로서, 고구려 방어망에 있어서 그 위상이 요동성에 못지않았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서 현도성, 신성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적이 본군을 모두 거느리고 신성을 공격하는 흔적은 사료상 보이지 않는다.

4월 15일에 이적과 이도종은 군대를 남으로 돌려 고구려 개모성(蓋牟城)을 공격하였다. 개모성은 신성에서 요동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중간에 있는 중형급 성곽이었다. 당군은 개모성 공략에 총력을 기울

였다. 당군은 원정하기 전부터 이미 갖가지 공성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포차(砲車)를 쏘아 돌이 비처럼 성안으로 떨어지고, 운제(雲梯), 충차(衝車)가 번갈아 공격에 나섰다. 결국 10여 일 만인 26일에 개모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당군은 2만여 명의 군사와 주민을 포로로 삼고 군량 10여만 석을 얻었다. 그런데 개모성에서 주민을 포함하여 포로가 2만 명이라고 하였으니 그중 군사의 수는 수천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6만 명에 가까운 당군이 개모성 공략에 10여 일이 걸린 셈이다. 게다가 당군도 행군총관 강행본(姜行本, 姜確)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sup>2</sup> 당군이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개모성 공방전부터 고구려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당군의 행보가 그리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당시 당군은 앞서 신성을 쉽게 공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적 군대의 행로를 보면, 애초에 신성 공략 자체를 목표로 삼았던 것 같지는 않다. 4월 1일에 요하를 건너 현도성을 공략한 뒤 신성 공격에 나섰고, 15일에 개모성을 공격하였으니, 신성을 공격하였다고 해도 그 기간은 10여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적이 거느린 당군 선발대의 목표는 신성이 아니라 요동성이었다. 5월 초에는 당 태종이 본군을 거느리고 요동성에 도착할 예정이

2 『구당서』 강행본전(姜行本傳)에 의하면, 정관 17년(643년)에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자 강행본은 아직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강행본은 개모성에 이르러 화살을 맞아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향숙(2008)과 정원주(2020)는 이 기사의 개모성 공격을 643년의 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자치통감』 권197, 당기(唐紀)13 태종(太宗) 정관 18년 11월 경자(庚子) 일(30일) 기사에 행군총관 강행본이 등장하고 있으며, 『책부원구』 권425 장수부(將帥部)86 사사(死事) 강확(姜確), 『구당서』 권59 열전9 강행본전에 의하면 645년 개모성 전투에서 강확, 즉 강행본이 전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동성을 고립시키고 태종의 본군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변을 확보하고, 요동성 못지않은 중진인 신성으로부터 구원군을 차단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신성에서 요동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개모성 공략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적은 개모성을 함락시킨 후 위정에게 지키게 하여 신성의 고구려군이 배후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방어케 하였다. 역사서에 이후 전황이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해 위정이 매우 두려워하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한 기록을 보면 신성에서 출진한 고구려군이 공세가 강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월 5일 이도종이 신성을 공격할 무렵, 영주도독 장검은 또 다른 군사를 거느리고 남로를 통해 요하를 건너 고구려 건안성을 공격하였다. 첫 전투에서 장검군에게 고구려 수천 군사가 죽는 패배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군은 건안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사실 장검의 군대 역시 건안성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지는 못한 듯하다. 장검 군대의 목적도 건안성의 고구려군이 요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고 추정한다.

한편, 장량이 이끄는 수군은 동래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반도 끝단의 비사성을 공격하였다. 비사성은 사면이 절벽이어서 오직 서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은 현재 비사성으로 비정되는 대련 대흑산산성의 형세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행군총관 정명진(程名振)이 밤에 병사를 이끌고 절벽을 기어올라 기습하였다. 방심하고 있던 고구려군은 패배하고 비사성은 함락되었으며, 남녀 8,0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5월 2일이었다.

이렇게 당군의 기습적인 공격과 첫 전투에서 개모성, 비사성은 함락

되었지만, 고구려는 중진인 신성, 건안성을 지켜냈다. 따라서 신성과 건안성의 고구려군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이후 당군의 요동 작전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 2) 요동성전투, 백암성전투

4월 6일 당 태종은 유주성 남쪽에 장막을 쳤으며 6군 군사들을 크게 대접하고 조서를 내렸다. 4월 10일 유주를 출발한 당 태종의 본군이 5월 3일에 요하 일대의 저습지대인 요택(遼澤)에 도착하였다. 뽕밭이 200여 리에 펼쳐져 있어 사람과 말이 통과하기 쉽지 않은 지형이었다. 하지만 이미 당군은 요택 통과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장검이 이미 지형을 상세하게 살펴서 보고한 바 있으며, 일종의 공병부대를 이끌던 장작대장(將作大匠) 염입덕(閻立德)이 흙을 펼치고 다리를 놓아 길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이틀 만인 5일에 요택을 지났다. 요하를 건너면 바로 요동성이었다.

5월 2일, 개모성을 함락시킨 이적, 이도종의 군대가 요동성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태종의 본군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그런데 5월 8일, 신성과 국내성에서 동원된 고구려 군사 4만 명이 이적과 이도종의 당군을 배후에서 압박하였다. 앞서 당군이 개모성을 함락하여 신성으로부터 요동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제압하였는데, 요동성에 나타난 고구려군은 이와는 다른 경로로 요동성을 구원하기 위해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군의 선발대를 이끄는 이적과 이도종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이들 선발 군대의 주된 임무는 당 태종이 요동성에 도착하기 이전에 당 태종의 요하 도하 및 이동로를 안전하

게 확보하고, 동시에 주변 고구려 성으로부터 구원군을 차단하여 요동성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적과 이도종은 당 태종의 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고구려 구원군을 제압해야만 했다. 물론 고구려군의 수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도량을 파고 성채를 갖추어 태종의 본군을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도종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나라 측 기록에는 이도종이 기병 4,000기를 거느리고 선봉에서서 고구려군과 맞섰으며, 이적의 군대가 뒤를 받쳐 공격하여, 고구려군 1,000여 명을 전사시키면서 구원군을 격퇴했다고 한다. 태종이 요동성에 도착한 직후에 고구려 구원군 격퇴에 공을 세운 이도종과 마문거(馬文舉)를 포상하고, 군사를 후퇴시킨 행군총관 장군예(張君乂)를 사형에 처한 것을 보면 당시 치른 전투가 결코 간단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5월 10일, 요하를 건넌 당 태종의 본군이 요동성에 이르러 마수산(馬首山)에 본영을 설치하였다. 요동성 일대에 도착하자마자 태종은 기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요동성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 나섰다. 그때 요동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를 메우기 위해 흙더미를 지고 나르는 병사들을 보고, 태종 자신이 직접 말에다 흙더미를 지어 나뉘으로써 군사들을 격려하였다고 한다. 태종이 고구려군의 원거리무기 사정거리 밖에서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 해자는 성벽 아래에 가까이 위치한 해자가 아니라, 당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양수(梁水) 즉 태자하의 물길을 끌어들이어 요동성 외곽까지 넓게 확장한 해자로 추정할 수 있다(서영교, 2013).

당 태종이 이끄는 본군의 도착으로 전력이 몇 배나 강화된 당군은 요

동성에 대한 본격적인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이하 요동성전투의 전황은 『자치통감』, 『책부원구』의 기록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당시 당군은 출정 이전부터 최신 공성무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장작 대장 염입덕은 각종 공성기구의 제작 등도 책임을 맡았다. 고대 전투는 어떤 공성도구 등을 동원하는가 하는 점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수 양제의 2차 고구려 원정 및 645년 당 태종의 원정에서는 공성무기에 의한 성 공격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다만 그동안 사서에 보이는 공성구 및 공성전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하도록 한다(송영대, 2022).

앞서 개모성 공격 때에도 포차, 운제, 충차 등의 공성도구들이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 그런데 요동성 공격에는 또 다른 신무기가 등장했다. 1리 밖에서 300근의 돌을 날리는 최신형 포차가 대표적이다. 이 적이 포차를 나란히 세우고 일제히 큰 돌을 날려 요동성 성벽을 무너뜨렸다. 고구려군은 무너진 성벽 위에 나무를 쌓고 끈으로 그물을 엮어 묶어서 마치 누각처럼 만들어 날아오는 포차 돌에 맞섰다. 그러자 당군이 당차(撞車)를 동원하여 성벽 위의 나무 성벽을 부수면서 공격하였다. 이러한 공방전이 밤낮없이 7일여 동안 계속되었다. 요동성은 평지성이라서 이러한 공성무기의 공격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요동성민들은 시조 주몽(朱蒙)을 모신 사당에서 미녀를 치장하여 여신으로 만들어 놓고 기원하였는데, 이에 무당이 “주몽이 기뻐하여 성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 요동성 주몽사당에는 철제 갑옷과 창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전연(前

燕)시대부터 전해오는 하늘이 내려준 신물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신물은 주몽과 관련 없는 것으로 고구려가 요동성을 차지하기 이전부터 요동성 주민들이 모시고 있던 신물인데, 그 뒤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주민이 이주하면서 주몽신앙이 퍼지면서 그 이전 이 지역 주민들이 모시던 신물과 주몽신앙이 결합하여 주몽사당에 함께 모시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동성이 한(漢)대 양평성 이래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 여러 계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을 고구려인으로 융합하는 데 주몽신앙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노태돈, 2009).

5월 17일, 요동성의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판단한 당 태종은 직접 철갑기병 1만여 명을 이끌고 이적과 요동성 아래에서 만나 총공격을 명령하였다. 마침 거센 남풍이 불어오자 당군은 화공을 시작하여 요동성 위에 나무로 구축한 방어시설을 불태우고 포차로 돌을 날려 성벽을 파괴하였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요동성도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다. 당군 측 기록에서는 고구려군 전사자 1만여 명, 포로가 된 고구려 군사 1만여 명, 주민 4만 명, 곡식 50만 석, 이외 다량의 가축을 전과로 기록하고 있다.

당 태종은 정주를 출발하면서 요동성에서 승리하면 정주까지 봉화를 올리겠다고 태자에게 약속하였다. 그래서 정주로부터 동쪽으로 수십 리마다 봉화대를 세워 요동성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5월 17일 태종은 요동성 함락이 눈앞에 오자, 승전 소식을 태자에게 전하기 위해 봉화를 올리게 하였다.

요동성은 고구려 요하선 방어체계에서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성이었다. 북으로 개모성에서 신성으로 연결되고, 남으로 안시

성, 건안성으로 연결되는 최전선의 중심고리이며, 교통로상으로는 태자하를 따라 동쪽의 백암성을 거쳐 오골성(烏骨城)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입구를 막는 요충성이었다(여호규, 1999). 따라서 요동성의 함락은 고구려 최전선 방어체계의 일부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5월 28일, 요동성 함락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당군은 요동성 동쪽의 백암성(白巖城)으로 진군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오골성에서 1만명 군사 백암성을 구원하러 도착했지만, 당의 장수 글필하력(契苾何力)에게 격퇴당했다. 6월 1일, 백암성을 포위한 당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성주 손대음(孫代音, 孫伐音)이 사람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하였고, 당군 깃발을 성안에 세우니 이미 당군이 성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해서 모두 성주를 따라 항복하였다. 이렇게 해서 백암성은 당 태종의 침공 시에 스스로 항복한 유일한 성이 되었다.

백암성 항복 후에 당 태종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성안의 남녀만여 명을 붙잡아 물가에 장막을 치고 항복을 받고 음식을 내렸으며, 80세 이상 된 자에게는 비단을 차등 있게 내렸다. 그리고 백암성에 있던 다른 성의 군사들을 위로하여 타이르고 양식과 병장기를 주어 그들이 가는 대로 보내주었다. 이는 황제의 은덕과 아량을 베풀으로써 다른 고구려 성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항복을 받으려는 일종의 심리전술이라고 짐작된다(임기환, 2022).

이제 당군은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장악하여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 되었다(노태돈, 2009). 이제부터 당군의 행보는 이 전쟁의 판세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결정짓게 되었다. 『자치통감』 등 여러 중국 측 기록을 보면 백암성을 차지한 직후 당 태종과 이적은 다음 공격대상을 놓고 의논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다.

태종은 안시성이 험준하고 성주가 유능한 반면 건안성은 군사가 약하고 식량도 적으므로 건안성을 먼저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적은 안시성이 북쪽에 있고 건안성이 남쪽에 있는데, 안시성을 지나 건안성을 공격하다가 요동성에서 이어지는 군량 보급로가 끊기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시성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당 태종도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 3) 주필산전투, 안시성전투

당군은 6월 11일에 요동성을 출발하여 20일에 안시성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21일에 고구려 구원군이 안시성 외곽에 나타났다. 당시 고구려군을 지휘한 인물은 북부육살 위두대형 고연수(高延壽)와 남부육살 대형 고혜진(高惠眞)이었다. 북부육살과 남부육살은 수도의 구획인 5부의 부장이었다. 아마도 이 두 지휘관은 연개소문 정파에 속한 인물일 것이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기록상 고구려 구원군의 규모는 15만 명이라고 하였다. 두 지휘관의 관등은 위두대형과 대형으로 15만 대군을 지휘할 관등으로는 부족해 보이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장수들로 짐작된다(노태돈, 2009). 물론 젊은 지휘관을 보완하기 위해 고구려군 내부에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대로(對盧) 고정의(高正義)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실제 지휘권은 고연수가 갖고 있었다.

이제 안시성 방어를 놓고 성 밖에서 당의 대군과 고구려군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 중국 측 기록에서는 이 전투를 주필산전투라고 부르며, 전투를 지휘한 인물로 당 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태종이 장손무기나 이적 등 술한 군신들을 앞에 놓고 자신이 지휘하는 이 전투

의 승리를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군이 취할 수 있는 세 방식, 즉 상책·중책·하책을 모두 제시한 뒤 고구려군 지휘관 고연수는 태종과 대결하는 제일 하책을 선택하여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군 내에서 고정이가 당 태종이 말한 상책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고구려군의 전통적인 방어전술로서, 정면에서 당군과 회전을 벌이는 것을 피하고 방어에 주력하면서 별동대를 동원해 당군의 보급로를 끊으면서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짧은 패기의 고연수는 이를 무시하고 당군과 직접 대결하기 위하여 안시성의 4리 가까이까지 진군하였다.

게다가 당 태종은 혹 고구려군이 정면대결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유인작전을 꾀하였다. 태종은 돌궐군 1,000명을 보내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당군이 싸우기 유리한 곳으로 고구려군을 유인하도록 하였는데, 고연수는 여기에 걸려들어 안시성 동남쪽 8리 가까이 진군하여 산 아래 진을 쳤다. 게다가 태종은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회유하여 고연수가 방심하도록 하고, 야간에 몰래 군대를 이동시켜 고구려군의 배후에서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고연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이 전통적인 방어전술과 달리 평원에서 정면대결로 한 데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다. 고연수·고혜진의 대평원전술이 독자적인 전황 판단을 근거로 수립된 전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연개소문 등 고구려 지휘부가 당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청야수성전술 외에 새로 개발한 다양한 군사전술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는 당군과의 대결에서 본래 연개소문이 전개하려던 전술로서 고연수 등이 구원군으로 출정할 때 이미 수립된 전술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동

시에 천리장성의 축조 역시 이러한 대평원전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여호규, 2000). 그리고 고연수 등 젊은 지휘부가 자신감과 패기를 갖고 당군과 일대 회전을 통해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화끈한 대승이 새로운 집권세력인 연개소문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에 정치적 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노태돈, 2009). 또한 장기전을 취하려면 안시성의 군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당시 안시성주가 반연개소문파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안시성의 군대와 고연수가 거느린 고구려군 사이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노태돈, 2009).

이튿날인 22일에 고구려군은 서쪽 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적의 당군만 보고 진격하였다. 이때 배후에 숨어있던 당군이 뒤를 쳤으며, 양쪽으로 적을 맞게 된 고구려군은 2만 명(혹은 3만 명)<sup>3</sup>이 목숨을 잃는 참패를 하였다. 계속해서 당군이 고구려군의 퇴로를 끊고 압박하자, 결국 고연수, 고혜진 등이 나머지 병사 3만 6,800명을 이끌고 당 태종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주필산전투는 태종의 호언대로 하루 만에 당군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당군의 승리에는 태종의 매복과 기습 전술이 유효한 면이 있으며, 동시에 당시 당군과 고구려군의 부대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고구려

---

3 주필산전투에서의 고구려군 전사자 수에 대해 『책부원구』 권126 제왕부(帝王部)126 남향(納降)조, 『책부원구』 권117 제왕부117 친정(親征)2, 『자치통감』 권197 당기(唐紀)13 태종(太宗) 정관(貞觀) 19년 6월조, 『신당서』 권220 고려전에는 2만여 명, 『책부원구』 권125 제왕부125 요적(料敵)조에는 3만여 명, 『구당서』 권199상 고려전에는 1만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은 중장기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고구려군을 정면으로 상대한 이적의 군대는 보병 장창대였다. 이들 보병 장창대가 돌격하는 중장기병 중심의 고구려군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데다, 고구려군의 배후에서 당군이 포위 공격하면서 고구려군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 기병의 주력은 경장기병으로 기습 등에 효율적이었다(노태돈, 2008).

다음 주필산전투에 투입된 당군과 고구려군의 병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당군의 병력 수에 대해서는 자료상 논란이 적지 않은데, 이는 안시성 공격에 투입된 전체 병력 수와 관련된다. 당시 당 육군의 총 병력은 이적의 군대 6만 명과 당 태종의 본군 10만 명 등 16만 명에 이르는데, 이적군은 신성, 현도성, 개모성 전투를 치루면서 병력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개모성 등을 수비하기 위한 병력이 따로 차출되었을 것이다. 당 태종의 본군 중에서도 요동성 공격에 따른 병력 손실 및 요동성 수비군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10만 명 이상의 군사력이 안시성 일대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건안성을 공격하던 장검의 군대 또한 안시성 일대에 투입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주필산전투에서는 안시성을 포위하는 군대를 제외한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당문(全唐文)』 권7 태종황제과고려사포조(太宗皇帝破高麗賜醮詔)는 주필산전투 시에 이적이 마보군(馬步軍) 14명의 총관을, 장손무기가 마보군 26군 총관을 지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총관 1명당 4,000명 정도를 지휘하였다고 보면 대략 16만 명 전후의 당군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노태돈, 2009). 이와 달리 구체적으로 당시 주필산전투에 투입된 병력의 일부를 기록한 중국 측 사서도 있다. 고구려

군에 정면으로 맞선 이적 부대는 1만 5,000명, 후방을 급습하는 병력인 장손무기 부대는 1만 1,000명, 당 태종이 직접 이끌었던 친위부대는 4,000명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 이 병력을 합하면 3만여 명 정도가 된다. 이런 기록에 의문을 갖고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시 당군이 매복과 기습이란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기록대로 3만여 병력을 실제 투입 병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영철, 2021).

그런데 당군의 병력 수는 전투 상대인 고구려군의 병력과 대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수의 중국 측 기록에는 고구려 구원군의 수가 15만 명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우선 15만 명이라는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10여 만, 20만, 25만이라는 기록도 있어 기록상으로도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sup>4</sup> 무엇보다 당시 고구려군의 총군사력을 고려하거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15만 명이라는 대군이 안시성 구원전에 투입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당시 고구려의 인구나 군사력을 고려하면 이렇게 많은 군사가 안시성 구원전에 투입될 여력은 없다고 보인다. 아마도 고연수 등이 이끄는 병력은 본래 압록강 전선을 지키던 군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성이 함락되고 백암성이 당군의 손에 들어간 뒤에도 당군이 오골성과 압록강 방면으로 진군하지 않자, 압록강 수비군의 일부를 안시성 구원전에 투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때 투입된 고구려 구원군 병력은 전사

---

4 『구당서』 권83 열전33 설인귀(薛仁貴)전에는 25만 명, 『신당서』 권111 열전36 설인귀 전에는 20만 명, 『책부원구』 권117 제왕부117 친정(親征)2에는 10만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와 당군에 항복한 군사를 합하여 대략 5~6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임기환, 2022; 문영철, 2021). 고구려군의 총병력을 이런 규모로 상정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당군의 규모도 기록대로 3만 명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안시성으로 비정되는 해성 영성자산성 인근에서 양측 도합 30만 명 정도의 군사가 진을 치고 대결할 수 있는 대평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주필산전투 이후 당군은 안시성 공격에 주력하였을 것이다. 다만 전투 양상에 대한 기록이 소략하여 진황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7월 5일에 당 태종이 안시성 동쪽 고개로 군영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부터 안시성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필산전투 이후 곧이어 안시성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별 성과가 없자 태종이 독려하기 위하여 안시성 가까이로 군영을 옮긴 상황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주필산전투 이후 안시성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이미 7월 가까이 공방전이 계속된 것이다. 어쨌든 7월 5일에 당 태종의 군영을 안시성 동쪽으로 옮기면서 공격이 본격화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 측 사서에서 7월 중 당군의 안시성 공격 기사가 보이지 않고, 『구당서』 권199 고려전에 “8월 군영을 안시성 동쪽으로 옮기고 이적이 안시(安市)를 공격했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8월 10일 직후 동쪽으로 군영을 옮긴 이후에야 안시성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고, 6월 23일에서 8월 10일 직후까지 40일 이상 소강상태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서영교, 2014). 하지만 『구당서』 권3 본기3 태종 정관 19년조에 “가을 7월에 이적이 군대를 진격시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또한 토산(土山) 축조가 7월 15일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7월 중에 당군의 공세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중국 측 사서에 이적은 안시성 서쪽을 공격하고, 이도중은 안시성 동남쪽에서 전투를 벌이며 공격용 토산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당군은 언제부터 토산을 쌓기 시작하였을까? 이 토산을 쌓는 데 60일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토산이 완공되었을 무렵 토산이 안시성벽 쪽으로 무너지면서 고구려군이 재빨리 토산을 점령하고 벽을 깎고 참호를 파서 지켰다. 이에 당군이 토산을 빼앗기 위해 3일간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9월 18일에 회군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회군 시점에서 최소한 63일 전에 토산 축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대략 7월 15일 이전이 된다.

주필산전투 직후부터 공성전이 전개되었다면 20여 일쯤 뒤에, 7월 5일 당 태종이 안시성 동쪽으로 군영을 옮기고 공격이 본격화된 지 10일이 채 안 되어 토산 축조를 시작한 셈이다. 이 시점이 당시 당군의 전략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임기환, 2022).

구체적인 시점이 명기되지 않고 7월 중에 있었다고 하는 당군 지휘부의 작전회의 장면이 『자치통감』 권198 태종 정관 19년조 및 『책부원구』 권991 외신부36 비어(備禦)4에 전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태종에게 항복한 고연수, 고희진이 하나의 방책을 건의하였는데, 안시성을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니 오골성으로 진격하면 오골성 옥살이 나이가 들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뒤에는 평양 공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군신들도 고연수의 군대가 격파되어 고구려군 전력이 취약해졌으니, 비사성에 있는 장량의 군대까지 불러들여 오골성으로 진격하고 압록수를 건너 평양을 공격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장손무기가 “천자가 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진군해야 하는데, 건안성과 신성의 고구려 군사 10만이 오골성으로 진격하

는 당군 뒤를 공격하면 위협하기 때문에 안시성과 건안성을 취한 뒤에 진군해야 한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안시성 공격이 다시 계속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작전회의에서 안시성 공격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뒤에야 토산을 구축하는 공격전술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산 축조가 시작된 7월 중순 이전에 위 작전회의가 열렸을 것이다. 아마 당 태종이 안시성 동쪽 고개로 군영을 옮긴 7월 5일 직후가 아닐까 추정한다. 어쨌든 안시성 공격이 더이상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작전회의가 열렸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안시성과 건안성 공함 이후 진군한다는 기존의 전략이 재확인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토산 축조라는 새로운 공성전술이 채택된 점은 이때 당군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토산 축조는 장시간이 걸리는 공격전술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적은 계속해서 안시성 성문 쪽을 공격하였고, 이도종이 동남쪽을 공격하면서 토산을 축조하였으니, 당군이 전적으로 토산 축조에 매달린 것은 아니다. 이는 일종의 보조전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적의 성문 공격이 아무런 성과가 없자, 토산 축조에 승부를 걸었던 듯하다. 그리고 중국 사서에 8월 10일에 당 태종이 군영을 안시성 남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 태종이 직접 나서서 공격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토산 축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니 아마도 이 무렵부터 토산 축조에 더 많은 공력을 투입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당군이 토산 축조라는 전술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역에서 설연타의 공세에 따른 당 군사력의 보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서영교, 2014),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안시성에서의 승부는 고구려 원정 전체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인데, 저 멀리 설연타의 공세에 대비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토산 축조 전술을 구사한다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당군이 안시성에서의 승부가 여의치 않자 장기전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즉 안시성과 그 뒤 건안성을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개모성에서 요동성, 안시성, 건안성, 비사성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최전선의 주요 거점성들을 확보하게 되고, 이들 성을 기반으로 이듬해에 본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임기환, 2022).

#### 4) 안시성과 주필산 전투지의 위치

근대에 들어 역사지리학 연구를 통해 안시성에 대한 새로운 위치 비정이 시도되면서 여러 견해가 나왔다(문영철, 2020). 그중에 중국 요령성 해성시의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 대석교시의 해룡천산성(海龍川山城), 개주시의 고려성자산성(高麗城子山城)이 안시성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려성자산성은 건안성으로 비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영성자산성과 해룡천산성이 남는데, 그동안은 영성자산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지지를 받았다(金毓黻, 1976; 島田好, 1927).

다만 영성자산성은 그 규모에서 과연 당 태종의 대군을 3개월이나 막을 만한 성곽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영성자산성은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을 일시 조사한 연구자들마다 성곽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보고가 제각각이다. 성곽

의 구조에서도 하나의 성곽으로 보는 견해, 본성의 서북쪽 외곽으로 긴 방어용 성벽이 구축되었다는 견해, 이 외부 성벽이 또 하나의 성곽을 이루어 본성과 외성 즉 복곽식 성곽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이렇게 성곽의 구조를 다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전체 성곽의 크기도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대략 본성의 규모를 2.7km 정도로 파악하고, 여기에 외부 성벽 혹은 외성의 성벽을 더하여 4~4.5km 규모로 파악하기도 한다(여호규, 1999; 양시은, 2016).

본성 외부로 이어지는 성벽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아직 외성의 존재는 불분명하다. 안시성전투 기록을 보면 이적의 군대는 안시성 서쪽 즉 서문 쪽을 공격하고, 이도중은 동남쪽에서 토산을 구축하며 공격하였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당시 안시성의 구조를 보여주는 기록이 될 수도 있다. 안시성의 서북쪽에 외성이 있다고 해도 현재 지형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본성에 비하여 방어상 취약한 상태로 추정되는데, 당군의 공격이 서북쪽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성의 존재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다 본격적인 조사를 기다린 후에야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치통감』 권202 고종(高宗) 함형(咸亨)2년조에 의하면 고구려가 멸망한 뒤 671년 7월에 안시성에서 대규모 부흥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요동 일대에서 안시성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케 하는데, 본성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건안성에 비정되는 고려성자산성의 규모와 비교해도 제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성자산성을 안시성에 비정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주목한 산성이 해룡천산성이다. 이 산성의 규모는 중국 측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둘레 3~4km 정도이다. 산성의 입지

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서문이 기본 성문이며, 성 내부의 경사면이 완만하고 평탄한 점 등은 영성자산성의 입지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해룡천산성을 안시성으로 주장하는 견해를 보면, 주필산전투가 벌어진 지형, 지세를 해룡천산성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당 태종의 대군에 대응하여 항전할 수 있는 10만 대군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산성의 규모가 크며, 무엇보다 산성의 동남쪽에 당군이 쌓았다는 인공 토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馮永謙, 1996; 王咏梅, 2000; 王綿厚, 2002).

사실 주필산전투가 전개된 지형을 충족하는 곳은 영성자산성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영성자산성 동남쪽에서도 인공 구조물인 토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다. 물론 최근에는 이 토산을 자연지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형적 요소는 두 산성의 입지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만 해룡천산성의 규모가 영성자산성보다 대형이라는 점에서 보다 유력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산성 자체의 규모나 입지만으로 어느 산성을 안시성으로 확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이 교통로 문제이다. 해룡천산성도 교통로상의 요처에 해당한다. 수암시와 개주시로 이어지는 길이 지나고 있는데, 대청하(大清河)를 따라 개주 방향으로 교통로 연결이 보다 수월한 위치이다. 영성자산성은 천산산맥을 넘어 수암으로 이어지는 주 교통로의 입구에 해당한다. 그동안에도 영성자산성을 안시성에 비정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점이였다. 요동성을 장악한 당군이 고구려 영역 내부 압록강 방면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교통로를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보면 역시 영성자산성이 최적의 거점이라

고 할 수 있다(여호규, 1999; 양시은, 2016). 그리고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요동성으로 철군할 때 2~3일 걸렸다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시대에 일반적으로 1일 행군거리는 최대 30km 내외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으며, 통상의 행군 거리를 20km 이하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당시 당군의 철군 상황을 보면 안시성은 요동성에서 대략 60km 범위 정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위치는 해성의 영성자산성이다(정호섭, 2020).

안시성을 영성자산성으로 본다면 주필산전투지의 위치도 이 근방에서 찾아야 한다. 근래 주필산전투지를 사료에 나타난 단서와 영성자산성 부근의 자연지형을 토대로 영성자산성 동남쪽 3km 거리의 북철광업(北鐵鑛業)유한회사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곳은 동남 방향에서 영성자산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좁은 길목에 해당하는데, 주변에 여러 산줄기가 뻗어 있어 매복작전을 벌이기에 적합한 지형으로 본 것이다(문영철, 2021).

## 5) 당 태종의 퇴각과 설연타의 동향

645년 9월 18일 안시성에서 철군한 태종과 당군은 요동성을 거쳐 요하에 도착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9월 21일경이었다. 요하에는 늪지대인 요택이 200여 리에 펼쳐져 있었다. 이 요택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하러 올 때 지나온 길이다. 당시 당군 공병대가 미리 요택에 흙을 덮고 다리를 놓아 길을 만들어 두어 이틀 만에 통과하였다. 그때 요택을 통과한 태종은 설치한 다리를 모두 거두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되돌아올 때는 요택을 지나는 데 10여 일이 걸렸다. 요택을 어렵사리

통과한 당군은 10월 1일 요하의 지류인 발착수(渤錯水)를 건넜는데, 눈보라가 몰아쳐 많은 병사들이 얼어죽어 갔다. 이런 요하 중로보다는 고구려 공격 시에 이적군이 경유했던 북로가 보다 평탄한 길이었는데, 서쪽 설연타의 동향이 우려되어 신속하게 철군하기 위해 중로를 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노태돈, 2009).

10월 11일에 당 태종은 영주에 도착하였다. 18일에 이곳에서 군사를 돌이킨 데 대한 반사(班師)조서를 내렸는데, 자신의 고구려 원정이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그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21일에 태종은 임유관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태자와 만났다. 그리고 11월 7일에 유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바로 장안으로 가지 않았다. 북쪽 설연타에서 진주가한(眞珠可汗)의 뒤를 이은 다미가한(多彌可汗)이 태종의 군대가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틈타 당의 하주(夏州)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종은 12월 14일 병주(并州: 태원 일대)에 행차하여 설연타와의 전쟁을 후방에서 독려하였다. 고구려 원정을 다녀온 이도중, 설만철 등을 설 틈도 없이 설연타와의 전선에 투입시켰다. 설연타의 대군을 격퇴시킨 뒤에야 비로소 장안으로 향하였다. 태종이 장안으로 돌아온 때는 3월 7일이었다. 요하를 건넌 때로부터도 5개월 가까운 시일이 흐른 뒤였다. 태종은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승전의 예를 행하였다. 당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정벌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645년 고구려 원정을 당 태종의 승전 목록에 추가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 원정에서 철군한 이후 당 태종이 설연타와의 전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태종의 철군 배경과 설연타의 동향이 어떤 관계가 있

는지를 살펴보자. 고구려군이 주필산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연개소문이 말갈을 통해 설연타와 연결하여 당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태종의 철군과 설연타의 당 공격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견해가 있었다. 우선 태종이 안시성에서 철군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당 북방에 있는 설연타가 당의 하주를 침공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서영교, 2014). 또는 9월 시점에서 아직 설연타가 당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설연타의 동향에 당 조정과 당군 지도부의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2009).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설연타가 언제 당의 하주를 침공했느냐이다. 태종의 철군 명령 이전에 설연타의 침공이 있었다면, 당 철군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설연타의 침공을 거론할 수 있지만, 설연타의 침공이 철군 이후라면 이를 철군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상 설연타의 침공 시점이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설연타의 당 최초 침공은 진주가한에 의해 645년 7~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당 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떠나면서 돌궐 출신인 번장(蕃將) 집실사력(執失思力)에게 금산도에 주둔하여 설연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당서』 집실사력열전에 의하면, 설연타의 수만 기병이 하남(河南: 지금의 오르도스) 지역에 침공하여 집실사력이 이를 격퇴하고 600여 리를 추격하였는데, 이 무렵(8월경) 설연타의 진주가한이 죽어서 설연타군이 돌아갔다고 한다(서영교, 2014).

그런데 다수의 기록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전하고 있다, 즉 연개소문이 설연타와의 연계를 시도했지만 “진주가한이 두려워해서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은 앞서 집실사력열전의 내용

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집실사력 열전의 내용은 『신당서』 회홀(回鶻) 전의 기사와도 시간 흐름이 맞지 않는다. 역시 다수의 기록에서 보이는 위 기사를 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7~8월의 설연타 침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7~8월의 설연타 침공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안시성전투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당 태종이 설연타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흔적은 사료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해 8월경에 진주가한이 죽고 적자(嫡子)이지만 둘째인 발작(拔灼)이 이복형인 예망(曳莽)을 죽이고 다미가한으로 즉위하였다. 당은 내심 설연타가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에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미가한이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갔다. 새로 등장한 다미가한은 이전 진주가한과는 다르게 당의 하주를 공격하였다. 이 공격 시점이 불분명한데, 여러 사서에 “태종이 아직 요동에 있을 때”라고 막연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점을 당군이 요하를 건넌 10월 1일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태종이 철군 조서를 내린 9월 18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여호규, 2018). 그러나 “태종이 아직 요동에 있을 때”라는 사서의 기록을 요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기사의 ‘요동’을 지리적 관점에서만 파악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태종이 아직 요동에 있을 때”이란 문구는 아직 태종이 요동 원정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는 이듬해 3월 당 태종이 장안에 도착했을 때 사서에서 “요동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한 점에서 방증된다. 따라서 설연타의 당 공격 시점을 태종이 요하를 건넌 시점인 10월 1일 이전으로 상정하는 것은 맥락상 타당하지 않다.

당시 설연타의 동향과 당의 대응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설연타 다미가한이 당의 하주를 공격한 시점은 645년 11~12월 초 무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당 태종의 귀환 과정을 보아도 짐작된다. 10월 1일에 요하와 요택을 지나온 태종은 21일에 임유관에 도착해 마중 나온 태자와 만났고, 11월 7일에 유주에 도착하였다.

당 태종의 본군이 고구려로 출정할 때에는 4월 10일에 유주를 출발하여 5월 3일에 요택에 도착하였다. 대략 22~23일이 걸린 것이다. 귀환길은 21일 만에 임유관에 도착하고 36~37일 만에 유주에 도착하였으니, 거의 보름 가까이 더 걸릴 정도로 행군 속도가 많이 느렸다고 볼 수 있다. 군사들의 피로를 고려하면 당연한 행군 일정이다. 이러한 귀환길을 보면 당 태종이 설연타의 침공을 의식해서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다. 더욱이 10월 이전에 설연타가 침공했다면, 당 태종의 원정 시에 국내 통치를 위임받은 태자가 10월 21일에 임유관으로 태종을 마중 나갈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적어도 태종이 유주에 도착할 때까지는 설연타의 침공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즉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철군하게 된 배경은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조서에도 나오듯이 겨울철 추위가 다가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성곽 중심의 고구려 요동방어체계 및 산성의 험준함, 고구려군의 수성능력 등이 결합하여 당군의 진격을 최전선에서 가로막았던 결과였다. 전적으로 안시성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방어력이 당 태종의 철군을 초래한 것이지, 설연타 동향 등 어떤 외적 변수가 철군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나서기 전부터 설연타의 침공에 대비

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진주가한의 사망과 다미가한의 등장이 가져올 새로운 여파에 대해 태종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태종은 12월 14일 병주에 도착하였다. 설연타와의 전쟁을 후방에서 지휘,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태종은 설연타의 침공을 물리치고 장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3개월 뒤인 6월에 당은 철록(鐵勒)·복골(僕骨)·동라(同羅) 부족과 연대하여 설연타에 대한 대공세를 펼쳐서 결국 궤멸시켰다. 8~10월에는 태종이 직접 영주(靈州)에 가서 철록 여러 부족의 투항을 받았다. 한때 초원지대를 호령하던 설연타를 당이 패망함시킴으로써 다시금 주변 국가들에게 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 3. 당의 고구려 공격전략 변화와 재원정 준비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온 이듬해 10월 14일 당 태종은 조서를 내렸다. 그 내용인즉, 고구려가 방자해져 당에 대해 거만하고, 사신을 보내 올린 표문도 거짓이고,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명도 듣지 않으니, 앞으로는 조공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조서는 고구려 재원정을 위한 명분 쌓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그 이전부터 태종은 고구려 재원정을 결심하고 있었던 듯하다. 5월에 보장왕이 사죄의 사신과 함께 보낸 미인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다만 북방의 설연타가 호심 탐탐 넘보는 상황에서 고구려 원정의 뜻을 미루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6월에 북방의 골칫거리였던 설연타도 멸하고, 9월에 영주에 순행하여 철록 여러 부족의 투항을 받았으니, 고구려 재원정을 방

해할 거리는 모두 없어진 셈이다.

당 조정에서 고구려 재원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때는 647년 2월이었다. 이 자리에서 군신들은 고구려의 성곽은 험준한 산에 쌓아서 쉽게 함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군대를 자주 파견하여 고구려를 피로하게 한 뒤에 정벌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태종도 동의하였다. 즉 당이 고구려 공격전략을 대규모 공격에 앞서 소모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다.

5월에 먼저 이적이 지휘하는 육군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기록에는 당시 이적이 2명의 부대총관과 함께 병사 3,000명과 영주도독부 관할 군사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총병력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 영주도독부에는 당 소속 군대도 있지만, 거란, 해 등 영주도독부에서 관할하는 북방 종족의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전(通典)』과 『당회요(唐會要)』 고구려조에는 이적이 남소성(南蘇城) 전투 이후 회군하면서 거란에게 요수(遼水)의 근원을 묻는 대목이 나온다. 이적의 부대에 거란군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적은 신성도(新城道)로 나아가 5월 25일에 남소성, 목저성(木底城)을 차례로 공격하였다. 남소성은 지금의 요령성 무순시 철배산성(鐵背山城)으로 비정되는데, 신성과 더불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졸본(卒本: 요령성 환인)이나 국내성(길림성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요충성이다. 목저성의 위치 비정은 다소 논란이 있는데, 지금의 소자하 유역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요령성 신빈현(新賓縣) 목기진(木奇鎭)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철배산성에서 동남쪽으로 15km 거리에 있는 오룡산성(五龍山城) 혹은 신빈현의 구로성(舊老城)에 비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하를 건너 남소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신성을 거쳐야 한다. 신성은 난공불락의 요충성으로, 645년 첫 원정 때에도 당군은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적은 신성에서 전투를 벌이기 보다는 이를 지나쳐서 남소성으로 직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 측 기록에 의하면 남소성, 목저성에서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하였으나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외곽을 불태우고 파리성(頗利城) 쪽으로 회군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남소성에서 다시 신성 쪽으로 되돌아갔다가는 신성의 고구려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할 염려가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남소성에서 지금의 요령성 철령(鐵嶺)시 쪽으로 빠지는 길이 유력하다. 철령에는 고구려 최진보산성(崔陣堡山城)이 있는데, 파리성이 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다. 이때 당군이 요하의 지류인 백랑(白狼)·황암(黃巖) 두 강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철령을 지나 요하와 합류하는 시하(柴河)와 그 지류인 범하(汎河)에 비정해 볼 수 있겠다.

이적이 거느린 당군이 신성을 지나쳐 남소성과 목저성까지 고구려 영역 내로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고 철령 일대로 빠져나간 군사 행동은 일종의 기습공격이다. 다만 신성을 지나쳤기 때문에 퇴로가 끊길 경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한 것은 신성 후방의 고구려 방어망을 뒤흔들어서 후방에 있는 고구려 주민들의 민심을 불안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앞서 당의 조정에서 의도한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진달(牛進達)이 거느린 수군의 행동도 이와 비슷하였다. 보통 수군의 행로는 산둥반도 내주(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반도 끝에 있는

비사성에 이르게 된다. 645년 원정 때에도 이 비사성을 공격, 함락시켜 차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진달이 병사 1만여 명을 이끌고 7월 11일에 석성(石城)을 공격하였다. 석성은 지금의 요령성 장하시(莊河市)에 있는 성산산성(城山山城)에 비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성산산성의 위치는 고구려 건안성에서 천산산맥을 넘어 요동반도 남안에 이르는 교통로의 남단이며, 비사성에서 압록강 하구, 즉 지금의 단둥시(丹東市)로 이어지는 요동반도 남쪽 해안도로의 중간거점에 해당하는 요충지이다. 그런데 645년 전쟁상황에서 보듯이 비사성이나 건안성이 최전방이고, 석성은 이들 성의 배후에 위치한 후방이다. 당군은 의도적으로 이런 후방 성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우진달이 거느린 당군은 석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다시 적리성(積利城)에 이르렀고, 출진한 고구려 군사 1만 명 중 2,000여 명을 전사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적리성의 위치 역시 석성과 마찬가지로 요동반도 남단 일대로 석성에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하였음은 분명하다. 그 위치 비정은 견해가 분분한데, 아마 보란점시(普蘭店市)의 위패산성(魏霸山城)이 아닐까 한다. 위패산성은 벽류하(碧流河) 서쪽에 위치하며, 성산산성과 함께 벽류하를 따라 건안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지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당의 전략은 이듬해에도 이어진다. 당 태종은 648년 정월에 설만철(薛萬徹)에게 병사 3만 명과 군선을 이끌고 내주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본대의 출진에 앞서 4월에 오호진장(烏胡鎭將) 고신감(古神感)이 먼저 고구려 역산(易山)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역산의 위치는 비정하기 어렵다.

6월에 설만철이 본대를 이끌고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박작성(泊灼

城)을 공격하였다. 박작성주 소부손(所失孫)이 보기 1만여 명을 이끌고 대적하였으나 패배하였고, 장수 고문(高文)이 오골성과 안시성 등 여러 성의 구원군 3만여 명을 이끌고 와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고 당군은 퇴각하였다. 645년 장량이 거느린 당의 수군이 비사성을 함락시킨 후 일부 군선을 압록강 하구로 보내어 시위를 한 적은 있으나,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박작성을 공격한 것은 아마도 고구려 측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작성은 지금의 단동시 호산산성(虎山山城)에 비정된다. 박작성은 압록강 하구를 공제하는 요충지로서 오골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지금의 의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한다.

이처럼 647~648년 두 해에 걸쳐 당은 1만~3만 명 규모의 육군과 수군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소성, 목저성, 석성, 적리성, 박작성 등을 공격하였다. 기록상으로는 육군 한 차례, 수군 세 차례 등 모두 네 번의 출정이 확인되는데, 모두 예기치 않은 후방의 요충성들을 기습공격하는 전략이었다.

이와 같은 몇 차례 당군의 공세가 애초 당의 군신들이 의도했던 고구려를 피로하게 하는 전략으로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나동욱, 2009). 전략의 실효성 측면에서 고구려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2009).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술적 소모전을 통한 ‘여건조성작전’ 단계와 당 태종의 대규모 공격을 추진한 ‘단기정복전략’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면서, 당의 공세에 대해 고구려 방어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나동욱, 2009).

그러나 647년 2월 군신회의에서 논의된 이른바 소모전략은 공세 전략의 수정이라기보다는 당 태종과 군신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 추정

한다. 645년 고구려 원정 실패 이후 다수의 군신들과 달리 태종은 재원정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군신들도 원정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어서 소극적인 군사전략을 명분으로 내세우게 되고, 태종 역시 원정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군대를 보낸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 결과라기 보다는 고구려 재원정을 놓고 당 태종과 군신들 사이의 입장 차를 일단 덮어두는 미봉책으로 논의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임기환, 2022).

그 결과 648년 6월 군신회의에서 당 태종은 “이제 고구려가 곤궁하고 피폐해졌으니 이듬해에 30만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미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태종은 이미 647년 9월에 강남 12주에서 큰 배 350척을 건조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648년 9월에는 군량과 기계들을 삼산포(三山浦), 오후도(嗚呼島)에 저장해 두도록 명령하였다. 이 과정을 645년의 원정 준비 과정과 비교해보자. 즉 644년 7월에 배 400척을 만드는 명을 내리고, 10월에 영주로 군량을 나르고 고대인성에 곡식을 저장하도록 하였으며, 11월에 원정군을 편성하는 조서를 내리고, 645년에 원정에 나섰던 것이다. 두 과정을 비교해보면 태종이 649년에 고구려를 원정할 계획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준비를 갖추어가고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게다가 645년 원정을 논의할 때에는 적지 않은 군신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648년 6월 조정에서의 논의 자리는 물론 그 이후에도 태종의 고구려 원정 의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료상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7월에 병이 깊어진 방현령(房玄齡)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올린 상소가 눈에 떨 뿐이다. 이는 당시 태종의 고구려 원정 의지가 매우 강력하였기 때문에 군신들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태종이 이듬해에 고구려를 정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648년 윤12월에 신라 김춘추가 당 조정을 방문하였다. 김춘추는 태종의 고구려 원정이 임박해진 시점을 의도적으로 골랐을 것이다. 김춘추는 당시 신라 진덕왕 정권에서 실질적인 일인자였다. 647년 정월 상대등 비담(毗曇)의 난을 진압하고, 그 와중에 선덕왕이 죽자 진덕왕을 추대하여 정권을 잡았다. 김춘추는 사신이라기보다는 신라왕을 대신하여 당 태종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태종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광록경(光祿卿)을 보내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는 등 후례를 베풀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당 태종이 김춘추를 사사로이 만나 후하게 예우하면서 밀약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여 멸망시킨 후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밀약이 맺어졌다. 그 밀약의 내용이 문무왕이 671년에 당의 장군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낸 답서에 언급되어 있다. 당 태종은 김춘추와의 밀약으로 신라군을 동원하면 이번 고구려 재원정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 나름 확신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김춘추에 대한 예우가 각별했다. 김춘추에게 정2품 특진의 관작을 주고, 아들 문왕은 종3품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았다. 또한 김춘추가 귀국할 때 조정의 3품 이상 관리들에게 송별잔치를 열도록 조칙을 내리기도 하였다.

김춘추는 당 태종과의 협약에서 나당 간 군사연합을 맺고, 전쟁 이후 평양 이남 고구려 영역과 백제 토지도 할양받기로 약속받고 귀국하였다. 그때까지 신라가 당과의 외교에서 거둔 유례없는 성과였다. 아마 당시 신라가 기대한 대당외교의 최고치는 백제 병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 정벌이 시급했던 당 태종은 신라군을 동원하기 위해 평

양 이남의 땅까지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sup>5</sup> 하지만 당 태종이 곧 사망함으로써 신라의 고구려 원정도 물 건너갔다. 649년 5월 태종은 죽으면서 고구려 원정을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은 앞으로 고구려 원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바로 그해의 원정계획에 맞추어 그동안 준비를 갖추어 왔고 이제 원정을 눈앞에 두고 있던 태종이 죽음을 맞으면서, 자신이 추진한 고구려 원정을 중단하라는 뜻이었다(임기환, 2021).

---

5 김춘추와 당 태종이 맺은 밀약의 내용 중 “我平定兩國 平壤已南 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의 문장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 문장의 해석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다음 저작을 참고할 수 있다. 기경량 외 지음, 정요근 엮음, 2023,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장원섭, 2018, 「신라삼국통일론 논의의 연구사적 검토」, 『신라사학보』 43.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고구려 대수·당 전쟁사』.
- 기경량 외 지음, 정요근 엮음, 2023, 『신라는 정말 삼국을 통일했을까 - '삼국통일'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 역사비평사.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1999, 『高句麗 城 II』, 국방군사연구소.
- 劉矩·姜維東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6, 『당의 고구려 정벌사』, 동북아역사재단(원제: 『唐征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 2006).
- 이재성, 2018, 『고구려와 유목 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 임기환, 2022,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하,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 唐의 단계적 戰略變化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10.
- 김진한, 2011,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39.
- 나동욱, 2009a, 「640년대 후반 고구려, 당 전쟁에 대한 검토」, 『군사』 72.
- \_\_\_\_\_, 2009b,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한국사연구』 144.
- 노태돈, 2011,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 문영철, 2021,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의 주필산 전투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 朴京哲, 2006,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전쟁」,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 방향숙, 2008,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과정」, 『中國古中世史研究』 19.
- , 2017, 「고대 '中國'과 '遼東'의 정치적 관계」, 『중국고중세사연구』 46.
- , 2019, 「唐太宗·高宗代 한반도 정책과 百濟의 위상 - 당 태종·고종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27.
- 서영교, 2003,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 -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군사』 49.
- , 2013a, 「당태종의 고구려 親征과 작전 歪曲」, 『동북아문화연구』 36.
- , 2013b, 「645년 요동성(遼東城) 전투 복원」, 『대구사학』 112.
- , 2014, 「연개소문의 對薛延陀 공작과 당 태종의 안시성 撤軍」, 『동북아역사논총』 44.
- , 2015, 「駐蹕山 전투와 安市城」, 『동국사학』 58.
- 송영대, 2022, 「고구려 원정에 나타난 隋·唐의 공성전술」, 『한국고대사연구』 107.
- 여호규, 2000, 「고구려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 배경」, 『국사관논총』 91.
- ,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대구사학』 133.
- 윤성환, 2011,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민족문화』 37.
- 이강래, 2007, 「한, 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15.
- 이기천, 2016, 「7世紀初 唐의 對外戰爭 名分과 國際秩序」, 『중국고중세사연구』 39.
- 이도학, 2006,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발해연구』 24.
- 이만열, 1978, 「高句麗와 隋·唐과의 戰爭」, 『한국사 2(민족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 이민수, 2018, 「645년 唐의 高句麗 원정군 규모 推算」, 『한국상고사학보』 100.
- 李丙燾, 1959, 「高句麗 對 隋·唐 抗爭과 麗·濟의 崩壞」, 『韓國史(古代篇)』, 신구문화사; 1976, 「高句麗 對 隋·唐 抗爭」,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 이성제, 2014,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기초적 검토」, 『영남학』 25.

- \_\_\_\_\_, 2021, 「榮留王의 王權 강화와 淵蓋蘇文 政變」, 『한국고대사연구』 104.
- \_\_\_\_\_, 2023, 「고구려의 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한국고대사연구』 109.
- 이용범, 1987,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한국사연구회 편, 『古代韓  
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이인철, 2004, 「7세기 高句麗 軍事活動의 주요 變數」, 『신라문화』 24.
-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중국고중세사연구』 26.
- 이호영, 1998, 「삼국통일 과정」, 『한국사 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 이흥두, 2010,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군사』 77.
-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고대에서 중세사회로 2)』, 한길사.
- \_\_\_\_\_,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역사학회 엮음, 『전쟁  
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_\_\_\_\_, 2014,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문화논총』 8.
- \_\_\_\_\_, 2021, 「김춘추, 당 태종의 협약과 일통삼한」, 『역사비평』 131.
- 임용한, 2001, 「수·당 전쟁」, 『전쟁과 역사(삼국 편)』, 해안.
- 장원섭, 2018, 「신라삼국통일론 논의의 연구사적 검토」, 『신라사학보』 43.
- 정원주, 2020,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목적과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67.
- 정호섭, 2020,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와 안시성주 전승의 추이」, 『고구려발해연구』 67.
- 최진열, 2022, 「唐太宗 고구려 親征과 唐軍의 병력」, 『군사』 124.
- 최현화, 2006, 「7세기 중엽 唐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현실』 61.
- 최희준, 2022,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신라사학보』 54.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馮永謙 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 王咏梅, 2000, 「關於安市城址的考察與研究」, 『北方文物』 2000-2.
- 崔豔茹, 2012, 「貞觀十九年唐軍攻打高句麗建安城的進軍路線考」, 『東北史地』  
2012-1.
- 島田好, 1927, 「高句麗の安市城の位置に就て」, 『歴史地理』 49-1.



#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와 수·당과의 전쟁

7장 고구려 군사방어체계의 역사적 변천

8장 요동 지역의 방어체계와 천리장성

9장 한반도 서북한 지역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고구려 군사방어체계의 역사적 변천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구려는 중원 왕조나 유목 제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생존을 도모했다. 고구려는 이들의 침공을 물리치고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각지에 성을 축조해 물샐틈없는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만주 일대에만 200여 개 이상의 고구려 성이 남아 있다. 북한 지역에서도 많은 고구려 성이 확인되었고, 최근 남한 지역에서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는 이러한 성을 중심으로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했다. 성은 고구려 국가체제의 근간이자 생존의 필수시설이었다(노태돈, 1996; 1999a; 여호규, 1999a; 김현숙, 2005).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에 관한 연구는 북한 학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북한 학계는 일찍이 국경지대인 요하(遼河) 유역에서 후기

도성인 평양성에 이르는 방어체계를 전초방어성(감시방어성), 전연방어성(기본방어성), 중심방어성(중간방어성), 수도방어성(최종방어성)으로 분류했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5; 1979; 리지린·강인숙, 1976), 1980년대 이후에는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채희국, 1985; 박창수, 1988a; 1988b; 박창수, 199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박진욱, 1991; 남일룡, 1995; 손영중, 1997; 지승철, 2005).

중국 학계는 일찍이 국내성기의 군사방어체계를 고찰했지만(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외, 1964; 遲勇, 1993), 후기 군사방어체계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요동 지역 성과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성과가 많지만,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쳤다(陳大爲, 1985; 1995; 孫進己·馮永謙, 1989; 辛占山, 1994; 王綿厚, 1994; 2002; 王禹浪·王宏北, 1994; 2007; 馮永謙, 1994; 李殿福, 1998; 魏存成, 2002). 천리장성에 대해 길림성(吉林省)과 요령성(遼寧省) 학자들이 경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졌지만, 축성 배경이나 그 성격을 깊이 분석하지는 않았다(王綿厚, 1986; 王健群, 1987; 李健才, 1991; 梁振晶, 1994; 馮永謙, 2002;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a; 2010b).

일본 학계는 일찍부터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에 관심을 가졌지만(松井等, 1913; 津田左右吉, 1915), 당시에는 고구려 성곽이 거의 조사되지 않아 군사방어체계를 고찰하기는 쉽지 않았다(三上次男, 1997). 1990년대 이후 중국 학계의 고고 조사 현황과 고구려 성의 분포양상을 정리하고(西川宏, 1992; 林直樹, 1994; 東潮·田中俊明, 1995), 초·중기와 후기 군사방어체계를 비교하거나(田中俊明, 1997·1999) 수·당과의 전쟁에 나타난 성곽의 운용 양상을 검토하기도 했다(寺內威太郎, 1994). 다만 2000년대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내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중국과 북한에 산재한 고구려 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고고자료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 수교로 만주 지역의 고구려 유적 답사가 가능해지고, 고고자료의 획득이 용이해졌다. 이에 고구려 성에 관한 고고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서길수, 1994; 여호규, 1998a; 1999a), 성곽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하고(공석구, 1998; 임기환, 1998), 방어체계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했다(여호규, 1998b; 1999b).

2000년대 이후 국내 학계는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을 활발하게 조사·연구하는 한편(최종택, 1999; 2013; 심광주, 2001; 2008; 백중오, 2005; 2006; 양시은, 2010a; 2010b; 이정범, 2010; 2015; 신광철, 2011a; 2011b; 윤성호, 2019; 박중서, 2022), 만주 지역의 성곽 사진자료집을 간행하고(이성제 편, 2006; 2010), 초·중기 도성과 서북 방어체계도 연구했다(이성제, 2013a; 2013b; 양시은, 2013; 2014a). 특히 고구려 성곽과 도성에 관한 단행본과 박사학위논문(서길수, 2009; 양시은, 2016; 정원철, 2017; 기경량, 2017; 이경미, 2017b; 권순홍, 2018; 강현숙 외, 2020; 이정범, 2021; 신광철, 2022),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 관한 단행본(이정민, 2018; 정동민, 2022) 등이 잇따라 간행되었다. 서북방 봉수체계가 검토되고(이성제, 2016), GIS나 위성사진을 활용한 공간 분석도 시도되었다(홍박음·장동석, 2021; 김주형, 2022; 신광철, 2022). 이와 함께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을 집대성한 자료집이 간행되어 연구기반을 크게 넓혔다(여호규 외, 2020a; 2020b; 2020c; 2020d; 2021a; 2021b; 2022a; 2022b; 2022c; 2022d).

고구려 성과 방어체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가 본책도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고자료와 문헌사료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고구려 군사방어체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중원왕조나 유목국가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장기간 생존하며 국가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졸본·국내성기 도성의 구성과 군사방어체계

### 1) 졸본시기 도성의 구성과 군사방어체계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발흥했는데, 한의 현도군을 요동방면으로 쫓아내면서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다. 첫 번째 도성인 졸본(卒本)은 압록강 지류인 혼강(渾江) 유역의 환인분지(桓仁盆地), 두 번째 도성인 국내지역(國內地域)은 압록강 본류 연안의 집안분지(集安盆地)로 비정된다.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노태돈, 2012; 김현숙, 2017; 임기환, 2018), 천도의 주요 목적은 압록강 수로망을 활용해 국가체제를 정비함과 더불어 집안분지를 감싼 노령산맥(老嶺山脈)을 천연방어벽으로 삼아 군사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여호규, 2005). 고구려를 건국 초부터 중원 왕조의 침공에 대비해 방어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대무신왕 11년에 한나라 군대가 침공하자, “바위산에 위치한 위나암성(尉那巖城)으로 들어가 수십일 동안 농성하며 방어했다”는 기사는 초기 도성의 방어체계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가 험준한 요새지에 방어성을 축조해 적군이 침공하면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방어한 것이다. 이에 일찍이 고구려가 건국 초부터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체계를 구축



어성으로는 천혜의 입지조건이지만, 일상 거주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녀산으로 비정되는 능비의 ‘산상 성곽’은 비상시 군사방어성이며, 평상시 거점은 별도로 존재했다고 파악된다. 능비에 나오는 ‘홀본’, 즉 줄본은 ‘산상의 성곽’과 추모왕이 승천했다는 ‘동강(東岡)’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점에 해당한다. 고구려어인 ‘홀(忽)’이 고을이나 성(城)을 뜻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홀본(卒本)은 ‘평지에 위치한 평상시 거점’이라고 생각된다. 종래 줄본의 평지성을 하고성자고성(魏存成, 1994; 王綿厚, 2002; 박순발, 2012)이나 나합성(東潮·田中俊明, 1995; 노태돈, 1999b)으로 비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하고성자고성은 오녀산의 서남쪽에 자리했는데, 홀본이 ‘산상 성곽’의 동쪽에 위치했다는 능비의 기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합성은 오녀산 동쪽에 위치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뿐 아니라 고구려 성곽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오녀산의 동쪽에서 ‘홀본’으로 비정할 만한 가장 유력한 곳은 초기 고분군이 밀집한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일대이다. 현재 고력묘자촌 일대는 환인댐에 수몰되었는데, 본래 남북 약 3km, 동서 1km의 평지가 혼강 연안을 따라 기다랗게 펼쳐져 있고, 사방이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남북 양쪽의 산줄기가 혼강 연안까지 뻗어 있어서 범람의 위험도 적었다. 다만 고력묘자촌 일대에서 고구려 성곽의 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이로 보아 고구려가 줄본 도성의 평지에는 성곽을 축조하지 않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충적대지를 평상시 거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여호규, 2005; 2014; 양시은, 2014b; 2016; 권순홍, 2018).

초창기 연구처럼 고구려가 줄본시기에 평지도성을 축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찍부터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했다고 추정된다. 다만 능비 찬자들이 ‘산상의 성곽’을 도읍

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아 오녀산성은 군사방어성 이외의 기능도 지녔다고 보인다. 오녀산은 환인분지 어디서 보더라도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띠는 상징적 존재이다. 이에 추모왕으로 대표되는 주몽 집단(계루 집단)은 맹주로 부상한 다음, 이곳에 임시 궁궐을 조영하고 각종 의례공간을 마련해 맹주로서의 위상을 표출했다고 여겨진다. 오녀산성은 비상시 군사방어성인 동시에 각종 의례를 거행하던 성소(聖所)였던 것이다(노태돈, 2012).

## 2) 국내성시기 도성의 구성과 군사방어체계

고구려는 국내 천도 이후에도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했다. 2세기 말경 공손씨(公孫氏) 정권의 침공이 임박하자, 환도성(丸都城)을 축조해 이도(移都)했고(209년), 조위(曹魏)의 침공 시에도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방어했다(244~245년). 4세기 전반 전연(前燕)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국내성을 축조하고 환도성을 보수한 다음 환도성으로 이거했다(342년). 3세기 전반에 평상시 거점에서 군사방어성(환도성)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4세기 전반에는 국내성과 환도성을 세트로 하는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체계가 확립되었다.

현재 집안분지에는 국내성지와 산성자산성이 있다. 국내성지는 압록강·통구하 합류지점의 동북쪽 평지에 위치해 있는데, 둘레 2,686m로 많은 건물지가 확인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국내성지 서북 2.5km에 위치한 산성자산성은 가파른 산비탈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다. 둘레 6,951m의 대형 산성으로 장대, 군사주둔지, 저수지, 대형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吉林省文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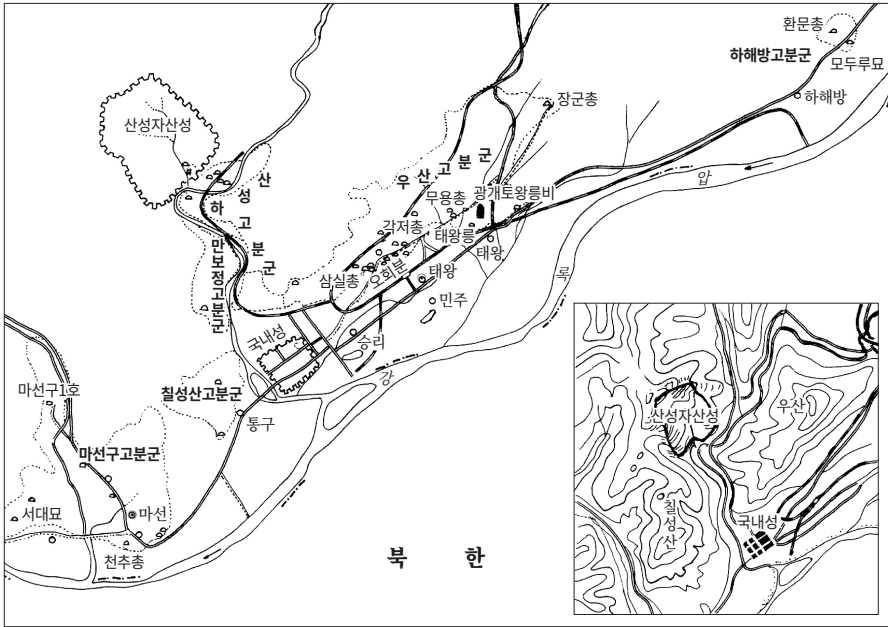


그림2 | 집안분지의 지형과 고구려 유적(여호규, 1998a)

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이로 보아 국내성지는 평상시 도성인 국내성, 산성자산성은 비상시 군사방어성인 환도성으로 비정된다.

다만 ‘국내성(國內城)’이라는 명칭은 4세기 전반에 처음 나오므로 언제부터 평상시 도성으로 기능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국내성지에 대한 1970년대 발굴에서는 고구려시기 이전의 토벽이 확인되었다고 했지만(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2000~2003년 발굴에서는 토벽과 석벽이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2009~2011년의 동벽 조사에서는 토축 기초부와 석축 성벽이 4세기 초 이후에 함께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a). 실제 국내성지에서 건물지 30여 곳을 조사했

지만, 3세기 중반 이전의 고구려 유물은 출토된 바 없다(여호규, 2012). 현전하는 국내성지 성벽이 4세기 초 이전에 축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심광주, 2005a; 2005b; 양시은, 2014b; 2016; 王志剛, 2016).

국내 천도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늦어도 3세기 전반에는 현재의 집안분지를 도성으로 삼았고, 국내 천도 초기부터 평상시 거점을 구축한 사실도 확인된다. 4세기 전반 현재의 국내성지를 축조하기 이전에 집안분지 어디엔가 평상시 거점이 존재한 것이다. 필자는 문헌사료에 집안분지 서쪽의 마선구(麻線溝) 일대가 ‘고국(故國)’으로 불린 사실에 주목해 국내 천도 초기에는 이곳을 평상시 거점으로 삼았다고 보았는데(여호규, 2005; 2014), 마선하(麻線河) 서쪽 평지에서 2세기 전후의 건강(建疆)유적이 조사되어(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b;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외, 2015) 고고학적 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강현숙, 2015; 여호규, 2019). 이에 대해 마선구 일대는 평상시 거점으로 삼기에 너무 협소하다며(임기환, 2018), 집안분지 중앙의 평지 일대를 평상시 거점으로 삼다가 4세기 전반에 국내성을 축조했다고 보기도 한다(王志剛, 2016; 기경량, 2017).

이상과 같이 고구려가 일찍부터 평상시 거점과 군사방어성을 세트로 하는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처음부터 평지도성을 축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여호규, 2014; 양시은, 2021). 필자는 졸본시거나 국내 천도 초기에는 고령묘자촌이나 마선구 일대처럼 산줄기로 둘러싸인 곡간(谷間) 충적대지에 평상시 거점을 조성했다고 추정하지만, 논거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다. 고구려가 4세기 전반에 국내성과 환도성으로 이루어진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은 명확하지만, 그 이전의 도성 구조와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1~4세기 전쟁 양상과 군사방어체계의 변천

### 1) 요동~국내성 지역의 성곽 분포양상과 군사방어체계

고구려는 한의 현도군을 요동평원 방면으로 몰아내며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다. 1세기 말~2세기 초에는 소자하(蘇子河) 연안에 있던 제2현도군을 혼하(渾河) 연안으로 몰아내며 요동 동부 산간지대를 석권했다. 4세기 전반에는 혼하 연안까지 진출해 신성(新城: 撫順 高爾山城)을 축조하여 요동평원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5세기 초에는 요동평원 일대를 장악했다.

고구려 발흥지인 압록강 중상류에서 요동평원에 이르는 구간에는 고구려 성곽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한다. 다만 고구려가 요동평원 진출을 이룩한 직후인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으므로 요동평원 일대의 성곽은 국내성기보다 평양성기의 군사방어체계와 연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요동평원을 제외하면 요동에서 국내성에 이르는 성곽은 대략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외, 1964; 遲勇, 1993; 여호규, 1998b; 양시은, 2013; 2016).<sup>1</sup>

첫째 그룹은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집안분지) 외곽의 노령산맥에 위치한 산성이나 관애인데, 교통로에 따라 5개 소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그림3 참조).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대라권구하(大羅圈溝河) 유역의 이도구문관애·석호관애, 청하(淸河: 葦沙河) 유역의 관마장관애·대천

1 상세한 논의와 각 성곽에 대한 전거는 여호규, 1998a·1998b·1999b 및 여호규 외, 2020a·2020b·2021a·2021b·2022b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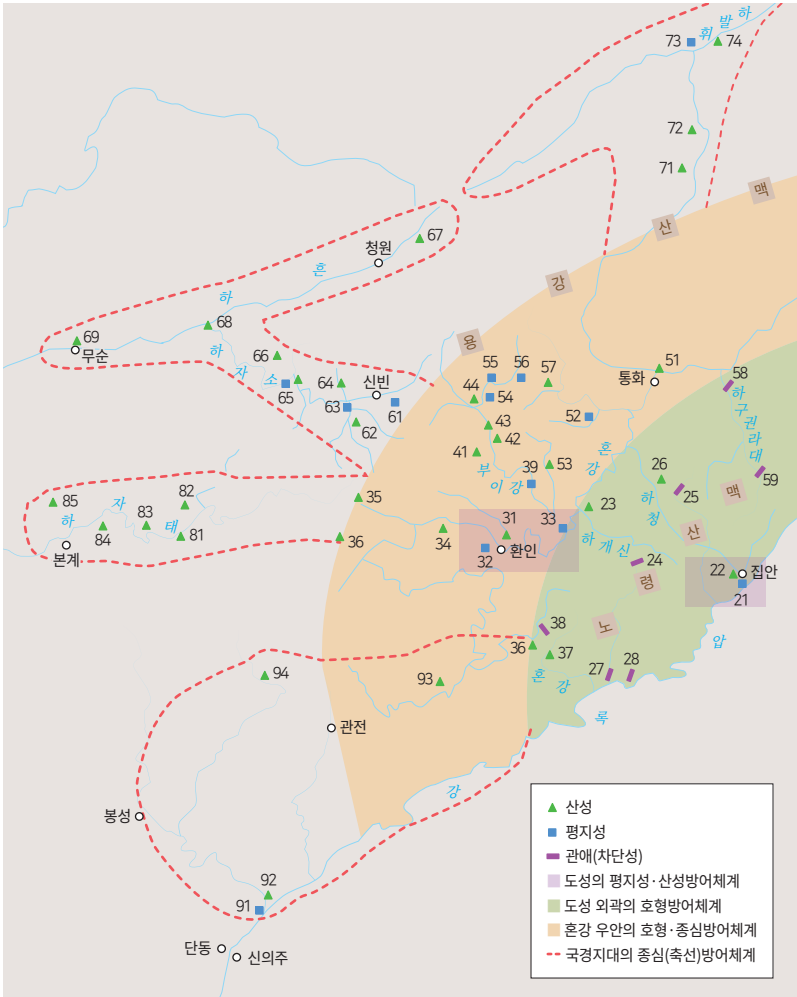


그림3 국내성기의 고구려 군사방어체계(여호규, 1998a)

21. 集安 國內城 22. 集安 山城子山城 23. 集安 霸王朝山城 24. 集安 望波嶺關隘
25. 集安 關馬牆關隘 26. 集安 大川哨所 27. 集安 七個頂子關隘 28. 集安 老邊牆關隘
31. 桓仁 五女山城 32. 桓仁 下古城子古城 33. 桓仁 喇哈城址 34. 桓仁 馬鞍山城
35. 桓仁 高儉地山城 36. 桓仁 城牆砬子山城 37. 桓仁 瓦房溝山城 38. 桓仁 北溝關隘
39. 桓仁 東古城·西古城 41. 新賓 黑溝山城 42. 新賓 四道溝山城
43. 新賓 轉水湖山城 44. 新賓 孤腳山山城 51. 通化 自安山城 52. 通化 赤柏松古城
53. 通化 建設山城 54. 通化 南台古城 55. 通化 太平溝門古城 56. 通化 依木樹古城
57. 通化 英戈布山城 58. 通化 二道溝門關隘 59. 通化 石湖關隘 61. 新賓 白旗堡古城
62. 新賓 二道河子舊老城 63. 新賓 永陵鎮古城 64. 新賓 頭道砬子山城
65. 新賓 櫃子石山城, 河西村古城 66. 新賓 五龍山城 67. 清原 山城子山城 68. 撫順 鐵背山城
69. 撫順 高爾山城 71. 柳河 羅通山城 72. 輝南 釣魚臺古城 68. 撫順 鐵背山城
73. 輝南 小城子古城 74. 輝南 輝發山古城 81. 新賓 太子城 82. 新賓 杉松山城
83. 本溪 下堡村山城 84. 本溪 有官山城 85. 本溪 邊牛山城 91. 丹東 靉河尖古城
92. 寬甸 虎山山城 93. 寬甸 挂房子村東山山城 94. 寬甸 老孤山山城

초소, 신개하(新開河) 유역의 패왕조산성·망파령관애, 환인 남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의 성장립자산성·와방구산성·북구관애, 압록강변의 칠개정자관애·노변장관애 등이다.

혼강 유역에서 노령산맥을 넘어 집안분지로 향하는 모든 교통로에 산성이나 관애를 축조한 것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패왕조산성, 성장립자산성, 와방구산성은 혼강 연안에서 집안 지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고, 다른 소형 관애나 초소는 집안분지로 향하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석호관애나 관마장관애는 하류 방면에만 참호시설이 있어 혼강 지류를 거슬러 집안분지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구축했음을 잘 보여준다(『通化縣文物志』;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외, 1964).

또한 칠개정자관애와 노변장관애가 위치한 압록강 구간은 사행천(蛇行川)으로 암초가 많아 항해하기에 위험하다. 이에 압록강을 항해하는 배들은 이들 관애가 위치한 양수하(凉水河)나 외차구하(外岔溝河)에 정박한 다음 육로를 이용해 집안분지로 나아갔다(『集安縣文物志』). 노변장관애와 칠개정자관애는 이러한 상륙로를 봉쇄하던 방어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노령산맥 일대의 산성과 관애는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도성 외곽의 방어시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룹은 혼강 우안(右岸)의 성곽인데, 평지성을 제외하면 대략 3개 소그룹으로 묶인다. 먼저 태자하(太子河)나 소자하 유역에서 환인 서부로 진입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고검지산성과 마안산성이다. 다음으로는 소자하 상류에서 부이강(富爾江) 연안을 따라 혼강으로 향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전수호산성, 흑구산성 등이다. 소자하에서 부이강 상류를 거쳐 통화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의 의목수고성, 영과포산성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통화 자안산성은 둘레 2.7km의 대형 석성으로 상기 교통로의 끝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휘발하(輝發河)에서 용강산맥(龍崗山脈)을 넘어 집안분지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산 정상에 위치해 있고, 절벽이나 초벽을 천연성벽으로 삼는 등 축성법도 유사하다. 또한 소자하나 태자하 등에서 혼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신빈 전수호산성에 올라서면 부이강 상류에서 하류로 향하는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고(撫順市博物館·新賓縣文化局, 1991), 환인 고검지산성에 올라서면 태자하·혼강 분수령을 넘어 혼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a).<sup>2</sup> 둘째 그룹은 요동 방면에서 태자하나 소자하 등을 거쳐 혼강 곧 압록강 중류 일대로 진입하던 적군을 방어하던 시설로 파악된다. 노령산맥 일대의 성곽이 도성 외곽의 방어시설이었다면, 이들은 압록강 중류 일대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방어선인 것이다.

셋째 그룹은 요동평원에서 혼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하천 연안에 위치한 성곽으로 4개 소그룹으로 묶인다. 먼저 혼하~소자하 연안의 성곽으로 무순 고이산성과 철배산성, 신빈 오룡산성과 이도하자구노성 등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해 있다. 이는 혼하~소자하 연안로가 요동과 국내성을 잇는 가장 중요한 간선교통로였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다음으

---

2 GIS를 활용한 감시권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의 성곽은 소자하나 태자하 상류에서 혼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김주형, 2022, 110~114쪽).

로 태자성, 하보촌산성 등 태자하 중상류의 산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압록강 하류 방면의 관전 호산산성과 쾌방자촌산성도 하나의 권역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청원 산성자산성과 유하 나통산성 등도 혼하 상류와 휘발하 유역을 거쳐 압록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로상의 성곽으로 묶을 수 있다.

이들은 요동평원에서 여러 하천 연안로를 거쳐 혼강 유역으로 진격하는 적군을 방어하던 군사시설이다. 고구려가 요동평원으로 진출하기 이전에는 이곳이 최전방이었다는 점에서 국경지대의 방어체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고구려가 요동평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들 성곽도 기본적으로는 군사방어성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상기와 같이 요동에서 국내성에 이르는 지역의 성곽은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먼저 요동평원과 혼강 유역 사이의 성곽은 하천 연안로를 따라 줄지어 분포한다는 점에서 종심(縱深, 軸線)방어체계라 할 수 있다. 요동 방면의 적군이 혼강 유역으로 진입하려면 특정한 하천 연안로를 따라 진군해야 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종심(축선)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혼강 우안의 성곽은 각 지류 연안을 따라 종심을 이루며 전체적으로는 호형(弧形)을 띤다. 이는 혼강 유역으로 진입한 적군이 어느 지류를 따라 혼강 본류 방면으로 진격하더라도 모두 방어하기 위한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령산맥 일대의 성곽은 국내성을 중심으로 호형을 이루는데, 도성으로 향하는 모든 교통로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성기의 군사방어체계는 국경지대의 종심방어체계, 혼강

우안의 호형·중심방어체계,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혼강 우안의 호형·중심방어체계는 국경지대의 중심방어체계를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체계로 전환하면서 양자를 결합시키고 있다. 국내성기에는 여러 계통의 성곽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를 구성한 것이다.<sup>3</sup>

## 2) 전쟁 양상의 변화와 군사방어체계의 구축 과정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군사방어성의 성격이 강한 산정식산성이 많이 분포하는 반면, 요동 방면으로 나아가면서 포곡식산성이 점차 증가한다(여호규, 1999a; 양시은, 2016). 이는 4세기 이후 지방제도 정비로 인해 성곽의 거점적 기능이 강화된 결과이다(임기환, 1998). 신빈 오룡산성과 태자성, 무순 고이산성 등이 군사방어성과 함께 거점성의 기능을 겸비한 대표적인 산성이다. 이로 보아 거점성의 기능이 강한 이들 성곽은 대체로 4세기 이후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국내성기의 군사방어체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1~4세기의 전쟁 양상은 군사방어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전투지역의 경우, 1~2세기에는 고구려나 후한 모두 상대방의 정치적 중심지로 바로 진공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전

---

3 홍باط음·강동석, 2021에서는 GIS를 활용해 철령 최진보산성, 무순 고이산성과 철배산성을 최전방 1차 방어선, 이도하자구노성(비아랍성) 등 소자하 연안의 성곽을 2차 방어선, 오녀산성 등 혼강 유역의 성곽을 3차 방어선, 노령산맥 북사면의 관애를 4차 방어선으로 분류했다. 1·2차 방어선이 국경지대의 중심방어체계에 해당한다면, 3차 방어선은 혼강 우안의 호형·중심방어체계, 4차 방어선은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선에 각각 상응한다.

투하는 양상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반면 3세기에는 고구려가 조위의 관구검 군대를 비류수(沸流水: 혼강)나 양맥(梁貊: 태자하 상류)에서 방어한 데서 보듯이 전투지역이 국경과 도성의 중간지대로 변모했다. 그러다가 4세기 전연과의 전쟁에서는 혼하 연안의 신성이나 소자하 연안의 남소성·목저성 등 국경지대의 성곽이 주요 전장으로 등장한다.

전투 장소와 함께 고구려가 동원한 병력 규모도 변화했다. 가령 고구려가 1~2세기에는 불과 5,000~1만 명 전후를 동원했지만, 3세기 중엽에는 2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4세기에는 5만 명을 상회하게 된다. 이로 보아 국내성기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는 단계적으로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고 운영하던 병력동원체계도 함께 변화했다고 여겨진다(여호규, 1998c: 2007).

앞서 서술했듯이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1~2세기에는 적군이 곧바로 도성까지 진격하거나, 고구려군도 주로 험준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적군을 물리쳤다. 고구려가 1~2세기에는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중간지대에 별다른 방어시설을 구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1~2세기만 하더라도 도성의 군사방어성에서 농성하는 수성전(守城戰)이 주요 전술로 채택되었고, 3세기 전반에는 외침의 위협이 상존하자 군사방어성을 임시 왕성으로 삼았다.<sup>4</sup>

---

4 이러한 점에서 환인 마안산성이나 고검지산성, 신빈 전수호산성이나 흑구산성 등 혼강 우안의 고구려 성곽은 비록 환인 오녀산성을 중심으로 분포된 것처럼 보이지만(양시은, 2016), 줄분시기가 아니라 국내성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여호규, 1998a·1998b). 실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기형 성돌로 쌓은 오녀산성의 석축 성벽도 고구려 중기 초에 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양시은, 2020).

1~2세기에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르 하는 도성방어체계 외에 다른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병력 동원 체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고구려는 계루부 왕실이 자치권을 보유한 여러 나부(那部)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는데, 전쟁도 각 나부의 전사단(戰士團)을 동원해 수행했다. 이로 인해 상시 운용하는 병력 규모는 시위대나 종자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인공방어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상시 운용하기가 힘들었다.

3세기 이후 전사 중심의 병력 동원방식은 점차 공민(公民)을 징발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병력 동원 규모도 2~4배 증가했다. 더욱이 3세기 전반에는 공손씨와 조위의 잇따른 침공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이 감돌았다. 이에 고구려는 도성 외곽인 노령산맥과 혼강 우안 일대에 본격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동천왕이 비류수·양맥에서 조위의 관구검 군대와 격전을 치른 것에서 보듯이 방어전술도 국경과 도성의 중간지대에서 적군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3세기 말 이후에는 정복지역에도 성곽을 축조해 민정과 군정을 아우르는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제도와 방어체계를 정비했다(여호규, 1995; 김현숙, 2005). 혼하~소자하 연안로나 태자하 중상류 등 국경지대의 성곽은 대체로 이 무렵부터 축조되었다(임기환, 1998). 이로써 국경지대의 성곽을 거점으로 삼아 적군을 방어했는데, 4세기 전반 신성(新城: 고이산성), 남소성(南蘇城: 칠배산성), 목저성(木底城: 목기진 일대) 등에서 전연과 격전을 벌인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국경지대의 중심방어체계는 4세기 전반부터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도성에 이르는 입체적 군사방어체계가 완비되었다(여호규, 1998b).

이러한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는 대규모 상비병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342년 전연과의 전쟁에 5만 명을 상회하는 대군을 동원했다. 4세기 중반에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를 징발하는 징병제가 확립되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할 정도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는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정복지역의 백성까지 고구려민으로 편입한 결과이다.

이처럼 국내성기의 군사방어체계는 평상시 거점·산성의 도성방어체계,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선, 혼강 우안의 호형·종심방어체계, 국경지대의 종심방어체계 등 여러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일시에 확립된 것이 아니라 각 시기별 병력동원체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구축되었다. 특히 4세기 전반에는 지방제도의 정비로 정복지역의 백성까지 고구려민으로 편입하여 병력을 대규모로 징병하는 군사동원체계를 갖추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경지대에서 도성에 이르는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를 완비할 수 있었다.

### 3. 평양 천도와 군사방어체계의 재구축

#### 1) 평양 천도와 도성방어체계의 재구축

고구려는 광개토왕 시기의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요동평원을 장악해 중원 왕조를 축출했다. 그런데 당시 수도였던 국내성은 산간에 위치해 광활한 판도를 경영하

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했다. 더욱이 북위가 북중국을 석권하고 동방 진출을 노리고 있었는데, 국내성은 두 차례나 함락된 적이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광활한 영토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북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427년).

435년(장수왕 23)에 고구려 평양성을 방문한 북위 사신 이오(李敖)에 따르면, “(도성은) 요동의 남쪽 1,000여 리에 위치했고, (영토는) 동쪽으로 책성(柵城), 남쪽으로 작은 바다(小海), 북쪽으로 옛 부여(舊夫餘)에 이르렀는데, 인구는 조위시기의 3배였고, 그 땅은 동서 2,000리, 남북 1,000리에 달했다”고 한다(『위서』 권100 고구려전). 이 가운데 책성은 두만강 하류의 혼춘(琿春), 옛 부여는 북류 송화강의 길림(吉林) 지역으로 비정된다. 고구려가 5세기 전반에 요동평원뿐 아니라 북쪽으로 북류 송화강, 동쪽으로 두만강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5세기 후반에 들어와 고구려는 북위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한 다음,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 한강 유역을 석권했고, 481년에는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도성 북방까지 진격했다. 479년에는 유연(柔然)과 함께 대흥안령산맥 일대의 지두우(地豆于) 분할을 도모하는 한편, 494년에는 이통하(伊通河) 유역의 농안(農安) 일대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후부여의 투항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한반도 중북부에서 만주 중남부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확보했다.

5세기 이후 고구려가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평양을 새로운 도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평양 도성을 중심으로 군사방어체계를 재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고구려 영역은 크게 중심부인 평양과 서북한 일대, 압록강 유역, 요동평원-반도, 북류 송화강 유역, 두만강 유역과 동해안 방면, 한반도 중부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박경

철, 1989; 여호규, 2020a; 신광철, 2022), 각 권역의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했을 것이다.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에도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체계를 구축했는데, “도성은 평양성인데 … 성안에는 오직 양식과 무기만 비축했다가 적군이 침입하면 곧바로 들어가 지켰다. 왕은 별도로 그 곁에 궁실을 마련했으며, 평상시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서(周書)』 고려전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는 평양 천도 직후에는 현재의 평양시 동북 일대를 도성으로 삼았다. 군사방어성은 대성산성으로 비정되는데, 둘레 7,076m인 포곡식산성으로 장대터, 병영터, 창고터 등이 확인되었다. 170여 개의 연못과 저수지를 조성해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농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남쪽의 대동강, 서쪽의 합장강, 동쪽의 장수천이 천연해자를 이루며, 대동강변의 고방산성과 청호동토성이 방어성을 이루고 있다(『대성산성의 고구려 유적』).

대성산성과 짝을 이룬 평지성에 대해서는 안학궁설과 청암리토성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학궁지는 대성산성 남쪽 평지에 위치해 있는데, 마름모꼴로 둘레 2,488m이다. 5개 건물군 총 21개 건물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궁궐의 전각이나 부속시설로 궁성(宮城)의 성격이 강하다(『대성산성의 고구려 유적』). 다만 안학궁지 아래층에서 고구려 석실봉토분이 발견되었고(전제현·손량구, 1985), 기와도 대부분 고구려 말기나 고려시기로 편년된다는 점에서(千田剛道, 1983) 대성산성과 짝을 이룬 평지성으로 보기 어렵다(關野貞, 1928; 田中俊明, 2004; 박순발, 2012).

청암리토성은 대동강에 면한 구릉을 따라 둥그스름하게 축조했는데, 둘레는 약 5km로 성문터와 구릉 남쪽에서 건물터가 발견되었다(小泉顯夫, 1986; 민덕식, 1989). 일찍부터 일본 학자들은 청암리토성을 평



그림4 | 평양 지역 고구려 유적 분포(『조선유적유물도감』 3)

지 도성으로 추정했는데(關野貞, 1928), 최근 국내 학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박순발, 2012; 여호규, 2014; 양시은, 2016). 다만 청암리토성의 건물터는 절터로 확인되었고, 궁궐이나 관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전기 평양성 단계에서는 대성산성만 조영했다고 보기도 한다(기경량, 2017; 권순홍, 2018). 그렇지만 4세기에 국내성을 축조했던 고구려가 평양 천도 이후 평지도성을 조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양시은, 2021).

6세기 중반 나제연합군이 북상하고 북제가 압력을 가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고구려는 552년부터 현재의 평양 시가지에 장안성을 건설해 586년에 도성을 옮겼다.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수도를 건설한 것이다(田中俊明, 1984). 장안성(현 평양성)은 전체 둘레



그림5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과 군사방어체계

- [암록강-청천강 유역] 1. 백마산성 2. 걸망성 3. 용골산성 4. 동림산성(통주성) 5. 능한산성 6. 니성 7. 농오리산성 8. 철웅성 9. 안주성 29. 관전 호산산성 30. 단동 애하첨고성
- [대동강 유역과 그 주변] 10. 숙천읍성 11. 청룡산성 12. 흘골산성 13. 평양성 14. 대성산성 15. 황룡산성
- [재령강 유역] 16. 황주성 17. 휴류산성 18. 대현산성 19. 고현리성 20. 구월산성 21. 장수산성 22. 신원도시유적
- [황해도 해안과 예성강 유역] 23. 수양산성 24. 태백산성 25. 치악산성 26. 봉세산성 27. 웅진고성 28. 오누이성

23km의 초대형 성곽으로 동·남·서 3면은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모란봉으로 가로막힌 천혜의 요새이다. 각자성석(刻字城石)을 통해 42년의 공사 끝에 완공했음을 알 수 있다(기경량, 2017). 성문터와 장대 등 성곽시설과 함께 궁궐로 추정되는 건물지, 격자형 도로망 등이 확인되었다(최희림, 1967; 1978; 한인호·리호, 1993; 한인호, 1995).

장안성은 복곽식성곽으로 북성과 내성은 산성, 중성과 외성은 평지성인데,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었다는 의미에서 평산성(平山城)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공석구, 1998). 내성은 궁성, 중성은 관아와 귀족의 저택, 외성은 귀족이나 일반민의 거주지, 북성은 별궁이자 방어성으로 추정된다. 장안성은 종래 별개로 조영했던 평지도성과 군사방어성을 하나의 성곽으로 일체화시킨 형태로 고구려 도성방어체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적군이 침입하더라도 평상시 도성의 시설물이나 물자를 온전히 보전한 채 장기간 항전할 수 있게 되었다(채희국, 1985).

고구려는 외부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는 적군을 차단하기 위해 도성 외곽의 방어망도 구축했다. 서북 방면만 차단하면 됐던 국내성과 달리, 평양 도성은 사방에서 침공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평양에서 사방 30~50여 km 떨어진 거리에 환상(環狀)으로 위성방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곽에도 이중 삼중의 방어망을 구축했다.

위성방어체계는 각 방면에서 평양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봉쇄하는 형태로 구축했는데, 서쪽의 황룡산성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군, 서북쪽의 청룡산성은 압록강을 건너 연해를 따라 남진하는 적군, 동북쪽의 흘골산성은 내륙을 통해 남진하는 적군이나 동해안에서 낭림산맥을 넘어 서진하는 적군, 남쪽의 황주성은 재령강 유역을 거쳐 북상

하는 적군 등을 각기 방어했다. 산복식인 황주성을 제외하면 모두 포곡식산성으로 둘레 5~6km에 이르는 대형 산성이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5; 리지린·강인숙, 1976; 서일범, 1999; 이성제, 2011).

위성방어체계 너머로는 외곽방어성을 겹겹이 축조했다. 북쪽에는 청룡산성을 지나 숙천읍성, 안주성 등을 구축했다. 남쪽에는 황주성을 지난 20km 지점에 봉산 휴류산성, 휴류산성 동남쪽에 서흥 대현산성(오곡성)과 평산 태백산성, 서남쪽에 신원 장수산성(한성)과 해주 수양산성 등을 축조했다. 이들 성곽은 대부분 중대형 포곡식산성으로 지방 지배를 위한 거점성의 역할도 수행했다. 394년과 409년에 축조했다는 국남(國南) 7성과 국동(國東) 6성을 이리한 외곽방어성으로 보기도 한다(채희국, 1985; 최창빈, 1990).

## 2) 서북 방면(요하 유역~서북한 일대) 군사방어체계의 구축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 중원 왕조나 유목 제국의 침공에 대비해 요하 유역에서 평양성에 이르는 서북 방면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천산산맥(千山山脈)이나 압록강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이중 삼중의 방어망을 확립했다. 대체로 최전방의 전연방어선(前沿防禦線), 요동~압록강의 제1선 중심방어체계, 압록강~청천강의 제2선 중심방어체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창수, 1990; 남일룡, 1995; 여호규, 1999b; 양시은, 2016).

최전방의 전연방어선은 요하를 건넌 적군을 막기 위한 방어벽이었다. 이 방어선의 성곽은 대부분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으로 나아가는 진입로 입구에 위치해 있고, 산줄기에서 하곡평지로 돌출한 산에 위

치한 포곡식산성이 많다. 산간지형에 익숙한 고구려인들이 요동평원 진출 이후에도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대평원보다 지류 연안의 하곡평지를 더 중시한 것이다. 다만 요하를 건너는 적군을 저지하기 위해 무려라(武勵邏) 등의 성보를 요하 연안에 축조하고(이정빈, 2011; 2018; 이성제, 2013b), 말기에는 송료대평원<sup>5</sup>을 가로질러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했다(여호규, 2000).

전연방어선은 대흑산맥 서남단에서 천산산맥 서남단에 이르는 구간의 모든 지류 진입로를 봉쇄하며 거대한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산성으로 연결된 방어선이라는 뜻에서 ‘산성연방선(山城聯防線)’이라 부르기도 한다(陳大爲, 1989). 이 가운데 대흑산맥~길림합달령산맥 구간은 구 도성인 국내성으로 진격하는 적군, 그리고 거란 등 서북방 족속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구간의 성곽 가운데 상당수는 평양 천도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여호규, 1999a; 양시은, 2016; 홍밝음·강동석, 2021).

이에 비해 길림합달령산맥~천산산맥 구간의 성곽은 요하를 건너 적군이 요동평원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7세기 전반 수나 당이 침공했을 때 등장하는 개모성(심양 탑산산성),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해성 영성자산성), 건안성(개주 고려성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천산산맥을 넘어 압록강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전연방어선인 동시에 요동평원~압록강 중심방어선의 출발점을 이룬다.

5 송료대평원은 중국 동북평원, 요동대평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송화강(松花江) 유역에서 요하(遼河) 하구에 이르는 대평원이라는 뜻에서 ‘송료대평원(松遼大平原)’으로 부르고자 한다.

요동~압록강 구간의 제1선 중심방어체계는 천산산맥 횡단로를 따라 세 경로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본계~봉성로 중심방어선은 탐산산성이나 요동성에서 출발해 본계에서 합류한 다음 천산산맥을 넘어 애하 골짜기를 따라 봉황산성(오골성)에 이르는 구간, 중간해성~수암로는 영성자산성을 출발해 낭랑산성에 이르는 구간, 서쪽의 개주~장하로는 고려성산성을 출발해 벽류하 골짜기를 따라 성산산성에 이르는 구간에 각기 구축되어 있다.

각 경로는 천산산맥을 넘은 다음 요동반도 남쪽 해안을 따라가다가 압록강 하류에서 합쳐진다. 이에 요동반도 서남단의 대흑산성(비사성)을 중심으로 해안방어체계를 구축해 발해만을 건너온 수군(水軍)을 방어하는 한편, 제1선 중심방어체계를 보완했다. 제1선 중심방어체계가 합쳐지는 압록강 하류는 그 자체가 거대한 방어벽인데, “강폭이 300보에 이르러 고구려인들이 천혜의 해자(天塹)로 믿었다”는 『한원(翰苑)』 고려전의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압록강 하류에서 평양성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연해와 내륙 두 경로가 있다. 이에 고구려는 두 경로를 따라 제2선 중심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연해의 중심방어선은 압록강 대안의 백마산성을 출발해 용골산성·동림산성·능한산성 등을 거쳐 청천강 하류의 안주성에 이르러 도성의 외곽방어선과 연결된다. 내륙의 중심방어선은 니성·농오리산성·철웅성 등을 거쳐 안주성으로 연결되거나 계속 내륙로를 따라 청룡산성·흘골산성으로 이어지며 도성의 위성방어체계로 전환된다.<sup>6</sup>

---

6 서북 방면 방어체계의 구성과 운용 양상에 대해서는 이 책 8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겠다.

### 3) 한반도 중남부 방면 방어체계의 구축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중남부 방면에도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전술한 황해도 일대의 성곽은 평양성의 외곽방어성이면서 남진을 위한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실제 대현산성·태백산성은 평양에서 서울로 나아가는 간선도로, 장수산성·수양산성은 멸악산맥을 넘어 해주만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다. 또 황해도 해안에는 풍천성, 오누이산성, 웅천성 등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 해안방어체계를 구축했다(김경찬, 1992; 1993; 1996; 신형식 외, 2000).

고구려는 이러한 방어체계를 바탕으로 남진을 추진했다. 5세기 초에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까지 진격한 다음,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석권했다. 481년에는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도성까지 압박했다. 고구려는 이때부터 6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중부지역을 지배했고, 나제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에도 임진강 일대를 계속 장악했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중부지역에도 방어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중대형 산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로 소형 보루(堡壘)가 조사되었는데,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임진강 유역, 양주분지,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대 등에 밀집 분포한다(최종택, 1999; 2013; 심광주, 2001; 2008; 백종오, 2006; 2014; 양시은, 2010b; 윤성호, 2019). 이에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해서는 전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전략적 거점만 장악했다고 보기도 한다(심광주, 2001; 서영일, 2002; 안신원, 2010; 신광철, 2011a; 2011b; 이정범, 2015).

고구려 보루의 분포양상만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475년 이

후 상당 기간 임진강~아차산 일대가 최전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 백제를 차령산맥 남쪽으로 밀어내는 한편, 481년에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도성까지 압박했다. 고구려가 백제와는 차령산맥, 신라와는 소백산맥 일대에서 대치한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을 자연방어벽으로 삼는 한편, 백제와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된 아산만과 미호강 일대에 안성 도기동산성(김진영, 2017), 청원 남성골산성(차용걸 외, 2004) 등 성곽을 비교적 조밀하게 축조하여 군사 방어를 도모했다(여호규, 2022a).

이때 고구려는 주로 중전의 백제 성곽을 재활용했는데, 서북 방면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중부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도 한강변에 남평양이나 국원성 등 평지거점을 구축해 한강 수로를 통해 각종 물자를 집하(集荷)한 다음, 해주만과 재령강 상류의 한성 별도(別都)를 경유해 평양 도성으로 운송했다. 고구려가 서북 방면과 달리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임진강~한강 유역에 소형 보루를 축조한 것은 이와 연관된다(여호규, 2020b).

그런데 551년에 나제연합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함에 따라 상황이 급변했다. 이때 백제는 한강 남쪽의 옛 도성을 수복한 다음, 북안의 남평양을 공략했다. 아차산 일대가 순식간에 최전방으로 탈바꿈한 것인데(채희국, 1985; 최창빈, 1990), 구의동보루가 통째로 불타고 대부분의 보루에 유물이 다량 남은 것에서 보듯이 고구려군은 황급히 퇴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고구려군은 양주분지를 둘러싼 천보산맥을 방어벽으로 삼아 백제·신라의 북상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양주분지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를 공제하는 형태로 보루를 축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630년대부터 임진강을 경계로 신라와 각축전을 벌임에 따라 임진강 북안에 더욱 촘촘히 보루를 배치했을 것이다. 임진강 연안의 보루가 최전방 방어선으로 바뀐 것이다(신광철, 2022). 이처럼 임진강~한강 북안의 보루는 고구려의 영역 변동과 함께 성격이 변화했다.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점령했을 때는 남진을 위한 전초 기지나 중간기지 역할을 수행했지만,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퇴각할 때는 최전방 방어선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보루의 배치나 운용 양상도 변화했을 텐데, 향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7</sup>

#### 4) 동북 방면(두만강~송화강 유역)의 방어체계

고구려는 국가체제를 확립한 다음 주변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함경도 동해안과 두만강 방면으로 진출했다. 고구려는 압록강 상류 연안과 함경북도 해안을 따라 두만강 방면의 북옥저로 진출한 다음, 1세기 중 후반에 후한의 유화책을 틈타 개마고원을 넘어 함흥평야의 동옥저를 점령했다. 244~245년 조위가 침공했을 때, 동천왕이 동옥저를 거쳐 북옥저까지 피신한 데서 보듯이 고구려는 이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다만 3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토착세력을 매개로 간접지배를 시행했기 때문에 방어체계도 본격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고구려는 3세기 후반부터 함경도 해안의 교통로를 활용해 지방통치

---

7 한반도 중남부 방면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이 책 9장에서 상세히 고찰하겠다.

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광개토왕릉비> 수묘인연호조에는 매구 여민(賣句余民: 북옥저의 중심인 璿春 일대), 동해고(東海賈: 청진 일대), 둔성(敦城: ‘東北 新城’으로 길주 일대), 우성(于城: 동옥저 중심인 함흥 일대), 비리성(碑利城: 동예의 중심인 안변 일대)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했는데, 함경도 해안지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영하, 1985; 임기환, 1987; 여호규, 2008). 함경도 지역에서는 청진 부거석성과 단천 가음산성을 비롯해 10여 개 전후의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었는데(양시은, 2016, 274~275쪽 도표 참조),<sup>8</sup>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로 지방지배를 위한 거점성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두만강 유역에서도 확인된다.<sup>9</sup> 이곳에서는 고구려시기 축조설이 제기된 성곽이 총 43기에 이르는데, 모두 고구려 성곽으로 보기는 어렵다(정영진, 1999). 고구려 멸망 직전에 책성옥살(櫛薩: 都督)을 역임한 이타인(李他仁)이 “12주(州) 고려(高麗)를 관장하고, 37부

8 채희국, 1985, 146쪽 도표에는 2개, 지승철, 2005, 250~251쪽 도표에는 함경북도 5개, 함경남도(북한의 강원도로 편성된 문천, 안변 포함) 20개 등 총 25개가 확인된다고 한다.

9 두만강 유역 가운데 하류의 혼춘분지는 북옥저의 중심지로 고구려가 1세기경에 진출했고, 5세기에는 책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포이합통하 유역으로 진출한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고구려가 백두산 북쪽 경로를 거쳐 포이합통하 유역으로 진입했다거나(이성제, 2009), 도문 성자산산성을 3세기 후반의 동북 대진인 신성(新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임기환, 2012). 고구려가 일찍부터 포이합통하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이곳을 경유해 두만강 하류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헌 사료나 능비에는 동해안 방면의 신성(敦城)이나 해곡(海谷: 東海賈)을 경유해 두만강 유역으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된다. 함경도 해안을 경유하는 경로가 국내성과 두만강 유역을 잇는 간선교통로였던 것이다(여호규, 2008). 이에 포이합통하 유역 일대를 광개토왕이 410년(영락 20년)에 정벌했다는 동부여로 비정하기도 한다(김현숙, 2000). 혼춘분지 일대와 포이합통하 유역이 지형상 별도의 권역을 이룬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견해이지만, 명확한 논거가 제시된 상태는 아니다. 고구려의 포이합통하 유역 진출 시기는 향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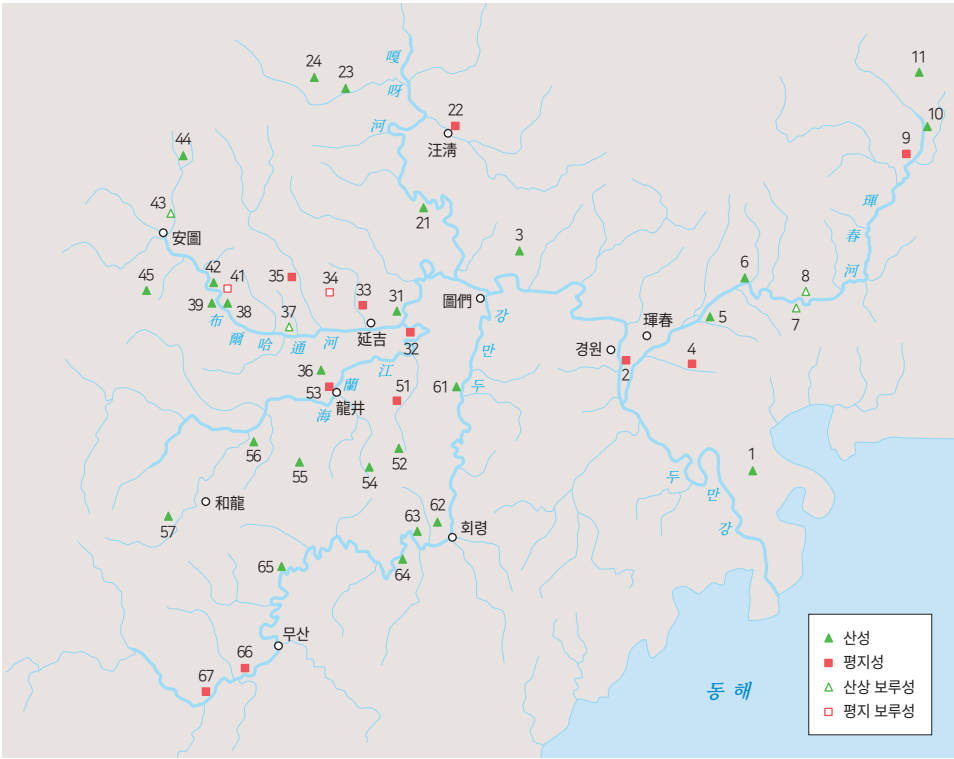


그림6 두만강 유역의 지형과 고구려 성곽 분포도(여호규, 2017)

[두만강 하류-琿春河 유역] 1. 琿春 水流蜂山城 2. 溫特赫部城 3. 圖們 亭巖山城

4. 琿春 石頭河子古城 5. 薩其城 6. 干溝子山城 7. 桃源洞南山城 8. 農坪山城

9. 營城子古城 10. 城牆砬子山城 11. 通肯山城

[嘎呀河 유역] 21. 圖們 滿臺城山城 22. 汪清 河北古城[江北古城] 23. 廣興山城

24. 東四方臺山城

[布爾哈通河 유역] 31. 圖們 城子山山城[磨盤村山城] 32. 延吉 河龍古城[土城村古城]

33. 興安古城 34. 臺巖古城 35. 龍井 土城屯古城 36. 三山洞山城 37. 偏臉山城

38. 白石砬子山城 39. 城子溝山城 41. 安圖 榆樹川古城 42. 五虎山城 43. 大砬子山城

44. 五峰山城 45. 城門山城

[海蘭江 유역] 51. 龍井 仲坪古城 52. 金谷山城 53. 東興古城 54. 養參峰山城

55. 和龍 楊木頂子山城 56. 八家子山城 57. 松月山城

[두만강 분류 중상류] 61. 龍井 船口山城 62. 清水山城 63. 朝東山城 64. 회령 운두산성

65. 和龍 三層嶺山城 66. 土城里古城 67. 古城里古城

(部) 말갈(靺鞨)을 통할했다”는 <이타인묘지명>을 참조하면, 고구려 말갈에 두만강 유역에는 치소성(治所城)이 12개 존재했고, 그 외곽에 말갈이 산재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고고자료를 재검토하면 고구려 기와가 출토된 성곽 9기 가운데 치소성 5기, 고구려 성곽인지 논란 중인 산성 가운데 치소성 8~9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치소성의 형태나 분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다. 평야가 넓게 펼쳐진 혼춘분지(春春盆地)나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해란강(海蘭江) 평원 일대에는 평지성을 조밀하게 축조한 반면, 그 주변의 구릉이나 산간지대에는 이들 지역을 에워싸는 형태로 포곡식산성을 축조했다. 반면 가장 외곽인 혼춘하(琿春河)나 알하하(嘎呀河) 중상류에는 치소성을 축조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평야가 넓게 발달한 두만강 유역 중심부에는 평지성을 조밀하게 축조하여 지방통치의 중핵지역으로 삼은 반면, 그 주변의 교통로나 하곡평지에는 중대형 산성을 축조해 지방통치와 더불어 말갈에 대한 통제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말갈의 집단거주구역으로 추정되는 혼춘하나 알하하 중상류 유역에는 치소성을 축조하지 않고 산성을 축조해 말갈을 통제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고구려는 두만강 유역을 중심부의 중핵지역과 주변부, 말갈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여호규, 2017).<sup>10</sup>

10 두만강 유역에는 연길(延吉)평원의 동·북·서 3면을 감싼 연변장성이 100km 이상 뻗어 있는데, 일찍부터 고구려가 읍루나 말갈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延邊博物館, 1988; 정영진, 1990; 김현숙, 2000; 방학봉, 2002; 지승철, 2005). 이에 대해 장성이 연길을 바라보는 안쪽 사면에 축조되어 마치 연길평원을 포위하는 형국이므로 고구려가 축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성재, 2009; 양시은, 2012). 금(金)이나 동하국(東夏國)이 축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李健才, 1987; 徐學毅, 1986).

한편 고구려는 북류 송화강 방면으로도 비교적 일찍 진출했다. 북류 송화강 유역은 크게 상류인 휘발하 유역과 북류 송화강 본류 연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휘발하 유역은 고구려 초기 중심부에서 송화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늦어도 4세기 전반 부여의 중심지를 점령할 무렵에는 이곳으로 진출했다고 추정된다. 휘발하 유역에서는 고구려 성으로 거론되는 성곽이 총 12기 확인되는데, 모두 산성이나 보루성, 차단성이며, 평지성은 확인된 바 없다. 송화강 중하류나 두만강 유역에서 평지성이 다수 확인되는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로 보아 고구려가 휘발하 일대에는 유하 나통산성(羅通山城)을 중심으로 각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류 송화강 중류의 길림시 일대는 원부여의 중심지였는데, 고구려가 4세기 전반에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고 추정된다(여호규, 1995). 길림 지역은 저산-구릉지대와 충적평원의 경계지대로 동남쪽으로는 구릉성산지가 펼쳐지고 서북방으로는 광활한 충적평원이 이어진다. 이에 고구려는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길림 등 중류 일대를 가장 중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북류 송화강 중류의 길림시와 교하시 일대에는 총 13기의 고구려 성곽이 밀집하여 분포한다. 특히 원부여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길림시 동쪽 일대에는 용담산성, 동단산성, 남성자고성 등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단산성과 평지성인 남성자고성은 원부여의 도성으로 비정되는데, 고구려가 계속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종수, 2015).

길림 서북방의 농안~덕혜 일대는 연강수량 500~600mm로 전업농업의 서쪽 한계선이다. 이 지역에서는 천리장성 유적으로 추정되는 노



변강유적을 제외하면 고구려 성곽이 발견된 바 없다. 다만 농안 서남쪽 일대는 후부여의 중심지로 고구려 후기 부여성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안 일대는 농경지구에서 초원-사막지구로 전환되는 접이지대인데, 고구려가 서북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목민이나 말갈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부여성을 축조했다고 추정된다. 농안 일대의 후기 부여성은 서북 방면 방어체계 가운데 가장 동북단의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가 7세기 전반에 부여성에서 송료대평원을 가로질러 요하 하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점점이 산재한 서북 방면 방어체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완성하려는 국방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여호규, 2020a).

북류 송화강과 두만강 유역 사이의 목단강은 서남에서 동북 방향으로 흘러 동류 송화강에 유입한다. 목단강 유역은 북류 송화강과는 장광채령산맥, 두만강과는 노아령산맥(老爺嶺山脈)이 분수령을 이룬다. 목단강 유역은 분수령 사이에 위치해 일찍부터 별도 문화권을 이루었는데, 대체로 읍루계 주민집단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분수령에는 차별침식에 따른 협곡이 발달하여 북류 송화강에서 목단강을 경유해 두만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발달해 있다. 지금도 장춘~연길의 간선교통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고구려도 이를 활용했을 것이다.

목단강 유역에서는 상류의 돈화 지역에서만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었다. 돈화 지역은 목단강 하류 방면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북류 송화강과 두만강 유역을 잇는 가교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목단강 하류 방면의 읍루계 주민집단(읍루-물길-말갈)을 통제하거나 이들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 북류 송화강 방면과 두만강 방면을 모두 장악한 다음, 돈화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두 지역을 연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헌사료나 고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고구려가 언제 이 지역에 진출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여호규, 2020a).

## 참고문헌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 강좌, 1973, 『대성산성의 고구려 유적』,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남일룡, 1995,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노태돈, 1999a,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리지린·강인숙, 1976, 『고구려력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박진욱, 1991, 『조선고고학전서: 중세편 1(고구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방학봉, 2002, 『발해성곽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5,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논장 복각판, 1988).
- \_\_\_\_\_, 1979, 『조선전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_\_\_\_\_, 1991, 『조선전사(3): 중세편(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서길수, 1994, 『고구려 성』, 한국방송공사.
- \_\_\_\_\_, 2009, 『고구려 축성법 연구』, 학연문화사.
- 손영중, 1997,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신형식 외, 2000,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계』, 백산자료원.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1998a, 『高句麗 城 I(鴨綠江 中上流 篇)』,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1999a, 『高句麗 城 II(遼河 流域 篇)』, 국방군사연구소.
-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중은·이경미·정동민 엮음, 2020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 요동반도 - 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0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0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0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X: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1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 압록강 중상류 1(환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1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 압록강 중상류 2(집안-신빈)』,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2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I: 압록강 중상류 3(통화-백산·임강-장백)』,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2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V: 통구분지 1(우산하·하해방·만보정·칠성산고분군)』,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2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 통구분지 2(마선구·산성하고분군-벽화고분)』,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엮음, 2022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 통구분지 3(성곽-기타유적-유물)』,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제 편, 2006, 『高句麗城 사진자료집(中國 遼寧城·吉林省 西部)』,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0, 『高句麗城 사진자료집(中國 吉林省 東部)』, 동북아역사재단.
- 이정빈, 2018, 『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 전제현·손량구, 1985, 『안학궁유적과 일본에 있는 고구려관계 유적유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정동민, 2022, 『고구려-수 전쟁』, 신서원.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3, 외국문종합출판사.
- 지승철, 2005, 『고구려의 성곽』, 사회과학출판사.

- 차용걸 외, 2004,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충북대학교박물관.
- 채희국, 1985, 『고구려력사연구 - 고구려 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최종택, 2013, 『아차산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 최희립,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한인호, 1995, 『조선 중세 건축유적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 공석구, 1998, 「高句麗 城郭의 類型에 대한 研究」, 『한국상고사학보』 29.
- 권순홍, 2018,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기경량, 2017, 「高句麗 王都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삼, 1998, 「고구려 초기의 수도 형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2.
- 김경찬, 1992, 「황해남도 지방의 해안방어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4.
- \_\_\_\_\_, 1993, 「구월산 일대의 지역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3-4.
- \_\_\_\_\_, 1996, 「황해남북도 지방의 중심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6-2.
- 김영하, 1985, 「고구려의 순수제」, 『역사학보』 106.
- 김주형, 2022, 「고구려 후기 요동지역 고구려 성의 위계와 방어체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17,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고구려발해연구』 58.
- 김현숙, 2000,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 支配」, 『國史館論叢』 88.
- \_\_\_\_\_, 2017, 「고구려 초기 王城의 위치와 國內 遷都」, 『先史와 古代』 54.
- 노태돈, 1996, 「5~7세기 고구려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
- \_\_\_\_\_, 1999b,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한국고대사연구』 68.
- 민덕식, 1989, 「고구려의 후기 도성」, 『한국사론』 19, 국사편찬위원회.

- 박경철, 1989, 「고구려 군사전략 고찰을 위한 일시론 -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 군사 전략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 박순발, 2012, 「고구려의 都城과 墓域」, 『한국고대사탐구』 12.
- 박중서, 2022, 「고구려 남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창수, 1988a, 「고구려 서북방 성방어체계의 위력」, 『조선고고연구』 1988-3.
- \_\_\_\_\_, 1988b, 「평양천도 이전 시기 고구려성들의 분포」, 『조선고고연구』 1988-4.
- \_\_\_\_\_, 1990, 「고구려의 성 분포와 서북방어체계」, 『역사과학논문집』 15.
- 백중오,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_\_\_\_\_, 2006,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체계」, 『선사와 고대』 26.
- 서영일,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문화사학』 17.
- 서일범, 1999, 「북한 경내의 고구려 성의 분포와 연구현황」,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8.
- 신광철, 2011a,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한국상고사학보』 47.
- \_\_\_\_\_, 2011b,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 35.
- \_\_\_\_\_, 2022, 「관방체계를 통해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광주, 2001, 「남한지역의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12.
- \_\_\_\_\_, 2005a, 「고구려와 백제의 성곽문화」,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20.
- \_\_\_\_\_, 2005b,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성곽연구」,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8, 「고구려의 관방체계와 경기지역의 고구려 성곽」, 『경기도 고구려 유적』, 경기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구려발해연구』 36.
- 양시은, 2010a,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 \_\_\_\_\_, 2010b,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 \_\_\_\_\_, 2012,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38.
- \_\_\_\_\_, 2013, 「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 『영남학』 24.

- \_\_\_\_\_, 2014a, 「고구려 성의 방어체계 변천양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84.
- \_\_\_\_\_, 2014b,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 \_\_\_\_\_,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 \_\_\_\_\_, 2021, 「고구려 도성제 재고」, 『한국상고사학보』 112.
- 여호규, 1998b,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한국군사사연구』 1.
- \_\_\_\_\_, 1998c, 「고구려 초기의 병력동원체계」, 『군사』 36.
- \_\_\_\_\_, 1999b,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體系와 軍事戰略」, 『한국군사사연구』 3.
- \_\_\_\_\_,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
- \_\_\_\_\_, 2005, 「고구려 국내 천도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 \_\_\_\_\_, 2007, 「고구려 초기 대중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5.
- \_\_\_\_\_, 2008, 「압록강 중상류 동안지역의 고구려 성곽과 동해로」, 『역사문화연구』 29.
- \_\_\_\_\_, 2012,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한국고대사연구』 66.
- \_\_\_\_\_, 2014, 「고구려 도성의 구조와 경관의 변화」,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 진인진.
- \_\_\_\_\_, 2017, 「두만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현황과 지방통치의 양상」, 『역사문화연구』 61.
- \_\_\_\_\_, 2019,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고구려발해연구』 65.
- \_\_\_\_\_, 2020a, 「고구려의 자연지리와 환경」,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고구려통사 1),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b,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 \_\_\_\_\_, 2022a, 「고구려의 중원지역 지배양상과 그 영향」, 『융합의 공간, 중원과 고구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윤성호, 2019,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성과와 과제」, 『군사』 110.
- 이경미, 2017b, 「압록강-요하 유역 고구려 성곽과 지방통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제, 2009, 「고구려와 발해의 성곽 운영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

- \_\_\_\_\_, 2011, 「龍岡 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 고구려 후기 王都방어체계의 一例 -」, 『고구려발해연구』 41.
- \_\_\_\_\_, 2013a, 「고구려 서변의 방어체계와 천리장성」, 『광개토왕과 고구려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영남문화연구원.
- \_\_\_\_\_, 2013b,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遷」, 『대구사학』 113.
- \_\_\_\_\_, 2016, 「최근 조사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 - 이해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 이정범, 2010,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고구려발해연구』 37.
- \_\_\_\_\_,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 \_\_\_\_\_, 2021,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빈, 2011,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변경지대와 그 변화 - 요서 지역의 라와 수의 진·수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2.
- 이종수, 2015, 「부여 성곽의 고구려 연용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43.
- 임기환, 1987,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體制」, 『경희사학』 14.
- \_\_\_\_\_, 1998, 「高句麗 前期 山城 研究」, 『국사관논총』 82.
- \_\_\_\_\_,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동북아역사논총』 38.
- \_\_\_\_\_, 2018, 「고구려 國內 遷都 시기 재론」, 『사학연구』 132.
- 정영진, 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한국상고사학보』 4.
- \_\_\_\_\_, 1999, 「延邊地域의 城郭에 대한 연구」,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8.
- 차용걸, 1993, 「고구려전기의 도성」, 『국사관논총』 48.
- 최종택, 1999, 「경기 북부지역의 고구려의 방어체계」,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8.
- 최창빈, 1990, 「4세기말~5세기초 고구려의 국남7성과 국동6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3.
- 최희립, 1967, 「평양성을 쌓은 연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 한인호·리호, 1993,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 도시 리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조선고고연구』1993-1.
- 홍باط음·강동석, 2021, 「GIS를 활용한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 검토: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를 중심으로」, 『문화재』 54-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文物出版社.
- \_\_\_\_\_, 2004b,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4, 『集安縣文物志』.
- \_\_\_\_\_, 1986, 『通化縣文物志』.
- 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第二卷), 黑龍江人民出版社.
- 延邊博物館, 1988,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王禹浪·王宏北, 1994,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 哈爾濱出版社.
- \_\_\_\_\_, 2007,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 哈爾濱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 \_\_\_\_\_,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b, 『高句麗千里長城』, 吉林人民出版社.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5, 「2011年集安市建疆遺址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17.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a, 「集安國內城東南城垣考古清理收穫」, 『邊疆考古研究』 11.
- \_\_\_\_\_, 2012b, 「集安高句麗早期遺存研究新進展-集安建疆遺址考古發掘收穫」, 『東北史地』 2012-4.
-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輯安縣文物管理所, 1964, 「吉林輯安高句麗南道和北道上的關隘和城堡」, 『考古』 1964-2.
- 撫順市博物館·新賓縣文化局, 1991, 「遼寧新賓縣轉水湖山城」, 『北方文物』 1991-1.
- 徐家國·孫力, 1987,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

- 徐學毅, 1986, 「延邊古長城考察報告」, 『東疆學刊』2.
- 辛占山, 1994, 「遼寧境內高句麗城址的考察」, 『遼海文物學刊』1994-2.
- 梁振晶, 1994, 「高句麗千里長城考」, 『遼海文物學刊』1994-2.
- 王建群, 1987, 「高句麗千里長城」, 『博物館研究』1987-3.
- 王綿厚, 1986, 「隋唐遼寧建置述考」, 『東北地方史研究』1986-1.
- , 1994, 「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研究」, 『遼海文物學刊』1994-2.
-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a, 「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嶺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 『東北史地』2012-3.
-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1985-2.
- 李健才, 1991, 「唐代高麗長城和扶餘城」, 『民族研究』1991-4.
- 李殿福, 1998, 「高句麗山城研究」, 『北方文物』1998-4.
-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a, 「高句麗千里長城調查要報」, 『東北史地』2010-3.
- 遲勇, 1993, 「高句麗都城的戰略防禦系統」,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陳大爲, 1985,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 1989, 「遼寧境內的高句麗遺迹」, 『遼海文物學刊』1989-1.
- , 1995, 「遼寧高句麗山城再探」, 『北方文物』1995-3.
-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1984-1.
- 馮永謙, 1994, 「高句麗城址輯要」,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三上次男, 1997,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 關野貞, 1914,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25-11.
- , 1928,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39-1.
- 寺內威太郎, 1994, 「唐の高句麗侵掠と遼東の高句麗山城」, 『青丘學術論集』5.
- 西川宏, 1992, 「中國における高句麗考古學の成果と課題」, 『青丘學術論集』2.
- 小泉顯夫, 1986, 「平壤の遺跡調査」, 『朝鮮古代遺跡の遍歴』, 六興出版.

- 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洲歴史地理』(第一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林直樹, 1994, 「中國東北部の高句麗山城」, 『靑丘學術論集』5.
- 田中俊明, 1984, 「高句麗長安城の位置と遷都の有無」, 『史林』67-4.
- , 1997, 「高句麗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 1999, 「城郭施設からみた高句麗の防禦體系」,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8.
- , 2004,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190.
- 津田左右吉, 1915, 「安東都護府考; 附錄 高句麗時代の新城木底城及び南蘇城について」,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
- 千田剛道, 1983, 「清岩里廢寺と安鶴宮」, 『文化財論叢』, 同朋社出版.



## 요동 지역의 군사방어체계와 천리장성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구려는 7세기에 동아시아 최강국인 수(隋)·당(唐)과 국가적 명운을 건 전쟁을 벌였다. 수는 612년에 전투병만 10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지만, 요하 동쪽의 고구려 성곽을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어 613년과 614년에도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번번이 실패했다. 수는 결국 고구려 원정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농민란의 와중에 멸망했다.

당도 오랜 준비 끝에 645년에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지만, 요동성과 백암성 등 요동평원의 성곽 몇 개만 점령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당은 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랜 준비를 통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한 다음 고구려 원정에 나섰지만, 결국 천산산맥(千山山脈)을 넘지 못하고 요동평원 일대만 맴돌다 퇴각해야 했다. 647년 이후 당이 다시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며 요동 지역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고구려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고구려가 665년 연개소문의 사망 이후 내분으로 인해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지만, 전쟁의 전개양상만 놓고 본다면 수·당의 거듭된 침공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가 수·당의 침공을 물리친 원동력으로는 뛰어난 전략·전술 및 군(軍)·민(民)의 단결력 등을 들 수 있다. 612년 살수대첩이 뛰어난 전략·전술이 가장 잘 발휘된 전투라면, 645년 안시성전투에서는 군·민의 단결력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뛰어난 전략·전술이나 군·민의 단결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성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방어체계가 있다. 고구려 군사방어체계의 위력은 수·당의 장수나 관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에 참여했던 정천숙(鄭天壽)은 644년 고구려 원정에 나서려는 당 태종에게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키기 때문에 쉽게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647년 고구려 침공 방안을 논의하던 당의 대신들도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및 6년조).

고구려가 성곽을 축조해 군사방어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곽을 중심으로 구축한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고구려는 성을 거점으로 수·당에 맞섰을 뿐 아니라, 당의 침공에 대비해 서북방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했다.

수·당과의 전장은 요하(遼河) 유역에서 평양성에 이르는 구간이

었다. 이 지역은 천혜의 해자로 인식된 압록강을 경계로 요하~압록강 유역과 압록강~평양성 등 두 구간으로 대별된다. 이 글에서는 요하~압록강 구간의 고구려 성곽 분포현황과 방어체계의 구성을 살펴본 다음,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에서 군사방어체계를 운용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구려가 631년부터 16년간 축조했다는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성 배경도 검토하고자 한다.

## 1. 성곽의 분포현황과 군사방어체계의 구성

### 1) 요동 지역 성곽의 분포현황

〈표1〉은 요하~압록강 유역에 산재한 고구려 성곽을 종합한 것인데, 총 168기가 분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이 지역에 분포한 고구려 성곽을 입지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면 평지성 15기, 산성 148기(소형 보루성 포함), 관애 3기(장성 포함), 미상 2기 등으로 산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평지성은 수도 많지 않지만, 신빈 영릉진고성, 무순 노동공원고성, 단동 애하침고성, 요양 요동성지 등 대부분 중원 왕조의 군현성을 재활용한 것이다(윤용구, 1999).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군현성을 일부 재활용하는 한편, 주로 산성을 새로 축조한 것이다.

산성은 규모에 따라 둘레 500m 이하인 보루성, 둘레 0.5~1km

---

<sup>1</sup> 요하~압록강 유역에 산재한 고구려 성곽의 현황은 여호규 외, 2020a·2020b·2020c 참조. 각 성곽의 참고문헌은 일일이 주기하지 않으니 위 책들의 참고문헌 참조.

의 소형 산성, 1~3km의 중형 산성, 3~5km의 대형 산성, 5km 이상의 초대형 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2</sup> 초대형 산성으로는 둘레가 무려 16km에 이르는 봉성 봉황산산성을 들 수 있다. 대형 산성은 각 권역 별로 1~2기가 점점이 분포하며, 중형 산성이나 소형 산성이 소지역별로 1~2기 산재하며, 둘레 500m 이하의 보루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성의 규모에 따른 분포양상은 고구려 중후기의 군사방어체계나 지방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축성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석축성 107기, 토축성 22기, 토석혼축성 21기, 토축+석축성 7기, 미상 11기이다. 정밀조사를 거치지 않은 성곽이 상당수 있지만, 대체적인 추이는 보여준다. 종래 일부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가 요동 진출 이후에 주로 토성을 축조했다고 보았지만(李殿福, 1991; 1994; 辛占山, 1994; 溫秀榮·張波, 1996), 오히려 석성의 비중이 더 높다. 또 철령 최진보산성이나 개주 고려성산성처럼 하나의 성곽에서 구간별로 석벽, 토벽, 토석혼축벽을 혼용한 사례가 많다. 축성 방식은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달 가능한 축성재료, 성벽의 입지 조건과 방어상의 역할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

2 양시은과 정원철의 분류안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보루성에 해당하는 초소형 산성의 기준을 양시은은 400m 이하, 정원철은 300m 미만으로 설정했다. 또 정원철은 중형 산성을 1~2km의 중소형과 2~3km의 중대형으로 세분했고, 양시은은 초대형 산성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았다(양시은, 2016, 127~129쪽; 정원철, 2017, 128~134쪽). 한편 중국의 진대위는 둘레 0.2~1km를 소형 산성, 1~2km를 중형 산성, 2km 이상은 대형 산성, 위존성은 1km 미만을 소형, 1~3km를 중형, 3km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했다(陳大爲, 1985; 魏存成, 2011).

표1 요동 지역(요하~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성곽 현황<sup>3)</sup>

시·현	입지 유형					축성 방식					
	평지성	산성	관애(장성)	미상	합계	석축	토축	토석혼축	토축+석축	미상	합계
심양시		4			4	2	1	1			4
신민현		1			1			1			1
무순시·현	2	7			9	2	4	1	1	1	9
신빈현 (소자하)	3	8			11	2	3	6			11
청원현		1			1			1			1
영구시		1			1	1					1
개주시	1	15			16	12			2	2	16
대석교시	1	3			4	3	1				4
안산시		2			2	2					2
해성시		4			4	2	2				4
수암현		24		1	25	21		1	1	2	25
요양시	1				1					1	1
등탑시		1			1	1					1
요양현	1	2			3	1				2	3
본계시		5			5	4		1			5
본계현	1	5			6	4	2				6
신빈현 (태자하)		3			3	3					3
단동시	1	2			3	1		2			3
봉성시		15			15	11	1	2		1	15
관전현		5	1		6	6					6
동향시	1	8			9	8	1				9
대련시	1	2			3	2			1		3
와방점시		5			5	5					5
장하시		5			5	5					5
보란점시		3		1	4	3				1	4
철령시	1	5	1		7	3	1	1	2		7
개원시		4			4		1	3			4
서풍현	1	5			6	3	1	1		1	6
요원시		3			3		3				3
공주령시			1		1		1				1
합계	15	148	3	2	168	107	22	21	7	11	168

3) 여호규 외, 2020a·2020b·2020c의 고구려 성곽을 집계한 것임. 진하게 표시한 시·현은 중간광역시의 중심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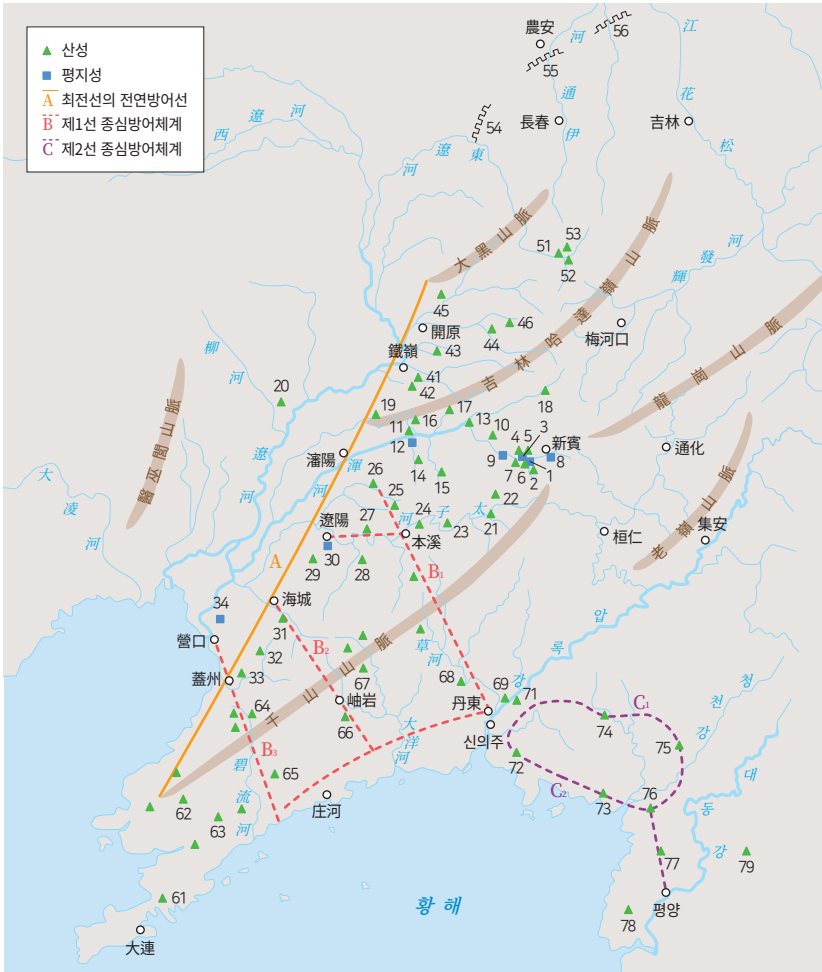


그림 1 | 요하~압록강 유역의 성곽 분포현황과 방어체계의 구성(여호규, 1999a)

[蘇子河 유역] 1. 新賓 永陵鎮古城 2. 二道河子舊老城 3. 羅家堡子城 4. 頭道砬子山城

5. 三道堡東山城 6. 溫家窯山城 7. 阿伙洛村山城 8. 白旗堡古城 9. 河西村古城 10. 五龍山城

[渾河와 그 주변] 11. 撫順 高爾山城 12. 勞動公園古城 13. 鐵背山城 14. 馬和寺山城

15. 南章黨山城 16. 城子溝山城 17. 西山山城 18. 清原 山城子山城 19. 瀋陽 石臺子山城

20. 新民 高台子山城

[太子河 유역] 21. 新賓 太子城 22. 杉松山城 23. 本溪 下堡山城 24. 有官山城 25. 邊牛山城

26. 瀋陽 塔山山城 27. 燈塔 白巖城 28. 遼陽 姑嫂山城 29. 鞍山 古道關石城 30. 遼陽 遼東城址

[遼河 하구 주변] 31. 海城 英城子山城 32. 營口 馬圈子山城 33. 蓋州 高麗城山城

34. 營口 太平堡古城

[鐵嶺 지역] 41. 鐵嶺 陣隄堡山城 42. 靑龍山古城 43. 開原 馬家寨山城 44. 古城子山城

45. 龍潭寺山城 46. 西豐 城子山山城

[東遼河 유역] 51. 遼源 龍首山城 52. 農安山城 53. 城子山山城

[老邊崗遺蹟] 54. 公主嶺(舊 懷德) 55. 農安 56. 德惠

[오동반도 일대] 61. 大連 大黑山城 62. 瓦房店 得利寺山城 63. 普蘭店 魏霸山城 64. 蓋州 赤山山城

65. 庄河 城山山城 66. 岫岩 娘娘山城 67. 岫岩 松樹溝山城 68. 鳳城 鳳凰山城 69. 丹東 虎山山城

[서북한 지역] 71. 백마산성 72. 용골산성 73. 능한산성 74. 농오리산성 75. 철웅성

76. 안주성 77. 청룡산성 78. 황룡산성 79. 흘골산성

그런데 대평원지대에는 신민 고대자산성, 영구 태평보고성, 요양 요동성지 등을 제외하면 고구려 성곽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주요 성곽은 요하 분류 연안의 대평원이 아니라 요하의 지류로 진입하는 길목인 대평원과 산간지대의 결절점 및 요하 지류의 연안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요동반도에도 해안 평야지대보다는 해안평야와 내륙 산간지대의 결절점, 주요 하천 연안로나 천산산맥 협곡로를 따라 분포해 있다.

이러한 성곽의 분포양상은 고구려의 지방지배나 방어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요하~압록강 일대는 자연지형과 방어체계의 구성 등을 기준으로 크게 혼하~태자하 중상류, 요하~압록강 하류, 요하 중상류 동안지역 등 세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각 권역별로 성곽의 분포현황 및 방어체계의 구성양상을 고찰해보자.

## 2) 혼하~태자하 중상류의 성곽 분포현황과 군사방어체계

요하 유역 가운데 혼하(渾河)와 태자하(太子河) 중상류 일대는 고구려 초기 중심부인 압록강 중류 유역과 요동 지역을 잇는 간선교통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 지역은 7장에서 간략히 고찰한 것처럼 평양성보다는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의 방어체계와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이 지역은 수·당과의 전쟁에서도 중요한 전장이었는데, 자연지형과 고구려의 진출시점을 고려하면 태자하 중상류, 소자하 유역, 혼하 분류 연안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태자하 중상류 유역은 천산산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내리뻗은 험준한 산간지대이다. 이 지역은 양맥(梁貊)의 거주지로 고구려 건국 직

후에 편입되었다. 이곳에서는 6기의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신빈 태자성은 둘레 1.5km 전후의 중형 산성, 신빈 삼송산성과 본계 하보산성은 둘레 1km 전후의 소형 산성이며, 나머지 3기는 소형 보루이다. 대형 산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성곽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한다.

신빈 태자성은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양성(梁城)으로 비정된다(여호규, 1999a). 이로 보아 이 지역에는 늦어도 광개토왕 시기에는 고구려 성곽이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송산성의 경우 그 입지나 축조 양상이 환인 고검지산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溫秀榮·張波, 1996; 王綿厚, 2002) 3세기에 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여호규 외, 2020a).<sup>4</sup> 3세기 중반 양맥 일대가 조위나 서진과의 주요 전장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혼하 지류인 소자하(蘇子河) 유역은 한의 제2현도군이 두어졌던 곳인데, 고구려가 1세기 말경에 제2현도군을 혼하 방향으로 몰아내고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 지역에서는 11기의 고구려 성곽이 보고되었다. 고구려가 제2현도군 치소인 신빈 영릉진고성은 재활용했지만, 현성이나 책구루로 비정되는 백기보고성은 재활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성으로 둘레 5km 전후의 대형 산성인 비아랍성(이도하자구노성), 1~2km 전후인 오룡산성과 득승보산성, 둘레 500m 이하인 보루성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형 산성이나 중형 산성은 모두 석축이나 토석혼축성이며, 오룡산성에서는 고구려 시기

---

4 溫秀榮·張波, 1996에서는 축조시기를 고구려 건국 전후로 보았지만, 명확한 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의 제련유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영릉진고성을 중심으로 삼도보동산성, 온가요산성, 나가보자산성, 두도립자산성 등 소형 산성이나 보루가 환상(環狀)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후금(後金)의 6조성(六祖城)으로 비정된다(傳波, 1994). 이들 성은 1980년대에 고구려 성곽으로 보고되었지만(王禹浪·王宏北, 1994),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고구려 성곽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肖景全·鄭辰, 2007). 목기진의 하서촌고성은 평지성으로 한대 유물은 출토되지 않은 반면, 고구려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축조한 평지성일 가능성이 있다(張正岩·王平魯, 1994).

혼하 유역은 송료대평원에 속한 심양 지역, 대평원과 산간지대의 결합점인 무순 지역,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청원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무순 지역에는 제3현도군의 치소가 두어졌는데, 고구려가 4세기 전반에 이곳으로 진출해 신성을 축조하여 요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9기의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었는데, 무순 노동공원 고성과 동주고성은 한의 군현성을 재활용한 것이다(윤용구, 1999). 나머지 7기는 고구려가 축조한 것이다.

고이산성은 둘레 4km에 이르는 대형 산성이다. 철배산성도 총둘레 4.6km에 이르는 복곽식 대형 산성인데, 고구려 시기에는 동위성만 축조하고 내성이나 서위성 일대는 망대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화사산성과 성자구산성은 둘레 1~2km의 중형 산성이며, 서산산성과 열사산산성은 둘레 500m 이하의 소형 보루인데, 대체로 고이산성을 중심으로 환상으로 분포한다. 667년 신성과 함께 주변 16개 성곽도 당에 함락되었다고 하는데, 신성의 관할을 받던 지방지배의 거점이거나 위

성산성일 가능성이 높다(여호규, 1999a; 1999b).<sup>5</sup>

혼하~태자하 중상류의 주요 고구려 성곽은 하천 연안로의 요충지를 따라 분포하는데(여호규, 1995; 임기환, 1998; 田中俊明, 1997; 정원철, 2011), 이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혼하~소자하 연안로는 압록강 중류와 요동 지역을 연결하던 간선교통로였다. 고구려는 이 교통로를 따라 한의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몰아내면서 소자하나 혼하 유역으로 진출했다. 물론 한, 조위, 전연 등 중원 왕조도 이 연안로를 따라 고구려 도성까지 침공했다.

이에 고구려는 이 지역에 신성(新城), 남소성(南蘇城), 목저성(木底城) 등을 축조하고, 신성대수 고노자(高奴子)처럼 민정과 군정을 겸하는 지방관을 파견했다. 신성의 축조연대를 태조왕 대(李廆甫, 1988)나 3세기 후반(王綿厚, 1993)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sup>6</sup> 목저성과 남소성은 사료상 342년과 345년에 각각 처음 등장한다. 이 가운데 신성은 무순 고이산성으로 비정된다(渡邊三三, 1933). 남소성의 위치는 논란이 분분한데, 남소수(南蘇水)가 지금의 소자하에 해당하며 “신성 동북쪽 70리(31~37km) 산 위”에 위치했다는 기록<sup>7</sup>을 참조하면, 혼하·소자하 합류지점 동쪽의 철배산성이 가장 유

5 혼하 상류에는 청원 쌍립산성(산성자산성)이 있다. 쌍립산성은 둘레 500m의 소형 산성이지만, 하곡평지 한복판에 솟은 테피식산성으로서 휘발하 일대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공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5년조에 따르면 신성(新城)은 335년에 축조했다고 하는데, 봉상왕 5년조에서는 296년에 신성을 전조기지로 삼아 모용위의 침입을 방어했다고 한다. 모용위가 요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310년대부터이므로 296년이라는 연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체로 신성을 처음 축조했다는 335년(고국원왕 5) 또는 제3현도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던 302~315년을 전후하여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한원(翰苑)』 권30 변이부(蕃夷部) 고려조, “南蘇城在國西北...高麗記云 城在雜城北七十

력하다. 남소성에서 시작되는 남도(南道)에 위치했다는 목저성<sup>8</sup>은 신빈 목기진(木奇鎭)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여호규, 1995).

고구려가 4세기 전반에 혼하~소자하 연안로의 전략적 요충지에 신성(고이산성), 남소성(철배산성), 목저성(목기진 일대) 등을 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성은 기본적으로 전연을 비롯한 중원 왕조의 침공을 방어하고, 요동평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곧 군사거점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고구려는 이 지역에 주로 군사방어 기능이 뛰어난 산정식산성(철배산성)이나 산상형 포곡식산성(오룡산성)을 축조했다. 다만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거점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점차 평지형 포곡식산성(고이산성)으로 전환했다(임기환, 1998; 양시은, 2016).

이상과 같이 혼하~태자하 중상류의 산성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고, 축조시점도 4세기 전반 전후로 편년된다. 이들은 혼강 우안의 흑구산성, 전수호산성, 고검지산성, 마안산성 등과 연계하여 국경지대에서 국내성에 이르는 입체적 방어체계를 구성했다. 다만 645년 당 태종 침공 시에 고구려가 국내성과 신성의 군사 4만 명을 동원하여 요동성을 구원한 사실, 666년에 당군이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을 격파한 다음 국내성에 웅거하던 남생(男生)과 회합한 사실 등에서 보듯이 이 지역의 방어체계는 평양 천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요동 지역의 다른 방어체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되었다(여호규, 1999b).

---

里山上也.” 기사 가운데 ‘雜城北’은 ‘新城東北’의 오기와 누락으로 여겨진다(여호규, 1995).

8 『자치통감(資治通鑑)』 권97 진기(晉紀)19 함강(咸康) 8년, 영화(永和) 원년 10월조 세주, “南蘇城在南陝之東”, “南道從南陝入木底城”.

### 3) 요하~압록강 하류의 성곽 분포현황과 군사방어체계

요하~압록강 하류 구간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이에 고구려는 이 지역에 성곽을 촘촘하게 축조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했는데, 120여 기의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자연지형과 방어체계의 구성양상 등을 기준으로 크게 송료대평원 구간인 요동평원, 천산산맥이 가로지르는 요동반도 지역, 압록강 하류 일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동평원에는 고구려 성곽이 의외로 적게 분포하는데, 신민 고대자산성, 대석교 태평보고성, 요양 요동성지와 고력성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전국 연(燕) 아래 중원 왕조의 군현성이 많이 축조되었지만, 고구려가 요동성지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현성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폐기했다(윤용구, 2008). 신민 고대자산성은 요하를 도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소형 보루성인데, 무려라(武厲邏)로 비정하기도 한다(王綿厚·李健才, 1990).<sup>9</sup> 다만 고대자산성을 제외하면 요하 본류의 서쪽에서 고구려 성곽이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고구려가 요하 서안을 따라 소형 보루나 라(邏), 수(戍), 봉수 등 다양한 군사 시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이정빈, 2011; 2018; 이성제, 2017).

고구려 성곽이 가장 밀집 분포한 지역은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으로 나아가는 진입로와 천산산맥 횡단로 일대이다. 천산산맥은 동북에

---

9 이성제, 2013b에서는 무려라(武厲邏)를 요하의 도하지점에 설치한 관소(關所)로 파악한 다음, 이와 별개로 고구려가 요하 서쪽으로 진출하여 무려성이라는 거점을 축조했다고 상정하고, 요하와 의무려산맥 사이에 위치한 북진시(北鎭市) 남쪽의 요둔향(寥屯鄉) 대량갑촌고성(大亮甲村古城)으로 비정했다.

서 서남으로 기다랗게 뻗어 있는데, 많은 하천이 발원하여 태자하나 황해로 흘러든다. 세하(細河), 해성하(海城河), 대청하(大清河)는 서북 방향으로 흘러 태자하나 요동만으로 유입된다. 또 애하(愛河), 대양하(大洋河), 벽류하(碧流河)는 동남 방향으로 흘러 압록강이나 황해로 흘러든다. 이러한 하천 연안로는 일찍부터 천산산맥 횡단로로 활용되었는데, 세하~애하 연안을 따라 본계~봉성로, 해성하~대양하 연안을 따라 해성~수암로, 대청하~벽류하 연안을 따라 개주~장하로가 발달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지형조건을 고려하면서 성곽을 축조했다. 먼저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 횡단로로 진입하는 길목마다 중대형 산성을 촘촘하게 축조했다. 본계~봉성로 진입 경로는 두 갈래인데, 북쪽 진입로인 심양~본계로에는 탐산산성과 변우산성, 남쪽 진입로인 요양~본계로에는 요동성·연주성·고수산성이 각각 위치했다. 해성~수암로 길목에는 영성자산성, 개주~장하로 길목에는 고려성산성(靑石嶺山城)·연통산산성이 위치했으며, 대청하에서 수암으로 나아가는 산간로 입구에는 마권자산성이 위치했다. 이 가운데 탐산산성은 개모성(蓋牟城), 변우산성은 마미성(磨米城), 연주성은 백암성(白巖城), 영성자산성은 안시성(安市城), 고려성산성은 건안성(建安城)으로 비정된다(여호규, 1999a). 이들 성곽은 둘레 2~3km의 포곡식산성으로 군사방어와 함께 지방지배를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했다(陳大爲, 1985; 노태돈, 1999a).

가령 건안성으로 비정되는 개주 고려성산성은 둘레 약 5km인 대형산성으로 내부에는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최근 5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길이 약 110m, 너비 약 9m인 초대형 기와건물지가 발견되었고, 4호 문지에서는 태왕릉이나 장군총 출토품과 유사한 구획선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王飛峰, 20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

所 외, 2017; 2022), 건안성의 전신인 평곽(平郭)에는 한 대에 염관(鹽官)과 철관(鐵官)이 설치되었는데, 고구려시기에도 소금과 철 생산을 총괄했다고 파악된다(김현숙, 2005). 고려성산성은 개주~장하로의 입구를 방어하는 군사적 중진일 뿐 아니라 지방지배의 거점성이었던 것이다. 이에 고려성산성에 최고 지방관인 육살이 파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a; 나동욱, 2009; 임기환, 2015)

이처럼 천산산맥 횡단로 입구에는 수·당과의 전쟁에서 각축전이 벌어졌던 주요 성곽이 밀집 분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천산산맥 진입로의 입구에 위치한 성곽은 후기 도성인 평양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고, 최전방의 전연방어선(前沿防禦線)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1991; 박창수, 1988a; 1990). 이처럼 전연방어선을 이루는 성곽은 대체로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5세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노태돈, 1996; 1999a), 전술한 개주 고려성산성의 고고조사 성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요동평원을 지나면 천산산맥을 가로지르는 하천 연안로를 따라 고구려 성곽이 조밀하게 분포한다(王禹浪·王文軼, 2008). 이들 성곽은 서북방어체계에서 제1선 중심방어선(縱深防禦線)을 이룬다. 천산산맥 횡단로는 크게 세하~초하·애하의 본계~봉성로, 사철하·해성하~대양하의 해성~수암로, 대청하~벽류하의 개주~장하로 등 3개가 있다. 각 횡단로마다 육살이나 처려근지가 파견된 초대형이나 대형 산성이 2~3개, 루초나 가라달이 파견된 중형 산성이 10여 개 분포하며, 이들 주위에는 소형 산성이나 보루성이 다수 분포한다(임기환, 2015; 이경미, 2017a; 2017b).<sup>10</sup>

이 가운데 천산산맥 한복판의 수암현과 봉성시는 넓은 분지가 펼쳐

져 별도의 소지역권을 이루는데, 초대형이나 대형 산성을 중심으로 여러 중형 산성과 보루성이 밀집 분포한다. 특히 오골성(烏骨城)으로 비정되는 봉성 봉황산성에서 세 갈래의 천산산맥 횡단로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 이에 고구려는 둘레 16km로 초대형인 봉황산성에 최고 지방관인 육살을 파견해 핵심 거점성으로 삼고, 주변에 중형 산성과 보루성을 배치해 위성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수암 낭랑성산성도 둘레 3km 전후의 대형 산성으로 수암분지를 다스리는 거점성인데,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다벌악주(多伐嶽州)(노태돈, 1999a)나 적리성(積利城)(王綿厚, 1994; 2002)으로 비정하기도 한다.<sup>11</sup>

고구려는 요동반도의 해안지대에도 성곽을 축조했다. 다만 연안의 평야지대가 아니라 산간지대와의 결절점을 따라 축조했다. 서북 해안지대는 복주하(復州河) 연안로나 개주(蓋州)평야 안쪽의 산간지대를 따라 축조했고, 남쪽 해안지대는 천산산맥 횡단로 남단의 성곽과 중첩된다. 요동반도의 서북과 남쪽 해안이 만나는 서남단에는 대련 대흑산성이 위치하는데, 험준한 산상에 위치한 둘레 5km 전후의 대형 산성으로서 비사성으로 비정된다(許明綱, 1996). 비사성은 황해와 발해만을 동시에 공제하고, 요동반도~산동반도를 잇는 해로를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천산산맥 횡단로는 요동반도 남쪽의 해안지대를 경유해 모두 압록

10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을 횡단하여 압록강에 이르는 교통로를 크게 주선, 간선, 지선 등으로 분류한 다음, 최고 지방관인 육살이 주선교통로, 그 다음 치려근지가 간선교통로, 그리고 가라달이 지선교통로의 군사방어와 지방통치를 담당했다고 보기도 한다(나동욱, 2009).

11 천산산맥 일대에서 봉성과 수암 일대가 핵심 방어지역이라는 사실은 최근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김주형, 2022, 168~187쪽).

강 하류 일대에서 합쳐진다. 압록강 하류 일대는 초기 중심지인 압록강 중류에서 황해로 나아가는 교두보인 동시에 천산산맥을 넘은 적군이 압록강을 도하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저지선이다. 이에 고구려는 이 지역의 하천 합류처나 해안의 구릉 등을 따라 성곽을 조밀하게 축조해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애하·압록강 합류처 일대는 압록강을 도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곳에 위치한 애하첨고성은 한의 서안평(西安平)으로 비정된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 애하첨고성을 재활용하는 한편 맞은편에 호산산성(박작성)을 축조해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요하~압록강 구간에 여러 겹의 방어망을 구축했다.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성곽은 최전방의 전연방어선, 천산산맥 횡단로의 성곽은 제1선 중심방어체계를 구성한다. 제1선 중심방어체계는 압록강을 넘은 다음, 압록강~청천강 일대의 제2선 중심방어체계로 이어진다(박창수, 1988a; 1990; 남일룡, 1995; 여호규, 1999a; 1999b; 양시은, 2014a; 2016).

#### 4) 요하 중상류 동안지역의 성곽 분포현황과 군사방어체계

요하 중상류 동안지역은 대흑산맥(大黑山脈)과 길림합달령산맥(吉林哈達嶺山脈)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권역을 이룬다. 이 지역은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요동평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요하(西遼河) 일대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요동평원에서 송화강 유역으로 나아갈 경우에도 거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고구려가 늦어도 남쪽의 혼하 연안이나 동쪽의 송화강 중류 일대를 장악한 4세기 전반에

는 이 지역으로 진출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1〉 가운데 철령시, 개원시, 서풍현 등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데, 총 20기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송료대평원 구간에서는 노변강(老邊崗) 유적을 제외하면, 고구려 성곽이 조사된 사례가 없고, 모두 대평원 안쪽의 하곡평지나 산간분지를 따라 분포한다. 20기 가운데 산성이 18기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다시 사하(沙河)~시하(柴河)~범하(汎河) 유역권, 구하(寇河)~청하(淸河) 유역권, 동요하(東遼河) 상류의 요원분지 등 세 소권역으로 세분된다.

사하~시하~범하 유역권에서는 9기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철령 최진보산성이 둘레 5km로 대형 산성이며, 1~2km인 철룡 청룡산고성과 개원 마가채산성은 중형 산성이다. 철령 영반장지는 차단성, 나머지 5기는 둘레 500m 전후의 소형 산성이나 보루이다. 구하~청하 유역권에서는 6기가 확인되었는데, 둘레 4.4km인 서풍 성자산산성이 대형 산성이며, 1~2km인 개원 용담사산성과 고성자산성, 서풍 장가보산성 등은 중형 산성이다. 나머지 2기는 500m 전후의 소형 보루이다. 동요하 상류권에서는 5기가 확인되었는데, 요원 용수산성과 공농산성은 둘레 1~2km의 중형 산성, 성자산산성은 726m로 소형 산성, 나머지 2기는 500m 전후의 소형 보루이다.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둘레 4~5km인 대형 산성이 1기, 둘레 1~2km인 중형 산성이 2~3기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각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종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둘레 500m 전후의 소형 산성이나 보루를 대거 확인했는데, 각 권역별로 2~5기 전후가 분포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각 권역별 성곽 분포양상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방어체계나 지방통치조직의 정비양상

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 지역의 대형이나 중형 산성은 모두 포곡식산성으로 성 안팎을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내부에 넓은 거주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군사방어뿐 아니라 지방지배를 위한 거점성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각 권역별로 1기씩 분포하는 대형 산성이 산간지대 내부나 산줄기에 위치한 반면, 2~3기씩 분포하는 중형 산성은 하곡평지에 접하고 있다. 이는 대형 산성과 중형 산성의 조영시기 및 방어체제나 지방제도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이다(여호규, 2002).

가령 대형 산성인 서풍 성자산산성은 길림합달령산맥 방면으로 깊숙히 들어온 지점에 위치했는데, 축성법이나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다른 성곽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성자산산성은 둘레 4km로서 대형 산성이지만 평지가 협소한 편이다. 이에 산성 서쪽 골짜기에 둘레 5km의 외위성을 추가로 축조했다(周向永·趙守利·邢傑, 1993; 孟祥忠·潘國慶·鄭淑雲, 1993).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초기에 군사방어를 위해 성자산산성을 축조했다가, 거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외위성을 축조한 것이다. 대형 산성인 철령 최진보산성도 축성법이나 입지조건으로 보아 다른 성곽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周向永·王兆華, 1996).

그런데 성자산산성은 연반하 상류를 따라 길림합달령산맥을 넘은 다음 휘발하를 통해, 또 최진보산성은 범하 상류를 따라 길림합달령산맥을 넘은 다음 혼하~소자하를 거쳐 각각 압록강 중류 일대로 진입할 수 있다. 성자산산성과 최진보산성은 압록강 중류에서 곧바로 요하 중상류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한 것이다. 이로 보아 성자산산성과 최진보산성은 압록강 중류에서 휘발하나 혼하를 거쳐 요하 상류로 나아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했으며, 그 시기는 4세기 전반 전후로 추정된다(여호규, 1999a; 1999b; 양시은, 2016; 홍밖음·강동석, 2021).

이에 비해 송료대평원에서 각 지류 연안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한 포곡식산성은 축성법, 입지조건, 분포양상 등으로 보아 천산산맥 진입로의 입구에 위치한 산성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들 성곽은 송료대평원에서 각 지류 연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봉쇄하는 군사방어와 함께 지류 연안의 하곡평지를 지배하는 거점성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성곽은 고구려가 이 일대에 대한 지방지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원지구의 산성은 반경 2~3km에 밀집되어 있다. 요원분지는 동료하의 발원지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야트막한 구릉을 통해 북쪽의 이통하, 서북쪽의 동요하 하류, 서남쪽의 구하, 동남쪽의 휘발하 등으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발달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용수산성 동북쪽 1.5km의 성자산산성은 이통하, 용수산성은 동요하 하류나 구하 방면에서 침공하는 적군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했고, 동남쪽의 공농산성은 배후산성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가운데 기와가 다량 출토된 용수산성이 지역 거점성이었을 것이다(여호규, 2002).

이상과 같이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과 군사방어체계는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혼하~태자하 중상류와 요하~압록강 하류의 방어체계가 각기 국내성과 평양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면, 요하 중상류 동안지역의 방어체계는 양자가 복합된 양상을 띤다. 그림1에서 보듯이 송료대평원에서 요하의 지류로 진입하는 입구의 산성들은 거대한 산성연방선(山城聯防線)을 이룬다. 요하 유역의 고구려 성곽은 송료대평원에서 각 지류 연안을 통해 고구려 중심부로 나아가는 모든 진입로

를 차단하면서 입체적 군사방어체계를 이룬다. 고구려가 이러한 군사 방어체계를 운용하는 모습은 수·당과의 전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 2. 수·당과의 전쟁에 나타난 군사방어체계의 운용 양상

### 1) 수와의 전쟁에 나타난 군사방어체계의 운용 양상

〈표2〉는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로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수는 5차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 가운데 『수서(隋書)』 이경(李景)전에 기술된 611년 요하 서안의 무려라 공격은 612년 제2차 침공의 전초전이었는데, 『수서』 고려전에서는 612년 수군(隋軍)의 유일한 전과로 무려라를 빼앗아 요동군과 통정진(通定鎭)을 설치한 것을 들고 있다. 611년 무려라 공격을 제외하면 수군은 네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대규모로 침공했다(松井等, 1913; 徐仁漢, 1991; 임기환, 1994; 이호영, 1996; 이정빈, 2018; 정동민, 2022).

이 가운데 수군이 요하를 넘은 것은 612년과 613년 두 차례뿐인데, 진공로가 거의 일치한다. 수군은 612년과 613년 모두 3~4월에 회원진(懷遠鎭)에서<sup>12</sup> 세 갈래의 요하 도하로 가운데 중로(中路)인 태안(台

12 수는 612년 고구려 공격에 앞서 노하진(濼河鎭)과 회원진(懷遠鎭)에 군량미를 옮긴 다음, 이곳에서 별동대에게 100일분 군량미를 나누어 주었다(『자치통감』 권181 수기6 대업



그림2 | 수군의 고구려 침공로

安) 손성자(孫城子)~안산(鞍山) 경로를 이용해 요하를 건너 다음(王綿厚·李建才, 1990), 곧바로 요동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갖가지 공성무기를 동원하여 요동성을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sup>13</sup> 별동대를 편성하여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공했다(여호규, 1999b; 노태돈, 2009; 이동준,

7년 및 8년 5월조). 613년에는 요하를 건너 퇴각할 때 설세웅(薛世雄)이 회원진을 진수(鎭守)했다(『수서』 열전30 설세웅전).

<sup>13</sup> 최근 수가 여러 경로를 통해 고구려로 진군했으며, 요동성 이외의 다른 성에서도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고 보기도 한다(이정민, 2018; 정동민, 2020·2022).

표2 7세기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로

분류	연도	수·당 지휘관	전쟁로 및 교통로		고구려 지휘관	
대수전	598	위세충	육로		요서 ← 영양왕	
		양양	육로	→ 요수(遼水)		
		주라후	해로	동래 → 평양성		
	611	이경	육로	→ 무려성(무려라)		
	612	양제	육로	주력군	→ 요수 → 요동성	을지문덕
				별동대	→ 오골성 → 압록수 ↔ 살수 ↔ 평양성	
		내호아	해로	→ 패수 → 평양성	고건무	
	613	양제	육로	주력군	→ 요수 → 요동성 → 백애성(백암성)	
				우문술	→ 오골성 → 압록수	
				왕인공	→ [부여도] → 신성	
614	양제	육로	→ 회원진			
	내호아	해로	→ 비사성 → [평양성]			
대당전	645	태종	육로	이적	통정진 → 현도성 → 신성 → 개모성	손대음, 고돌발, 고연수, 고혜진
				태종	요택(遼澤) → 요동성 → 백암성 → 안시성	
				장검	? → 요수 → 건안성	
		장량	해로	동래 → 사비성 → 건안성		
	647	이적	육로		→ 요수 → [신성도(新城道)] → 남소성 → 목저성	
				우진달	해로	→ 석성(石城) → 적리성(積利城)
	648	설만철	해로	→ 내주(萊州) → 역산(易山) → 압록수 → 대행성 → 박작성	소부손, 고문	
	654	거란 이굴가	육로		신성(서요하 유역) ← 안고	
	655	정명진, 소정방	육로	→ 요수 → 6성 함락 → 귀단수(貴端水) → 귀단성(貴端城, 新城)		
	658	정명진	육로	→ 귀단성(신성)		
설인귀		육로	→ 적봉진(赤烽鎭)	두방루		
658	글필하력, 설인귀	육로	→ 횡산(橫山) · 석성(石城)	은사문		
659	글필하력	육로	→ 요동			
660	글필하력, 소정방	육로	→ [패강도(溍江道) · 요동도(遼東道) · 평양도(平壤道)]			

분류	연도	수·당 지휘관	전쟁로 및 교통로		고구려 지휘관
대당진	661	소경방	해로	→ 패강(溟江) → 마읍산(馬邑山) → 평양성	
		글필하력	육로	→ 압록수(결빙을 이용하여 도강)	연남생
	662	방효태	육로	→ 사수(蛇水)	연개소문
		소경방	해로	→ 위도(葦島) → 평양성	
	666	글필하력, 방동선	육로	→ 국내성의 남생과 회합 국내성 등 6성, 목저성 등 3성 투항	
	667	이적	육로	→ 요수 → 신성(주변 16성)	(사부구)
		글필하력	육로	신성 → 금산(金山) → 남소성(주변 7성) → 목저성 → 창암성 → 가물성 → 국내성	
	668	설인귀	육로	→ 부여성(주변 40성)	
이적		육로	(부여성 방면) → 살하수 → 대행성 → 압록 책 → 욱이성(諸城 투항) → 평양성	연남건	

2009).

612년에 수 양제는 요동성 공격이 여의치 않자, 우문술(宇文述)과 우중문(于仲文)으로 하여금 별동대 30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략하도록 했다.<sup>14</sup> 수의 별동대는 오폭성을 지나 동쪽으로 압록강을 건넌 다음, 살수(薩水: 청천강)를 거쳐 평양성 북쪽 30리 지점까지 진공했다가 군량미가 떨어지고 병사의 사기도 저하되자 을지문덕의 거짓 항복을 명분 삼아 퇴각했다. 이때 고구려는 사방에서 수군을 압박하다가 살수에서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괴멸시켰다.

613년에도 수 양제는 4월에 요하를 건넌 다음 요동성을 공격하는

<sup>14</sup> 일반적으로 수가 군수 보급기지인 노하진이나 회원진에서 별동대를 편성해 고구려로 출발했다고 보지만(서인한, 1991), 요하를 건너 각 방향으로 진군하던 수군이 별동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압록강 서쪽에서 만나 평양성으로 진공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정동민, 2022).

한편, 우문술·양의신(楊義臣)으로 하여금 평양성을 공취하도록 했다. 612년과 마찬가지로 오골성을 지나 압록수로 진공하다가 양현감의 반란으로 퇴각했다(『수서』 우문술전 및 양의신전). 이때 왕인공(王仁恭)을 부여도(夫餘道)로 보내 신성(新城)을 공략하기도 했지만(『수서』 왕인공전), 전략상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서』 염비(閔毗)전에서 보듯이 613년에 양현감과 내통한 곡사정(斛斯政)은 백애성(栢崖城) 곧 백암성으로 망명했는데, 수의 별동대가 백암성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시사한다. 수의 별동대는 요동성에서 평양성으로 나아가는 최단코스인 요양~본계~봉성로를 경유해 천산산맥을 넘은 다음,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으로 진공한 것이다.

그럼 수군이 평양성 직공책을 구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수군의 최대 약점은 긴 병참선이었다. 수군은 610년부터 요서의 노하진(瀾河鎮)과 회원진으로 군량미를 운반하며 고구려 침공을 준비했는데, 길이 험난하여 운송하기 힘들었다. 이에 수는 612년에 전투 병력의 2배에 해당하는 치중병(輜重兵)을 동원했다. 더욱이 별동대 30만은 요하를 건너기 전에 100일분의 군량미를 분급받았는데, 군장이 너무 무거워 도중에 몰래 군량미를 버렸다. 양현감도 613년에 군량미 운반을 감독하다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612년 단문진(段文振)은 수 양제에게 “장맛비가 곧 내릴 것이니 지체할 수 없다며 불의에 평양성을 기습 공격할 것을” 건의했다(『수서』 단문진전). 수가 병참 보급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동평원에서 서북한으로 나아가는 최단코스를 경유해 평양성으로 진공하는 직공책을 택한 것이다. 그렇지만 612년 수의 별동대 30만이 살수에서 궤멸된 것에서 보듯이 수의 이러한 작전은 패배로 끝났다.

고구려는 수군의 최대 약점이 긴 병참선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다음, 성 중심의 군사방어체계를 바탕으로 청야수성전(淸野守城戰)을 전개했다. 612년에 수군이 요동성을 포위하고 각 방면으로 공격했으나, 고구려가 성문을 닫고 견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함락시킬 수 없었다.<sup>15</sup> 613년 수의 왕인공이 신성을 공격하자, 고구려가 처음에는 수만 대군을 동원하여 성을 등지고 진을 결성하여 수군과 맞섰다. 그러나 왕인공에게 격파되자 성문을 굳게 닫고 지구전을 벌여 왕인공이 사면에서 신성을 에워쌌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수서』 왕인공전).

612년 을지문덕의 유인전술도 성 중심의 방어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수의 별동대가 경유한 요양~본계~봉성로에는 백암성이나 오골성 등 무수한 성곽이 버티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군은 을지문덕의 유인전술에 휘말려 평양성 부근까지 진격하는 동안 단 하나의 성곽도 공격하지 않았다. 각 성곽에 웅거한 고구려군도 별동대 후미의 치중병만 공격하고(『수서』 우중문전),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군이 평양성에서 퇴각하기 시작하자 사방에서 수군을 압박하기 시작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김복순, 1986; 정동민, 2020; 2022).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성 중심 방어체계에 바탕을 둔 청야수성전과 유인전술을 구사하여 거듭된 수의 침공을 물리쳤다. 다만 612년이나 613년 모두 수의 전술이 너무 단조로웠기 때문에 고구려 각 성곽의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고구려가 성 중심의 군사방어체계를 운용한 양상은 당과의 전쟁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5 『수서』 권3 본기3 대업 8년 5월 임오조, “于時 諸將各奉旨, 不敢赴機. 既而高麗各城守, 攻之不下.”

## 2) 당과의 전쟁에 나타난 군사방어체계의 운용 양상

〈표2〉에서 보듯이 고구려와 당은 645년 이래 빈번하게 전쟁을 했다. 다만 당이 618년에 건국된 사실을 상기하면, 양국의 전쟁은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의 고구려 원정이 늦어진 데에는 크게 두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당 건국 초기에는 중원 대륙 곳곳에 할거한 독자세력을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강경한 정복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었다. 다음으로 수·당 교체기에 돌궐이나 토욕혼 등이 부흥했는데, 당으로서는 도성인 장안 가까이에 위치한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고구려 원정보다 더 급선무였다.

이에 당은 628년 중원 대륙을 재통합한 다음, 629~640년에 동돌궐, 토욕혼, 고창국 등을 제압하고 고구려 원정에 본격 착수했다. 이때 당은 고구려 원정의 후유증으로 멸망한 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641년에 군사지리정보를 총괄하는 진대덕(陳大德)을 사신으로 파견해 고구려의 지리와 방어체계를 정탐했다. 당은 진대덕의 정탐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기(高麗記)』를 편찬했는데, 일부 내용이 『한원(翰苑)』 번이부 고려조에 전한다(吉田光男, 1977). 그 내용을 보면 남소성과 오골성 등 주요 성곽의 위치와 군사적 특징, 압록수와 마다산 등 주요 산천의 지형과 군사적 활용도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나유정, 2021).

당은 이러한 정탐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전술을 새롭게 짜서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이러한 사실은 645년 당의 침공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표2〉에서 보듯이 당은 645년에 해로와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해 요하를 건넌 다음 고구려 공략에 나섰다. 요하를 건너는 도하로는 가장



그림3 | 645년 당군의 고구려 침공로

북쪽의 신민(新民) 고대산(高臺山)~심양(瀋陽)의 북로(北路), 회원진에서 시작하는 태안(台安) 손성자(孫城子)~안산(鞍山)의 중로(中路), 가장 남쪽의 반산(盤山)~고평(高平)~우장(牛莊)~해성(海城)의 남로(南路) 등 세 갈래가 있었다(王綿厚, 1986; 王綿厚·李健才, 1990).

이 가운데 이적(李勣)은 통정진에서 북로를 통해 요하를 건넌 다음 현도성과 신성을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자, 개모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당 태종은 회원진에서 중로를 통해 요택(遼澤)이라 불리는 거대한 늪지대를 건넌 다음, 이적의 군대와 합세하여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

락시키고 안시성으로 향했다. 영주도독 장검(張儉)은 번병(蕃兵)을 거느리고 선두에서 진공했다.<sup>16</sup> 장검은 처음에 연개소문이 요동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북로인 신성도(新城道)를 통해 요하를 건너려다가, 연개소문이 나타나지 않자 요수를 건너 다음 건안성(개주 고려성산성)으로 진격했다(『구당서』 장검전). 장검이 요하를 건너 다음 요하 하구 동쪽의 건안성으로 진격했다는 점에서 남로를 통해 요하를 도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군이 회원진에서 중로를 통해서만 요하를 도하한 것과 달리, 당은 세 갈래의 요하 도하로를 모두 이용한 것이다(여호규, 1999b; 노태돈, 2009). 당은 요하를 건너 다음에 ① 현도성 → 신성, ② 개모성, ③ 요동성 → 백암성, ④ 안시성, ⑤ 건안성 등을 차례로 공략했다. 이 가운데 신성(무순 고이산성)은 국내성으로 향하는 혼하~소자하 연안로 길목에 자리한 반면, ②~⑤는 평양성으로 향하는 천산산맥 횡단로의 입구에 위치했다. 개모성과 요동성·백암성은 본계~봉성로의 북쪽과 남쪽 입구, 안시성은 해성~수암로의 입구, 건안성은 개주~장하로의 입구에 자리한 것이다.

이로 보아 당군은 천산산맥 횡단로의 입구에 위치한 주요 성곽을 차례로 함락시킨 다음, 평양성으로 진공하는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은 645년에 고구려를 공격해 ‘현도(玄菟), 횡산(橫山), 개모(蓋牟), 마미(磨米), 요동(遼東), 백암(白巖), 비사(卑沙), 맥곡(麥谷), 은산

16 장검(張儉)은 당의 주력군에 앞서 644년에 영주와 유주의 군사 및 거란과 해(奚)의 병졸을 거느리고 요서로 진군했으나 요수의 범람으로 진공하지 못했다. 다만 장검은 이때 요수의 수초와 물길, 주변 산천의 지형 등을 상세히 관찰하여 당 태종에게 보고했다(『구당서』 권83 열전33 장검전).

(銀山), 후황(後黃)’ 등 10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데(『자치통감』 권198 정관19년 10월조), 이적의 진공로와 비교하면 함락 순서에 따라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네 번째의 마미성은 개모성을 점령한 다음, 요동성·백암성 공격에 앞서 함락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미성을 본계 변우산성으로 비정한 견해가 주목된다(孫進己·馮永謙, 1989; 王綿厚, 1994). 본계 변우산성은 심양 탐산산성(개모성)에서 본계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했다. 따라서 당군이 개모성(탐산산성)과 마미성(변우산성), 요동성과 백암성 등을 순차적으로 함락한 것은 본계~봉성로의 북쪽과 남쪽 진입로를 차례로 공격하는 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락시킨 다음 해성~수암로 입구의 안시성(영성자산성)을 공격한 것도 이러한 전술에 따른 것이다.

결국 당군이 세 갈래의 도하로를 모두 이용하여 요하를 건넌 다음, 요동평원에서 천산산맥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를 동북쪽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차례로 공략한 것이다. 이는 당이 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고구려 방어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전략·전술을 수립한 결과이다. 당 태종이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을 공격하자고 제의하거나, 고연수·고혜진이 오골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성으로 진공하자고 제의했을 때, 이적이나 장손무기가 어느 한 성이라도 그냥 두고 다른 성을 공격하면 배후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 고구려는 645년에 신성과 국내성의 4만 대군을 동원해 요동성을 지원했고, 오골성의 군대 1만을 파견해 백암성을 지원했다. 고구려가 각 성곽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당의 침공에 맞선 것이다(이문기, 2007). 이로 인해 당군은 개모성·마미성·요동성·백암성 등 본계~

봉성로 입구의 여러 성곽을 함락하고, 안시성 부근 평원대회전에서 고구려 15만 대군을 격파했지만, 해성~수암로 입구의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함에 따라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여호규, 1999b).

이에 당은 647년 2월 고구려 정벌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성곽의 견고함 때문에 645년 원정이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소규모 부대를 자주 보내 요동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국지전(장기 소모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池內宏, 1941; 김영하, 2000). 실제 당은 647년에 해로를 통해 만여 명을 파견해 요동반도 남쪽 연안의 석성(石城)을 함락시키고, 적리성(積利城)까지 진공했다. 648년에도 해로를 통해 압록강 하류의 대행성(大行城)을 함락시키고 박작성(泊灼城: 관전 호산산성)까지 진격했다. 육로로는 647년에 이적이 3,000명을 이끌고 신성도를 거쳐 남소성과 목저성을 공략했다. 이를 통해 당이 한두 성을 함락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천리를 쫓대밭으로 만들 만큼’ 고구려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고구려 멸망 직전인 667년의 상황을 반영하는 『삼국사기』 지리지4 목록에 따르면,<sup>17</sup> 당시 고구려가 요동성과 백암성 등을 장악한 것으로 나온다. 고구려가 645년 이후 당에 함락되었던 요동성과 백암성 등을 수복하여 군사방어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한 당군의 전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

17 『삼국사기』 지리지4 목록(目錄)에는 압록강 북쪽의 고구려 성곽을 미항성(未降城), 이항성(已降城), 도성(逃城), 타득성(打得城) 등으로 분류했는데, 대체로 667년에 당이 신성 공격에 앞서 남생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진황표로 파악된다(池內宏, 1941; 1960; 노태돈, 1999a). 이에 대해 당이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부흥군을 진압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김강훈, 2017).

수밖에 없었고, 당군이 퇴각한 다음에는 고구려가 이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방어체계를 복구할 수 있었다.

이에 당은 백제 멸망 직후인 661~662년에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여 육로와 수로를 통해 요동 지역, 압록강 하류 일대, 평양성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이민수, 2021). 이때 당은 신라로부터 군량미를 보급받았지만, 흑한기에 장기간 버티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당은 661~662년에 평양성을 오랫동안 포위하다가 신라로부터 군량미를 보급받은 다음 곧바로 퇴각했다.<sup>18</sup> 당군을 지휘했던 소정방에 대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모두 큰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 평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1년조).

그런데 665년 연개소문 사망 이후 형제 사이의 권력투쟁에서 실각한 남생이 당에 투항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당은 남생으로부터 최고급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전략·전술을 새롭게 짰다. 남생 투항 이후의 전황에 대해서는 사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하는데,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당이 666년에는 국내성에 웅거한 남생의 구출 작전, 667~668년에는 최후의 고구려 원정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여호규, 1999b).

당은 남생의 투항 요청을 받은 다음, 666년 6월에 글필하력(契苾何力)과 방동선(龐同善)을 파견해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당군이 고구려군을 대파하자, 남생은 국내성 부근의 6성 10여만 호를 거느리고 당

---

18 661~662년 당이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이유는 거란과 철록(鐵勒)의 흥기로 원정군을 요서나 몽골초원 방면으로 대거 이동시켰기 때문인데, 고구려가 거란이나 철록과 연계했을 가능성이 있다(여호규, 2018).

에 투항했고, 소자하 연안의 창암성(棕嶺城), 목저성, 남소성 등 3성도 투항했다(〈천남생묘지명〉). 당이 혼하~소자하 연안로를 장악함에 따라 최전방의 신성은 고립무원에 처했다. 다만 666년 당의 목표는 남생을 탈출시키는 것이었기에 이들 성을 점령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667년 이후 이 지역의 고구려 성들은 당의 수중에서 벗어났고, 당은 그 이후 이 성들을 다시 함락시켜야 했다. 신성~국내성에 이르는 당의 군사작전은 〈표2〉처럼 666년과 667~668년 두 차례 진행된 것이다(노태돈, 1999a; 2009).

당은 남생을 탈출시킨 다음 최후의 고구려 원정에 착수했다. 666년 12월에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에 임명하여 고구려 원정군을 편성하는 한편, 하북(河北) 여러 주에서 거둔 세금을 모두 군량으로 공급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런 다음 667년 2월에 이적이 요수를 건넌 다음 신성으로 향했다. 이때 고구려가 요하 일대에 15만 대군을 배치했지만(『구당서』 글필하력전), 당군의 도하를 저지하지 못했다. 이적은 신성 공격에 앞서 “신성은 고구려 서쪽 국경의 진성(鎭城)으로 가장 중요한 요해처이다. 이를 먼저 도모하지 않으면 나머지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했다(『구당서』 고려전). 이적이 신성의 군사적 위상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인데, 남생이 제공한 군사정보 덕분이었을 것이다.<sup>19</sup>

실제 신성은 요하 하류와 중상류를 가르는 경계지대일 뿐 아니라, 요

19 신라는 당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며 고구려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였다. 677년 7월에 신라의 장군 지경(智鏡)과 개원(愷元)이 요동에 파견되어 당의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당으로부터 평양성 공략전에 합류해줄 것을 요청받았다(『삼국사기』 신라본기6 문무왕 7년 7월조). 이 과정에서 당이 작성한 요동 지역의 전황 문건이 신라에 전달되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4에 실린 목록은 이 전황표에 해당한다(노태돈, 1999a; 2009).

동평원에서 압록강 중류나 송화강 방면으로 나아가는 진입로의 길목에 위치했다. 신성은 각 방면의 군사방어체계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것이다. 이에 신성 공격을 쉽게 포기했던 645년 달리, 이적은 667년 2월 부터 수개월 동안 신성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9월에 내부 투항자의 도움으로 함락시키고, 주변 16성까지 점령했다. 이적은 신성 함락의 여세를 몰아 666년에 투항했다가 반기를 든 신성~국내성 일대를 공략했다. 이때 고구려는 금산(金山)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말갈병 수만을 남소성에 주둔시키는 등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당의 설인귀 등이 고구려의 저항을 물리치고 국내성까지 진격하여 남생 군대와 합류했다(寺內威太郎, 1994).

이로써 신성~국내성의 여러 성곽이 당군의 수중에 장악되었고, 요하 하류와 중상류의 방어체계를 잇는 중간 허리가 잘리게 되었다. 고구려는 더 이상 요하 하류와 중상류 일대 나아가 송화강 일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송화강 일대의 말갈병도 원활하게 동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방어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적은 신성~국내성의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킨 다음 668년 2월 설인귀를 요하 중상류와 북류 송화강으로 파견하여 부여성을 공략하는 한편, 본인은 남으로 기수를 돌려 부여성 지원에 나선 고구려군을 살하수에서 격파했다. 그리고 국내성 방면 군사작전을 마무리한 글필하력의 군대와 합류하여 대행성 → 압록책 → 욱이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공하여 668년 9월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이상과 같이 666~668년경 당군의 군사작전을 통해 신성이 서북방 방어체계의 핵심고리임을 알 수 있다. 신성은 지역적으로 요하 하류와 중상류, 요동 동부 산간지대, 북류 송화강 일대의 방어체계를 유기적으

로 연관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구려는 667년에 요수 연안에 15만 대군을 주둔시키고, 남소성에 말갈병 수만 명을 주둔시켜 당군에 맞서는 최후의 군사작전을 전개했는데, 요수와 남소성 사이에 자리한 신성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신성이 무너지자 주변의 위성산성은 물론이고 각 방면의 성곽도 차례대로 함락되었다. 서북방 방어체계의 핵심고리인 신성이 함락된 지 불과 1년 만에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다.<sup>20</sup>

### 3.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조 배경

#### 1) 천리장성의 경로에 대한 연구현황

고구려는 당과의 결전을 앞두고 631년부터 서북방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실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면 기존의 방어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천리장성의 경로나 축성 배경을 고찰했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천리장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는데, 천리장성이라고 단정할 만한 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천리장성은 631년 2월에 착공하여 16년간의

---

20 수·당과의 전쟁과 군사방어체계의 운용 양상에 대한 상기 기술은 여호규, 1999b를 수정, 보완했다.

공사 끝에 완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성의 동북 기점은 부여성(扶餘城)이고, 서남 종점은 바다(海)이며, 길이는 1,000여 리이다.<sup>21</sup> 동북 기점이 부여성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 천리장성의 경로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종전 논의도 부여성의 위치 비정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가령 중국 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요령성과 길림성으로 양분되어 장성의 경로를 각기 다르게 설정했는데, 부여성의 위치를 서풍 성자산산성과 농안 일대로 다르게 비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요령성 학자들은 부여성을 서풍 성자산산성으로 비정한 이문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천리장성의 경로를 설정했다(李文信, 1962; 王綿厚, 1990). 천리장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 성곽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했다는 산성연방선설(山城聯防線說), 이를 조금 수정한 중간방어선설(中間防禦線說)과 쌍중방어장새설(雙重防禦障塞說)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산성연방선설은 진대위가 주장한 것인데, 서풍 성자산산성에서 대련 대흑산성에 이르는 서부 국경지대의 기존 성곽을 연결해 천리장성을 구축했다고 보았다. 부여성 등의 대형 산성은 평원지대와 산간지대의 경계지역에 일직선으로 위치했는데, 이들은 천리장성의 방어선에서 중점 정보를 이루었다고 보았다(陳大爲, 1989).

양진정이 이러한 산성연방선설의 논리를 더 보완했다. 요하는 천연

2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8 영유왕14년조, “唐遣廣州司馬長孫師, 臨遼隋戰士骸骨, 祭之, 毀當時所立京觀. 春二月, 王勳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구당서』 권199하 동이 고려전, “(貞觀)五年, 詔遣廣州都督府司馬長孫師, 往收遼隋時戰士骸骨, 毀高麗所立京觀. 建武懼伐其國, 乃築長城, 東北自扶餘城, 西南至海, 千有餘里.” 위에서 보듯이 『삼국사기』에서는 서남 종점을 ‘東南至海’라고 표기했는데, ‘西南至海’의 오키이다.

해자로 방어시설을 축조할 필요가 없고, 요하와 산성연방선 사이도 장성을 축조하기에 불리한 평원이기 때문에 기존 산성을 연결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다. 장성의 서남단도 평지인 요하 하구보다 사방이 절벽인 대흑산성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성자산산성과 철령 최진보산성 외곽의 토루(土壘)를 각 산성을 잇던 장성의 유적으로 보았다(梁振晶, 1994).<sup>22</sup>

중간방어선설은 산성연방선설을 약간 수정한 견해이다. 산성연방선설처럼 천리장성의 축조로 기존의 산성연방선이 완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이와 별도로 산성연방선과 요하 사이의 평원지대에 장성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상정했다. 다만 황급히 축조해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군에게 부딪히자마자 붕괴되어 별다른 주의를 끌지 못했다고 보았다(陳大爲, 1995).

쌍중방어장새설도 중간방어선설처럼 천리장성의 축조로 산성 중심의 기존 방어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파악한다. 다만 기존 산성연방선 외에 새롭게 요하 양안에 두 줄기의 방어선을 구축했다며, 무려라(武厲邏: 通定鎮)를 요하 서안 방어선의 장새(障塞)로 파악했다. 천리장성의 축조로 요하의 양안에 쌍중의 방어장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王綿厚, 1990·1994).

이처럼 요령성 학자들은 서풍 성자산산성을 부여성으로 비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천리장성의 경로나 성격을 파악했다. 이들은 부여성

22 북한 학계도 처음에는 부여성(서풍 성자산산성)에서 사비성(금현 대흑산성)에 이르는 기존의 전연(前沿)방어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기존 성곽을 연결해 천리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는데(채희국, 1985; 박창수, 1990), 1990년대 이후에는 평원토벽설을 따랐다(손영중, 1997; 오철민, 2011;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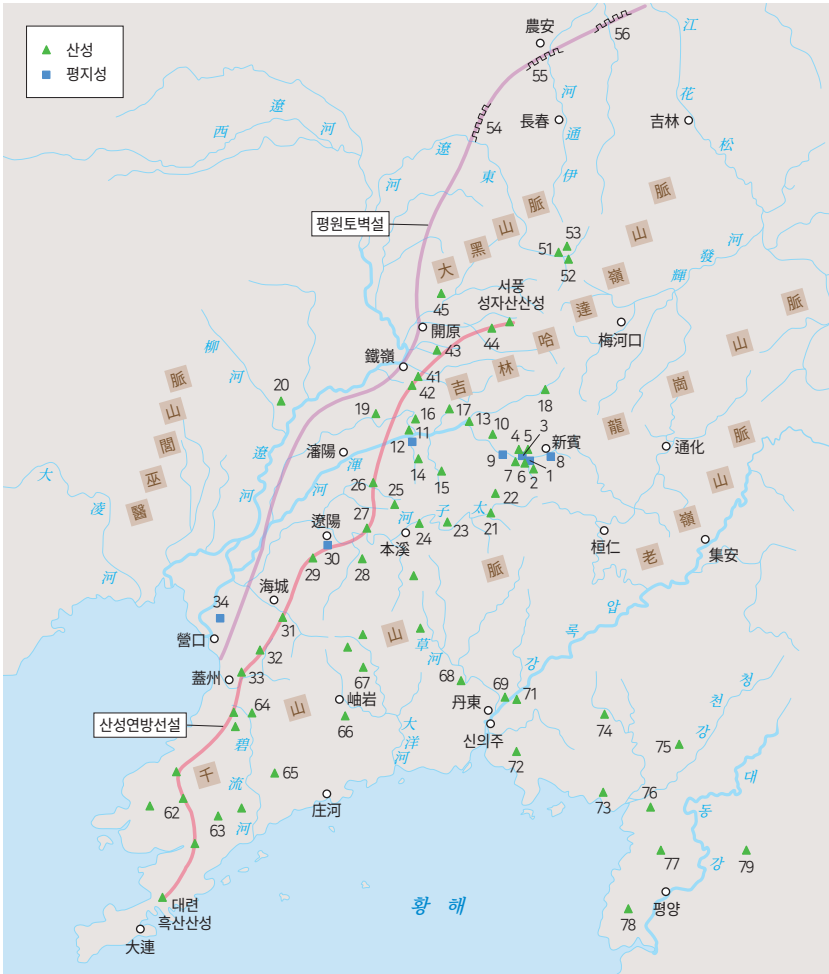


그림4 | 천리장성의 경로에 관한 견해  
 | 각 성곽의 명칭은 304쪽 그림1 참조

을 길림합달령산맥 방면에 위치한 성자산산성으로 비정했기 때문에 천리장성을 기존 산성을 연결한 산성연방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부여성을 서풍 성자산산성으로 비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산성의 규모가 크고 내부에 대규모 건물터가 있으며, 668년 당의 설인귀가 부여성을 공격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신성(무순 고이산성)에서 가깝다는 정도가 논거의 전부이다(梁振鼎, 1994).

한편 길림성 학자들은 부여성을 송료대평원 한북판의 농안(農安) 일대로 비정하고 천리장성의 경로를 설정했다. 이견재는 동북 기점인 부여성은 농안 일대, 서남 종점은 농안에서 천여 리인 요하 하구의 영구(營口)로 비정했다. 기점과 종점을 모두 송료대평원에 비정함에 따라 경로도 송료대평원을 종단하는 요하 동안(東岸)의 평원지대로 설정되었다. 천리장성은 송료대평원에 새롭게 축조한 평원토벽(平原土壁)인데, 송화강·요하의 분수령지대의 공주령시(公主嶺市: 구懷德縣) 노변강 유적을 장성 유적의 일부로 보았다(李健才, 1987).

왕건군도 부여성을 농안 일대로 비정한 다음, 공주령 노변강유적을 천리장성의 일부로 파악했다. 다만 천리장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재와 다른 견해를 제기했는데, 고구려 국력이 쇠퇴한 상태에서 축조했기 때문에 장성은 이름일 뿐이고 토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서남 종점도 요동반도 서남단(비사성: 대련 대흑산성)으로 설정하고 요령성 학자들처럼 주요 군사 중진을 연결한 보조시설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천리장성은 당과의 전쟁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원토벽설과 산성연방선설을 혼합한 절충설에 가깝다(王健群, 1987).

이처럼 천리장성의 경로에 대한 견해는 요령성과 길림성으로 양분

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수정설이 다수 제기되었다. 가령 요령성의 왕면후는 동북 기점을 송료분수령의 서쪽, 서남 중점도 요하 하구 동측의 개현(蓋縣) 진해부(鎭海府) 일대로 수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천리장성의 경로도 요하의 동안과 산지·평원의 산성을 연결한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했다(王綿厚, 1996; 1999). 이견재도 공주령시 동북쪽의 덕혜시(德惠市) 경내에서 노변강유적이 확인되자, 동북 기점을 북류 송화강의 서안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부여성으로 비정했던 농안이 덕혜~공주령 노변강유적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자, 종전 견해를 수정하여 농안은 후기 부여의 왕성이고 고구려 후기 부여성은 부여의 원중심지였던 길림 지역이라고 파악했다(李健才, 1991; 2000).

신형식도 천리장성의 경로가 시대별로 변천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천리장성의 구간이 처음에는 농안~영구였는데, 이때는 군사방어가 아니라 물자 수송로인 농안~영구의 하변로(河邊路)를 보호하던 시설이었다고 파악했다. 그런데 7세기 전반 수·당의 전쟁 격화로 발해만~황해 등 해안방어선의 중요도가 높아지자, 신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보았다. 전기의 천리장성이 치마로(馳馬路)라면, 7세기 전반에 구축된 후기의 천리장성은 기존 산성을 이은 군사방어선이라는 것이다(申滢植, 1997; 1999)

이상과 같이 천리장성의 경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대체로 산성연방선설, 평원토벽설, 양자를 혼합한 절충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산성연방선설이 부여성을 길림합달령산맥 방면의 서풍성자산산성으로 비정한 데 따른 것이라면, 평원토벽설은 송료대평원 한복판의 농안 일대로 비정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여러 견해 가운데 산성연방선설과 평원토벽설을 혼합한 절충설은 입론의 근거 자

체에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왕건군처럼 공주령~영구의 노변강유적을 천리장성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그 성격을 기존 산성의 보조시설로 이해하는 절충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요하 동안의 노변강유적과 기존 산성은 40~50km 이상 떨어져 있어 양자를 하나의 방어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령 노변강유적은 대흑산맥의 서북쪽 40~50km 거리에 위치한 반면, 가장 가까운 고구려 산성은 반대편인 대흑산맥 동남쪽이나 서남단에 자리한 요원 용수산성, 개원 용담사산성이 있을 뿐이다. 공주령 노변강유적을 천리장성의 일부로 본다면, 이를 기존 산성을 연결하는 보조시설로 볼 수 없다. 천리장성의 경로를 요하의 동안과 산지·평원의 산성을 연결한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한 왕면후의 수정 견해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산성연방선설의 변형인 중간방어선설도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중간방어선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요하 동안이나 요동평원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기존의 산성연방선을 재정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sup>23</sup> 그렇지만 16년간이나 온 국력을 기울여 기존의 산성연방선과 다른 라인의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면, 보조방어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쌍중방어장재설의 경우에는 요하 양안에 구축했다는 장성의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는데, 중간방어선설처럼 천리장성의 축조와 함께 기존의 산성방어체계가 완성

---

23 심양(瀋陽)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의 토벽에서 수대의 오수전(五銖錢)이 출토된 것에서 보듯이 7세기 전반에 기존의 산성방어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b)

되었고 이것이 말기까지 주요 방어체계를 이루었다고 이해했다. 이 견해도 중간방어선설처럼 천리장성은 보조방어시설에 불과하다고 보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형식의 견해도 7세기 이전에 천리장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료가 없다. 더욱이 현전하는 사료상 7세기 전반에 구축했다는 천리장성의 기점은 부여성이 명확한데, 별다른 근거 없이 신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천리장성을 산성연방선과 평원토벽을 혼합한 것으로 보는 절충론, 그리고 기존 산성연방선의 보조방어 시설로 이해하는 중간방어선설이나 쌍중방어장새설 등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종전 견해 가운데 자체적인 논리 모순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는 산성연방선설과 평원토벽설 정도를 들 수 있다.<sup>24</sup>

## 2)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조 배경

천리장성 경로 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북 기점인 부여성의 위치이다. 산성연방선설과 평원토벽설도 부여성의 위치를 각기 서풍 성자산산성과 농안 일대로 다르게 비정한 다음, 장성의 경로와 그 성격을 파악했다. 그럼 부여성은 과연 어디로 비정할 수 있을까?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발해는 고구려의 부여성에 부여부(扶餘府)를 두었다고 하며, 『요사(遼史)』 지리지에 따르면 발해 부여부는

---

24 이성제, 2014에서는 부여성을 길림 용담산성으로 비정한 다음, 천리장성을 한 줄기의 방벽으로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서변의 전 구간에 걸쳐 방어시설을 구축한 것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다만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지 않아 그 실체를 어떻게 상정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요(遼)의 용주(龍州) 황룡부(黃龍府)라고 한다. 고구려 후기 부여성이 발해의 부여부를 거쳐 요의 황룡부로 변화한 것이다. 요의 황룡부는 1013년에 지금의 농안 지역에 다시 설치되지만, 요 태조 야율아보기 시기에는 농안 서남쪽의 이통하(伊通河)와 신개하(新開河) 사이에 위치했다(日野開三郎, 1951; 1952; 1991). 그러므로 고구려 후기 부여성은 농안의 서남쪽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松井等, 1913; 노태돈, 1999a).<sup>25</sup>

농안 일대가 고구려 후기 부여성일 가능성은 부여사의 전개와 이 지역의 지형조건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부여의 원중심지는 북류 송화강 중류의 길림시 일대였는데, 4세기 전반 고구려의 침공을 받고 중심지를 서쪽으로 이동해 전연(前燕) 가까스로 옮겼으며, 5세기 말에는 물길(勿吉)의 압박을 피해 고구려에 투항했다. 고구려 후기 부여성은 바로 서쪽으로 옮긴 후부여의 중심지에 설치된 것이다(노태돈, 1999a).

그런데 송화강 일대의 지형상 부여인들이 고구려의 공격을 피해 이주했을 만한 지역으로는 이통하 연안의 농안 일대가 가장 유력하다. 농안보다 서쪽 지역은 저습지대나 초원지대로 농경민인 부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남쪽의 대흑산맥~길림합달령산맥 일대는 고구려나 전연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농안 지역은 대흑산맥과 이통하·음마하(飲馬河) 연안의 저지대에 의해 송화강 중상류와 뚜렷이 구분된다. 특히 농안 지역은 연강수량 500~600mm의 경계선으로서 전업농경의 서쪽 한계선이다(여호규, 2022b). 이에 부여인들은 고구

---

25 지금의 농안고성(農安古城)은 요가 황룡부를 복치한 이후 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농안고성에서 고구려시기 유적이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고구려 후기 부여성을 농안 일대로 비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고구려 후기 부여성은 농안고성이 아니라, 그 서남쪽 일대로 비정되기 때문이다.

려에 의해 원거주지를 함락당하자 송화강 중상류 유역과 대흥안령산맥 초원지대의 중간지역인 농안 일대로 중심지를 옮겼다고 파악된다(여호규, 2000).

천리장성의 동북 기점인 ‘부여성’이 농안 일대라면, 서남 종점인 ‘바다’는 어디일까? 종래 서남 종점의 유력한 후보지로 요하 하구인 영구(營口)와 요동반도 서남단인 대련(大連)이 거론되었다. 천리장성은 기본적으로 군사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그런데 영구보다 남쪽 지역은 요동반도의 해안지대로 천산산맥이 동북~서남 방향으로 서남단까지 뻗어 있고, 천산산맥과 요동만 사이에는 해안평야가 기다랗게 놓여 있다. 이 일대에 장성을 축조한다면 적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텐데, 내륙에 위치한 기존 산성을 연결하여 장성을 축조했다면 군사전략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지형조건과 군사전략상 서남 종점은 요하 하구인 영구로 파악된다. 실제 부여성으로 비정되는 농안 일대에서 거리가 천여 리인 곳도 영구이다.

이처럼 천리장성의 동북 기점인 부여성은 농안의 서남쪽, 서남 종점인 바다는 요하 하구의 영구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장성의 경로는 길림성 학자들의 견해처럼 농안 일대에서 시작하여 송화강~요하 분수령지대의 송료대평원을 가로질러 동요하에 이른 다음, 요하 동안을 따라 요하 하구에 이르는 구간에 축조되었다고 파악된다. 요하 동안은 기존의 산성방어체계가 위치한 요동평원·산간지역의 접경지대에서 서쪽으로 50km 가까이 떨어져 있다.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하며 산성 중심의 기존 군사방어체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손영중, 1997; 田中俊明, 1999; 여호규, 2000).

그런데 송료대평원 한복판인 공주령시 일대에서 동북~서남으로

기다랗게 뻗은 토벽인 노변강유적이 조사되었다(『懷德縣文物志』; 李健才, 1987; 王健群, 1987). 1990년대에는 공주령시 동북쪽의 덕혜시(德惠市) 일대에서도 노변강유적이 확인되었다(李健才, 1991). 이들 노변강유적은 연·진·한대, 요대, 금대, 명대, 청대 등 다른 시기의 장성과 겹치지 않고(馮永謙·何薄濤, 1986; 馮永謙, 1992; 2002; 遼寧省 長城學會, 1996; 李健才·劉素雲, 1997),<sup>26</sup> 앞서 상정한 천리장성의 경로 가운데 송화강~요하 분수령지대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덕혜~공주령 일대의 노변강유적은 천리장성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馮永謙, 2002; 張福有·孫仁杰·遲勇, 2010a; 2010b; 오철민, 2011; 2012; 우석훈, 2014; 신광철, 2022).<sup>27</sup>

그럼 고구려가 왜 천리장성을 축조했을까? 앞서 예시한 『삼국사기』나 『구당서』 등의 사료에 따르면, 당이 고구려의 대수(對隋) 전승기념물인 경관(京觀)을 파괴하자, 고구려가 이에 두려움을 느껴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당의 경관 파괴가 장성 축조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이 경관을 파괴한 시점은 631년 8월이다(『구당서』 권3 정관5년 8월조). 『삼국사기』처럼 장성의 착공시점을 631년 2월로 본다면 경관 파괴를 축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기 힘들다. 실제 연대순으로 서술된 『자치통감』과 『책부원구』에는 경관 파괴와 장성 축조 가운데 어느 하나만 기록했다(『책부원구』 권957 고구려조).

26 馮永謙, 2002에서는 요령성 지역의 고구려 천리장성은 명대 장성으로 재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두 장성 경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27 이성제, 2014에서는 노변강유적 가운데 상당수는 인공구조물이 아니고, 인공구조물인 경우에도 방어적 기능이 약했고,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 바 없으며 천리장성의 일부로 상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경관 파괴가 장성 축조의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다 하더라도 ‘경관 파괴’로 상징되는 당의 군사적 위협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착공하기 직전인 630년에 동돌궐이 당에 의해 괴멸되고, 서북방의 거란·해(奚)·습(纥) 등이 당에 투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파트너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당의 예봉이 언제든지 고구려로 향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수의 침공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고구려인들로서는 위기감에 휩싸여 군사방어를 강화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리장성은 동돌궐의 궤멸 등 정세 변화에 따른 당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축조했다고 이해된다(노태돈, 2009).

전술한 바와 같이 요령성 학자들은 고구려가 천리장성의 축조를 통해 기존의 산성방어체계를 강화했다고 이해한다. 물론 고구려가 당의 침공에 대비하여 기존의 산성방어체계를 재정비했겠지만, 천리장성은 송료대평원에 축조한 평원토벽으로 기존의 산성방어체계와 명확히 구별된다. 천리장성은 기존의 산성방어체계 강화가 아니라, 그와 다른 새로운 방어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축조한 것이다.<sup>28</sup> 다만 천리장성의 경로 가운데 요하 하류 구간은 당군의 침공로에 해당하지만, 요하 중상류나 송료분수령 구간은 당의 침공 경로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리장성의 축조 목적도 구간에 따라 달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여호규, 2000).

28 고구려가 628년에 당에 봉역도(封域圖)를 보낸 점에 주목해 국경 확정을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했다고 보기도 한다(우석훈, 2014).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는 612~613년에 한 갈래로만 요하를 건넌 반면, 당은 645년에 세 갈래의 도하로를 모두 이용하여 요하를 건넌 다음 요동 지역 각지의 고구려 성곽을 차례로 공략하는 전략·전술을 구사했다. 수군과 당군의 행보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력 병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수만 하더라도 4세기 이래의 중장기병(重裝騎兵)이 주력 병종이었는데, 수·당 교체기의 농민란을 거치며 경기병(輕騎兵)과 보병이 주력 병종으로 부상했다.

이에 당은 경기병과 보병을 주력 병종으로 삼아 고구려 침공을 감행했다. 당은 월등히 향상된 기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도하로를 통해 요하를 건넌 다음 고구려 성곽을 차례로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고구려는 중원 대륙의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619년 이래 자주 당에 사신을 파견한 만큼 제반 정세 변화나 당의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가 기존의 산성방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동력이 향상된 당군의 도하를 방어하기 위해 요하 하류의 동안을 따라 천리장성이라는 새로운 군사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요하 중상류와 송료분수령 구간은 당의 침공로는 아니지만, 당의 침공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천리장성 착공 직전에 동돌궐이 당에게 궤멸되었을 뿐 아니라 거란·해·습 등이 당에 투항했다. 당이 거란·해·습을 동원해 요하 중상류나 송료분수령 일대를 침공할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또 북류 송화강 일대에 고구려에 예속된 말갈이 산재해 있었는데, 당이 이들한테도 영향력을 뻗칠 수 있었다. 실제 당은 645년 고구려 침공 시에 거란을 동원했고, 6세기 말에는 말갈의 일부가 수에 투항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로서는 당에 예속된 거란의 침공을 방어하면서, 예하의 말갈이

당의 영향권 아래로 이탈하는 것을 봉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농경과 유목의 접이지대로서 말갈과 거란의 접경지역인 요하 중상류~북류 송화강 일대의 송료대평원 한복판을 가로질러 천리장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거란의 침공을 방어하는 한편, 말갈이 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었다. 실제 고구려는 645년뿐 아니라 667~668년에 벌어진 최후의 군사작전에서도 말갈병을 대거 동원했는데, 천리장성의 축조를 통해 말갈의 이탈을 방지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천리장성은 당의 군사전략과 외교정책에 맞서기 위해 축조한 군사방어선이다. 요하 하류 구간의 천리장성이 당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서기 위해 축조한 것이라면, 요하 중상류~북류 송화강 일대의 천리장성은 당의 외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천리장성의 축조를 통해 군사·외교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천리장성에는 7세기 전반 고구려의 군사·외교정책이 스며 있는 것이다.<sup>29</sup>

---

29 천리장성의 경로와 축조 배경에 대한 상기 서술은 여호규, 2000을 수정, 보완했다.

## 참고문헌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남일룡, 1995,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 방어체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노태돈, 1999a,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_\_\_\_\_,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5,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논장 복각판, 1988).
- \_\_\_\_\_, 1979, 『조선전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_\_\_\_\_, 1991, 『조선전사(3): 중세편(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서인한, 1991,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손영중, 1997,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1999a, 『高句麗 城』Ⅱ(遼河流域篇), 國防軍史研究所.
-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엮음, 2020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 요동반도 - 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 - 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동북아역사재단.
- 이정빈, 2018, 『고구려 - 수 전쟁』, 주류성.
- 정동민, 2022, 『고구려 - 수 전쟁』, 신서원.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채희국, 1985, 『고구려력사연구 - 고구려 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

일성종합대학 출판사.

- 김강훈, 2017,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 김복순, 1986, 「고구려 대수·당 항쟁전략 고찰」, 『군사』 12.
- 김영하, 2000,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 『한국사연구』 110.
- 김주형, 2022 「고구려 후기 요동지역 고구려 성의 위계와 방어체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동욱, 2009, 「6~7세기 고구려 지방군사운용체계」, 『사학연구』 95.
- 나유정, 2021, 「한원 번이부의 전거자료와 편찬태도」, 『규장각』 59.
- 노태돈, 1996, 「5~7세기 고구려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
- 박창수, 1988a, 「고구려 서북방 성방어체계의 위력」, 『조선고고연구』 1988-3.
- , 1990, 「고구려의 성분포와 서북방어체계」, 『력사과학논문집』 15.
- 신광철, 2022, 「관방체계를 통해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형식, 1997, 「고구려 천리장성 연구」, 『백산학보』 49.
- , 1999, 「천리장성」, 『한국의 고대사』, 삼영사.
- 양시은, 2014a, 「고구려 성의 방어체계 변천양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84.
-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 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
- , 1999b,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體系와 軍事戰略」, 『韓國軍事史研究』 3.
- ,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 , 2002, 「요하 중상류 동안지역의 고구려성과 지방지배」, 『역사문화연구』 17.
- ,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대구사학』 133.
- , 2022b, 「만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통로」, 『중양사론』 55.
- 오철민, 2011, 「고구려 장성의 분포상태와 그 특징」, 『조선고고연구』 2011-3.
- , 2012, 「고구려 장성의 축조형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2.
- 우석훈, 2014, 「요하 유역의 고구려 천리장성」, 『군사』 92.
- 윤용구, 1999, 「고구려의 평地城과 郡縣城 운용」,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

- 연구』8.
- \_\_\_\_\_, 2008, 「현도군의 군현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경미, 2017a, 「태자하-요동반도 일대 고구려 성의 분포양상과 지방통치」, 『역사문화연구』61.
- \_\_\_\_\_, 2017b, 「압록강-요하 유역 고구려 성곽과 지방통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준, 2009,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군사전략」, 『학림』30.
- 이문기, 2007, 「7세기 고구려의 군사편제와 운용」,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 연구)』27.
- 이민수, 2021,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수군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38.
- 이성제, 2013b,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遷」, 『大丘史學』113.
- \_\_\_\_\_, 2014,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 『嶺南學』25.
- \_\_\_\_\_, 2017, 「高句麗와 遼西橫斷路-遼河 沿邊 交通路와 관리기구」, 『韓國史研究』178.
- 이정빈, 2011,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변경지대와 그 변화-요서 지역의 라와 수의 진·수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82.
- 이호영, 1996,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2)』, 한길사.
- \_\_\_\_\_, 1998, 「高句麗 前期 山城 研究」, 『國史館論叢』82.
- \_\_\_\_\_, 2015,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77.
- 정동민, 2020,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양상」, 『한국고대사탐구』34.
-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50.
- 홍باط음·강동석, 2021, 「GIS를 활용한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 검토-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를 중심으로」, 『문화재』54-1.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5, 『懷德縣文物志』.

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第二卷), 黑龍江人民出版社.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王綿厚·李健才, 1990, 『東北古代交通』, 沈陽出版社.
- 王禹浪·王宏北, 1994,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 哈爾濱出版社.
- 王禹浪·王文軼, 2008, 『遼東半島地區的高句麗山城』, 哈爾濱出版社.
- 遼寧省長城學會, 1996, 『遼寧長成』.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b, 『石臺子山城』(上, 下), 文物出版社.
- 李健才·劉素雲(주편), 1997, 『東北地區燕秦漢長成和郡縣城的調查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李文信 編, 1962, 『遼寧史跡資料』遼寧省博物館(馮季昌·孫進己·馮永謙 編, 1987, 『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 제1 책 수록).
- 張福有·孫仁傑·遲勇, 2010b, 『高句麗千裏長城』, 吉林人民出版社.
- 馮永謙·何薄滢, 1986, 『遼寧古長成』, 遼寧人民出版社.
- 孟祥忠·潘國慶·鄭淑雲, 1993, 「西豐城子山山城考」, 『瀋陽文物』1993-2.
- 辛占山, 1994, 「遼寧境內高句麗城址的考察」, 『遼海文物學刊』1994-2.
- 梁振晶, 1994, 「高句麗千裏長城考」, 『遼海文物學刊』1994-2.
- 溫秀榮·張波, 1996, 「關於撫順地區的高句麗山城」, 『博物館研究』1996-1.
- 王建群, 1987, 「高句麗千裏長城」, 『博物館研究』1987-3.
- 王綿厚, 1986, 「隋唐遼寧建置述考」, 『東北地方史研究』1986-1.
- , 1990,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1990-2.
- , 1993, 「玄菟與新城解析」, 『瀋陽文物』1993-1,
- , 1994, 「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研究」, 『遼海文物學刊』1994-2.
- , 1996, 「遼代鎮海府與鎮東海口」, 『中國遼金契丹女真史研究動態』.
- , 1999, 「高句麗古建築分期及其歷史背景」,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 연구)』8.
- 王飛峰, 2015, 「2015年度遼寧省蓋州市高麗城山城調查和考古發掘收獲」—2015年社會科學院 考古成果(25)([www.kaogu.cn/zixun/2015nianzhongguoshehuikexueyuankaoguyanjiusuoitianyekaoguchengguoxiliebaodao/2016/0203/53000.html](http://www.kaogu.cn/zixun/2015nianzhongguoshehuikexueyuankaoguyanjiusuoitianyekaoguchengguoxiliebaodao/2016/0203/53000.html)).

- 魏存成, 2011, 「中國境內發現的高句麗山城」, 『社會科學戰線』2011-1.
- 李健才, 1987, 「東北地區中部的邊崗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1987-1.
- , 1991, 「唐代高麗長城和扶餘城」, 『民族研究』1991-4.
- , 2000, 「再論唐代高麗的扶餘城和千里長城」, 『北方文物』2000-1.
- 李甸甫, 1988, 「高句麗新城的始築年代」, 『遼海文物學刊』1988-2.
- 李殿福, 1994, 「高句麗山城構造及其變遷」, 『東北考古研究』(二), 中州古籍出版社.
- 張福有·孫仁傑·遲勇, 2010a, 「高句麗千裏長城調查要報」, 『東北史地』2010-3.
- 張正岩·王平魯, 1994, 「新城道及新城道上的諸城考」, 『遼海文物學刊』1994-2.
- 傅波, 1994, 「六祖城」, 『撫順地區清前遺跡考察紀實』, 遼寧人民出版社.
- 周向永·王兆華, 1996, 「遼寧鐵嶺市催陣堡山城調查」, 『考古』1996-7.
- 周向永·趙守利·邢傑, 1993, 「西豐城子山山城」, 『遼海文物學刊』1993-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蓋州市文物局, 2017, 「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的調查與發掘」, 『考古』2017-12.
- , 2022, 「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四號門址」, 『考古』2022-2.
- 陳大爲, 1985,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 1989, 「遼寧境內的高句麗遺跡」, 『遼海文物學刊』1989-1.
- , 1995, 「遼寧高句麗山城再探」, 『北方文物』1995-3.
- 肖景全·鄭辰, 2007, 「撫順地區高句麗考古的回顧」, 『東北史地』2007-2.
- 馮永謙, 1992,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 , 2002, 「高句麗千裏長城建置辨」, 『社會科學戰線』2002-1.
- 許明綱, 1996, 「大連地區高句麗四座山城略考」, 『博物館研究』1996-1.
- 日野開三郎, 1991,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三一書房.
- 池內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 第二冊), 吉川弘文館.
-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85.
- 渡邊三三, 1933, 「高句麗の新城發見」, 『滿蒙』14-9.

- 寺内威太郎, 1994, 「唐の高句麗侵掠と遼東の高句麗山城」, 『青丘學術論集』5.
- 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洲歴史地理』(第一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李殿福, 1991, 「高句麗山城の構造とその變遷」, 『九州考古學』66.
- 日野開三郎, 1951・1952, 「渤海の扶餘府と契丹の龍州黃龍府」, 『史淵』49~52.
- 田中俊明, 1997, 「高句麗前期・中期の遼東進出路」,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 1999, 「城郭施設からみた高句麗の防禦體系」,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8.
- 池内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6.



## 한반도 서북한 지역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심광주 | 한국성곽연구소 소장

고대에는 점령지역이 모두 영토에 편입되지는 않았다. 점령지에서 곧바로 철수하거나 일시적인 점유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점령지를 영토화하려면 성을 쌓아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행정체계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고대국가의 방어체계와 영토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유적이 성곽이다. 성곽은 군사시설이자 통치의 거점이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성곽 점유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을 새로 쌓았다면 그 행위의 주체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곽은 축성 주체와 시기에 따라 축성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수축이나 개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곽은 중요한 공공시설이자 복합적인 토목기술의 결과물이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시기 같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성곽에서는 공통적인 축성법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특정 시기의 방어체계를 이해하려면 축성법을 통해 해당 시기에 쌓은 성곽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에 관한 연구는 북한이나 중국보다 남한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한에 있는 고구려 성곽은 다 해야 40여 개에 불과하지만 그중 50%가 넘는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대부분 ‘토심석축공법(土芯石築工法)’으로 쌓은 석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심광주, 2018). 이에 비하여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고구려 성곽은 지표조사나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대부분이어서 축성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서북한 지역의 방어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곽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전연방어체계와 중심방어체계, 위성방어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채희국, 1985). 전연방어체계는 국경방어체계다. 국경 부근에 성곽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여러 성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전연방어체계는 고구려 천리장성과 광개토왕 대에 구축된 국남 7성과 국동 6성이다. 6세기 중엽 이후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들도 전연방어체계에 속한다.

중심방어체계는 도성방어체계다.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따라 성곽을 구축하여 도성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심방어체계는 도성의 위치에 따라 변화되었다. 고구려 도성이 국내성이었을 때에는 요동성이나 비사성 방면에서 국내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성곽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평양 천도 이후에는 압록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성곽들과 임진강 유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중심도로에 있는 성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중심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성곽들은 전략적 중요도나 관할 영역의 크기에 따라 규모를 달리하였다.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중심도로의 결절점에는 대규모 성곽이 배치되고 그 사이사이에는 중소 규모의 성곽이 방사상으로 배치되었다. 대규모 성곽은 지역의 거점성으로서 작은 규모의 위성을 거느리며 중심방어체계인 동시에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위성방어체계는 도성이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성곽을 배치하는 방어체계이다. 평양 천도 이후의 대표적인 위성방어체계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성방어체계와 구도였던 국내성 일대와 남평양으로 추정되는 장수산성 일대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들은 요동 지역보다 늦은 시기에 구축되었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낙랑과 대방을 몰아내고 평양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백제와의 각축양상을 고려하면 평양 천도 이후에야 새로운 방어체계가 완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 것도 천도 이후 새로운 방어시스템의 완비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5년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공취한 이후 고구려군의 남진과 퇴각, 잔류, 재진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안성의 도기동산성과 청원의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동산성 등, 성곽의 분포양상을 보면 고구려가 금강 상류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고구려가 임진강 이남 지역에 구축했던 성곽의 배치양상은

매우 독특하다. 모두 교통로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신라나 백제의 접경지역에 설치한 전연방어체계나 방사상으로 구축된 위성방어체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진강 이남의 고구려 성곽은 별도의 방어체계라기보다는 서북한 지역의 전연방어체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연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압록강에서 평양, 그리고 임진강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체계와 평양과 황해도 일원의 위성방어체계는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평양성 함락 및 이후 전개되는 임진강 유역에서의 전투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압록강에서 평양까지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1) 압록강~청천강 유역

요동 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가는 길은 서해안교통로와 내륙교통로가 있다. 서해안교통로는 의주-용천-선천-정주-안주-숙천-평양으로 이어진다. 의주에서 구성을 거쳐 정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천마산맥을 가로지르는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한다.

서해안교통로는 평야지역을 통과하므로 내륙교통로보다 대규모 병력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수와 평양성을 공격한 당의 군대는 물론, 거란과 몽골, 청의 군사들도 모두 이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길목에는 대규모 고구려 성곽이 밀집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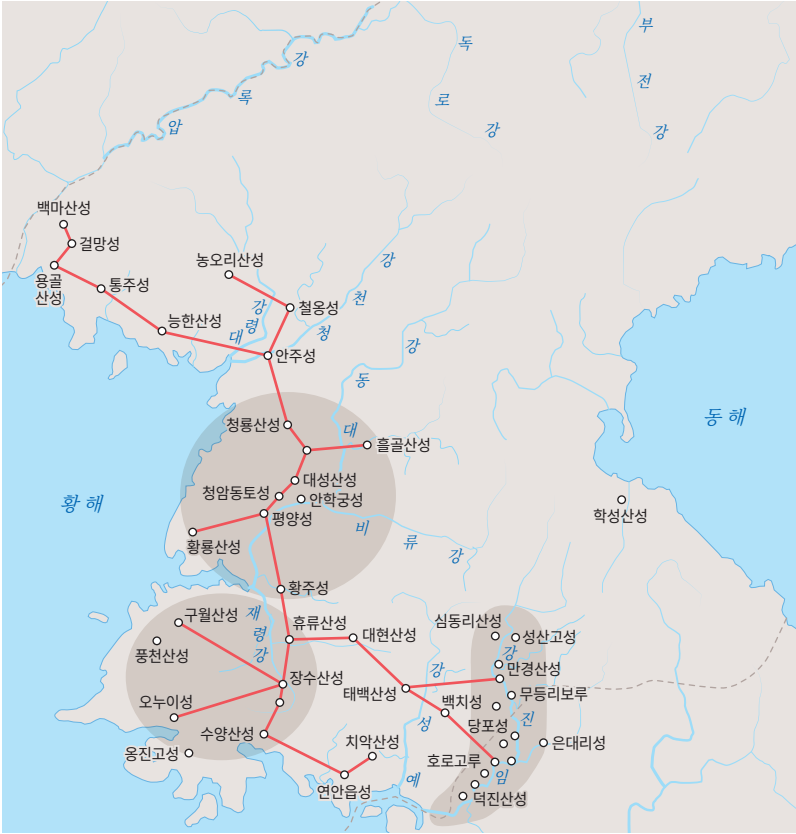


그림1 | 서북한 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와 방어체계

려 성곽은 피현의 백마산성과 결망성, 염주의 동림산성, 곡산 능한산성, 안주성 등이다.

내륙교통로는 고구려 국내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강계를 거쳐 남하하는 교통로다. 이 경로는 강계-전천-회천-영변-개천-순천-평성-평양으로 이어진다. 만포에서 향산에 이르는 산악지대에는 성곽이 구축되지 않았다. 산악지대를 지나 평지로 이어지는 영변에 이르러서야

농오리산성과 철용성이 구축되어 있다.

평안북도에 분포하는 고구려 성은 서해안교통로나 내륙교통로 모두 청천강 남쪽에 있는 안주성을 거쳐야 했다. 안주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안주-숙천-순안-평양으로 이어지는 길과 개천으로 우회하여 순천-평성-평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두 길 모두 평성의 청룡산성(자모산성)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이 산성에 방어력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에서 은산으로 우회하는 길목에는 흘골산성을 배치하여 평양의 동북지역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중 평야지역을 통과하는 안주-숙천-순안-평양에 이르는 길이 중심도로로 이용되었다. 수의 침공 당시 우문술도 이 길을 통해 안주에서 평양까지 접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상훈, 2020).

피현의 백마산성은 의주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체계의 관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성곽이었다. 현재의 백마산성은 해발 409m 봉우리를 중심으로 내성과 우마성(고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내성(둘레 2.6km)과 외성(둘레 2.4km)은 고려시대에 확장하여 쌓은 성이다. 고성이라고도 불리는 둘레 1.4km의 우마성이 고구려 성이다. 우마성의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며 가운데를 볼록하게 가공한 성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 안쪽은 막돌과 흙을 채웠으며 내탁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외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쌓는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결망성은 피현의 홍화진성으로 추정되며 백마산성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거리에 있다. 이곳은 피현벌과 삼교천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행정중심지로 적합한 지점이다. 삼교천이 성을 감싸

고 돌아 해자 역할을 하며 해발 138m 정도의 낮은 봉우리 5개를 연결하여 성을 쌓았다. 성의 둘레는 2.8km에 달하며 성벽은 화강암과 사암을 사각추 형태로 가공하여 쌓았다. 대부분 편축식이고 꼭간부만 협축식으로 쌓았다. 성내에서 고구려의 붉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용골산성은 피현과 염주의 경계에 있는 해발 476m 용골산 서남쪽 능선상에 있다. 이곳에서는 황해와 신의주 일대가 한눈에 조망된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구려 성인 내성은 둘레 670m, 조선시대 쌓은 외성은 둘레 2.5km에 달한다. 내성 벽은 잘 가공한 사각추형 돌로 외면만 쌓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용골산성에도 토심석축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동림의 동주성은 고구려 통주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장대봉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평지를 아우르도록 쌓은 평산성이다. 둘레 4.1km에 달하는 대형 성곽이다. 평지에 쌓은 남쪽 성벽은 잘 남아있으며 사각추 형태로 가공한 성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조선시대에 대대적으로 수·개축되어 고구려 당시의 원형을 알기는 어렵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능한산성은 광산의 능한산(해발 412m)에 있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쌓았으며, 둘레는 2.8km에 이른다. 성벽은 가공 성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조선시대에 수축하였으나 고구려 석축성의 특징이 잘 남아 있다. 성내에서는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태천 농오리산성은 해발 392m 산성산에 있다. 이곳은 남북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북으로는 구성-대관-순천, 동쪽으로 동창-창성을 거쳐 요동으로 통하며, 남으로는 영변-개천, 박천-안주길을 거쳐 평양

으로 이어진다. 성벽의 둘레는 2km이고 사각추형 성들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의 동남쪽 경사면에 있는 바위에는 “乙亥年 八月 前部 小大使 者 於九婁 治城 六百八十四間(을해년 8월 전부 소대사자 어구루가 684칸의 성을 쌓았다)”라는 명문이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1칸은 6척이므로 이를 고구려척으로 환산하면 소대사자 어구루가 쌓은 성의 규모는 1.46km에 달한다.

철웅성은 영변 약산에 있다. 이곳은 구룡강이 청천강과 합류되는 삼각지점으로 수륙교통의 결절점이다. 서북쪽이나 동북쪽에서 오는 적들이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더 남진할 수 없는 군사상 요충지이다. 본성과 북성, 신성, 약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성과 약산성은 고구려 성이며, 북성과 신성은 고려시대 이후에 쌓은 성들이다. 본성의 둘레는 14km로 고구려 성곽 중 평양성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성벽은 사각추형으로 잘 가공한 성들로 정연하게 쌓았다. 약산성은 동, 북, 서쪽은 자연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남쪽에만 성을 쌓았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안주성은 청천강 남안에 있으며 수륙교통의 결절점으로서 평양으로 오는 적을 차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곽이다. 주변에 넓고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다. 안주성은 내성과 외성, 신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만 고구려 성이고 외성과 신성은 조선시대에 쌓은 성이다.

내성은 청천강 기슭에서 구룡(해발 169m)을 연결하여 쌓은 평산성이며 둘레는 2.28km이다. 성벽은 사각추형으로 가공한 성들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퇴물림쌓기를 하여 조성한 굽도리 기반을 특징으로 한다. 성벽은 편축과 협축이 확인되는데, 외벽만 석재로 하고 안쪽에는 막돌과 흙을 채워 넣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전형적인 토심석축

표1 압록강~청천강 유역의 주요 고구려 성곽 현황

명칭	소재지	둘레(km)	해발(m)	특징
백마산성	피현	1.4	409	내성, 고성, 외성
걸망성	피현	2.8	138	삼교천변, 홍화진성
용골산성	염주	0.67	476	토심석축공법
능한산성	곽산	2.8	412	가공 성돌, 고구려 기와
농오리산성	태천	2	392	고구려 축성명문
철웅성	영변	14	489	사각추형 성돌
안주성	안주	2.28	169	토심석축공법, 평산성
청룡산성	평성	5.3		토심석축공법, 내성, 외성

공법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청룡산성은 평성시에 있으며 자모산성이라고도 불린다. 안주에서 평양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있으며, 평양에서 약 70km 정도 거리에 있어 평양을 방어하는 북쪽 위성에 해당한다. 이 성은 안주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청룡산 줄기의 험한 지세를 이용하여 쌓았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의 둘레는 5.3km에 달한다. 외벽은 막돌을 잘 가공하여 쌓았으며, 안쪽은 막돌과 진흙을 섞어서 다지면서 쌓았다는 것으로 보아 청룡산성 역시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성곽들은 평양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중심방어체계에 속한다. 특히 의주에서 안주에 이르는 서해안교통로 상에 대규모 성곽이 20~30km 간격으로 집중 분포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규모도 1~14km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성곽들이다. 주변에 중소 규모의 여러 성곽을 거느리고 있었다.

고구려 성곽은 교통로를 방어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가 밀집된 군현의 중심지에 있었다. 지방군사조직은 이러한 거점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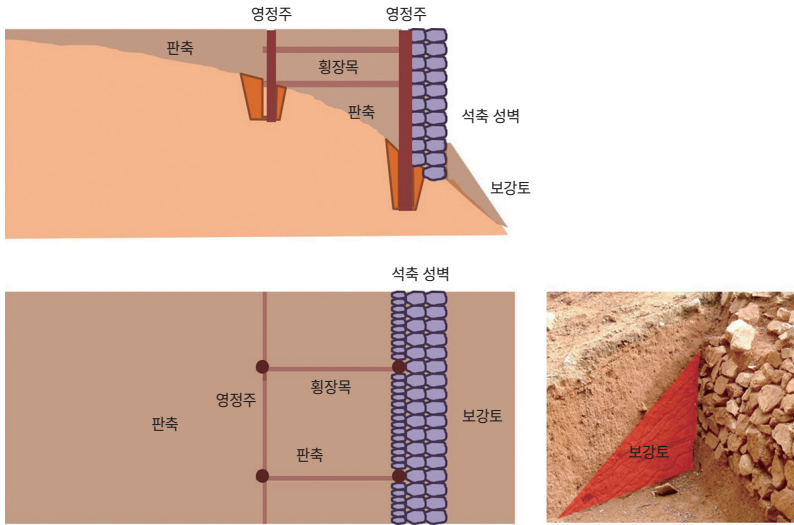


그림2 | 고구려 토심석축공법 모식도(심광주, 2018)

로 지방행정조직과 하나의 체계로 짜여 있었다. 하나의 거점성에 중소 규모 위성이 다수 포함되어 지역을 방어하고 군과 현의 행정단위로 기능하였다.

성곽은 강기슭의 단애면이나 자연절벽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쌓은 석축산성이 대부분이다. 성벽은 잘 가공된 성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내에서 붉은색을 띠는 고구려 기와가 확인되는 것이 고구려 성으로 추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약식으로 조사되고 도면이 소략하여 축성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외벽만 석축으로 하고 안쪽에 흙과 돌을 섞어 쌓았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전형적인 축성법인 토심석축공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토심석축공법은 성벽 기저부와 중심부는 토성을 쌓듯이 판축을 하고 외벽부만 석축으로 쌓는 축성법이다. 고구려 국내성과 평양 대성산

성, 평양성 등에서도 동일한 공법이 확인된다. 따라서 5세기대 이후 고구려의 핵심적인 축성법일 가능성이 있다(심광주, 2018). 이러한 축성법으로 볼 때 서북한 지역에 있는 토심석축공법으로 쌓은 고구려 성 대부분은 평양 천도 이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성곽들은 북쪽에서 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요충지에 있었으므로 고려, 조선시대에도 계속 수·개축되었다. 수·개축 방법은 주로 기존 성곽에 외성을 덧붙여 쌓아 성곽의 규모를 확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개축 성벽에서 확인되는 축성법의 특징으로 볼 때 수·개축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 2) 대동강 유역

고구려 도성인 평양성 주변의 성곽은 대성산성과 안학궁성, 청암동토성, 고방산성, 덕산산성 등이 있다. 평양 외곽의 성곽으로는 북쪽에 평성의 청룡산성과 성천의 흘골산성, 서쪽에 용강의 황룡산성, 남쪽에 황주성 등이 있었다.

이 중 청암동토성과 고방산성, 청호동토성 등은 고구려가 집안에 도읍하였던 시기에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가 평양 지역을 장악한 4세기 초부터 평양으로 천도하는 427년까지 상당 기간 평양을 비롯한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대부분 토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둘러싸인 요충지에 있다. 성곽은 모란봉(해발 96m)을 중심으로 내성과 중성, 외성, 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약 16km이고, 성벽의 총연장은 23km에 달한다. 기

초부는 판석과 진흙을 번갈아 쌓아올렸으며, 개흙층이 있는 곳에서는 통나무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놓고 자갈과 흙으로 다진 다음 성들을 쌓았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중성 서벽에 대한 발굴조사에 의하면 고조선의 토축 성벽 위에 고구려 성벽이 구축되었는데, 고구려 성벽은 바깥면은 석축이고, 안쪽 면은 황색 진흙층과 석비레층을 번갈아 축조했다고 한다(안병찬·최승택, 1998).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구려 평양성도 성벽 내부는 판축하고, 외벽만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석축공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552년 장안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586년에 천도를 단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평양성은 정점에 이른 고구려 토목기술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성산성은 평양시 동북쪽 8km 지점의 대성산(해발 270m)에 있다. 6개의 산봉을 연결하여 있었으며 전체 둘레는 9.28km에 달하는 대규모 성이다. 성벽은 사각추형으로 가공한 성돌이 사용되었으며 소문봉 성벽의 중간벽에서는 기둥흙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둥흙은 연천 호로고루와 당포성에서도 확인되어 석축부를 견고하게 쌓은 고구려의 축성공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심광주, 2018).

주작봉 성벽은 외벽만 석재로 하였으며, 남문터 부근의 성벽은 내외벽은 석재로 하고 중간은 흙과 돌을 다져서 쌓았다. 국내성에서도 확인된 이러한 축성법이 대성산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5세기를 전후하는 시기에 이미 토심석축공법은 고구려의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축성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안학궁성은 대성산 남쪽 평지에 있다. 평면 형태가 마름모꼴에 가까운 방형 토성이며 둘레는 2,488m이다. 안학궁성은 대성산성과 함께



그림3 | 고구려 성벽의 기둥홀

1. 평양 대성산성 중간벽 2. 연천 호로그루 중간벽 3. 연천 당포성

427년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 도성이라는 것이 북한 학계의 일관된 견해이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국내성 도읍기의 국내성과 환도산성처럼 안학궁성과 대성산성이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관계를 이루며 고대 도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학궁성 성벽은 축성법이 매우 독특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학궁성은 잘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너비 8~10m, 높이 1~2m로 내외벽 석축을 먼저 들여쌓기 하여 쌓고 그 위에 흙으로 판축하여 토성벽을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5m, 석축부의 기울기는 60~70°, 토축부의 기울기는 70~80°로 토축부가 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전제현·손양구, 1985).

즉, 안학궁성 성벽은 낮은 석축 기단 위에 수직에 가깝게 쌓은

3~4m 높이의 토벽으로 내외벽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축성법은 국내성, 환도산성, 대성산성, 평양성 등 고구려 도성의 축성법과 전혀 다르다. 고구려의 산성에서도 이러한 축성법의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축성법으로 보면 안학궁성은 전형적인 기단식 판축토성이다. 기저부에 2열의 기단석렬을 조성하고 판축공법으로 중심 토루를 쌓고 내외피 토루를 덧붙여 쌓았다. 외피 토루의 기저부에서는 와적층(瓦積層)도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단식 판축토성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우리나라 축성사에서 기단식 판축토성은 9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축성법이다. 이 신기술은 고려시대에는 더욱 보편화되어 개성 나성(羅城)과 강화 중성 등 도성뿐 아니라 전국 군현의 읍치를 새로 쌓거나 수축하는 주된 축성법으로 자리 잡았다.

안학궁성의 성벽 단면도는 개성 나성의 단면도와 매우 유사하다. 모두 기저부에 2열의 기단석렬을 5~6단 정도로 들여쌓기 하여 쌓고, 중심 토루를 판축하여 쌓고, 내외피 토루를 덧붙여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안학궁성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축성법인 전면석축이나 토심석축공법이 아니라 9세기 중엽 이후에 새롭게 출현하는 ‘기단식 판축공법’으로 구축된 토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안학궁성 건물지 내부에서 5세기대의 고구려 고분이 확인되었으나, 출토유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이다. 성내 건물지의 배치구조나 주간거리 등은 국내성이나 환도산성의 왕궁 건물지와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안학궁성은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학궁성의 축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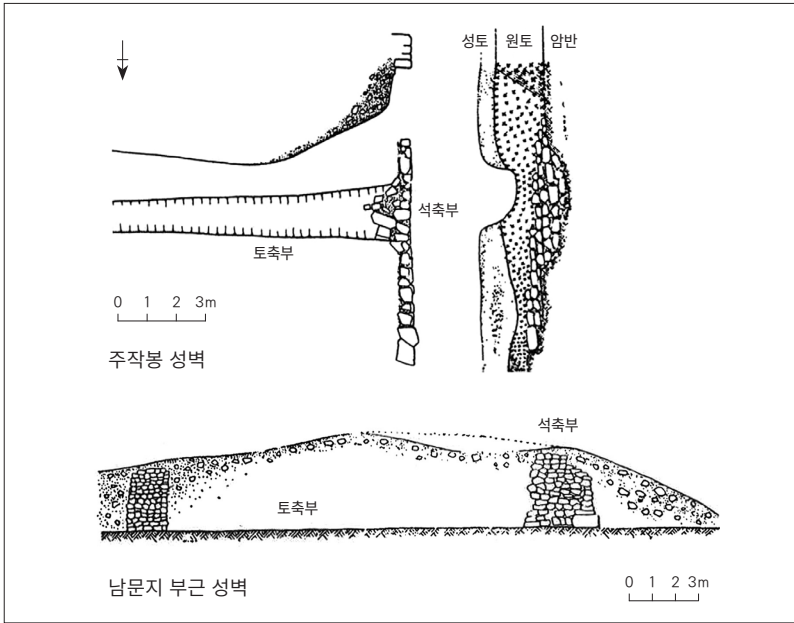


그림4 | 평양 대성산성 성벽 단면도(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일부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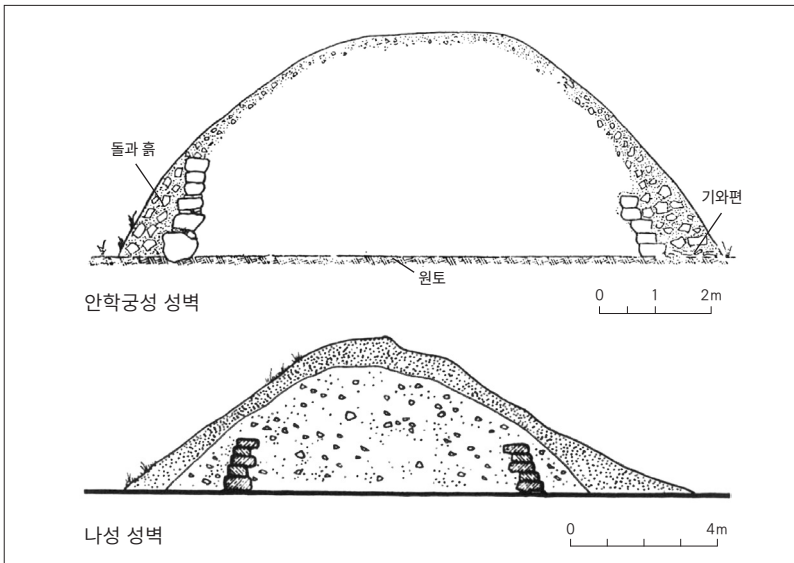


그림5 | 평양 안학궁성 성벽 단면도(사회과학원출판사, 1964)와 개성 나성 성벽 단면도 (ICOMOS한국위원회, 2004)

가 고려시대라고 한다면, 안학궁을 중심으로 설정한 고구려 중기 도성 방어체계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학궁성은 청암동토성이나 고방산성, 청호동토성, 덕산토성과 같은 기법이라고 한다. 그중 보고서에서 성벽 단면 확인이 가능한 것은 덕산토성이다. 이 토성은 청암동토성에서 북쪽으로 20km 거리의 평양시 은정구역에 있으며 둘레는 1,560m이다. 리정남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덕산토성이 고조선시기에 북쪽 방어를 위하여 쌓은 판축토성이며, 고구려와 고려시기까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리정남, 2007).

보고서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덕산토성은 판축토성이다. 그림5의 안학궁성 성벽 단면을 보면 기저부에 2열의 기단석렬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6의 1지점 토성 중심기저부의 할석은 판축토성의 기초공정에 해당하는 석축으로 볼 수 있다. 판축층 안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편과 회색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발굴 결과는 덕산토성이 고조선의 성이 아니라 기단식 판축공법으로 쌓은 고려시대의 토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청암동토성은 대성구역 청암동의 해발 62m 지점에 있다. 동으로 4km 지점에 대성산성, 안학궁성, 청호동토성이 있고, 주변에 많은 고구려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성의 남쪽으로는 대동강이, 동쪽으로는 합장강이 흐른다. 성은 주암산에서 시작하여 모란봉과 연결된다. 성의 둘레는 3.45km에 달한다. 성벽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북문지 부근 성벽의 너비는 17m이다. 토성은 고구려 이전에 쌓은 성벽을 고구려가 3차에 걸쳐 수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벽은 토성이며 기저부에 다듬은 돌을 몇 단 쌓고 그 위에 돌과 흙을 성토했다고 한다. 청암동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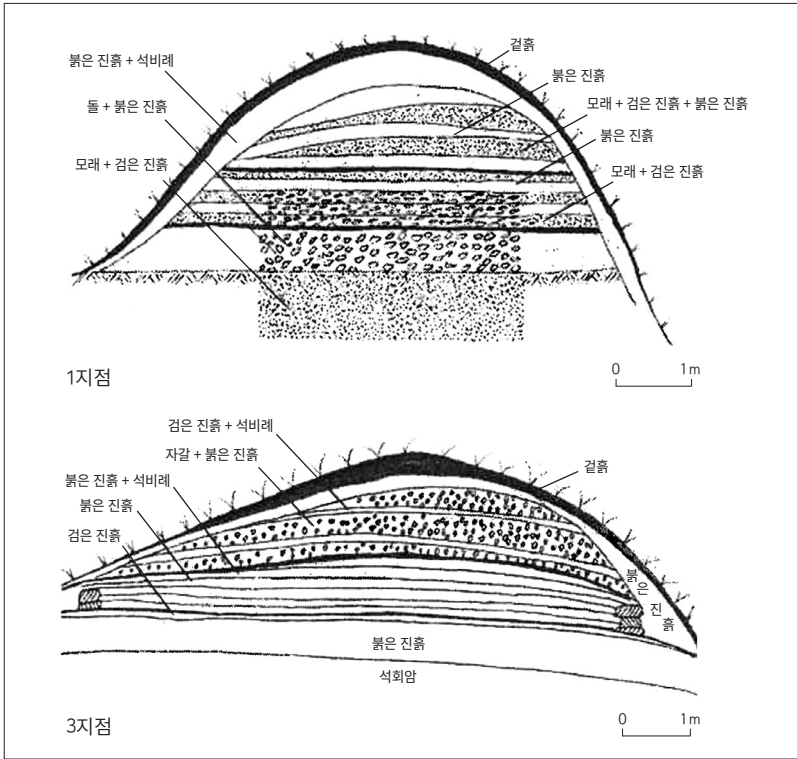


그림6 | 평양 덕산토성 성벽 단면도(리정남, 2007)

성은 평양 지역의 고구려 성곽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축성기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흘골산성은 평양성 동쪽 40km 지점에 있는 위성이며 평안남도 성천군 흘골산에 있다. 성곽은 본성과 남쪽의 고당봉을 연결하여 쌓은 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성의 둘레는 1,140m이다. 외벽만 가공된 성돌로 쌓았으며, 후대에 수축하였다. 성내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황룡산성은 평안남도 용강군 오석산(해발 565m)에 있으며 평양성의

표2 평양 일대의 주요 고구려 성곽 현황

명칭	위치	규모(km)	해발(m)	특징
평양성	평양	16	96	사각추형 성돌, 토심석축공법
대성산성	평양	9.28	270	사각추형 성돌, 중간벽 기둥흙, 토심석축공법
안학궁성	평양	2.488	20	기단식 판축토성, 고구려 토기·기와, 고려 기와
청암동토성	평양	3.45	62	고조선 토성 위에 축조
홀골산성	성천	1.14		비류강변
황룡산성	용강	6.6	565	사각추형 성돌, 고구려 기와, 고구려 고분군
황주성	황주	4	140	평산성, 사각추형 성돌, 굽도리기단

서쪽 위성이자. 둘레는 6.6km에 달하며 평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황룡산성은 고구려 중후기에 구축되어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며, 황해~대동강 연안로를 통제하는 주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에는 우산성, 동진성, 늑명산성, 보산성 등의 위성이 분포하고 있다. 성벽은 잘 가공한 성돌을 협축식으로 쌓았다. 성 내부에서는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며, 성 주변에 수백 기의 고구려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황룡산성은 고려시대에 대대적으로 수축되어 원형을 알기 어렵다.

황주성은 평양성의 남쪽 40km 지점에 있는 위성으로 황주군 덕월산(해발 140m)에 있다. 이곳은 황주벌을 끼고 있으며 황주천이 휘돌아 흐르고 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둘레는 4km에 달한다. 평지와 산지를 아우르는 평산성이다. 성벽은 사각추형으로 가공한 성돌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굽도리기단이 확인된다. 평지 구간에는 해자를 돌리고 산지에는 물 없는 해자인 황을 설치하였다. 성내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 2. 임진강에서 평양까지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1) 황해남도 일원

황해남도 일원은 대동강 남안에서 황해 연안을 따라 남쪽 멸악산맥으로 이어지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령평야를 둘러싸고 있다. 이 연해 산지를 따라 고구려 산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형 산성으로는 구월산성, 양산성, 풍천산성, 성미산성, 오누이성, 웅천산성, 수양산성이 있다. 이 산성들의 중심에 장수산성이 있다.

평양 진출로 국경이 확대되면서, 고구려의 전연방어체계는 남쪽으로 확장되어 갔다. 369년의 치양전투는 대방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쟁탈전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371년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한 평양은 현재의 평양이 아니라 신원 지방에 있던 남평양으로 보고 있다(안병찬, 1990; 리승혁, 2004). 황해도 일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은 장수산성으로 국내성과 함께 고구려의 별도인 한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장수산성이 위치한 신원 일대에서는 고구려 당시의 도시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양시은, 2016).

이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여 청목령에서 팔곤성에 이르고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장성을 구축하였다. 이는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이 예성강 이북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은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북방으로 쳐들어가 석현성을 비롯한 10개의 성과 관미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개시하여 관미성을 빼앗았다. 이 성은 백제의 북변에 있던 요충지로서 네 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광개토왕이 군사를 일

곶 길로 나누어 공격해야 했다.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파주 오두산성이라는 견해도 있고(윤일영, 1990), 강화 교동의 화개산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병도, 1976). 그 외 개풍군 백마산 고성(손영종, 1990), 예성강 남안(이도학, 1988b) 등 견해가 분분하다. 다만 당시 백제 서북 국경이 예성강 유역이었음을 고려하면 관미성은 임진강보다는 예성강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여전히 파주 오두산성을 관미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두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고구려 성곽이나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성벽은 세장방향 성돌로 정연하게 쌓였으며 보축 성벽이 확인되어 6세기대에 쌓은 신라 성으로 밝혀졌다. 성내에서 ‘泉’, ‘泉井’ 등의 명문이 확인되어 오두산성은 675년 신라와 당군이 격돌한 천성 또는 백수성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박중서, 2022).

관미성전투 후 고구려는 394년 백제의 공격에 대비하여 나라의 남쪽에 7성을 쌓았다. 이 ‘국남 7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예성강 서남지역 황해남도 남부해안지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쌓은 성일 가능성이 있다. 광개토왕 대에 구축한 국남 7성은 치악산성, 봉세산성, 수양산성, 웅천성, 오누이성, 연안읍성, 강령읍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지승철, 2005). 국남 7성으로 비정되는 성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석축산성이다. 장수산성은 4세기 초에 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위계가 국내성, 평양성과 대등한 지방통치거점이었다는 견해도 있다(신광철, 2011).

396년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58개의 백제 성을 공취하였다. 백제는 항복하고 많은 공물과 함께 58개 성, 700촌

을 떼어주고 왕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볼모로 보내는 데 동의하였다. 고구려는 409년 나라의 동쪽에 독산성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이때 고구려가 쌓은 ‘국동 6성’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임진강 상류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원의 거성과 노기산성, 만경산성, 삭령산성, 이천의 심동리산성, 성산고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지승철, 2005; 최창빈, 1990; 손영중, 2008). 철원의 거성, 만경산성, 삭령산성, 연천의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을 국동 6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최승택, 2008).

그러나 붉은색을 띠는 고구려 기와 출토양상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성들은 551년 나제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임진강 이북 지역으로 퇴각한 이후에 구축되어 고구려의 전연방어체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동 6성이 수안-신계-토산-연천으로 연결되는 방원령로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서영일, 2008). 고구려가 백제의 수곡성을 빼앗은 후 유지해 왔던 방원령로에 대한 방어망을 공고히 함으로써 백제군이 예성강 상류 유역으로 우회하여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장창은, 2014).

장수산성은 황해남도 신원군의 장수산(710m)에 있다. 장수산은 평지에 돌출된 산이며 재령강의 지류가 동쪽을 감돌고 있다. 재령벌을 관찰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장수산성은 평양성의 남쪽 위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은 내성과 외성, 겹성, 철성, 차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둘레는 10.5km에 이른다. 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외성 동벽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형의 할석으로 구축되어 고구려 성곽을 고려, 조선 시대에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 내에서는 고구려 기와 조각과 고려시대 기와, 회색 벽돌 등이 출토되고 있다.

구월산성은 황해남도 은천군과 은율군, 삼천군의 접경지대에 구월산 상항봉(해발 954m)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있다. 성벽을 쌓은 산릉선과 봉우리들은 절벽이거나 급한 경사로 지세가 험하다. 성은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이며 전체 둘레는 5.2km에 달한다. 성벽은 편축과 협축 구간이 확인되며, 화강암을 사각추 모양으로 가공하여 정교하게 쌓았다. 발굴조사 결과 붉은색 기와가 출토되는 고구려문화층, 청자와 청회색 기와가 출토되는 고려문화층, 그리고 조선문화층이 확인되었다. 가공성돌로 쌓은 수직성벽과 퇴물림쌓기 한 성벽, 부정형의 할석으로 쌓은 성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구월산성은 고려, 조선 시대에 계속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웅천성은 황해남도 웅진군 본영리에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수군의 본영이 있었으며, 웅진군의 소재지가 현재의 웅진읍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군 소재지였다. 성은 평지와 노적봉(110m)을 아우르며 쌓은 평산성이다. 둘레는 4.3km이며, 성벽은 진흙과 막돌로 쌓은 곳도 있고 화강암을 사각추형으로 가공하여 정연하게 쌓은 곳도 있다. 성내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편이 출토된다.

오누이성은 황해남도 대탄군 성남리에 있다. 성은 능선과 봉우리(해발 280m)를 따라 쌓았으며 둘레는 약 3.5km이다. 성벽은 편축과 협축이 모두 확인되며, 내외벽은 편암계의 석재를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쌓고 안쪽에는 막돌을 넣었다. 성벽 상부에는 집안의 환도산성이나 패왕조산성 등에서 보이는 네모난 돌구멍이 있다.

수양산성은 황해남도 해주시 수양산의 해발 252m 봉우리에 있으며 자성산성이라고도 불린다. 수양산은 멸악산의 지봉이며 장수산성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이다. 성곽의 둘레는 8km에 달한다. 성벽은 지형

표3 황해도 일대의 주요 고구려 성곽 현황

명칭	위치	규모(km)	해발(m)	특징
장수산성	신원	10.5	710	동벽 일부 고구려 성벽, 고구려 기와
구월산성	은율	5.2	954	사각추형 성돌, 통일신라 수축
웅천성	웅진	4.3	110	평산성, 사각추형 성돌, 고구려 기와
오누이성	대탄	3.5	280	장방형 가공 성돌, 상부 사각기둥흙
수양산성	해주	8	252	자성산성, 고려 성(?)
봉세산성	연안	2.26	281.6	토심석축공법, 고구려 기와
연안읍성	연안	2		배후에 봉세산성, 가공 성돌, 해자
휴류산성	봉산	2.9	127.7	평양성 남쪽 위성, 멸실

지물을 이용하여 암벽 위에 쌓았다. 성벽은 하단에는 큰 돌을 놓고 상부에는 납작한 돌로 쌓았다. 입지나 규모, 축조기법으로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입보용 성곽으로 추정된다.

봉세산성은 황해남도 연안읍의 봉세산(해발 281.6m)에 있으며 성의 둘레는 2.26km이다. 성벽은 규암질의 다듬은 돌과 진흙, 막돌이 사용되었다. 하단은 석축 성벽을 쌓았고, 상부는 진흙과 막돌로 쌓았다. 외관상 토석혼축성으로 보인다.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확인되었다.

연안읍성은 황해남도 연안읍에 있으며 고려 고영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 시기 동음홀이라 부르던 지역이다. 서북쪽에 봉세산성이 있다. 성의 둘레는 2km이며 성벽은 다듬은 성돌로 면을 맞추어 치밀하게 쌓았다. 성벽 외부에는 해자가 조성되었다.

휴류산성은 황해북도 봉산군 휴류산(해발 127.7m)에 있다. 둘레가 2.9km이며 석성이다.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반달 모양으로 쌓았으며 평양성의 남쪽을 방어하는 중요한 위성이었다. 정방산은 험준한 산줄기가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서쪽으로 예성강까지 뻗어내려 남북 교통을

차단하고 있다. 휴류산성은 이 산줄기를 통과하는 길목에 있었으며,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임진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여 우봉군과 송악군을 설치하는 것은 694년이다. 황해북도 금천 지역에 우봉군을 설치하고 장단현과 임단현을 속현으로 두었다. 이후 경덕왕 21년(762년) 신라는 오곡, 휴암, 한성, 장새, 지성, 덕곡에 6성을 쌓았다. 이곳은 서흥, 봉산, 신원, 수안, 해주, 곡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오곡은 황해도 서흥, 휴암은 황해도 봉산, 한성은 황해도 신원, 장새는 황해도 수안, 지성은 황해도 해주, 곡산은 황해도 곡산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고구려 산성 중 휴류산성, 대현산성, 장수산성, 수양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쌓은 6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구복 외 역주, 1997).

## 2) 예성강 유역

예성강은 황해북도 수안에서 발원하여 개성시 개풍군을 거쳐 강화만을 통해 황해로 유입된다. 371년 백제가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백제는 이 전투 후 373년 청목령(개성 부근)에 성을 쌓아 고구려의 공격에서 대비하였다. 386년에는 청목령에서 팔곤성,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장성을 구축하고 고구려의 남하에 대응하였다. 392년 고구려는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 북방의 석현성을 비롯한 10개 성과 관미성을 공취하였다.

이러한 역사기록을 근거로 하면 예성강 하류 지역과 신계, 평산, 서흥, 금천 등 황해북도의 남부지역이 고구려의 관방체계에 편입된 것은

4세기 후반 광개토왕이 관미성을 공취한 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성강 일원의 고구려 성곽은 황해도 일원의 고구려 성곽보다 늦은 시기에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성강 유역에서 고구려 산성은 대현산성과 태백산성, 백치성, 치악산성 등이 확인된다.

대현산성은 황해북도 서흥군 고성리 대현산(해발 607m)에 있다. 5개의 골짜기를 끼고 있으므로 오곡성이라고도 불렸으며 둘레는 7km에 달한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축식성벽과 편축식성벽이 확인된다. 부정형의 할석과 편암계의 석재를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쌓은 성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성을 고려시대 이후에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성내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편이 확인되고 있다. 광개토대왕 때 남방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쌓은 국남 7성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채희국·전재현, 1966).

태백산성은 예성강의 서안,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의 태백산(해발 101m)에 있다. 동쪽으로는 임진강 유역의 피주, 연천, 철원 방면에서 서흥을 거쳐, 봉산-황주-평양으로 가는 중심도로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임진강 북안의 전연방어체계를 지나 평양으로 향하는 중심방어체계의 관문에 해당하는 성곽이다.

산성의 둘레는 2.4km이다. 성벽은 사각추형으로 잘 가공된 석재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하단부에 굽도리기단이 있는 전형적인 고구려 성곽이다. 성내에서는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편이 확인되고 있다. 예성강으로 흘러드는 셋강으로 남쪽 일부를 제외하면 전 구간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으로 태백산성은 관미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손영중, 1990).

치악산성은 황해남도 배천의 서북쪽 치악산(해발 360.7m)에 있다.

표4 예성강 일대의 주요 고구려 성곽 현황

명칭	위치	규모(km)	해발(m)	특징
대현산성	서흥	7	607	오곡성, 가공 성돌, 고구려 기와
태백산성	평산	2.4	101	관미성, 사면초절, 가공 성돌, 고구려 기와
치악산성	배천	3.6	360.7	화강암 가공 성돌, 고구려 기와
백치성	장풍	0.5		외벽만 석축, 고구려 성(?)

연백벌판을 끼고 있으며, 수륙교통의 요충지이다. 산성의 둘레는 3.6km이며 성벽은 화강암 가공 성돌로 쌓았다. 성벽은 지세가 높은 곳에는 외벽만 쌓고, 지세가 낮은 곳에는 내외벽을 모두 쌓았다. 성벽에는 11개의 치가 남아있다. 붉은색의 격자문 고구려 기와 조각이 확인되었다.

백치성은 황해북도 장풍군의 수룡산에 있다. 백치진성이라고도 하며 황해도에서 경기도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있다. 둘레는 500m이고 장타원형이며 외벽만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성기법과 규모로 볼 때 백치성은 임진강 일원의 고구려 성곽처럼 보루성일 가능성이 있다.

예성강에서 황해도 일대에는 2~10km에 달하는 대규모 성곽이 20~40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성들은 평양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거점방어체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일대의 성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성 방어를 위한 중요 방어체계에 포함되어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성곽의 원형은 찾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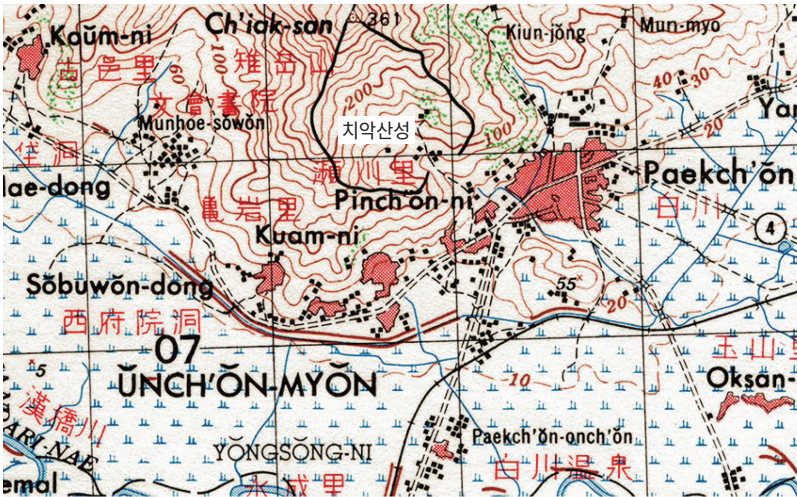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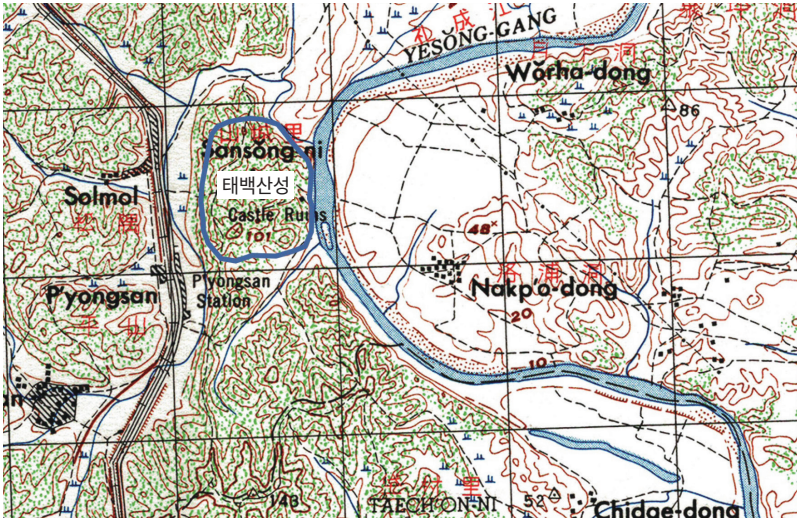


그림 7 | 관미성으로 추정되는 평산 태백산성과 배천 치악산성 위치도  
 (미육군공병대, 1952, <한반도 1:5만 지도>)

### 3) 임진강 이북 지역

임진강은 함경남도과 평안남도, 강원도가 접하는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연천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든다. 임진강은 양안에 수십 km에 걸쳐 현무암 수직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밀려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한 고구려는 임진강의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여러 성을 쌓아 전연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들은 이후 약 120년 동안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국경성으로 기능하였다.

임진강의 가장 하류 쪽에 있는 고구려 성은 파주 덕진산성이다. 이곳은 하중도인 초평도가 교두보 역할을 하여 임진강을 건너기 수월한 곳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 오아홀(烏阿忽)이었으며 신라 효소왕 3년(694년)에 임진현(臨津縣)을 설치한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된 고구려 성을 신라가 수축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토성을 덧붙여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심광주, 2018).

덕진산성에서 동북쪽으로 11km 지점에 연천 호로그루가 있다. 호로그루는 황해 감조(感潮)구간의 상류에 있다. 이곳은 걸어서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최남단 도하지점이었으므로, 한강 유역에서 개성을 지나 금천-평산-황주를 거쳐 평양으로 가는 빠른 길이었다.

호로그루는 이 길목을 통제하는 지점에 쌓은 삼각형의 강안 평지성이다. 전체 둘레는 405m로 임진강 일대의 다른 보루들과 비슷한 규모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호로그루는 고구려 야야홀(耶耶忽), 또는 야야홀(夜牙忽)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호로그루라는 명칭은 일대의 임진강을 호로하(瓠瀾河)라 하였으므로 후대에 붙인 명칭이다.

신라 효소왕 3년(694년) 고구려 성곽을 수축하여 장단현(長湍縣)의 치소를 설치하였다(심광주, 2019).

발굴조사 결과 호로그루의 성벽은 고구려의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되었으며, 중간벽에서 대성산성과 동일한 기둥홈이 확인되었다. 성내에서는 고구려 초석 건물지와 집수시설, 치미와 연화문와당, 호자, 북으로 사용하던 상고(相鼓)명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입지나 출토유물로 볼 때 호로그루는 고구려 남쪽 전연방어체계를 관장하던 중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로그루에서 동북쪽으로 12km 지점에 당포성이 있다. 당포성 앞의 당개나루는 적성에서 마전-토산-신계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당포성은 고구려 이사파홀(泥沙波忽)이라 하였으며, 효소왕 3년 고구려 성을 수축하여 임단현의 치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심광주, 2019). 발굴조사 결과 당포성도 석축부의 중간벽에서 기둥홈이 확인되었으며, 기저부와 내부는 판축하여 쌓고 외벽은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석축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는 무등리1·2보루가 있다. 무등리1·2보루는 연천에서 평산과 서흥, 황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위치에 있다. 발굴조사 결과 무등리 1·2보루 역시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무등리2보루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고구려 갑주와 단면 삼각형의 쇠뇌 화살촉, 다량의 탄화곡물 등이 출토되었다.

고구려 성곽은 임진강 상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강원도 철원군의 거성, 노기산성, 만경산성, 삭령산성을 조사하였는데,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 조각

표5 임진강 유역의 주요 고구려 성곽 현황

명칭	위치	규모(m)	해발(m)	특징
덕진산성	파주	600	82	기둥흙, 토심석축공법, 고구려 토기
호로그루	연천	405	22	석심토축공법, 기둥흙, 고구려 토기, 기와·와당
당포성	연천	450	27	석심토축공법, 기둥흙, 고구려 토기, 기와
무등리1보루	연천	205	85	석심토축공법, 고구려 토기, 기와
무등리2보루	연천	350	85	석심토축공법, 고구려 토기, 기와
거성	철원	900	200	임진강 동편, 흙과 돌로 쌓음, 고구려 기와
만경산성	철원	450	408	임진강 동편, 고구려 기와
삭령산성	철원	570	100	임진강 동편, 선조문·격자문 기와
노기산성	철원	400	140	임진강 동편, 고구려 기와
심동리산성	이천	600	172	임진강 서편, 고구려 기와, 막새
성산고성	이천	350	671	임진강 동편, 고구려 기와

이 출토되어 고구려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원군의 북편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이천군의 심동리산성과 성산고성도 고구려 성이라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거성은 철원군 거성리에 있다. 서남쪽에 임진강이 흐르고 거성과 마주하여 구룡천 남쪽에는 노기산성이 있다. 성은 저평한 구룡지의 능선을 따라 쌓았으며 둘레는 900m이다. 돌과 흙을 섞어 쌓았으며, 성안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들이 출토되었고 북쪽에는 고구려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만경산성은 거성 북쪽으로 2km 지점의 만경산(해발 408m)에 있다. 성 밑으로는 철원~이천 간 도로가 지나고 서남 방향으로 임진강이 흐른다. 산성의 북쪽은 벼랑이며 서남쪽은 급경사를 이룬다. 성은 산봉우리와 능선을 따라 쌓았으며 둘레는 450m이다.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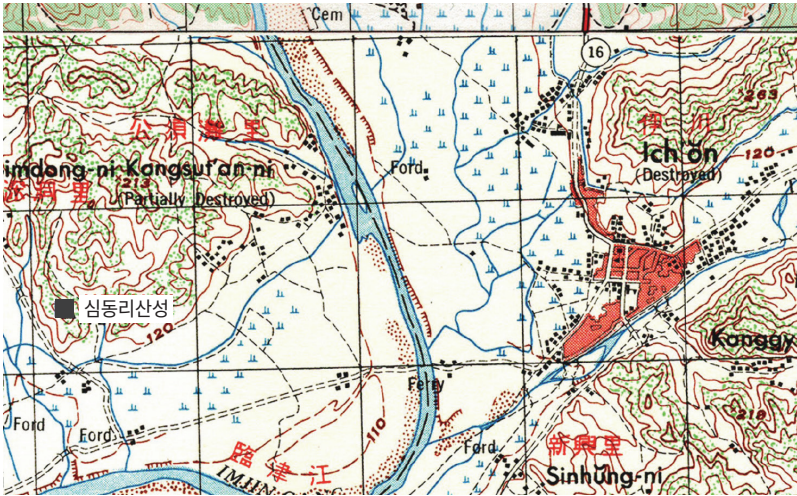


그림8 | 철원 만경산성·거성·노기산성과 이천 심동리산성 위치도  
(미육군공병대, 1952, <한반도 1:5만 지도>)

노기산성은 거성 남쪽 노기산(해발 140m)에 있으며 서쪽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임진강을 따라 올라오는 적과 이천 쪽으로 가는 길을 통제하는 데 유리한 지형이다. 성의 둘레는 400m 정도이며,

성안에 장대터와 건물터가 있다. 성안에서 노끈 문양의 붉은색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삭령산성은 철원군 삭령리의 임진강과 역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경기도 연천 방면에서 임진강 뱃길과 육로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좋은 위치이다. 둘레는 570m이며 성내의 건물지에서 선조문과 격자문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심동리산성은 이천시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있다. 이 산성은 황해북도로 통하는 길목에 있으며 임진강을 건너면 이천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벽은 산릉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쌓았으며 둘레는 약 600m이다. 성내의 건물지에서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 조각과 막새가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성산고성은 강원도 이천읍 성산(해발 671m)에 있다. 이곳에서는 철원까지 조망된다. 둘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740척이라 하였으므로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약 350m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성내에서는 붉은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는 임진강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이 나뉘었다. 그런데 철원의 거성과 만경산성, 삭령산성, 노기산성 등은 모두 임진강의 동안에 있어 임진강 상류 쪽으로 가면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이 내륙 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임진강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둘레 300~600m 정도의 보루급 성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성의 규모가 작은 만큼 성내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수도 수백 명 단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중국 전연방어체계에 속하는 요동 지역의 성곽에 비하여 대신라 전연방어체계에 속하는 임진강 유역의 성곽은 현저하게 규모가 작다. 이는 당과 신라의 군

사적인 위협에 대한 고구려의 판단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루급 성곽으로 남쪽 국경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662년 김유신이 수만 석의 군량미를 평양의 당군에게 수송하러 가면서, 임진강을 건넌 이후에도 고구려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던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호로그루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 전연방어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대규모 거점성은 평산의 태백산성이다. 호로그루에서 태백산성까지는 직선거리로 47km에 달하고 있다.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의 이동거리에 해당한다.

고구려는 보루 규모의 성으로 대신라 전연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신라의 대고구려 방어체계는 고구려와 현저하게 달랐다. 임진강 이남 지역에 쌓은 신라 성은 파주 오두산성, 봉서리산성, 칠중성, 연천 대전리산성, 옥계리성 등이다. 모두 둘레 1km 내외의 대규모 성곽이다.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응하는 신라 성곽은 규모도 크고 보다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가장 늦은 시기에 구축된 고구려 성에 속한다. 대부분 임진강 유역의 전연방어체계가 구축되는 6세기 중엽 이후에 초축되거나 수·개축된 성이다. 이 성들은 고구려 장안성이 축조되는 시점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고구려의 가장 발달한 축성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밝혀내야 할 것은 한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과의 차이이다.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성곽이 구축될 당시 임진강 유역에도 이미 방어시스템이 정비되어 한강 유역 고구려 성에 대한 배후 거점성 역할

을 했는지 아니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이후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방어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고구려는 임진강 이북 지역을 멸망 때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성곽 중 덕진산성, 호로그루, 당포성 등은 수축되어 신라의 군현성으로 재사용되었지만, 대체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고구려 후기의 축성법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3. 임진강 이남 지역의 성곽 분포와 방어체계

#### 1) 한강~임진강 유역

임진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방어체계는 매우 독특하다. 이 지역에는 아미성과 태봉산보루, 도락산보루, 천보산보루, 수락산보루, 아차산보루, 용마산보루 등 20여 개의 고구려 성곽이 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장단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감악산이 동서로 뻗으면서 길을 막고 있다. 이곳에서 양주로 가는 방법은 감악산의 설마치고개를 넘거나 우회하여 간파천로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간파천은 감악산과 마차산 사이에 형성된 협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으로 이곳에는 375번 지방도가 있다. 이 협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고구려 성인 아미성이 있다.

이곳에서 375번 국도를 따라 9km 정도 가면 태봉보루가 있다. 이 보루에서 남동쪽으로 도락산보루군이 연결된다. 양주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남북 간 교통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천보산맥이 반원을



그림9 | 한강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 분포도

그리며 동서 교통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불곡산과 감악산, 도락산 등의 높은 산맥과 지류 사이에 형성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성곽이 구축되어 있다.

천보산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사패산보루와 수락산보루가 있다. 이곳에서 7.5km 지점에 봉화산보루가 있고 망우산보루로 연결된다. 아차산과 용마산, 배봉산 일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구려 성곽의 밀집도가 높다.

이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남북을 기본축으로 한 직선적인 배치양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둘레 200~300m 정도의 소규모 보루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은 1km 내외의 성곽이 방

사상으로 분포하며 일정한 공간을 독립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신라나 백제 성곽과 다르다. 또, 대규모 거점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예성강 이북 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과도 다르다.

이 지역의 고구려 성곽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라는 제한된 기간에 구축되어 사용되었다.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전연방어체계나, 중심방어체계, 도성방어체계와도 다르다. 성곽의 배치양상과 규모로 볼 때 소규모 인력으로 거점을 확보하면서 유사시 기마병에 의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독특한 방어체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루들은 군사작전을 위한 보급로 확보가 주목적일 수도 있다.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간의 전투 시 보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요 길목을 통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축조시점과 폐기시점이 명확하므로 6세기대 고구려 성곽 축성기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고구려 후기의 축성법과 비교하는 표준유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성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유적들이다.

465년부터 500년 전후까지 25년 정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주둔한 고구려군이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여 아차산 일대의 보루를 축조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최종택, 2008). 이 지역 고구려 성곽의 축조와 경영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남진과 이후 백제의 한강 유역 진출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고구려 보루가 밀집된 아차산 일원이 고구려 남평양이라는 견해도 있다(최장열, 2001; 최종택, 2008). 아차산보루군과 배봉산, 용마산 보루로 둘러싸인 장안평 일대에 남평양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

장동과 장안평 일대의 평지에서는 고구려 유적이거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보루들을 중심으로 거점방어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고고학적으로 새로운 근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강 이남 지역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 3만 군대를 이끌고 백제 한성을 공취하였다. 고구려군은 계속 남하하여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백제가 점점 강성해져 503년에 고구려의 수곡성(황해북도 신계)까지 진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안장왕이 529년 오곡전투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금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장수왕 대 고구려 진출 이후 백제가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 안장왕 대에 고구려가 다시 한강 유역 일대로 진출했다는 견해도 있다(김영관, 2000; 장창은, 2014).

금강 상류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성곽은 안성 도기동산성, 세종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동산성 등이다. 진천 대모산성, 세종 나성 등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확인되었지만, 고구려 성곽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성 도기동산성은 안성천 남안의 해발 73m 야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백제 토성과 목책이 있던 곳을 고구려가 빼앗아 목책을 설치하였다. 목책은 구릉과 북동쪽 평지 구간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규모는 1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책은 남성골산성처럼 2중 목책렬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목책렬의 하단에는 석축이

부가되어 있다(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세종 남성골산성은 해발 106m의 야산 정상부와 평지를 아우르며 구축되어 있다. 전체 규모는 700m 정도로 추정된다. 목책은 2열로 구축되어 있으며, 목책렬의 간격은 3m 정도이다. 세종 남성골산성에서 웅진성(공산성)까지는 직선거리로 24km에 불과한 근거리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이 백제의 사비 천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손영중, 2000; 심광주, 2006)

대전 월평동산성은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이다. 일부만 조사되어 전체 양상은 알 수 없다. 조사단에서는 석축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책일 가능성이 크다. 월평동산성도 성벽이 확인된 지점과 일대의 지형을 고려하면 1km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성곽 밀집도는 한강 이북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다.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던 몽촌토성에서 안성 도기동 산성까지는 대략 80km 정도이며, 도기동산성에서 남성골산성까지도 약 80km 거리이다. 대전 월평동산성은 남성골산성에서 약 30k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임진강에서 한강 유역은 보루와 보루 간의 간격이 300~500m, 보루군의 간격이 대략 7km인 데 비하여 한강 이남 지역은 10분의 1 정도로 밀집도가 낮아지고 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 고구려 성곽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성곽의 상대적인 밀집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정도로만 성곽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모두 목책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짧은 기일 안에 구축할 수 있는 목책 위주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점령지역이 고구려의 영

토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신광철, 2011).

금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남성골산성이나 월평동산성은 5세기에 구축되었으며, 한강 유역에서 남하하여 설치한 군사거점이 아니라 5세기 초중반 이미 안정된 영역화를 이룬 충주 지역에서 진출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이정범, 2015). 그러나 충주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지 않고, 한강 유역과의 중간지점인 안성에 도기동산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충주 지역에 별도의 고구려 세력이 있었음을 상정하기에는 아직 고고학적 조사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존속기간이 길지 않았다. 입지적으로도 백제 웅진성과의 거리가 24km에 불과하다. 월평동산성은 고구려 유물이 빈약하고 성내에서 6세기 초중엽의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점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가 기세를 몰아 금강 상류의 백제 영역 깊숙한 곳까지 남진하였지만 몇 년 이내에 백제에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6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하는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성곽 출토유물에 선행하고 있다. 연천 호로고루의 발굴에서도 지상 성벽에 선행하는 목책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남성골산성 출토유물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고성산보루와 은대리성, 전곡리토성, 몽촌토성, 안성 도기동산성은 같은 시기에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가 금강 상류의 백제 지역까지 깊숙하게 진출한 사건은 문화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축성법은 목책도 있지만 토심석축공법을 특징으로 하는 석성이 주류를 이룬다. 니질 태토에 가로띠손잡이가 달린 고구려 토기는 백제 토기와 기형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사비기 백제에는 부소산성이나 나성처럼 고구려 양식의 토심석축공법으로 쌓은 석축 성곽이 등장하고, 가로띠손잡이가 달린 고구려계 토기가 출현한다. 이는 고구려의 남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려면 북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조사성과가 진전되어야 한다. 개별 성곽유적의 초축시점과 수·개축 여부가 확인되어야 단계별 관방체계의 변화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안성 도기동산성』.
- 서일범, 2001, 『조선 경내의 고구려 산성연구』, 길림인민출판사.
- 양시은, 2016, 『고구려성 연구』, 진인진.
- 이병도, 1976, 『한국 고대사연구』, 박영사.
- ICOMOS한국위원회, 2004, 『개성』(북한문화유산관련자료집 1).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진출서』, 경인문화사.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1997, 『역주 삼국사기』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지승철, 2005, 『고구려의 성곽』, 사회과학출판사.
- 채희국, 1964,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_\_\_\_\_, 1982, 『고구려 역사연구-평양 천도와 고구려 장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_\_\_\_\_, 1985, 『고구려 역사연구-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영관, 2000, 「백제의 웅진 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합집).
- 김현숙, 1997, 「고구려 중후기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의 발전과정」, 『한국 고대사연구』 11.
- \_\_\_\_\_, 2003, 「熊津時期 百濟와 高句麗의 관계」,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 리정남, 2007, 「덕산토성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7-3.
- 박성봉, 1984,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과 의의」, 『향토 서울』 42.
- 朴省炫, 2001, 「新羅 郡縣城과 그 性格-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발, 2012, 「고구려의 도성과 묘역」, 『한국 고대사 탐구』 12.
- 박중서, 2022,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학봉, 2004, 「고구려 도성의 변화발전과정으로부터 본 고구려 평지도성의 특  
점」, 『북방사논총』 창간호.
- 白種伍, 2002,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 『臨津江 流域의 古代社會』, 인  
하대학교박물관.
- 徐榮一, 2002, 「京畿 北部 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 徐日範, 1999, 「北韓 境內의 高句麗 城의 分布와 研究 現況」, 『高句麗山城研究』  
(高句麗研究 8).
- 신광철, 2011,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  
代』 35.
- 沈光注, 2001, 「南韓 地域 高句麗 遺蹟」, 『高句麗 遺蹟 發掘과 遺物』(高句麗  
研究 12).
- , 2008, 「고구려 관방체계와 경기지역의 고구려 성곽」, 『경기도 고구려유  
적』, 경기문화재단.
- , 2018,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 遺  
蹟 發掘과 遺物』(高句麗研究 62).
- , 2019, 「통일신라 치소성 조사현황과 특징」, 『쟁점 중부고고학, 무엇이 중  
요한가』(중부고고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안승찬·최승택, 1998, 「새로 발굴된 평양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 余昊奎, 2002, 「漢城時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백제연구』 36.
- 尹龍九, 1999, 「高句麗의 平地城과 郡縣城 運用」, 『高句麗山城研究』(高句麗  
研究 8).
- 尹日寧, 1986, 「關彌城 位置考」,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 2012,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 『국방연구』 55-3.
- , 2020,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 고대사탐  
구』 34.
- 이성제, 2011, 「용강 황룡산성과 황해~대동강 연안로 - 고구려 후기 왕도 방어체

- 체의 일례, 『고구려발해연구』 41.
-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 李漢祥, 2000, 「大田 月坪山城 出土 高句麗 土器」, 『學山 金廷學博士 頌壽紀念 論叢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 장창은, 2010,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고지’의 이해 방향, 『한국학논총』 33.
- 田中俊明, 1999, 「성곽시설로 본 고구려의 방어체계 - 왕도 및 대중국 방어를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8.
- \_\_\_\_\_, 2000, 「북한의 고구려 성곽 조사연구와 그 문제점」, 『九里 高句麗 國際 學術會議』, 구리문화원.
- \_\_\_\_\_, 2005, 「高句麗平壤遷都と王宮城」, 『고대도성과 익산왕궁성』(제17회 마한백제문화국제학술회의).
- 정경일, 2016, 「최근 북한학계에서 이룩한 고구려 고고학 성과」, 『先史와 古代』 49.
-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50.
- 車勇杰, 2003, 「忠淸地域 高句麗系 遺物 出土 遺蹟에 대한 小考 - 남성골 유적을 중심으로」, 『湖西地方史研究』.
- 채희국, 1957,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문화유산』 1957-5.
- 최승택, 2008, 「고구려 평양성의 외곽성방어체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8-3, 사회과학출판사.
- 최장열, 2001, 「한강 북안 고구려 보루의 축조 시기와 그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鍾澤, 1995, 「漢江 流域 高句麗 土器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 \_\_\_\_\_, 2004, 「남한 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의 몇 가지 문제」, 『白山學報』 69.
- \_\_\_\_\_, 2008, 「고고 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 도읍기 한강 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 최창빈, 1990,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의 국남 7성과 국동 6성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0-3, 사회과학출판사.
- 최희수, 2008,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의 구조와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32.

## 찾아보기

### ㄱ

- 갈석도군(碣石道軍) 99, 105, 106  
강행본(姜行本, 姜確) 216  
개모도군(蓋牟道軍) 84, 91  
개모성(蓋牟城) 212, 215, 217, 221, 222, 226, 277, 311, 326  
개주(蓋州) 214, 231, 233, 277  
개주~장하로 278, 311  
거란(契丹) 14, 18, 343  
건강(建疆)유적 261  
건무(建武) 66, 123, 145  
건안성(建安城) 205, 210, 213, 217, 226, 231, 277, 311, 326  
결망성 274, 357, 358, 361  
결사표(乞師表) 62  
경관(京觀) 145, 152, 165, 342  
계민가한(啓民可汗) 55, 57, 60, 133  
고개도(高開道) 133, 134, 136  
고건무(高建武) 104, 320  
고검지산성 264, 306, 309  
고경(高潁) 45, 49  
고대자산성 305, 310  
『고려기(高麗記)』 170  
『고려고기(高麗古記)』 172, 173, 178  
고려성산성 278, 302, 311  
고려성자산성(高麗城子山城) 231, 232  
『고려풍속(高麗風俗)』 60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 258, 261  
고보녕(高保寧) 16, 24  
고신감(古神感) 242  
고연수(高延壽) 223~225, 229  
고이산성 84, 214, 265, 307  
고정의(高正義) 223  
고창(高昌) 134, 138, 168, 203, 211  
고표인(高表仁) 144, 145  
고혜진(高惠眞) 223, 225, 229  
곡사정(斛斯政) 113, 114  
곽영(郭榮) 106  
관룡집단(關隴集團) 53, 54, 64  
관마장관애 262, 264  
관미성 371, 376  
광개토왕 270, 306, 354, 371, 377

<광개토왕릉비> 257, 282, 306  
 광록경(光祿卿) 245  
 『구당서(舊唐書)』 168, 173, 194, 202  
 국경시대의 중심방어체계 266, 267, 269, 270  
 국남(國南) 7성 276, 354, 372  
 국내성(國內城) 218, 240, 260, 309, 327  
 국지모(國知牟) 62  
 국지진 64, 83, 328  
 굴함진(屈含眞) 23  
 귀족연립정권 182~184  
 귀족연립체제 67, 69, 169, 183  
 글필하력(契苾何力) 222, 320, 321, 329, 331  
 금산(金山) 전투 331  
 기단식 관축공법 366, 368  
 기단식 관축토성 366, 370  
 기미체제(羈縻體制) 164  
 길림합달령산맥(吉林哈達嶺山脈) 277, 314  
 김다수(金多遂) 206  
 김춘추 142, 185, 186, 207, 245  
**ㄴ**  
 나당동맹 142, 143  
 나통산성(羅通山城) 266, 285  
 나함성 258  
 낙구창(洛口倉) 129  
 낙랑도군(樂浪道軍) 92, 99  
 낙양(洛陽) 59, 113  
 남생(男生) 171, 329  
 남성골산성 280, 390, 391  
 남성자고성 285  
 남소성(南蘇城) 269, 240, 268, 308, 328, 330, 332  
 남소성전투 240  
 남소수(南蘇水) 308  
 남평양 280, 371, 388  
 낭랑산성 278  
 낭비성(娘臂城) 167  
 낭비성전투 169  
 내륙교통로 356~358  
 내주(萊州) 48, 82, 241, 320  
 내호아(來護兒) 66, 105, 106, 108, 109, 113, 162  
 노기산성 381, 383  
 노동공원고성 307  
 노령산맥 262  
 노룡도군(盧龍道軍) 84, 105, 106  
 노변강(老邊崗) 166  
 노변강유적 336, 342  
 노변장관애 264  
 노하진(瀘河鎮) 58, 59, 83, 87, 94, 99, 100, 102, 110, 111, 322  
 농안(農安) 287, 336, 340, 336  
 농오리산성 278, 358, 359  
 嫩江(嫩江) 20, 31

능한산성 357, 359

ㄷ

다미가한(多彌可汗) 235, 237

단문진(段文振) 85, 322

달두가한(達頭可汗) 55

담돈도군(蹋頓道軍) 105, 106, 113

당 고조(高祖) 135, 143, 147, 167,  
172, 189

『당서(唐書)』 173

당차(撞車) 220

『당회요(唐會要)』 209

당 태종(太宗) 153, 154, 170, 190,  
193, 204~208, 211, 216, 218,  
219, 221, 223, 228, 230, 231, 234,  
235, 238, 245, 325

대대로(大對廬) 67, 176, 183

대대로-막리지체제 183

대라권구하(大羅圈溝河) 262

대릉하(大凌河) 27, 29, 83, 97, 99,  
110

대성산성 272, 364, 367

대야성(大耶城) 142, 143, 185

대야성전투 185

대양왕(大陽王) 169

대운하 125, 126

대진(大秦) 134

대천초소 262

대청하(大清河) 233

대행성(大行城) 328

대현산성 276, 377

대형(大兄) 184

대흑산맥(大黑山脈) 277, 314

대흑산성 278, 313, 333

덕산토성 368

덕진산성 380

도기동산성 280, 389, 391

『도덕경』 189

도람가한(都藍可汗) 55, 56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체계 263, 267

도성의 방어체계 256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 181

독산성 373

돈화 287

돌궐(突厥) 13, 15, 17, 132, 145, 150

돌리가한(突利可汗) 22, 136, 137

돌지계(突地稽) 32, 50, 125

동단산성 285

동돌궐 55, 56, 124, 168, 343

동래(東萊) 82, 103, 109, 113, 208

동림산성 357

동부대인(東部大人) 177

동요하(東遼河) 315

동이교위(東夷校尉) 165

동이도군(東曠道軍) 92

동주성 359

두건덕(竇建德) 128, 130, 131, 133,  
134, 140, 143

두만강 271, 282  
두복위(杜伏威) 128  
등소(鄧素) 188

ㄹ

라(邏) 51, 111, 310  
류사룡(劉士龍) 85, 92

ㄱ

마가채산성 315  
마문거(馬文舉) 219  
마미성(磨米城) 311, 327  
마선구(麻線溝) 261  
마안산성 264  
막리지(莫離支) 161, 174, 183  
막하가한(莫何可汗) 23  
막하돌(莫賀咄) 135  
막하불(莫賀弗) 25, 34  
만경산성 381, 382  
말갈(靺鞨) 14, 18, 284, 344  
망과령관애 264  
망해둔(望海頓) 97  
명광개(明光鎧) 139  
목단강 287  
목저성(木底城) 268, 240, 269, 308,  
328, 330  
몽촌토성 387, 388  
무려라(武厲邏, 武勵邏) 45, 71, 96,  
104, 111, 277, 310, 334, 318

무려성(武厲城) 71, 83  
〈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 127

ㅂ

박작성(泊灼城) 328  
반질(潘垚) 24  
발작(拔灼) 237  
방언겸(房彦謙) 105  
방원령로 373  
방현령(房玄齡) 206, 244  
배구(裴矩) 60  
배세칭(裴世清) 145  
배행장(裴行莊) 188  
백마산성 278, 357, 358  
백석산(白石山) 100, 103  
백수성 372  
백암성(白巖城) 113, 222, 227, 277,  
311, 326, 328  
백암성진투 218  
백제 140, 372, 376, 388~391  
백치성 377, 378  
번자개(樊子蓋) 115  
범안귀(范安貴) 84  
벽류하(碧流河) 242  
변우산성 311, 327  
별동대 82, 84, 87, 99~102, 104,  
105, 108, 113, 322  
병주(并州) 22, 136, 235  
보덕 190

보란점시(普蘭店市) 242  
 보루(堡壘) 279~281  
 보장왕 167, 186, 239  
 복신(福信) 139  
 복주하(復州河) 313  
 본계~봉성로 278, 311  
 봉덕이(封德彝) 48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 60, 170  
 봉세산성 375  
 봉역도(封域圖) 150, 164  
 봉황산성 278, 313  
 부거석성 282  
 부여강신(扶餘康信) 193  
 부여도군(扶餘道軍) 99, 105, 106, 112  
 부여부(扶餘府) 339  
 부여성 287, 331, 333, 336, 337, 339  
 부여의자(扶餘義慈) 141  
 부이강(富爾江) 264  
 북구관애 264  
 『북제서(北齊書)』 17  
 비담(毗曇) 245  
 비류수(沸流水) 268  
 비사성(卑沙城) 114, 210, 213, 217,  
 243, 313  
 비아랍성 306  
 入  
 사리불설(舍利弗設) 135  
 사발랴가한(沙鉢略可汗) 17, 22, 55  
 사이(四夷) 59  
 사패산보루 387  
 삭령산성 373, 381, 384  
 산상형 포곡식산성 309  
 산성방어강화설(山城防禦強化說) 153,  
 215  
 산성연결방어선설(山城連結防禦線說)  
 153, 214  
 산성연방선설(山城聯防線說) 333, 337  
 산성자산성 259, 266  
 산양독(山陽瀆) 126  
 산정식산성 309  
 살수(薩水) 100, 102, 321, 323  
 『삼국사기』 18, 31, 52, 149, 163,  
 166, 168, 170, 172, 187  
 『삼국유사』 172, 173, 178, 189  
 삼도보동산성 307  
 삼송산성 306  
 상리현장(相里玄獎) 139, 191, 204  
 새서(璽書) 26, 31~36  
 서돌궐 55, 136  
 서부대인(西部大人) 177  
 서안평(西安平) 314  
 『서역도기(西域圖記)』 60  
 서원랑(徐圓朗) 128  
 서해안교통로 356  
 석성(石城) 328  
 석호관애 262  
 선도해(先道解) 186

설거(薛舉) 128, 130, 134  
 설만철(薛萬徹) 242  
 설세웅(薛世雄) 105, 106, 113  
 설연타(薛延陀) 138, 164, 171, 203,  
     211, 234~236, 238, 239  
 설인귀(薛仁貴) 245, 331  
 성산산성(城山山城) 242  
 성자산산성 315~317, 333  
 성장랍자산성 264  
 세군(細群) 171, 176  
 소부손(所失孫) 243  
 소선(蕭銑) 129  
 소예(蕭銳) 205  
 소우(蕭瑀) 115  
 소자하(蘇子河) 265, 306  
 소정방 320, 321, 329  
 손대음(孫代音, 孫伐音) 222, 320  
 송료대평원 336  
 송악군 376  
 송화강 285, 340  
 쇠뇌 98, 116  
 수(成) 58, 310  
 수-돌궐 전쟁 58  
 수락산보루 387  
 수 문제(文帝) 22, 32, 45, 47, 54, 133  
 『수서(隋書)』 16, 61, 46, 53, 125  
 수성도군(遂城道軍) 84, 99  
 수암 233, 313  
 수양산성 276, 374  
 수 양제(煬帝) 44, 59, 60, 64, 70,  
     81, 82~84, 87, 91~94, 104~108,  
     110~115, 126, 129, 145, 154, 321  
 수예(收瘞)정책 152  
 수항사자(受降使者) 91, 93  
 숙신도군(肅愼道軍) 101  
 숙천읍성 276  
 습(霽) 14, 31, 50, 343  
 시필가한(始畢可汗) 115, 133~135  
 신개하(新開河) 264  
 『신당서(新唐書)』 170, 180, 202, 208  
 신라 62, 139, 142~149, 167, 185~  
     191, 206, 329  
 『신지비사(神誌秘詞)』 172  
 신성(新城) 84, 112, 213, 215, 218,  
     221, 226, 262, 269, 308, 326,  
     327, 330  
 신성도(新城道) 240  
 신성도군(新城道軍) 84  
 『신집(新集)』 66  
 실위(室韋) 14, 31  
 심광(沈光) 105  
 심동리산성 384  
 심양~본계로 311  
 12위(衛) 91, 92  
 쌍중방어장세설(雙重防禦障塞說) 333,  
     334

○

아차산 279, 387, 391

아파가한(阿波可汗) 22, 23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138

안시성 212, 225, 226, 228, 230, 232,  
233, 277, 311, 326

안시성전투 223, 232, 237

안시성주 185, 225

안주성 357, 358, 360

안학궁성 364, 366~368

안학궁지 272

알하하(嘎呀河) 284

압록강 97, 99, 102, 103, 278, 314

애하침고성 274, 314

야아홀(夜牙忽) 380

야아홀(耶耶忽) 380

양둔(楊屯) 103

양량(楊諒) 45

양맥(梁貊) 268, 305

양사도(梁師都) 128

양성(梁城) 306

양수하(凉水河) 264

양언광(梁彥光) 105

양유(楊侑) 129

양의신(楊義臣) 101, 105, 113

양정도(楊正道) 135

양주분지 279

양평도군(襄平道軍) 99

양현감(楊玄感) 109, 113, 127, 322

어구라(魚俱羅) 105

어구루 360

여라고성(汝羅故城) 27

여양(黎陽) 127

연개소문 151, 155, 169, 171, 174~  
177, 179, 181, 183, 185, 187~189,  
191~193, 205, 210, 224, 236, 329

연주성 311

연태조 176, 177

염비(閼毗) 113

염입덕(閼立德) 218, 220

영과포산성 264

영구(營口) 336, 341

영류왕 67, 124, 146, 149, 150, 155,  
156, 162, 167, 168, 176, 178, 180,  
181, 189, 191, 192

영릉진고성 301, 306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 228, 231~  
233, 278, 311

영양왕 34, 45, 47, 48, 52, 63, 66, 67

영주(營州) 23, 165, 191

영주(靈州) 239

영주도독부 192, 205, 240

영주총관부 29, 44, 49, 51, 52

예망(曳莽) 237

오골성(烏骨城) 99, 113, 222, 313

오녀산성 257, 259

오누이성 357, 374, 375

오두미교(五斗米教) 189

오두산성 372  
 오룡산성 265, 306  
 오아홀(烏阿忽) 380  
 옥저도군(沃沮道軍) 99, 100, 103  
 온가요산성 307  
 온달 18, 52  
 용천성 279, 374  
 와방구산성 264  
 와적층(瓦積層) 366  
 왕번나(王辯那) 49  
 왕세적(王世積) 45  
 왕세충(王世充) 128~131, 140, 143  
 왕인공(王仁恭) 96, 103, 105, 112  
 왕효린(王孝隣) 62  
 왜(倭) 63, 125, 139, 145, 190  
 외곽방어성 276  
 외차구하(外岔溝河) 264  
 요동군(遼東郡) 104, 110, 111  
 요동도군(遼東道軍) 99  
 요동성 84, 94~98, 103, 105, 107,  
 110, 112, 211~213, 216, 218, 219,  
 221, 222, 277, 311, 326, 328  
 요동성전투 97, 105, 218  
 요동성지 305, 310  
 요서(遼西) 14, 83, 104, 110  
 요서주랑(遼西走廊) 47  
 요서총관부 49  
 요수(遼水) 94, 95, 97, 101, 104, 112  
 요양~본계로 311  
 요택(遼澤) 213, 218, 234, 325  
 요하(遼河) 94, 99, 100  
 요하 남로 213  
 요하 북로 213  
 요하 중로 213  
 옥살(褥薩) 177, 229, 282, 312  
 용강산맥 265  
 용골산성 359  
 용담사산성 315  
 용담산성 285  
 용수산성 315, 317  
 용주(龍州) 340  
 우문개(宇文愷) 94  
 우문술(宇文述) 67, 102, 105, 113,  
 129, 321  
 우문씨(宇文氏) 101, 106  
 우문화급(宇文文化及) 115, 129, 130  
 우중문(于仲文) 67, 92, 99, 102, 321  
 우진달(牛進達) 241  
 운제(雲梯) 216, 220  
 월평동산성 389, 390  
 위두대형(位頭大兄) 184  
 위무사(慰撫使) 92  
 위성방어체계 275, 354~356  
 위예(韋藝) 29, 50, 54  
 위정(韋挺) 192, 205  
 위징(魏徵) 132  
 위충(韋沖) 44, 45, 50, 192  
 위패산성(魏霸山城) 242

- 유무주(劉武周) 128, 130, 134  
유성(柳城) 45, 47  
유원(遊元) 84  
유인전술 323  
〈유인원기공비(劉仁願紀功碑)〉 180  
유주(幽州) 22, 135, 136, 191, 208  
유흑달(劉黑闥) 130, 133  
육지명(陸知命) 92  
윤충 185  
을지문덕 66, 67, 92, 101, 102  
의목수고성 264  
의무려산(醫巫閭山) 27, 29, 83, 111  
의자왕 139, 185, 191, 194  
이경(李景) 113  
이궤(李軌) 128, 134  
이도구문관애 262  
이도종(李道宗) 191, 209, 213, 215, 219, 229  
이도하자구노성 265  
이리가(伊梨柯) 173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 173, 181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 180, 181  
이문진(李文真) 66  
이민(李敏) 84, 100, 106  
이밀(李密) 128, 129, 134  
이사파홀(泥沙波忽) 381  
이오(李敖) 271  
이오(伊倍) 64  
이자웅(李子雄) 105  
이(세)적(李勣, 李世勣) 137, 194, 204, 208, 212, 223, 330  
이정(李靖) 137  
〈이타인묘지명〉 284  
이훈(李渾) 101, 106  
『일본서기(日本書紀)』 169, 173, 180, 182, 185, 190  
임사홍(林士弘) 128  
임유관(臨渝關) 47, 94, 112, 235, 238  
임유진(臨渝鎭) 22  
임진강 279, 354  
임해둔(臨海頓) 97, 110  
입체적 군사방어체계 269  
ㅈ  
자안산성 265  
『자치통감(資治通鑑)』 180, 188, 202, 206  
장검(張儉) 191, 205, 210, 213, 217, 326  
장군예(張君乂) 219  
장단현(長湍縣) 381  
장량(張亮) 194, 207, 210, 212, 217  
장손무기(長孫無忌) 188, 209, 223, 229, 327  
장손사(長孫師) 151, 165  
장수산성 371, 373  
장수왕 355, 389  
장안성 273

- 장하(莊河) 242  
 저수량(楮遂良) 193, 204  
 적리성(積利城) 242, 328  
 『전당문(全唐文)』 226  
 전사단(戰士團) 269  
 전수호산성 264  
 전연(前燕) 259, 340  
 전연방어선(前沿防禦線) 276, 304,  
 312  
 전연방어체계 354, 356, 377, 385  
 정관율령(貞觀律令) 132  
 정명진(程名振) 217  
 정원숙(鄭元璠, 鄭天璠) 154, 192, 205  
 조선도군(朝鮮道軍) 105, 106, 113  
 조재(趙才) 105  
 졸본(卒本) 240, 256  
 중심방어체계 266, 276, 354, 355,  
 361, 377  
 주라후(周羅喉) 45  
 주몽(朱蒙) 220  
 주법상(周法尙) 104, 108, 109, 113  
 『주서(周書)』 16, 272  
 주자사(朱子奢) 139, 149, 167  
 주작봉 성벽 364  
 주필산전투 223, 226, 229, 233, 234  
 중간방어선설(中間防禦線說) 334, 338  
 중리제(中裏制) 183  
 중리태대형 183  
 중장기병(重裝騎兵) 89, 98, 116, 226  
 증지도군(增地道軍) 84, 99  
 진(鎭) 58, 83  
 진대덕(陳大德) 156, 155, 170, 189,  
 203, 324  
 진주가한(眞珠可汗) 235~237  
 진평왕 142, 148  
 집실사력(執失思力) 138, 236  
 집안분지(集安盆地) 256  
 ㅈ  
 창암성(棕嶺城) 330  
 창해도군(滄海道軍) 87, 105, 106,  
 109, 113  
 책봉(冊封) 28, 34, 139, 148  
 『책부원구(冊府元龜)』 95, 103, 152,  
 202, 206, 209  
 책성(柵城) 271  
 처라가한(處羅可汗) 135  
 처라후(處羅侯) 22  
 천가한(天可汗) 138, 164  
 <천남산묘지명> 171  
 <천남생묘지명> 172, 174  
 천리장성(千里長城) 151, 152, 166,  
 179, 214, 225, 287, 332  
 천산산맥 277, 305, 310  
 천자(天子) 6군 84, 87, 100  
 천존상(天尊像) 189  
 <천헌성묘지명> 172  
 철륵(鐵勒) 64, 137, 164

철배산성 265, 307, 308  
 철옹성 358, 360  
 청룡산성 275, 358, 361  
 청목령 376  
 청암동(리)토성 272, 368  
 청야수성전(淸野守城戰) 224, 323  
 청하(淸河) 262  
 청호동토성 368  
 최진보산성 302, 315, 316  
 추군(麤群) 171, 176  
 추모왕 257~259  
 출복(出伏) 25  
 충차(衝車) 216, 220  
 치악산성 377, 378  
 칠개정자관애 264  
 칠중성(七重城) 167  
 칠중성전투 167, 169  
  
**ㄷ**  
 타발가한(佗鉢可汗) 15, 22, 55, 57  
 탁군(涿郡) 59, 61, 82, 83, 87, 94,  
 109, 112, 114, 126  
 탑산산성 311  
 태대대로(太大對盧) 184  
 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 184  
 태대형(太大兄) 183  
 태막리지(太莫離支) 184  
 태백산성 276, 377, 385  
 태왕(太王) 68

태자성 266, 306  
 태자하(太子河) 266, 305  
 토둔(吐屯) 24, 58  
 토산(土山) 228~231  
 토심석축공법(土芯石築工法) 354, 358,  
 360, 362, 364  
 토욕훈(吐谷渾) 15, 60, 64, 125  
 통엽호가한(統葉護可汗) 136  
 『통전(通典)』 67  
 통정진(通定鎭) 104, 111, 213, 325

**표**

파리성(頗利城) 241  
 팔곤성 376  
 패왕조산성 264  
 평산성(平山城) 275  
 평양성 84, 88, 98, 101~103, 105,  
 108, 109, 113, 271, 331, 363, 364  
 평양 천도 270  
 평원대회전 328  
 평원왕 32, 52, 67  
 평원토벽설(平原土壁說) 153, 215, 337  
 평지성 301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어체계 256, 272  
 평지형 포곡식산성 309  
 포곡식산성 267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284  
 포차(砲車) 216, 220, 221  
 풍천성 279

ㅎ

- 하고성자고성 258  
하보춘산성 266  
하조(何稠) 94  
하주(夏州) 235  
『한원(翰苑)』 170, 171, 278, 324  
해(奚) 14, 31, 50, 343  
해란강(海蘭江) 284  
해룡천산성(海龍川山城) 231, 233  
해성~수암로 278, 311  
해안방어체계 279  
험독도군(險瀆道軍) 84  
현도군(玄菟郡) 87, 262  
현도도군(玄菟道軍) 99  
현도성(玄菟城) 213, 215, 216, 226  
현무문(玄武門)의 정변 130, 137  
혜일(惠日) 144  
혜자(惠慈) 63  
호로고루 380, 381, 385  
호산산성 266, 314  
호삼성(胡三省) 88, 97, 110  
훈강 우안의 호형·중심방어체계 266  
훈춘분지(暉春盆地) 284  
훈춘하(暉春河) 284  
훈하(淸河) 265, 305, 307  
홀본(忽本) 257, 258  
환권(桓權) 154, 168, 203  
환도성(丸都城) 259  
환인분지(桓仁盆地) 256  
황룡부(黃龍府) 340  
황룡산성 275, 369  
황주성 275, 370  
회원진(懷遠鎭) 58, 59, 83, 87, 94,  
99, 100, 102, 110, 111, 114, 188,  
213, 318, 322, 325  
효과(驍果) 107  
휘발하(輝發河) 265, 285  
휴류산성 276, 375  
흑구산성 264  
흘골산성 275, 358, 369  
힐리가한(頡利可汗) 131, 135, 137,  
164



고구려통사 6

##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수·당 전쟁

초판 1쇄 인쇄 2023년 11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23년 11월 30일

역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지은이 김현숙, 이정빈, 정동민, 이성제, 정호섭, 임기환, 여호규, 심광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BN 979-11-7161-018-1 94910

978-89-6187-595-0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